



내 마음속의 기쁨과 희망

이름과 성을
이름과 성을

| 책을 펴 내면서 |

올해는 광복 60주년이자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5년간의 발자취는 어느새 우리 곁에 통일의 희망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고, 10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남과 북을 왕래하였습니다. 북녘땅 개성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와 통일의 여망을 담아 냄비를 만들고, 신발과 옷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의 그 날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통일부는 벌써 10년째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려 100만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이들이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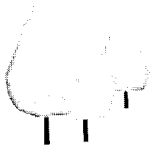
넌 통일의 소망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작품을 다 수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통일에 대한 진지한 성찰, 뜨거운 열망, 따뜻한 사랑이 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맘껏 젊음을 펼치게 될 통일된 조국의 미래가 무한히 밝아움을 느낍니다.

이 작은 책 한권이 통일의 꿈을 담은 그릇이 되고, 미래를 여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9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신 언 상



차례



서울특별시

- 통일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 11
- 통일의 빛방울 되어 / 14
- 감금의 역사, 올드보이, 북한, 그리고 나 / 17
- 내일아침이면 통일 / 20
- 통일의 그날까지 / 22
- 발 밑에 숨어있는 통일 / 25
- 금강산을 다녀와서 / 28
- 조부여 새가 되세요 / 31
- 통일동산에서 바라본 북녘 땅 / 35



부산광역시

- 통일을 향하여 / 41
-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지세 / 43
- 밧줄이 풀리는 어느날 / 46
- 형, 왜 이제 왔어? / 49
- 통일꽃 / 52
- 추억을 더듬는 버릇 / 56
- 북한 어린이들에게 / 59
- 한 가지의 행복 / 62
- 넓은 철조망과 녹슬은 기찻길 / 65



인천광역시

- 평화통일의 그날 / 71
-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 74
- 통일의 꽃 / 76
- 눈물로 기다리는 간절한 통일 / 79
- 북한건문록 / 82
- 백두대간 민족의 피가 흐른다. / 85
- 절절히 느끼는 고통과 환희 / 88
- 같은 흐름으로 / 90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93



대구광역시

- 허리 잘린 호랑이의 포효 / 97
- 통일의 열쇠 / 100
- 한 송이의 무궁화 / 104
- 통일의 열쇠 / 107
- 1+1=1 / 109
- 하나의 꿈 / 113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 116
- 반 세기 러리 병신 / 118
- 통일의 꿈 / 121



광주광역시

- 한민족 한마음 / 127
- 아직 못다한 이야기 / 129
- 실향, 그 통일의 통증 / 132
- 통일을 기다리며 / 134
- 손 닿을 곳의 통일 / 136
- 진정한 '대한민국' / 138
- “나는 통일의
작은 물방울이 될테야” / 141
- 할머니의 바람 / 143
- 할머니의 이야기 / 145



대전광역시

- 복숭아 / 151
- 분꽃 / 153
-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156
- 평양성을 향하여 / 159
- 잊을 수 없는 우리민족의
상처 6·25전쟁 / 162
- 어머님 전상서 / 165
- 세계를 향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 168
- 저 먼 하늘에는 / 171
- 평화통일, 우리 민족의 과제 / 174



울산광역시

- 의할아버지의 소원 / 179
- 내 마음속의 작은 소망 / 181
- 하나되어 피워내는 꽃 / 184
- 다시 모일 한가족 / 187
- 통일을 위한 기도 / 189
- 아우야 거기요
대한민국이란다. / 192
- 열째안아야 할 사람들 / 195
- 통일이 되면 / 197
- 마음을 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 / 200



경기도

- 새가 되어
날고 싶은 할아버지 / 205
- 한나라의 하루 / 208
- 간나새끼 / 212
- 또다른 우리 / 215
-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 217
- 금강산을 다녀와서 / 220
- 연경이의 숙제 / 224
-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선 / 227
- 어느 여름날의 기억 / 230

* 강원도

- 모래성 / 235
- 눈물 젖은 두만강 / 237
- 오래된 꿈 / 240
- 내 동포야! / 242
- “우리 다시 만납시다!” / 244
- 나는 못난이 / 246
- 두 손 꼭 잡고 달려보자 / 249
- 소년, 그리고 마음의 통일 / 252
- 외할아버지를 추모하며 / 255

* 충청남도

- 박음질 하듯이 / 289
- 메이드 인 개성 / 292
- 미완성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 296
- 멤버의 기도 / 299
- 가나다라마바사
다시 처음부터 / 302
- 천상의
비눗방울을 위하여! / 305
- 통일 줄넘기 / 308
- 그리운 북녘 땅 밟아 볼
그날을 기다리며 / 311
- 형제, 자매의 땅 한반도 / 313

* 충청북도

- 우리 모두 하나되어 / 261
- 군화 속에 묻힌
꿈을 위하여 / 264
- 그날이 오면 / 266
- 서울→기성→사리원행열차 / 270
- 허리 잘리지 않은
호랑이를 그리며 / 272
- 통일의 합성 / 275
- 이름 모를 나의 친구에게 / 277
- 당연하게 완성을 염원한다. / 280
- 통일을 하지 말자고? / 283

* 전라북도

- 호국원의 비석을 닦으며 / 321
-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북녘의 친구에게 / 324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 327
-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 330
- 북한이 다닌 북측이라면 / 333
- 통일에 대한 소망 / 337
- 증조할머니가 기다리는 것 / 340
- 외할머니의 슬픔 / 343
-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질문 / 347

* 전라남도

- 호랑이의 허리가 아파요. / 353
- 나의 반쪽, 나의 사랑 북한 / 356
- 통일에 앞서 우리가 할 일 / 361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364
-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어서 서로에게 고통일 뿐일지라도 / 367
- 한라에서 백두까지
- 우리는 하나 / 370
- 가고 싶은 금강산 / 373
- 그 가을의 백양사 / 376
- 새벽을 기다리며 / 379

* 경상남도

- 노래 / 421
- 한걸음 다가선 통일 꿈 / 423
- 육로 / 426
- 통일을 노래하며 / 428
- 꿈에서 현실로 / 430
- 사람과 사람의 길 / 433
- 비둘기의 노래 / 436
- 꿈 / 438
- 통일의 출발점, 육로 / 440

* 경상북도

- 전적기념관에서 얻은 교훈 / 385
- '철조망 옆 작은 민들레를 꿈꾸며...' / 388
- 금강산 비빔밥 / 393
- 호국원에서 생겨난 통일을 위한 나의 다짐 / 396
- 할머니의 비밀상자 / 399
- 통일 열차 / 404
- 새끼손가락 걸며 꼭꼭 약속해! / 408
- 랭면과 왕만두 / 412
- 민족통일의 당위성 / 415

* 제주도

-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 / 447
- 하나되어 21세기 으뜸 국가로... / 450
- 손을 잡다 / 453
- 금강산을 다녀와서 / 456
- 모두가 하나되어 / 458
- 아름다운 씨앗 / 461
- 대문앞에서의 깨달음 / 464
- 역사는 흐른다. / 467
- 시선의 끝 / 470

- 통일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 11
- 통일의 빛방울 되어 / 14
- 감금의 역사, 올드보이,
북한, 그리고 나 / 17
- 내일아침이면 통일 / 20
- 통일의 그날까지 / 22
- 발 밑에 숨어있는 통일 / 25
- 금강산을 다녀와서 / 28
- 조부여 새가 되세요 / 31
- 통일동산에서 바라본 북녘 땅 / 35

서울 특별시

통일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월이면 신록속에서 소곤소곤 내 귓전에 다가온다.

나는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 시간에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다. 첫 시간 선생님을 만나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저렇게 나이든 선생님이 어떻게 바이올린을 가르치실까? 실망 반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 선생님의 바이올린 소리는 마음속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이 깊은 소리를 가지고 계셨다. 차근차근 할아버지 선생님과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어떤 슬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끔씩 어두운 얼굴로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계셨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담배 냄새가 싫었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시는 선생님이 싫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너무 아름답고 깊은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좋아지게 되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우리가 연주를 하다가 힘들어 하거나 피를 부리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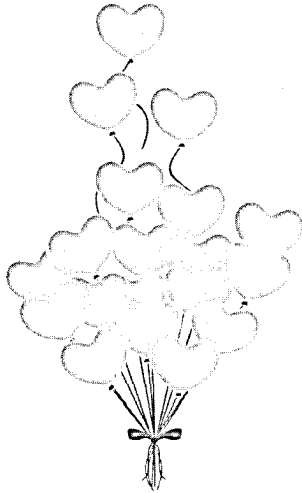
“나는 어렸을 적 6·25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통에 사람들을 따라나와 전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왔단다. 그때 가족을 이북에 두고 나와 만날 수도 없구나... 너희들은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바이올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선생님의 모습이 그리움에 젖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기침도 콜록콜록 하고 힘 약한 72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아마 우리 보다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반세기가 흘러버린 것이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 얼마나 많이 고향하늘이 그리울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가슴 조이며 사는 사람이 어디 바이올린 선생님뿐일 텐가? 더욱 더 통일의 간절함이 다가온다. 나는 몇 년 전 TV를 통해 남과 북의 대통령이 만나 통일의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그때는 이제 곧 우리나라도 통일이구나! 라는 희망에 들뜨고 설레었다. 이제 곧 북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지? 백두산에도 놀러갈 수 있겠지? 라는 꿈을 꾸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 진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일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빨리 오라고 손짓 하는 것만 같다.

나는 얼마 전 금강산에 다녀왔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금강산이었기에 꿈에 부풀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무장지대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지났다. 우리나라에 가는 것인데도 검사를 다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금강산은 훌륭한 북한의 유산이었다. 6·25전쟁은 한반도를 갈라놓고 말았지만 금강산에 다녀온 후 확실해졌다. 북한 사람들도 통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통일이 안 되어 내 가족들을 못보고 죽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금강산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왔다. 언젠가 TV에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죽은 오빠를 찾고 울부짖는 여동생,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앞에 절하며 우는 다 늙어 버린 아들. 우리가족은 그 장면을 보고 평평울었던 적이 있다. 어서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그래야 이산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이 바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철조망도 벽도 아닌 막대기 하나로 한반도가 갈라져 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과학기술

인력이 더해져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남
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분단된 나라라
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막대기도 하나보다 둘이
합해져야 더 강해진다. 이제 우리도 둘보다 강한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왔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통일의 그날을
매일매일 꿈꾸어 볼 것이다. 기차를 타고 북을 지나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을 생각하며 6월이면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통일을 염원하던 할아버지
선생님이 보고 싶을 뿐이다.



통일의 빛방을 되어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월아 가지마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 날까지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뒤편까지 한 해에 두 살씩 먹으리”

북한 오영재 시인의 “어머니” 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우리 집에 이 시로 만들어진 음악회 테이프가 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많아 즐겨 듣는 편인데 흥겹게 따라 부르실 때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 몇 년 전에 돌아 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산가족이 아니지만 나는 이 노래처럼 느껴진다. 문득 오영재 시인이 어머니를 만났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하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만났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동안 몇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이산가족 중 극히 일부만 단 한번씩 만났을 뿐이다. 상설면회소도 없으니 다시 이별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산가족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한다. 더 이상의 고통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올해는 6·15 공동선언 5주년이다. 2000년에 남북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기뻐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등 남북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통일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남북한 간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버지께서 평양에서 열리는 6·15 5주년 기념축전에 참석하게 되셨다. 6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셨다. 참 반갑고 호기심 생기는 소식이였다.

내가 만약 북한에 가게 된다면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고 싶고 그곳 친구들과 고구려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방북일정에 들어있는 옥류관 냉면이 먹고 싶어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한이 방북단 인원을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그런 요구를 하는 북한이 이상하고 아버지께서 방북을 하지 못하실 지도 몰라 그와 관련된 뉴스에 더욱 관심이 갔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이 요즘 들어 부쩍 더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평양축전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느끼는 전쟁의 공포가 훨씬 더 크다고 보도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 민족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보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많이 느꼈다.

남북은 물론이고 주변국가들과도 대화와 교류를 많이 늘려 신뢰를 쌓아야 우리의 손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끊임없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빗방울 하나로 보면 비록 작디작은 물방울 하나일 뿐이지만 크게 보면 빗방울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의 빗방울이 되는 자세로 통일을 이룩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달 전쯤 신문에서 평양 대동강변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빵을 만들어내는 빵공장이 들어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남쪽에서는 기계설비와 원 재료를 대고 북쪽에서는 건물과 인력을 댔다고 했다. 수많은 후원자들이 한 달에 오천원씩 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적은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으 니 큰 일을 해내고 있었다.

나와 동생도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매달 용돈에서 오천 원씩 떼어 후원자 로 가입했다. 적은 돈이지만 오천 원이면 빵 3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영양실조로 눈방울이 더욱 커보이는 북한어린이들이 이 빵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그러나 그런 작은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조차도 소수이고 훨씬 더 많은 어 린이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는 북한을 도와주 는 것을 보고 '퍼주기' 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자신의 부모형제가 그렇게 굶 주리고 있다면 어떻게라도 도우려고 애쓸 것이다. 지금 도울 수 있다면 돕 는 것이 통일이 되어 함께 살 때에도 떳떳하고 통일비용도 보다 적게 들 것 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니 백지장을 서로 잡아당 기면 찢어지고 말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야만 이산의 아픈 상처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의 빗방울이 되어 바위처럼 단단한 통일의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자.

남과 북의 빗방울이 합쳐 큰 강을 이루고 흘러 통일의 바다에서 만나게 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감금의역사, 올드보이, 북한, 그리고 나

1. 영화에서 쉬는 나에게, 영화처럼 찾아온 낯선 의식.

영화를 봤다. 만화 한 컷 같은 인생이 싫어서였다. 속도에 미쳐가는 세상이 두려웠고, 거기서 헤매는 나도 두려웠다. 몰입의 대상이 필요했다. '올드보이'가 좋은 몰입의 대상이 되어주었다.

한 영화를 겪은 후엔 반드시 무언가 남는다. '올드보이'도 그런 영화 중 하나였다. 이런 대사가 있었다. "모래알이든 바윗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모래알 같은 영화든 바윗덩어리 같은 영화든 모두 내 의식 속에 가라앉는다. 대개 그 침잠은 수직으로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달랐다. 잔잔한 호숫가 위에 물 한 방울 떨어져 타원을 그리듯, 이전과는 다른 '침잠'이었다. 낯선 의식! 낯선 의식이 내게 들어온 것이다. 단지 스크린 앞에 찌그러져 쉬고 있었을 뿐인데..., 그 낯선 의식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다.

2. 감금, 동질성

"누구야, 너 누구야"

"나요, 나는 일종의 학자죠. 전공은 당신이고..., 나는 오대수 권위자예요. 하지만 내가 '누군' 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잘 생각해

파요. 인생을 통째로 복습 하는 거야”

“거기서 나한테 최면을 걸었지!”

올드보이와 북한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오늘날 대충 수습하고 살자 해서 이름하여 오대수는 15년간 감금을 당한다. 그는 자신이 감금을 ‘왜’ 당해야 하는지 모른다. 나는 ‘감금’에 주목했다. ‘감금’이란 단에서 혈육의 정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대수가 15년이라면 우리는 50년을 감금의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톱니바퀴는 또 한번 맞물린다. 오대수는 ‘감금’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탄다. 결국 그로 하여금 ‘장도리’를 들게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방안에 갇혀있었다. 그래서 “이상한 복수심”이 우리를 지배한다. 말 그대로 이상한 복수심이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단지 낯설어서 얼떨결에 생겨버린 감정, 바로..., 바로 남과 북의 경우다. 서로가 ‘장도리’를 든 채 우두커니 서있다. 그동안 최면에 걸려 있었다.

3. 올드보이, 북한 그리고 나.

올드보이에 이런 장면이 있다. 대수와 미도가 누군가에게 메모지를 건넨다. 그 종이에 이렇게 글이 쓰여있다.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 아닌가 싶다. 능동적이지 못한 남북관계, 보다 주체적이지 못한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경구가 아닐까?

나는 의심한다. 진행중인 아니면 진행될 예정인 모든 남북관계를 의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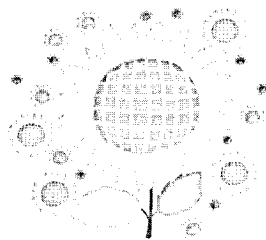
기성세대만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류를 보면 항상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없었다. 청소년이 없는 교류는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어쩌면 진정한 교류는 이들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 이들은 ‘감금’을 당하지 않았다. 아니 엄격히 말하자면, 6평 남짓한 감금방이 아닌 밖을 향하여 있는 복도 쪽에 이들이 있다. 그래서 몇 걸음만 걸으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 머

지 않아 그 문도 열고 나갈 것이다. 기성세대가 그 문을 잠그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영화를 혼자 보는데 익숙하다. 내 빈 곳을 간척하며 '몰입'을 즐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과 달리 영화는 공동의 예술이다. 출생 자체가 공동으로 이뤄진다. 다수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교감을 한다. 이는 '대화'와도 같다. 그동안 나는 기형적으로 나 혼자 대화를 즐긴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동안 서로는 '기형적 대화'에만 일관했었다.

“이봐요, 이봐요, 얘기좀 해줘요. 내보내 달라고 안할 테니까, 여기 왜 들어왔는지만 알려줘요, 아저씨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데? 한 달? 두 달?”

오대수가 15년을 감금당하게 될 것을 몰랐듯, 우리도 몰랐다. 대화가 필요하다 진실한 대화, 어쩌면 '영화'를 통해 가능 할지 모르겠다. 북한의 학생들과 영화 한 편 같이 보기를 희망한다. 어려울까?



내일 아침이면 통일

●● 나는 교과서 읽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과서는 읽기 책과 도덕 책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책을 받으면 도덕 책을 먼저 읽게 된다. 하지만 도덕 책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통일에 대한 것이다. 도덕 책을 읽다 보면 통일에 관한 내용이 어느 단원에 나올지 다 외울 정도이다. 역시..., 그 정도로 통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다.

나는 어렸을 적에 TV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얼굴을 만지며 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다.

6·25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떨어져야 한다는 슬픈 시련으로 인해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흘리시던 눈물은 분노와 슬픔 따위와는 전혀 다른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그 자리에 서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민족이기에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행복',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잘 지냈으나,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하던 그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그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다. 난 그런 것들을 보며 작은 소망이 생겨났었다. 그것은 북한아이를 만나보고 싶은 것이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른 뒤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식을 치른 뒤 몇 일후 입학식이 있었

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을 두드리며 전학생을 소개하셨다.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그 전학생에게 이어졌었다. 그 아이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고 손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말투며 행동이며... , 알고보니 그 아인 북한에서 온 아이였다. 난 정말 놀랍고 신기하였다.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북한아이를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난 평소상의 내 모습대로 그 아이에게 “안녕?” 이라고 말을 걸었다. 그 아이도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안녕.” 짧을 대화였지만 기뻐다. 북한아이와 애길 하다니... , 그리고 내 친구와 그 애의 손을 잡은 적이 있었다. 따뜻하였다. 예전에도 영어 학원에서 외국인과 악수를 하며 손을 잡아 본 적이 있었다. 역시 어른이라 그런지 큰 키에 30대 아저씨 같지 않고 청년같은 튼튼한 몸이었다. 그 북한아이와 외국인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은 나의 친한 친구의 손을 잡은 듯 하였다. 웬지 마음 한 구석이 방망이 쳐내듯 아파왔다. 한 민족인데 우린 그동안 왜 만나지 못했을까? 한 민족이면서 나와는 다른 생활을 해 왔겠지? 하며 생각하니 그 애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절로 아파왔다.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남한애들과 싸우지 않고 웃으며 잘 지내는 것을 보며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하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통일이란 말은 점점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만 돌아 다니고 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하였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행동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국기가 다르고 서로 헤어져 지내면서도 천년 전부터 하나였기에 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을 돕고 한시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음만이 아닌 손을 잡고 함께 발을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눈을 뜬 바로 다음날이었음 좋겠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그날까지 난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 오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니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북한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나는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지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아주 평범하게 자랐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철없는 아이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학교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배워왔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매일 같이 들어왔다. 이런 마음 가짐으로 자라던 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한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정부에서 각 가정에 매달 나누어 주던 배급이 뜸해지다가 주지 않기로 시작한 것이다. 배급은 공동생산 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매달 주는 쌀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배급을 주지 않자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루 세끼 거르지 않기 위해 매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만 했다.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등 모두 먹고 살기에 바빴다. 목고 살기 힘든 것은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트럭기사였던 아빠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배급을 잘 주지 않자 직장 일을 그만 두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장사는 하루 운수였기 때문에 돈 못 버는 날이 다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빠와 엄마가 긴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 그 다음날 우리 가족은 긴 여행 길에 나섰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멀고도 험한 여행을 말이다.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따라 나섰다. 우리 가족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중국의 연변이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닌 중국인 것이다. 엄마 아빠에게 여기는 왜 왔는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 아빠도 정신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연변에서 약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학교은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인지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중국어가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었다. 중국어를 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중국어를 깨우치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가고 있는 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왔다. 변화라기 보다는 불행에 가까웠다.

엄마 아빠가 중국 경찰에 잡혀 북한으로 가신 것이다. 혼자서 중국에 남게 된 나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혼자서 여기에서 살아 갈 수 있는지, 엄마 아빠처럼 잡혀 가지는 않을지, 두려웠다.

중국에서 살기도 북한에 가서 살기도 싫었다. 중국에서 살면 평생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으며 살아야 했고 북한에 가면 나라를 버린 죄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했다.

이 두 길 중 어느 하나도 선택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건 북한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다. 한국에 가면 국민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향했다. 또다시 긴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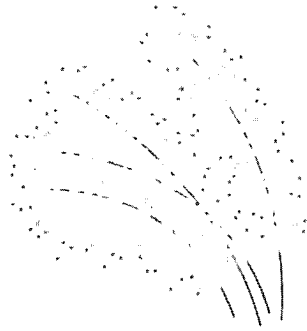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긴 여행을 말이다. 멀고 길고도 긴 여행 끝에 한국이라는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지 살아 온 환경과는 아주 많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정착하고 있다.

지금 나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조금씩 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나의 꿈은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 시키는 것이다. 하루 빨리 통일을 하여 나와 같은 이산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 부모 자식간의 생 이별을 그 누가 이해 할수 있겠는가?

직접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이러한 꿈이 있기에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다. 북한에 계시는 엄마 아빠도 나를 응원해 주실 것이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발 밑에 숨어있는 통일

●● 남북 간의 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이점을 생각 해보자. 요즘 현대인들, 좀더 깊게 얘기 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을까? 내 생각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란 단어에조차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 같다. 6·25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고 그 시대 이산가족도 아니며, 배고프며 가난했던 전쟁 후의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무디게 생각하는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도 없고 내게 피해가 온다면 모르지만 이익도 없기 때문에 통일이야 어찌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 등 언론에서 설새없이 북한경제, 6자 회담과 북한 핵문제, 남북한 협상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과 나의 관계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 통일이란 문제를 계속 외면해도 되는걸까? 라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깨달은 것과 정말 진정한 통일에 대해 나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통일은 꼭 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 하기보단 나는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학교 선생님께서 읽어보라고 주신 종이에에는 통일글짓기에 대한 안내였다. <주변에서 경험한 남북분단의 고통 및 ...>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잊고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는 내가 제작년 시골로 내려갔을 때 알게 된 사람이었다. 친할아버지의 성묘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입구 한 커다란 돌덩이 위에 걸터 앉으시고는 멀리 먼 산만 보고 있던 분이셨다. 나는 별거 아니게 여기고는 할머니 댁으로 다시 돌아와버렸다. 그리곤 한참 뒤, 시끌벅적 저녁을 다 먹고 할머니의 술심부름으로 슈퍼마켓을 가려는데 아까 낮에 본 그 할아버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심부름을 마치고 천천히 돌아오는 길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하셨다. 나는 은근히 궁금해져서 친할머니께 조용히 여쭙보았다. 난 녀이 나간 그냥 어느 늙은 노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의 얘기를 해주셨다. “1950년에 전쟁나서 짐싸들고 도망오는디, 열 살난 사내아를 잃어버렸디야, 여그 곡성이 고모네 집잉께 그리 간다고 말을 해놔드라고 하믄서 저렇고 새벽부터 하루정일 지키고 기다린단다잉. 열 살짜리 핏덩이가 요 먼곳을 우째 안다고…”

웬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에 나올법한 여러모로 안된 그 할아버지의 속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싸했다. 할머니는 말 나온 김에 전이라도 갖다 드리라면서 부침개와 동동주를 싸주시고는 건네 주셨다.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고맙다는 뜻으로 지긋이 미소 지으시던 할아버지의 슬픈 눈을, 마르고 주글주글한 손으로 부침개를 집에 드시던 쓸쓸한 뒷모습을, 그리고 난 후 다음 방학 때도 친할머니댁을 찾아 갔었지만 한번만 더 뵈 뒤 이후로는 볼 수 없었다. 난 이사 가셨나 보다, 뭐 오늘은 까먹으셨나 보다고 무심하게 넘겨버렸다. 그리고 이 통일 글짓기 대회 덕분에 기억이 났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 다음해 초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결국 아들 분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다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한다. 통일…, 할아버지는 통일이 되어서 아들 분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오는 장면을 꿈꾸셨을까?

통일은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것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점들을 떠나서 정말 통일이란 것이 좋 되었으면 하는 작고 진실한 바람이 있다. 밤이고 낮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마을입구에서 지팡이를 손에 쥐신 채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시던 할아버지가 결국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

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 아들을, 딸을,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자매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북한 핵문제도 문제고 북한 경제 살리기도 문제겠지만 가장 절실히 통일을 바라는 이분들의 바람을 양지해 두고 제일 먼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간 기다려온 50여 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해 주듯이.

요즘 사회는 너무 각박하다.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사이로 통일염원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울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나의 임무고 또 우리의 임무일 것이다. 그러곤 그 통일염원이란 희망의 꽃이 피는 것은 개개인 마음에 정비례하여 쑥쑥 자랄테니까 아마 그 꽃이 만발할 때면 통일은 이미 바로 눈앞에 와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할아버지의 쓸쓸한 눈을 보고 조금씩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나처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도 눈을 뜨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신 그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날을 바란다. 통일은 통일전망대에서 보는 북한만큼 가까운 거라고, 발만 들춰보면 있는 거라고, 멀고 어렵지 않다고 외쳐본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쉽게 얘기해 주려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길에 조금 힘을 실었길 바라면서...



금강산을 다녀와서

●● 남북 간의 나는 얼마전 금강산을 다녀왔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나는 거대한 장벽이나 겹겹이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어 휴전선을 통과하는데 삼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가벼운 철조망이 휴전선의 전부인 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철조망과 철문이 7천만 동포를 갈라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단의 현실이 마치 장난인 듯 여겨졌다.

북한출입국관리소를 지날 때 북한군이 우리들을 검문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친절함 덕분에 곧 괜찮아졌다. 이런 북한군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문득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자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말이다. 이렇듯, 북한과 우리도 서로 싸운 것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누구든지 앞서 화해한다면 다시 좋은 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어린이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학교에서 방금 돌아온 듯, 가방을 멘 채 소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부모님의 어린시절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남한의 인기있는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고, 나 또한 그 친구들로부터 북한친구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 지금은 그렇

게 할 수 없지만 머지않은 날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북한에 가면 꼭 먹게 되리라 기대했던 냉면을 먹지 못해서 아쉬웠다. 남측안내원의 설명으로는 북한 상류층 주민이 먹는다든 음식은 먹었는데, 상류층 주민이 먹는다기에는 너무 소박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음식으로 정이 난다는 말이있다. 우리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솔직히 정이 나지 않았다. 남한에는 피자, 콜라와 같은 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끼니조차 거르고 있을 북한친구들을 생각하니 이런 내 생각도 부끄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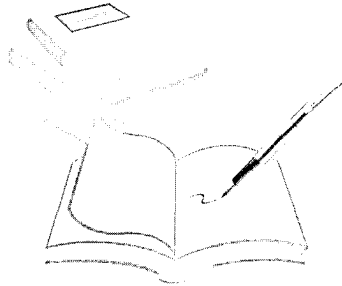
봄에 본 금강산은 정말 아름다웠다. 손으로 떠서 먹어도 될 만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덕분에 그 피곤함도 덜한 것 같았다. 그런데 산 곳곳의 큰 바위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등과 같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글씨를 새겨놓아야 충성심이 생겨난다고 믿는가 싶은 의문이 들며 눈살이 찌푸려졌다. 또한 북측안내원의 말투에서도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이 느껴졌다.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자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던 내 생각도 조금 흔들렸다.

2박3일의 금강산여행은 통일에 대해 막연했던 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해주었다.

첫째, 평화적인 통일을 하되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김정일, 김일성만을 위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남한의 민주사상이 만나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준 뒤 통일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이루기 전이라도 인륜적인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단군의 자손인 우리는 56년간 벌어진 문화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대구에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태극기를 단 가구가 몇 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여 '통일을 위한 글짓기 대회'가 아니라 '통일의 기쁨을 위한 글짓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특급열차가 운행되리라는 부푼 꿈을 가져본다.



조부여

새가 되세요.

●● 수면이 하늘을 비춘다. 바람이 스치는 손짓에 하늘이 작게 일렁인다. 하늘과 하늘, 그 사이에 육안으로도 확인 되는 푸른 땅이 하나 있었다. 나를 너무나도 많이 울렸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땅이 거기 있었다. 전망대에 올라서 난생 처음으로 보았던 그 땅의 이름. 그것은 '이북'이었다. '저기가…….'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나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차 있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무얼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뜬 마음을 더더욱 부풀려 놓았다. 하지만 막상 안개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그 푸른 땅을 마주한 순간, 나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을 뻔 하였다.

피가 요동치고 있었다. 나의 핏줄이 나의 심장을 자꾸만 아리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땅. 온 국민들이 그렇게 부르는 땅이었지만 더더욱 특별하고, 뜻깊은며, 가보지 않았음에도 그리운 곳이었다.

요즈음의 그 땅, 즉 북의 핵보유 발표와 또한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흐름에 가슴 졸인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온 국민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사람들'은 더더욱 걱정에 잠 못 이루었리라. 일명 '이산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지금 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통일을 외치고 있다.

그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그러한 이산가족들의 틈에 끼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건 지난 2000

년 8월 15일이었다.

그때, 텔레비전 모든 채널에서는 기쁨의 탄성, 감동에 복받친 채널에서는 기쁨의 탄성, 감동에 복받친 오열과 포옹의 장면이 펼쳐졌더랬다. 일명 “이산가족상봉”이라 불리웠던 그때 그날. 나는 그때 고작 아홉해밖에 살지 않았던 어린 아이였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이 남북 사람들의 만남이며, 장난을 치거나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계신 어머니께로 다가섰던 이유.

그것은 어머니의 눈가에 방울이 맺힌 눈물의 의미가 궁금해서였다. 한 민족이기에 공감하며 숙연하게 지켜보는 것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게나 아픈 눈을 하시곤 나의 일마냥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어렸던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야.”

“..”

“엄! 마!”

그렇게 두어번 정도 부른 뒤에야 어머니께서는 나를 뒤돌아 보시곤 가만히 나를 들어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으셨다. 그리고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천천히 꿈결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너희 외할머니께선...”으로 시작한 어머니의 말씀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나의 외할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셨다.

한 집안의 외아들이셨던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때는 시대가 시대였든지라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북의 정부에서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시며 월남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신 뒤, 눈을 돌려보았을 때 이미 나라의 허리춤에 차가운 철조망이 쳐진 뒤였다고 한다.

그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향이 아닌 이곳에, 차디찬 몸을 뉘이실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곳을 너무나도 그리워 하신 나머지 외할아버지께서는 하늘이나 먼 곳을 응시하는 일이 잦으셨다고 한다. 그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그 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머무셨을까를 생각하니, 내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돌아가고픈 데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의 핏줄에도 전해지는 것 같아 자꾸만, 가슴이 아려왔다

이것은 나의 외할아버지만의 아픔이 아니다. 당신께서 아프셨듯이, 수십만의 이산가족들이 저미는 가슴을 감싸안고 아픈 밤을 지새우고 있다. 남과 북은 한 뿌리이다. 한 곳으로부터 갈라져나온 한 민족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데, 하물며 한 핏줄인 가족이라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나의 외조부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렇다면 살아 계신 분들이라도 하루 빨리 고향의 흙내음을 맡을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온 국민의 단 하나 뿐인 바람. 수십 년의 갈망과 눈물들을 이제는 떨쳐버리자.

앞을보자.

그리고 나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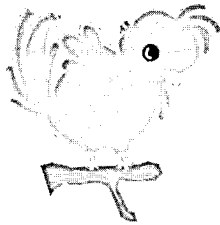
그곳에서 수많은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볼수 있다면 우리는 틀리지 않은 것이다.

마음을 향해, 빛을 향해,

통일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온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온다. 작은 새의 날갯짓에서 시작된 바람이, 이곳을 바꾸어 놓으리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그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그 날갯짓이 되겠다.

“조부여, 새가 되세요. 나눌 수 없는 하늘에 환을 그리며 자유로이 날아,
언젠가 이 땅이 하늘과 같아지는 날 북녘의 저 땅에 안식하실 수 있도록.
그때, 그 땅에.”



통일동산에서 바라본 북한땅

●● 지난 4월 5일, 우리 가족은 한식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해 할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신 통일동산에 갔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통일동산에는 무덤들이 정말 많았다. 얼핏 보아도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듯 했다. 차례를 지내고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 통일동산이 특별히 자연 경관이 빼어나거나 명당인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궁금증은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

“용민아, 저기 강 건너 보이는 땅이 어딘지 아니? 바로 북한이란다. 저 강만 건너면 북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지.”

차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강 건너 북한땅이 보였다. 그러나 그 강은 건너지 못하도록 보기 흉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통일동산에 묻힌 사람들이 바랐던 것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북한땅을 밟아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운 고향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죽어서나마 북한 가까이 묻혀 그곳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이들을 평생동안 고통스럽게 했을 분단이라는 현실로 초점을 옮겼다.

지난 2003년, 나는 TV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70살이 넘는 아들이 90노모에게 절하는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

졌고, 치매로 인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고려가 후삼국을 재통일한 이래로 천년이 넘는 세월을 한 나라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이 되고, 완전히 자력에 의해 독립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외세가 간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어 일어난 6·25전쟁은 양국에게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또한 이로 인해 천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생겨나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만일 이들이 전부 사망한다면 통일에 대한 의지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는다면 분단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자리잡아 분단이 고착될 수도 있다. 이것이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통일은 세계평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꼭 필요하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된 지도 십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냉전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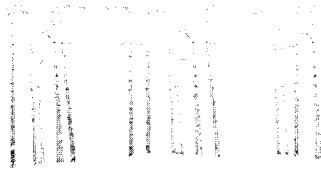
우리 반 아이들에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의외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나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냐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나온 말이다. 통일은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통일이 된다면, 북측의 자원과 남측의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반 아이의 이러한 무지는 현재 통일교육이 안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은 자칫 통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좀 더 총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자자료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교육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가 민족 공동체의식을 내면화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깨닫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기 국가의 민주화는 열망하면서도 같은 국민이 독재하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이 되고 50년 동안 분단되어 살아왔지만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공통된 언어 등 같은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분단상황이라는 비를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나라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실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광역시

- 통일을 향하여 / 41
-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43
- 밭줄이 풀리는 어느날 / 46
- 형, 왜 이제 왔어? / 49
- 통일꽃 / 52
- 추억을 더듬는 버릇 / 56
- 북한 어린이들에게 / 59
- 한 가지의 행복 / 62
- 낡은 철조망과 녹슬은 기찻길 / 65



통일을 향하여

●●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반세기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루지 못한 통일의 아픔에 슬퍼하고 있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38선, 우리는 지금 그 철조망을 걷어내려 애쓰고 있지만 어떻게 반세기나 넘은 문화와 사상이 한꺼번에 고쳐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천천히 한 올 한 올 얽힌 실타래를 서로 협력하여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면 통일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먼저 알고 다가가야 될 것이다.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셀수도 없이 많겠지만, 몇 가지 요약해 본다.

첫 번째, 통일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통일국가가 일제의 36년 식민지에 서 해방이 되었고 그후 분단이 된 초창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으로 으르렁거리며 개와 고양이처럼 싸웠지만 지금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잘 알기 위해 방송과 민간단체 등에서도 노력을 하고 대기업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든다는 내용이 나와 6자회담도 한다고 그러는데 통일이 되면 전쟁, 핵무기를 만든데 드는 돈 혹시나 모를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 주한미군에게 드는 돈을 사용해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하는 데에 쓰면 세계적으로 최상의 선진국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이 갈라지며 생긴 이산가족의 아픔 때문이다.

부모님, 형제자매를 잃어버리고 난 기분은 말로 다 표현을 못 할 것 같다. 나와 친한 친구 중에서도 그런 가족이 있다. 내 친구의 할아버지가 원래는 북쪽에서 살다가 6·25전쟁이 나자 피난민들을 따라 오면서 아들들을 놔두고 오셨는데 그 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산가족의 눈물과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통일의 방법이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G8에 있는 독일이다. 독일은 서·동으로 갈라져 우리와 똑같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베를린 장벽을 깨고 통일이 되었다. 바로 자의적인 통일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고 미국 등 승리한 나라가 포츠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의논하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도 우리나라의 꽃같은 젊은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던가 그래서 자주적인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비야라는 어떤 여행작가가 세계오지 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 땅끝 해남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도보여행을 하고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통일이 되면 다시 땅끝 해남에서 북쪽끝까지 도보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통일의 산을 향하여 갈 때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소원인 통일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오늘날 우리는 TV며 라디오며 인터넷이며 많은 매체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산가족에게 희망을, 이 땅의 국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 주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겐 그것이 그저 많고 많은 정보 중의 하나일 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몇몇 청소년들은 “그냥 싸워 이기면 되지”라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세는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악영향만 주게 된다.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현대 아산 전 회장의 최초의 육로 북송 등으로 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통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총칼을 겨누던 앙숙이었다. 이러한 시대가 또 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가 보장하는가? 지금도 북한과는 휴전관계일 뿐 언제 한국전쟁같은 전쟁이 또 발발할지 모른다. 현재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지금까지 쌓아온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의 말대로,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면,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가 된다면 행복할까?

아니다. 오히려 전쟁의 아픔과 눈물로 만든 한반도는 실패를 초래할 뿐이다. 이산가족들의 마음엔 상처만, 전쟁의 희생자들에게엔 눈물만,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반감과 원망만 줄 뿐이다.

베트남처럼 무력이 아니라, 햇볕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해야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듯,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던 해와 바람의 승부에서 해가 승리했듯 얼음장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려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마음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도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상황과 사정을 알아두고, 그들을 이해할 준비를 해야한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이나 등 돌리고 살아왔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차이가 생겼다. 언어에서부터 사고방식까지.

그러한 남과 북이 한번만에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서로 갑자기 이해하려고 벼둥거리고 당황해 한다면 더욱 북한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북한의 경제상황, 문화, 언어 등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되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대한다면 북한 사람들도 맥이 빠질 것 아닌가? 그러면 북한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관계악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으로 긍정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을 비판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선을 그어 놓는다. 실제로 나도 어렸을 적엔 북한 사람들이 도깨비처럼 생긴 줄 알았다. 나쁜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협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서 말했듯이 개방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친구도 단점은 보완해 주고 장점만을 찾다보면 예뻐 보이듯, 북한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한 핏줄을 나눈 한 형제인데,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이유없이 팔시받고 배척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한 형제, 한 핏줄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하나이며 한 핏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단군의 자손이며 만주별판을 달리던 조상들의 후예이다. 한 형제, 한 겨레가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되겠는가? 아니, 오히려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지하에서 단군 왕검님이 통곡하실 일이다.



맛줄이 풀리는 어느 날

‘절뚝절뚝’

5월의 마지막 종이 울리고 6월의 푸른 내음이 코를 가극할 때 짝이면 컷가를 파고드는 한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맴돈다.

“낙타가 춤춘다! 절뚝절뚝!”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겐 다리가 불편하신 경비원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늘 우리들의 웃음거리였고 놀림 대상이었다. 그러나 어린시절 나는 거동이 편찮으신 어른들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기 위해 가방을 뒤쳤지만 열쇠를 찾지 못했다. 혹시나 경비실에 엄마께서 맡기고 가시진 않았을까 물어보려 했지만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 뿐이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더라도 하셨는지 할아버지께서는 낯곳이 웃으시며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니? 음, 보자. 우리 윤경이가 몇 호였지? 저런, 이 할아버지한테두 열쇠가 없구나. 엄마 오실 때까지 들어와서 기다리렴.” 하시며 까맣고 거칠어진 투박한 손으로 내 키를 목을 이끌었다. 시간이 흘러도 엄마가 돌아오시지 않아 지루해하며 있는데 동그란 통에 담긴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시며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왜 이렇게 된줄 아니? 6·25사변 때 참전병으로 나가 싸우다 총에 맞아 이렇게 되었단다. 우리 형은 그 곳에서 바로 죽사하셨고 다행이나마 나는 이렇게라도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게지.” 하시며 머털웃음 지으시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마음 깊숙

이 가둬놓은 철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만의 큰 슬픔이 오랫동안 묶혀 빠져나올 시기를 놓친 것만 같았다.

용기내어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나는 그 이후 부모님을 한번도 뵈지 못했단다. 생사도 알지 못하는 시점에 놓여있지. 저 먼 북녘땅 알지? 하지만 거기 어디에선가 잘 살고 계실 거란다.”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두 눈에선 그동안 한번도 볼 수 없었던 투명한 액체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 할아버지께서 절름발이가 아닌 평범한 아저씨로 바뀌어있었다.

엄마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여쭙어 보니 내가 모르는 곳에서 큰 곳을 지키기 위해 떠나셨다고 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된 이후 수천만 명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다. 만약 그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부모님과 재회로 꿈꿨던 빔을 풀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린시절 나의 무력함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TV에서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그동안 닿지 못했던 혈액의 타오르는 뜨거움에 우리 가족은 눈물바다가 되곤 되었다.

50년이 넘게 허리에 그여 있는 선이 지워지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살기에 바빠 관심없는 사람들. 조그만 남한이라는 범위에도 모든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날은 멀었구나 하며, 애태우게 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피나는 노력의 땀 한 방울로 결실을 맺은 장면을 보면 우리와 다름없다는 기쁨에 어찌할 줄 모르기도 한다.

남과 북이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던 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통합이라는 단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낮은 경제수준의 북한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70%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름표를 버리고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뜻을 단 당당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

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계신다면 DMZ라는 비무장 지대의 드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절름걸이는 두 다리를 이끌고 금강산에 오를 수 있는 행복함을 잠시나마 선물해 드릴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파란 잎사귀마저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손잡고 얼굴을 마주하는 날을 기다리며 할아버지의 숨겨둔 한을 훌훌 털어버리는 날을 고대하며 내 안의 묶여진 밧줄을 조금씩 풀어본다. 머지않은 그 어느날 할아버지께서도 뽕뽕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 제주도과 백두산을 이어놓지 않을까 ….



형, 왜이제왔어?

●●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빠께서 웬일로 영화를 보러가자고 하셨다. 영화 제목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 당시 최고 영화였다.

우리 가족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 모두 신나서 영화관으로 향했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언니와 나는 “언니, 나는 장동건보다 원빈이 좋아!”

“어쭈? 원빈은 내꺼야!”

“아니다. 원빈은 내꺼야!”라며 서로 싱거운 장난을 치며 오로지 재미난 영화를 볼 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언니와 나는 그만 말을 잊었고, 더 나아가 어처구니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가 서로 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끝끝내 만나지 못한 채 결국 형이 죽고 나서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고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머리가 희끗희끗 할아버지가 다 된 동생이 땅 속에 묻혀 빠가 되어버린 형을 만나서는

“형, 왜 이제 왔어?”라고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니, 이런 끔찍하고도 슬픈,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불과 5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었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안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지금도 우리 민족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갈라져서 서로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총부리를 서로에게 겨누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어이없는 현실이 우리 민족의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명 같은 말과 글을 쓰는 한 가족, 한 민족인데, 왜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통일이 안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얼마 전의 TV뉴스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형제처럼, 서로 이유도 없이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한 없이 그리워만 하다가 결국 죽어서 겨우 땅속에 묻힌 뼈가 되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뜻을 하나로 모아 남과 북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 민족은 통일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물론, 인터넷을 뒤적여 보니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젊어져야 할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50년 넘게 서로 다르게 살아온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여러 가지 갈등도 큰 걸칫거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같은 민족마저 아무 이유도 없이 원수처럼 미워하고, 서로 오가지도 못한 채 계속 살아간다는 건 더더욱 비참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 약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서라도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몇 년 후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월 칠석 바로 그 칠월 칠석날 우리민족도 길고 긴 헤어짐의 끝을 내고 마침내 남과 북이 서로 하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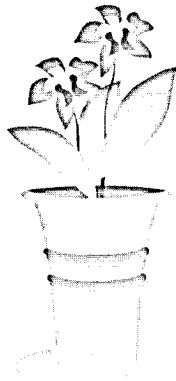
어 만나는 그런 상상을 해 본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처럼, 우리 남과 북의 민족들도 임진강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워하며 마침내 통일을 축하하는 춤을 덩실 덩실 추는 칠월의 어느 날을 나는 상상해 보는 것이다.

아! 가슴 벅찬 만남의 그 이름이 바로 '통일', '통일' 인 것이다.

그리고 그날 어찌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형, 왜 이제 왔어?”



통일꽃

●● 나는 꽃입니다. 하지만,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황홀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키도 해바라기만큼 크지도 않고, 꽃잎도 작습니다. 봄이 되어도 찾아오는 나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 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있는 꽃말입니다.

난 넓디 넓은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순이네가 열심히 가꾸어 놓은 앞마당의 꽃밭에 있지도 않습니다. 난 애절한 그리움이 담긴 곳,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곳.

그곳. 바로 38선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그렇다고 북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38선 가장자리. 고통이의 중앙에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꿈을 꾸고 난 다음 눈을 떠보니 이곳에 있었습니니다. 아마도 그 꿈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온통 하얀 세상에서 태극 문양의 위 주인 빨간색 문양과 아래쪽인 파란색 문양이 합쳐지면서 완벽한 태극 문양을 만들고 반으로 나눠어진 한반도 모양이 합쳐져 하나가 되어버린 그 꿈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특별한 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구름 아저씨께서도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가 특별한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와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북녘 땅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보낸 특

별한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꽃이니 만큼 절 이곳으로 보내신 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스스로 통일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들을 위해 외칩니다.

“여러분들! 북한분들! 남한분들! 어서 빨리 통일이 돼야 해요~. 그러니 서로 힘을 모아요.”

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모두 나의 작지만 너무나 큰 뜻이 담겨있는 이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들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 끝없이 외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자마자 외쳤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에게겐 통일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역시 대답없는 고요함만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금세 또다시 힘을 내어 외칩니다. 그때, 구름 아저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통일꽃! 너 또 이 일하고 있니?”

“네, 히. 지금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들을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휴~ 통일꽃, 어저씨가 몇 번을 말하니? 니가 이런다고 해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구름 아저씨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하진 모양입니다.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통일이 되겠니?”

“그래도 통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네... 통일꽃, 그건 말이지 ...”

“구름아저씨, 제 이름이 뭐죠?”

“통일꽃.”

“보세요. 통일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한 통일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솔직히 구름아저씨의 말씀에 난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또다시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날 오후.

계속 외치고 또 외치던 나는 피곤함에 잠시 졸고 말았습니다.

‘간질간질’

그때, 제 몸을 누군가 간질었습니다.

눈을 떠 보았습니다.

“엄마야! 누 ... 누구세요?”

“호호. 너 정말 귀엽구나~”

나비였습니다. 분명 구름아저씨께 말로만 듣던 나비였습니다.

“난 나비야. 반가워~”

“으응 ... , 그래 난 통일꽃이야”

“통일꽃?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 , 그래도 너 정말 귀엽다.”

“내가?”

난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은 내가 귀엽다니요.

“너 조그맣고 하늘색깔 꽃잎이 예쁘고 귀엽게 보여...”

“응. 고마워 ... , 너도 예뻐.”

“어, 알고있어. 그나저나 너 친척은 없어?”

“으응 내가 처음 태어났는걸. 그리고 이때까지 나비나 벌이라고는 한번도 안 찾아와서 구름아저씨가 말한 번식인가? 꽃들이 하는 건 한번도 안해봤어 ...”

“어머! 그렇니? 그럼 내가 꽃가루 옮겨다가 친척들 만들어 줄게.”

“진짜?”

난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생긴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내가 매일 외치고 있는 이 뜻깊은 작은 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언제가는 나비가 꽃씨를 옮겨, 옮겨서 온 땅에 우리의 외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럼 그리움은 꼭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통일꽃이 된 것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럼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억을 더듬는 버릇

●● 거실에서 제 몸집만한 사진첩을 끙끙거리며 들여다 놓더니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보는 5살 난 손녀딸. 할미가 뒤에서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서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까르르거리다 비로소 나를 알아채고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게 건내어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옆집에 살았던, 지금의 내 손녀보다 두세 살이 더 많았던 여자 아이와 그 아이의 오빠. 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던 그날 함께 찍어둔 사진이다.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남매를 보면서 나는 나보다 열 살 많았던 오라버니 생각에 종종 아이들 몰래 눈물을 훔쳐내야만 했다.

나는 광복되던 해 겨울에 태어났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배를 주린 기억은 없는 것이 오라버니가 늘 내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정함이 좋아 오라버니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힘들었던 그 당시 오라버니는 내게 부모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라버니에 대한 기억은 이렇듯 몇 되지 않는 단편적인 것들 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오라버니를 우리 가정에서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오라버니가 우리 집을 찾을 수 없을까봐 한참을 울어대던 내게 오라버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손에 꼬옥 쥐어 주었다.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며,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

게 기다리고 있으란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어렴풋이 보이던 오라버니의 흐린 미소도 함께...

몇 해 전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신청을 할려고 했지만 오라버니의 생사가 불투명하다며 내 나이가 아직 이르니 다음 번에 다시 신청하라면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는 한참을 오라버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꿈 속에 한번 나타나지 않았던 야속한 내 오라버니.

만일 살아 계신다면 작년에 고회를 보냈을 내 오라버니.

나처럼 가정을 이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계셨으면 하는 것은 나의 지나친 바람일까?

사진 속의 모습을 많이 잃으셨을 내 오라버니.

올해는 내가 환갑이 된다고 내 아들과 딸이 금강산 여행을 준비한다고 했다. 오라버니가 한번쯤 오르셨을 금강산에서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

이유없이 확신에 가득찬 어린아이 마냥 설렘을 멈추지 못했다.

손녀딸이 보고 있던 사진첩을 가만히 바라보다 빛바랜 오라버니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매만지며 생각한다.

‘어느새 사진을 더듬는 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내 삶이구나...’.

그리고는 손녀에게 늘 그렇듯 “얼른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라고 입버릇이 된 말을 되풀이한다. 내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되어야지.

이산가족의 슬픔을 알지도 못한 채 통일하려는 이해적인 마음이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을까?

휴, 긴 한숨을 내뿔으려다 이내 거두고 만다.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밝은 생각을 해본다.

오늘밤 꿈에는 오라버니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손녀, 향미가 할머니 오라버니 이야기해줄게. 오라버니는 할머니보다

열 살이나 많아서 키가 참 컸단다. 그래서 가끔씩 오라버니가 무릎을 태워
줄때면 참 많이 행복했단다. 아, 너희 무릎이 뭔지 알지?
그래, 아빠가 우리 강아지한테도 해줬던거...”



북한 어린이들에게

북한어린이들아!

안녕! 나는 부산에 살고 있는 유진이라고 해.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자랑거리가 많아. 2005 APEC도 해운대에서 열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한 황우석 교수님이 유명하단다.

그래서 지금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

애들아! 지금 한 피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자매, 또는 형제들이 슬퍼하고 있어.

우리는 꼭 통일해야 해.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 나는 이산가족이 서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뉴스에서 많이 봐.

그럴 때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정말 속상해.

나는 '나라를 버린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었어. 그 이야기 내용은 너희 같은 또래 아이들이 탈북하는 거야. 너희 땅에서부터 중국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야기야.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 자기네 땅을 버리고 오다니 말이야. 하지만 너희 땅에서 자꾸 핵무기만 만드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굶주리잖아. 너희 땅인 북한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지 나는 참 궁금해

요즘 우리는 독도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우리의 영토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그리고 일본교과서에
도 자기네 땅이라고 왜곡해서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이즈미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불태우기도 해. 나도 참
억울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는 유관순 언
니처럼 행동하고 싶어.

북한어린이들아!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첫째,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둘째, 많이 양보하는 것.

셋째,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친구가 되어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세가지를 지킨다면 통일 될 수 있을 거야.

애들아! 우리 한 번 노력해 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빨강색, 파랑색으로 되어있어. 왜 우리는 대한민
국이라는 같은 나라인데 색깔이 나누어졌는지 아니?

6·25전쟁 때문이야.

너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는 영화 보았니?

난 무서워서 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만 들었어. 형과 동생이 서로
전쟁터에 가게 돼.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슬펐어.

애들아! 우리 노력해서 통일하자.

그럴려면 너희가 핵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해. 핵폭탄을 한 곳에 떨어뜨리
면 그 도시가 전부 무너져. 그만큼 핵폭탄의 힘이 강력하고 센거야. 너희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니까 통일하면 힘세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거야.

애들아! 우리 노력해서 통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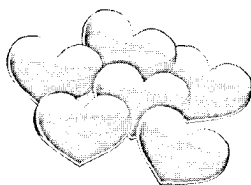
그럼 굶주리는 일이 없을거야.

통일하는 날까지 내가 기다릴께. 그날까지 건강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통일할 때 만나자.

2005년 5월 31일

- 5월 마지막 요일에 북한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진이가.



한 가지의 행복

●●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계절을 가졌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모두 가진 행복 한 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자 소원인 '통일'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슬픈 현실을 지니고 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끼리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배우고 있는 영어교과서에는 "We're all one"이라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은 가진 게 많은 부자가 눈에 병이 있는데, 모든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가난한 사탕장수는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들려준 눈에 좋은 구슬이야기가 생각나 그 부자를 위해 구슬을 찾아 눈을 치료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의 부자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가 못 가진 아름다운 사계절을 가졌지만, 다른 나라가 가진 한가지 "통일"이란 행복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이처럼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해줄 구슬과 구슬을 찾아줄 사탕장수가 필요하다. 북한과 남한 두 나라 모두 통일을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있다. 우리가 찾을 구슬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맘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과 바람.

이것이 우리의 구슬이므로 우리는 이미 구슬을 찾은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구슬의 용도를 최대로 실현해줄 사탕장수이다. 이 사탕장수는 어디서 구할까?

바로 두 나라의 빛이자 꿈나무인 우리들이다.

우리는 학생이란 신분하에 무궁무진한 발전력과 꿈을 가진 두 나라의 사탕장수인 것이다.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탕장수처럼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여리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탕장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슬의 용도를 잘 활용하는 일이다. 구슬의 용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공부!

갑갑한 말이지만 항상 모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취향이나 흥미를 따지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슬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두 나라의 어린이가 구슬을 마음에 담고 지혜로운 머리로써 국가의 힘을 튼튼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다른 나라가 못 가진 조건과 잃어버린 한 가지의 행복도 찾는 완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북한친구들에게 꼭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면 구슬도…, 부자가 앞을 볼 수 있는 희망도 사라져…”라고 말이다.

아마 북한 어린이들도 내 글을 읽는다면… 아니, 읽지 않아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니까.

내 생각이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믿지는 않지만 내 생각이… 아니, 마음만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쁜 사탕장수의 마음을 가진 한 줄기의 빛이 될 꿈나무이니까.

“친구들아! 우리 다함께 힘을 내자! 우리는 하나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야! 구슬을 찾았으니 우리가 부자에게 구슬을 전해주어야 해! 부자는 수십 년동안 아파하고 있으니…, 부자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날…, 우리가 사탕장수의 역할을 마친 날…, 그날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날이니까.” 나는 기다리고 노력하며 희망할 것이다.

부자가 눈을 뜨게 되는 날을…

그러면 멋진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갈라진 몸이 아닌 온전한 몸으로 별떡 일어나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수십년 짝 조이는 벨트를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했던 한반도가 웃으며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벨트를 벗어 던지고 건장한 호랑이가 되어 우릴 지키고, 두 줄기의 빛이 합쳐져 한 줄기의 큰 빛으로 더 많은 꿈나무를 비추니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완벽한 나라야!” 하고 말이다.

“기다릴게..., 아니, 노력하고 실천할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꼭 부자의 눈을 뜨게하자! 한반도야 조금만 기다려 갑갑한 벨트를 꼭 풀어줄게.”

우리는 꼭 해야 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낙은철조망과 녹슬은기찻길

●● 나는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었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없이 북한이 싫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 정치적 대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평등 사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 당장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핵이 아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천사들을 살리기 위한 식량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들을 만드는 바보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을 싫어했었다.

그런데 어느 국어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내일은 통일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며, 1분단에게는 통일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2분단과 3분단에게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다. 나는 3분단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조사해야 했지만, 평소 통일을 반대하던 나로서는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러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다.

아버지께서는, “넌 왜 통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으셨다. 순간적으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싫다고만 하지말고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렴. 그래도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께 전화 해보렴.”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중위였고, 할아버지 밑에는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있었다고 하셨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지금까지 기억하는 단 한명의 군인아저씨가 있다고 하셨다. 그 때 당시 식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라를 지켰단다. 그때, 군인 아저씨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쫓 먹던 힘까지 내어 나라를 지켰던 이유는 지금처럼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외국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묻는 질문에 월드컵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분단 국가 중 유일한 단일 민족 국가라고 대답했다. 순간,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분단국가…

유일한 단일 민족 국가…

순간, 나는 빨리 이 호칭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통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 후에는 단순히 숙제를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검색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중 상당한 돈이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 많은 돈들은 더 이상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더욱 더 강한강대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졌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실항민이 많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향없이 살면 되지, 왜 꼭 고향이 필요한 지가 의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내 고향인 부산에 다신 올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보니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졌다.

그제서야 나는 실향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면 고향이 그리워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산가족이 너무 많다. 어느 91살의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막내 아들의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게 되었다. 자식의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란 그 무엇보다 애통할 것이다.

다음 날, 마침 일요일이라서 통일전망대에 가 보고 싶다며 아버지께 졸랐다.

몇 시간 후, 통일 전망대에 도착했다.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낡고, 녹슬은 철조망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금은 끊어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녹슬어 보잘것 없는 기찻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했던 것은 낡은 철조망도 녹슬은 기찻길도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견잡을 수 없는 눈물에 그리고,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우울했었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밝고 푸르렀다.

인천광역시

- 평화통일의 그날 / 71
-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 74
- 통일꽃 / 76
- 눈물로 기다리는 간절한 통일 / 79
- 북한견문록 / 82
- 백두대간 민족의 피가 흐른다 / 85
- 절절히 느끼는 고통과 환희 / 88
- 같은 흐름으로 / 90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93

평화통일의 그날

●● 요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얼마 전에도 2박3일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다.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민족분단의 뼈저리게 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평화통일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평화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이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여러 훌륭한 장수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까닭에 우리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세의 간섭으로 우리나라는 무참히 들로 갈라지고 말았다. 단군왕검이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이제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달라졌다. 하지만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다시 통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남과 북이 통일을 하면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

기 때문에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남북에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극소수의 이산가족들은 만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만날 수밖에 없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이산가족은 쓰디쓴 눈물은 그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풍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을 잘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면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통일국가로서의 멋진 성공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통일을 바라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을 하려면 우선, 북한이 필요한 물건이나 식량을 자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항상 뒤쳐진다. 우리나라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내실있게 경제적으로 발달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 주어야 한다. 서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면서 믿음이 생기고 두터운 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과 남한의 대표가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자주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통해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만나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토의하다 보면 통일이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친해져 남북 통일의 길이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몇 년 전에 드디어 50년 만에 이산가족상봉이 실현되어 전 세계의 눈길을 주목시켰지만, 반세기의 분단과 단절은 서로의 말과 문화, 생활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망원경 너머로 안개 낀 뿌연 하늘 사이에서 북녘땅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통일전망대에서 본 한반도는 그리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토

록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길은 왜 그리 먼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순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하는 순간 통일의 출발점은 맞춰질 것이다. 모두 열심히 협력하여 21세기 조화로운 통일한국을 만들도록 하자.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이제 벌써 50년이 넘었다. 초등학교 때는 38선 너머로 보이는 북을 그려보기도 하고 6월 마다는 통일을 바라는 글짓기도 여러번 썼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북한의 친구들을 만나보고도 싶고, 이산가족들의 상봉모습을 보며 울기도 하며 참 순수하게 통일을 바라왔다. 그런데 이제는 6월을 아주 자연스럽게 문예행사로 넘어가는 듯한 내가 아주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본질을 찾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시나 아직도 내 안에 깊숙이 박힌 통일의 소원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통일을 소원해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듯하다.

아주 아주 친했던 친구 둘이 싸웠다.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고 상처 주며 돌아섰지만 마음만은 늘 연결돼 있었다. 망설였을 뿐이다. 그런 것이 친구이다. 단지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미소로 서로를 반겼다. 왜 그랬었냐고 추궁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친구’ 라는 그저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도 이유가 있다. ‘한민족’ 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이니까 경제적이란든지, 어디가 더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저번에 한번은 북한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어린 아

이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의 미소에도 눈물로 답하고 북으로 돌아가는 차에 오른 아이들이 손을 흔드며 인사하는 데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까? 안타까우니까, 슬프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아직도 버스 안에서 흔들던 손짓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 한다. 한 민족인데도 너무 제한이 많은 현실이 밍기만 하다.

이산가족의 문제도 결코 배제할 순 없는 일이다. 나는 수학여행이나 심지어 소풍을 가는데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불안감이 있다. 엄마와 며칠 동안 볼 수 없다는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싫다. 그런데 50년이 넘도록 헤어져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 불과 몇 시간이면 땅을 땅에 가족을 두고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감히 내가 알 수 있을까? 누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줄 것이며 또 누가 6·25전쟁의 비극을 잊게해 줄 것인가?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려서부터 입에 익혀진 이 노래말처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통일이다. 통일만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고, 통일만이 높아져만 가는 분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이다.

반세기의 세월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조금 더 높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벽을 허물어 버리고 아름다운 한반도의 모습으로 함께 손잡고 세계 속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소망한다. 싸웠던 친구가 화해하듯 이제 남·북도 화해의 손길을 뻗을 때가 왔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의꽃

●● 북핵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2003년,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교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식량 등의 생필품을 보내주었던 이전의 통일 정책에 그치지 않고, 경의선 복구와 금강산 육로여행 등의 더욱 발전된 통일정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정책들의 진행으로 벌써부터 한반도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우물가에서 승냥을 찾는 격의 발상이 될 뿐이다. 공식적으로 남북한 50년, 전진만을 강조해 왔던 경제 발전들 때문에 짧게만 느껴지는 이 긴 시간은, 한반도의 찬란한 역사를 희석시켜서 남·북한을 한 핏줄이 아닌 한반도에 공존하는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 또한,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인식이 남아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사명은 조상들의 유언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통일의 꽃이 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정답은 단 한 가지, 꽃이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과 밝은 태양 그리고 맑은 물이 적당히 필요하다. 통일도 이런 꽃들과 같다. 험난한 숲을 지나온 통일의 씨앗은 한반도에 도착하여, 남북교류라는 햇빛을 받고 민족의 연대감이라는 물을 흡수하여서 싹이 트게 된다. 이렇게 뿌리를 내린 우리의 새싹은, 차가운 철조망을 중심으로 갈라진 한반도 곳곳에서 통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새싹들이 꽃들로 자라기에는 양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일 정책이란 양분들, 우리는 이런 양분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모든 것을 북한에 맞추어 끌려가는 물질적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여태까지 행해져 왔던 모든 통일정책에서 남한이 얻은 것은 평화노벨상 하나와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준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필요한 양분의 자리를 소수만이 원하는 통일과 동정심에 의한 통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은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보면, 통일을 ‘해야한다.’와 ‘하면 안된다.’ 이러한 대답으로 나누어진다. 통일 후 남·북한 경제적인 차이로 오는 불안정과 자기의 몫이 줄어들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반대표를, 북한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만 집착한 채 미래보다도 과거를 우선시하는 교육의 문제점, 더불어 북한을 살기 나쁜 나라, 심지어는 웃음을 잃은 나라로만 인식하는 사회구조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통일을 민족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이렇게 비어져 가는 자리들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남한을 뺏내며 북한을 껴안으려 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통일정책과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통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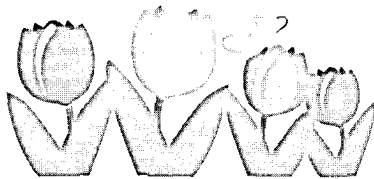
통일이란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지닌 사업장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미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야만 하는 민족사명이다. 굳이 ‘통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통일을 우리들이 한 국가의 품속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커다란 행복을 민족이라는 거대한 품속에서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대한 품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5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분단의 슬픔을 소멸시키고, 반만년 동안 지켜온 단일 민족의 문화들을 다시 꽃피움으로써 오는 행복을 말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민족사명은 결국 우리에게

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민족사명인 통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북한과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교류도 중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에만 끌려 다니는 정책이 아닌 남북한이 모두 원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제력들을 키워야 한다. 이런 정책들과 함께 기념하고 즐긴다든지, 50여년이라는 시간의 단절로 인해 변화된 남·북한 언어를 정리한 사전을 만든다든지, 남북한의 문화체험 캠프개최, 남·북한 합작의 영화제작 등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벽을 조금씩 무너트린다면, 언젠간 그 벽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피로 물들었던 50년 전의 그 6월, 하나의 한반도를 위해 목숨바치신 조상들의 넋을 기리며, 그분들께서 지키려고 했던 한반도에 한 송이의 무궁화가 피는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을 기억하며 통일정책을 실행하면 통일의 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남겨질 것이다.

행복한 웃음이라는 아름다움을...



눈물로 기다리는 간절한 통일

●● 올해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을 하고 푸른 숲이 싱그러운 6월이 찾아왔다. 해마다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은 항상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올해 78세가 되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기다리시는 평생동안의 소원이신 통일...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의 바닷가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 동네에서 아주 커다란 과수원집 딸이셨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넓은 과수원에는 온통 하얀 배꽃이 만발을 하고 꽃잎이 눈가루처럼 날아다녔으며 아름다운 꽃향기가 그렇게도 좋았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우리 외할머니... 한국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한다. 다행히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형제들을 모두 찾았는데 부모님과과는 영영 이별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고향땅을 찾아가서 부모님의 소식이라도 들어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해마다 배꽃이 활짝피는 봄이 되면 형제들과 함께 생사조차도 모르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계신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직접 전쟁을 겪으셨던 외할머니를 통해서 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전쟁 이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 정부도 서울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도 처참했다고 한다. 북쪽으로는 갈 수 없었고,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음을 당할 정도의 무

서운 전쟁이었다고 할머니께서는 한숨을 지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눈물로 상봉을 하고 북한돕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통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득 작년 현충일 아침에 TV에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던 방송 내용이 생각난다.

“82세가 되신 종군기자 아저씨가 전쟁 때 전투지역이었던 강원도 고성에 있는 명파리라는 마을을 소개했는데 아저씨께서는 젊었을 때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전쟁 직후에 철책을 치면서 철책이 녹슬기 전에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사를 쓰셨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곳을 찾았지만 통일은 되지 않았고 녹슨 철책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다. 그 마을은 산봉우리 봉우리마다 격전지역이었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다고 한다. 53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았는데 컷가에서 총소리와 군인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을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그곳이 전쟁을 했던 마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지가 않았다. 전투 당일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한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고 있었다.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명파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 전쟁은 마을 사람들의 가족을 빼앗고 고향을 빼앗았다. 헤어져 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처럼 너무 안타까웠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마을 앞에 있는 동해 북부선 철다리….

고향으로 이어지는 다리이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고향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다리는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의 아픈 상처를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서로가 아픔을 보듬어 알아 주면서 위로하며 살고 있다. 그분들의 아픈 상처가 모두 고성 앞바다 파도에 씻겨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과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 나는 SBS광복특집으로 하는 프로그램 '패션70' 라는 드라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보고 있다. 단란했던 가정이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거리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고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미안할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중의 그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처참했던 것 같다.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전쟁을 다시 꼭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되살려서 우리 모두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북한견문록

●● 인천에 사는 나는 내일 모레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다. 처음 가는 평양이 어떤 곳인지 너무도 궁금하여 개성에 사는 북성이에게 문자를 보내니 친절하게도 메일로 들어오면 자세히 설명해 놓겠다고 한다.

미리 알고 가니 평양이 좀 친숙해질 것 같다. 끊어졌던 철도가 다시 이어진 고속철도에서, 북성이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궁금한 것을 해결하니 여행이 한결 상쾌하다. 기차 안에는 축구의 천재, 박주영이 백만 불 미소, 배용준과 나란히 광고판을 장식하고 있다. 차창밖에는 'e-편한세상'이라고 쓰여진 아파트가 보인다. 하긴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북한에서 생산한 상표가 붙어있다. 북한에서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북성이네 삼촌은 공장을 하신다고 했다. 차창 밖으로 공장들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북한에서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달려서 선진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했다. 마침 우리 아빠께서 그 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니 기술 자문을 구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북성이는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스쳐지나갔다. 어! 저것은 우리 삼촌 차라고 똑같았다. 분명 현대 회사의 차였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모양이었다. 외국에서도 'Korea,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달리고 있을 우리나라 자동차

의 모습을 생각하니 뿌듯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북한의 국보 제1호인 대동문이었다. 조금은 달랐지만 한국의 국보 제1호인 송례문과 참 구조적으로 비슷했다. 우리는 남은 여정을 위해 서둘러 들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

역시 평양하면 냉면이었다. 가는 곳마다 냉면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 같은 널찍한 그릇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그 상쾌한 맛은 그야말로 बे리 굿이었다. 북한에서는 칩이나 나물과 같은 자연식품이 많이 나서 신선로나 구절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들은 바 있다. 나는 유기농 식품이라고 하여 사기는 해도 입맛에 맞지 않다하신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북성이에게 메일을 보내어 보았다.

“북성아! 너희 북한의 특산물은 무어니? 북한은 고사리, 미나리, 같은 것들이 잘 자란다고 들었어 하지만 여긴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국산이라고 해도 값도 비싸단다. 나에게 진정한 봄나물 맛 좀 보여줄래? 우리 가족과 나눠 먹을 나물 좀 보내주면 정말 고맙겠다.”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북성이는 흔쾌히 답했다. 내심 고마웠다.

우리는 북희 아이의 가정집을 방문했다.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까이에서 느껴보자는 선생님의 의견이었다. 다음 번에는 북한 아이들이 우리네를 방문할 계획이다. 생각보다 밝았다. 그들은 반갑게 우리들을 맞아 주었다. 남북통일어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더니 북희가 숙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컴퓨터를 산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인터넷 서핑하는 것과 게임, 오락, 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북희는 매우 놀라워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 북희가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다며 우리를 안내했다. 그곳이었다. 바로 그곳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금강산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북한

에서의 여행 중 가장 인상깊었다.

매우 즐거웠다. 조국을 - 물론 북한도 우리와 한 나라이지만 - 떠난 먼 여행이 었지만, 웬지 낯익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북한에 믿음이 가고 마음이 끌렸다. 원래 여행이란 즐거운 법인데 북한 여행은 더욱 새록새록 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또한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서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깝고, 가까움을 유지하여 계속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백두대간민족의 피가 흐른다.

●● 어느 일요일이었다. 전화가 울렸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거기 조정숙씨 댁이십니까?” 전화건너 어떤 할머니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할머니 성함인 것을 알고 “네, 저희 할머니신데요.”라고 했다. 그러자 전화 저편에서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이고! 맞는가! 난 할머니 동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머니 아프시 다더니 건강하신가? 아이고, 언니!”라고 울먹이셨다.

난 어리둥절했다. 곧 아빠와 통화를 하셨고 아빠도 무척 상기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아빠, 중국 작은 할머니세요?”

“아니, 할머니랑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 살던 동생 작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소식들고 전화하셨대. 한국에 다음달 쯤 온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자 할머니의 밝은 웃음이 문득 떠올랐다. 평소에 얼마나 고향소식인 이북에 대해 얘기하셨는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할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작은 할머니와 동생 할머니를 만나셨고 평소에 기운 없으시던 할머니께서 그날은 유난히 밝게 웃으시고 얘기도 많이 하셨다.

그동안 서로의 그리움만큼이나 각자에게 줄 선물도 한쪽에 쌓여 있었다. 몇 년 전 설날, TV에서 통일을 바라는 노래자랑대회를 했다. 할머니께서

는 그것을 보시면서 “평안도는~, 황해도는~”하고 말을 계속 하셨다. 나는 명절에 내가 보고 싶은 TV프로도 못보고 노래자랑대회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할머니 모습에 화가났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반가워하는지, TV화면에 고향사람들을 그리워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됐다. 6·25의 경험 세대가 아닌 나는 이산가족을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나중에 아빠께 들은 얘기지만 할머니께서는 6·25전쟁의 이산가족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남동생들을 북쪽에 두고, 여동생은 중국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월남을 하셨다.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는 우리 할머니께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북사람이라는 사실이 마냥 신기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자각하면서 예전에 철없던 기억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가족과의 이유 없는 헤어짐, 그리움, 슬픔, 고통... ,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6·25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가? 이 아픔을 먼 곳으로 던져 버릴 수 없는가?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50년이 넘도록 서로의 교류를 단절해 왔고, 그러다 보니 문화적, 정신적, 이질적 차이가 커져 한 민족에 대해 낯섦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한 예가 이산가족 상봉이다.

50년 만의 만남에서 이북 사람들은 가족과의 만남을 이북의 명예로운 권위자의 덕으로 돌렸고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낯섦과 통일의 길이 멀었고, 심지어 통일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 우리는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장면을 더 많이 보았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노모와 머리가 흰 아들의 만남,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제,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 민족 선수를 서로 열렬히 응원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며 아직 우리는 하나이고 그들의 쓰라린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어야 하며 우리의 희망과 절실함을 느끼면서 한 걸음씩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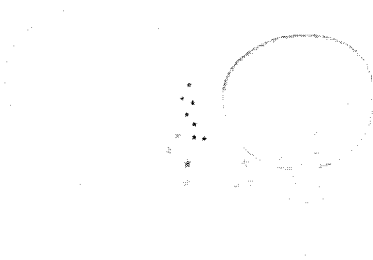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겠지만 가장 절실

한 이유는 한민족, 한민족의 정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피 속에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은 한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진한 피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다.

깊은 산 속 계곡의 물이 강으로 흘러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민족도 백두대간 통일기원의 정기가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 통일이라는 거룩한 말을 만들어야 한다.

거룩한 말을 이루어 누리는 것은 힘이 든다. 지금까지 민족의 눈물과 힘을 들여 여러 날을 이루어 왔으니 앞으로 거룩한 통일이라는 말을 누리길 기다려본다.



절절히 느끼는 고통과 환희

●● 며칠 전, 나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외갓집에 가슴저린 이야기 하나를 엄마께 듣게 되었다. 바로 이산가족 이야기다. 6·25가 터졌을 무렵 사람들은 한 보따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멀고도 험한 피난길을 떠났는데 외갓집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보따리씩 들고 아이들과 피난을 갔다고 한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가시던 도중 차마 시체들을 밟고 갈 수 없어서 어차피 죽을 거 편히 죽자는 심정으로 다시 외갓집으로 외할머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인민군이 있었고 무서움에 떨던 외할머니는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나니 핍! 핍! 터지던 폭격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민군도 다 물러가고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후론 피난을 갔던 외삼촌들과 외할머니의 여동생인 '옥분이'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왜 이런데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못하는 것일까? 물론 사상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일의 좋은 점이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걸까?

너무 한심하고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우선 통일을 하면 북한의 핵으로 인해 나라가 강해지고 경공업은 발달했으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반면 지하자원은 많은데 경공업이 부족한 북한, 서로의 단점들을 보충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 쌀이 없어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북한!, 그 반면 쌀이 남아돌아 과식을 밥먹듯이 하는 남한!, 통일을 하면 쌀을 나눠 먹을 수 있어 배고픔을 견디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깨진 유리는 본드로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원상태로 거의 돌아온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한마음, 한나라, 한민족이라는 생각만 하면 휴전선도 그냥 긴 선에 불과한 것이고 조금 불편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산 가 족 !

찢어지는 마음 안고 사는 우리의 이산가족!, 물론 이산가족 중에도 서로 상봉할 때만 만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진 한 장도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또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이루어야한다.

달리기를 할때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반정도 밖에 오지 못했다. 나라에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 자리도 만들어 이 정도 이루어 놓았으니 나머지 반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 도착점까지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하나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 나는 아주 고민이 많다. 얼마만 있으면 보는 시험에도 신경쓰기 바쁘고 거울을 보고 한숨쉬기도 어느새 내 일상이 된 듯하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이라면 나처럼 진로나 외모 때문에 걱정일 것이고, 어른이라면 취업문제나 직장에서 다툼, 혹은 결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고민만 해도 골머리 썩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고민이나 관심사들을 10개만 말해보세요.' 하고 묻는다면, 도대체 백 명 중 몇 사람이나 '통일'이 그 10순위 안에 있을까? 아마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빠서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여러 종류의 고민들 중에서 통일의 순위를 따지려는 이유는 내가 얼마 전에 새로운 '고민'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서이다.

회상하자면 약 1년 전 1학기 때의 일이다. 교실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청소년단체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그 선생님께서 교실로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청소년 단체에서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참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권유 때문이었다. 평소 어디를 놀러 가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 나였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앉아 있던 나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진정된 후에야 얼핏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장소는 북한의 금강산, 이번에는 어느 동네로 바람을 쐬러 가나하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의외의 장소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낯선

땅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그만큼 컸으므로 나는 내몸에 먼지처럼 들러붙어 있던 귀찮음을 털고 마침내 그곳 북한으로 가기를 결심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금강산으로 가는 날이 되었다. 과자며 옷이며 잔뜩 싸들고 와서 귀에 붙은 멀미약을 재차 확인하고는 버스에 탑승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정... 마치 외국여행 하듯 그 땅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은 세 가지 인상적인 기억 때문이다.

첫 번째는 걸리는 긴 시간과 웬만한 외국 여행보다 더 복잡한 절차에서 느꼈던 갑갑함이다. 같은 나라를 가는데 무슨 절차와 교육이 그렇게 복잡한지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만일 부산에 여행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아무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나 방송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분단의 아픔에 대해 듣고 배우곤 하지만 사실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로만 이해할 뿐 가슴에 정말로 와닿아 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엄청나게 슬프고 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맥락의 고통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군인 아저씨들의 모습이었다. 부동자세로 굳은 표정을 하는 그 아저씨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 눈에는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큰오빠가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 대해 말해준 것을 듣고 나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영화는 북한과 남한의 병사들이 무서운 얼굴 속에 따뜻한 정이 오가는 것을 표현한 영화라고 했다. 나는 스스로가 북한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 챌 수 있었다. 바로 막연한 편견인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을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것쯤이라고 인식했던 나였으므로,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계절이 바뀌듯이 소리 없이, 또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다가왔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은 '대화'였다. 금강산에 올라가기 지켰던 나는 같이 왔던 그 친구와 의자에 앉았고,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다가왔다. 그때도 그저 '관광객이겠거니' 하고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데 낯선 역양의 목소리가 귓가에 머물렀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북한 사람인 것이었다. 새로운 경험에 왠지 흥분이 되었던 나는 그 북한 사람이랑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소극적인 나였지만 금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20대쯤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내 디지털 카메라를 무척 신기해했고, '남한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심을 가져주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수 한 번. 얼마 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무심코 텔레비전을 켜는데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다. 그전 같으면 안보는 프로였지만 왠지 시선을 땄 수 없었다. 농사일에 한창인 그들을 보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악수하던 손길이 다시금 떠올랐다.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 같은 느낌이 들면서 '민족'이나 '통일' 같은 단어들 다시금 느껴졌다.

처음에 던진 질문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열 가지만 대 보시오.'라는 질문에 나는 아직은 전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잡은 0번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써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내 새고민 이야기를 마친다. 그리고 덧붙여 비밀스레 말하자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기다란 강에서 나는 하나의 흐름을 보았다. 그리고 이전에 지도에서 본 적 있는 북한강, 남한강을 떠올렸다. 우습게도 이름마저, 상황마저 비슷한 게 북한강은 북으로 남한강은 남으로 흐르지 않는가? 또한 내가 간과할 뻔한 사실 한 개, 이 두 강의 줄기는 갈라졌으나 둘이 합쳐서 비로소 하나의 강인 '한강'을 이룬다. 또한 그 두 줄기 강은 결국은 '같은 흐름으로' 흐른다는 것. 나 혼자 가슴에 새기기에는 너무 아쉽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한다.

'한강'이라는 강도, 우리나라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써 흐른다는 것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통일은 이루어져야하고 그 주인공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좀 더 빨리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봤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와 비교되게 후진국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음식의 양으로 북한 아이들은 며칠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생활여건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몇의 사람들이 북한과의 통일은 이로울 게 없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 7천만 겨레는 원래 한 핏줄로 같은 말과 같은 생활을 하며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살아온 민족이다. 하지만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내다 보니 환경은 물론 말까지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같은 말과 같은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문화에 대해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북한은 자신에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큰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언어의 차이가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많은 비속어와 한자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은 말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한반도 고유의 언어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언어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 북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몇 년 전 이산가족상봉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는지 찾아다닐 만큼 정을 쌓고 서로 위해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몇 십년을 살아오고 있다. 가족이란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온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두 나라가 서로 화합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바라던 통일은 더더욱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은 어렵고도 먼 길이지만 언제나 남북으로 갈라져 살 수는 없다.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문은 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인정신을 갖고 통일의 염원을 항상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허리 잘린 호랑이의 포효 / 97
- 통일의 열쇠 / 100
- 한 송이의 무궁화 / 104
- 통일의 열쇠 / 107
- $1+1=1$ / 109
- 하나의 꿈 / 113
-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천조망 / 116
- 반세기 허리 병신 / 118
- 통일의 꿈 / 121

대구광역시



허리질린 호랑이의 포효

●● “5세기에 들어서자 한반도의 패권은 사치를 즐기던 백제에서 고구려로 이동합니다. 중국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나라 안의 힘을 키우던 고구려는 한강 유역과 만주를 손에 넣고 동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릅니다.”

힘찬 박물관 안내 도우미 누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 가족은 웅장한 고구려 유적을 바라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엄마,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를 뒤흔들 정도로 강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지금은 두 동강이 나 한겨레 한 민족끼리 다투기에 바쁘지만, 만주 지방을 호령하던 고구려는 수나라의 백만 대군까지 무찔렀단다.”

참 이상했다. 예전의 고구려가 지니던 힘을 지금 둘로 갈라진 남과 북은 지니지 않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철조망에 의해 허리가 잘린 존재다.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세우고 전 세계를 울릴 외침을 부르짖기는 힘든 일일까?

남북분단.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두 호랑이는 1950년 6월 25일을 신호탄으로 3년간 쫓고 쫓기는 싸움을 벌였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허허벌판에는 인공기도 태극기도 휘날리지 않았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금을 그었고 백두산 호랑이의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 뒤

50년.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끊긴 허리를 부둥켜 잡고 신음하고 있다. 살수대첩에서, 귀주대첩에서, 한산도 대첩에서의 한민족의 단결은 이미 그 의미조차 잃어버린지 오래다. 햇볕정책,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된 조국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선 오늘도 두 호랑이가 철조망을 사이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지금... , 무엇이 한반도를 바꾸어 놓았는가?

6·25. 승자는 없었다. 피비린내 자욱한 전쟁 뒤 남한은 독재와 군사정권에 시달려야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달콤함에 취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아닌 '골고루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분단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세계에 한국은 '두 조각난 미개한 국가'로 낙인 찍혔고 필요없는 군비 경쟁을 하느라 국가 발전에 쓰일 돈을 미사일 구입에 퍼붓게 된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불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에도 이 고질적인 문제들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남과 북에 대한 편견을 안겨주고 또한 더 이상은 그 찬란했던 고구려의 외침을 드높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화해와 악수를 통해 나아진다고들 한다. 민족성이 뚜렷한 화해와 악수를 통해 나아진다고들 한다. 민족성이 뚜렷한 남과 북은, 다시 하나되어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란 열망만 있으면 하나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져 갈 때 독일 국민들은 하나 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열정 하나로 동독 당원들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을 헐었다. 21세기, 빛나는 한반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선 통일을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남과 북이 한 겨레로 뭉친다면 한반도는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다. 국방비에 들던 천문학적 금액은 조국 발전에 쓰이게 될 것이며 허리가 잘린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사나운 외침을 울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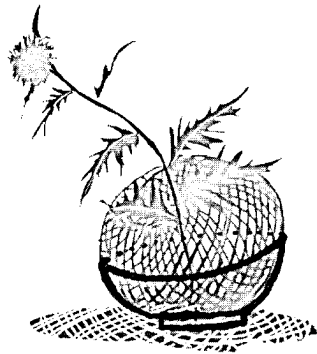
동북공정,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에는 다름대로의 속셈이 있었다. 남북이 통일되면 고구려 역사를 들고 나올까 염려되

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이처럼 남북 통일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조국을 물려 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 이제 백두산 호랑이가 지구의 중심에서 포효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폐허가 된 한반도는 다시 자라날 것이다. 분단 국가를 과소 평가하던 전 세계는 우리의 모습에 경악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날을.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빛날 그날을!



통일의 열쇠

●● 서기 2060년 현재, 나는 평양에 있는 조선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나통일이다. 내 이름이 이상하다고?

나도 어렸을 적에는 내 이름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 내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통일을 기원하시며 지어주신 이름이다. 통일이 됐을 당시에,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다고 하신다. 통일이 되기 전, 분단국 시절,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서로 떨어져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통일이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통일이 되고, 서로 만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할아버지와 만나 한을 다 풀었다며,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아버지께서는 평양에서 평양냉면집을 하고 계셨다. 우리 가족 대대로 물려온 이 평양냉면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 사시던 우리 어머니는 통일기념여행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가게에 손님으로 들리셨다가 서로 눈이 맞아 결혼까지 성공하셨다고 한다. 나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두 할아버

지에게서 듣는다. 나는 시간만 되면 할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할아버지의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한다.

오늘도 역시 할아버지 방에서 아침을 맞았다. 시계를 보니… 우왓! 지각이다! 나는 헐레벌떡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와 아침밥도 먹지 않고, 교복만 챙겨 입은 채 전속력으로 달렸다. 역시나 나는 지각을 해버렸다. 별로 운동장 5바퀴를 겨우겨우 달리고 교실로 향했다. 교실로 향한 순간 반 친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 무슨 숙제 있어?”라고 물으니,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국사숙제 있잖아!”라고 말하였다.

나는 얼른 국사 교과서를 펼치자, 빨간 펜으로 ‘숙제’라고 적혀있는 문구, ‘분단국 시절, 남한과 북한의 특징 5가지 조사해오기’라고 적혀있었다. ‘오 이런!’ 하지만, 나는 국사숙제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국사이고, 또 할아버지께서 들은 것이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 그리하여 1교시 호랑이 국사 선생님의 매질을 피할 수 있었다. 2교시 국어! 내가 제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국어이다. 분단과 통일을 거쳐 오면서 우리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분단국 시절의 북한말과 남한말이 어렵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를 썼다니 신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안타까웠다. 남은 수업을 무사히 하고, 드디어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식 비빔밥이 나왔다. 왜 특별식이냐면,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음식으로 비빔밥이 선정되었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비빔밥을 먹게 되었다. 역시 비빔밥은 맛있어! 그리하여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5교시 창재 시간에 북한 어린이들의 곡예쇼와 2001년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신기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이 색색깔의 화장을 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제일 인상에 남았다. 다음으로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울면서 만나는 장면을 보고, 내 가슴이 울컥하였다. 주름이 쭈글쭈글해진 얼굴로 ‘어머니!’라고 외치며 달려가는 늙은 아들, 아내와 남편이 수십 년을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야 만나 서로 부둥

켜안고 울부짖는 부부 등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다. 비디오를 다 보고, 느낀 점을 쓰는 것으로 창작 시간을 마쳤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반 친구 새봄이를 보았다. 순간,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가 생각나 새봄이 집에서 시험공부할 궁리로 새봄이를 불렀다. “새봄아!” 그리하여 나는 새봄이집을 가게 되었다. 새봄이 집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요즘과는 달리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 벽면에는 흑백 배경의 인물사진이 여러 개 걸려있었고, 한쪽의 장식장에는 빨간 스카프와 파란 바지가 걸려있었다. 난 그것을 보고, 단숨에 옛날 북한 아이들의 교복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알고 보니 새봄이 할아버지도 북한사람이셨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다. 솔직히 말하면, 새봄이가 나를 가르친 셈이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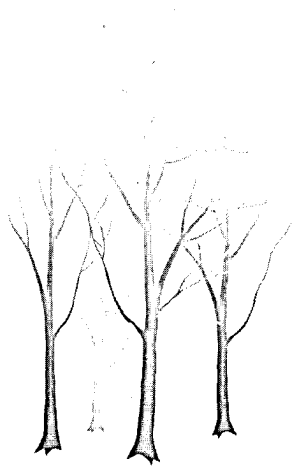
시간은 흘러흘러 시험당일,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다. 1교시는 국사, 첫 교시에 내가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쳐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문제 중에 ‘분단국 시절, 남한의 제일 큰 섬으로 관광지로 유명했던 이 섬을 말하시오.’가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울릉도를 적었지만, 답은 제주도였다. ‘내가 가보지도 못한 제주도를 어떻게 아냐고!’ 하여튼 중간고사는 무사히 끝났다.

가을이 되고, 기다리던 추석연휴가 다가왔다. 먼저 친가인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맛난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내고 다음날 우리는 대구에 있는 외갓집을 갔다.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거의 하루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도 많이 개통되고 해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정대로 2시간 가량을 달려 대구의 외가댁에 도착! 도착하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아이구~내새끼들 어여 온나” 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대구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참 구수하다.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추석연휴가 지났다.

드디어, 졸업사진 찍는 날, 모두들 중학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들떠있었다. 찰칵! 찰칵!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시간은 흘러 졸업식 날이 되었다. 딱딱한 졸업식이 끝나고, 드디어 졸업장을 받았다. 내

가 벌써 중학교를 졸업하는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마지막으로 3-10반 사랑하는 친구들과 고마우신 선생님과 사진 찰칵! 그리하여 나는 중학교 3년을 마쳤다. 내가 이렇게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한데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통일의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 이 열쇠를 우리는 찾아 '통일' 이라는 상자를 열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중학교 제40회 졸업생 나통일이다!'



한 송이의 무궁화

세계 각 국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안녕! 나는 대한민국 평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일근이라고 해. 먼저 나의 이름에 대한 사연을 소개할게. 내가 태어나던 203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통일이 되어 한반도에 한 송이의 무궁화가 피었다고 해서 한 일(一), 무궁화나무 근(僅)을 써서 나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감동을 함께 재현하기도 했어. 월드컵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남북합작 CF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연과 운동경기를 통해 우정을 다지며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어. 몇 년 전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신 할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붙이와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많은 이산가족들 중 한 분이었고, 통일 후 잃어버린 가족과 행복을 찾아 그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통일의 기쁨을 가슴 속에 품고 계시던 분이셨어. 이렇게 모두가 나누고 베풀면서 배려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이곳이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 엇갈린 이념 속에서 분단이 된 채로 지내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나에게 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뜨거워진 할아버지의 눈시울만으로도 그 슬픔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안

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얼마 전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어. 통일이 되면서 주변경관이 뛰어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 곳에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단다. 우리들에게 관광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던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경상도 분이셨는데, 통일이 되어서 북쪽 관광지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며 하나된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어. 내 후손들에게 통일된 한반도를 전해 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셨던 요리사 분께서는 함경도 분이셨는데 통일 후 남한의 다양한 음식종류를 접하면서 새로운 메뉴개발에 도움이 되어 전 세계 한국 요리의 맛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입가의 미소가 가시지를 않으셨어.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의 내 나이 때에는 온 나라가 북핵문제로 떠들썩했었다고 해. 당시만 해도 통일이 안 되는 줄 알고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가 좁혀져 협상을 통해 극단적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해. 남한은 20세기 말부터 회담을 갖는 등 경제 협력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거둔 성과의 결과물로 오늘날 내가 백두산 천지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모두가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남한의 선진화된 기술로 북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륙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물류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국방비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사회 곳곳에 투자가 이루어져 단시간 내에 북한의 경제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어. 남북한의 통일이 국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통일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서 더욱 더 환한 빛을 내며 주목받을 '대한민국'을 따뜻한 관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

나가 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찬 응원도 함께 부탁할
게. 인정과 사랑이 넘치며 오랜 역사와 함께 숨쉬어 온 많은 문화재들과 불
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단아함 속에 숨겨진 한국
의 아름다움을 맘껏 느껴 보길 바랄게. 또, 거리에는 밝은 표정과 친절함과
강한 열정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꼭 한번 우리나라
를 방문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기도할게.

2055년 6월의 어느 날,

하나 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대한민국 평양에서 일근이가





통일의 열쇠

●● “뽕~” 이산가족 상봉시간이 다가오며 도착했다 신호로 북한의 커다란 차가 경적을 울렸다. 북한의 차와 남한의 차가 나란히 서있고 차 속에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서 상봉하기만을 기다렸다.

만남의 시간. 서로의 가족을 찾아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달그닥, 달그닥” 이것이 통일의 첫 번째 열쇠이다. 하지만 한 발짝 좀 더 다가섰을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뿌우웅~” 큰 소리를 내며 약품과 식량, 옷을 가지고 북한으로 떠나는 남한배. 북한에서 배가 보이자 기쁨의 환호를 하며 남한배를 반긴다. 남한에 비해 못사는 북한을 위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배에 실은 작은 정성. 북한 친구들 알아보는지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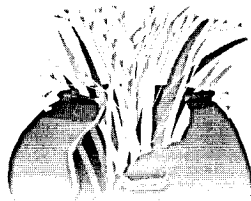
“달그락, 달그락” 두 번째 열쇠는 첫 번째 열쇠보다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다. 그래도 아직 열리지 않는다.


“우와~” TV에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문제를 맞춘다. 북한 친구들의 실력은 매우 뛰어났다. 우리는 과학 문제를 잘 풀고 북한 친구들은 자연 문제를 잘 푼다. 남한은 과학이, 북한은 자연 생태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은 남한에서 문제를 잘 맞춘 어린이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 문화를 접해보는 날이다. 칠조망의 군인 아저씨들을 뒤로 하고 북한으로 들어선 남한의

차. 이렇게 어린이들을 통해 또다시 한번 통일문을 열기를 시도한다. 이번에도 가벼운 느낌이다. “달각, 달각” 열릴 것 같으면서도 열리지 않는 통일문.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만드는 중이다.

이번 열쇠는 저번 세 개의 열쇠보다 만들기 쉽다. 남북 사람들의 통일을 꿈꾸는 작은 소망과 남한, 북한이 아닌 한 나라, 한국이 되어 올림픽 때의 Korea란 나라 이름으로 한반도 국기를 휘날리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는 소망을 엮어 만들기만 하면 된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가슴 깊숙이 한구석에 통일을 꿈꾸는 작은 소망 벌레가 깨어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통일의 문이 열릴 때이다.





! + ! = !

●●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기도 힘든 이 세상.

어쩌면 나에게겐 '삶을 이어간다' 라는 자체가 엄청난 사치일지도 모른다.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는 이 목숨 따위, 빨리 떼버리고 싶지만,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내 딸의 얼굴이 자꾸만 땀들어서, 계속 딸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느다란 '희망' 이란 이름의 실이 날 붙들고 있기에...

딸을 잃은 지 어언 50년이나 지나버렸다.

잃을 당신엔 10살이었던 딸이 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보통은 흐뭇해하고 즐거워해야 정상이건만...

더 이상 울부짖고, 오열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

부질없고, 하릴없는 짓일지도 모르지만,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가속도가 붙어버렸다.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단과 희망의 길에서 이 가속도 붙은 마차는 딸을 그리며 어떻게든 달려가 버린다.

'희망' 과 '죽음' 에 대해 미처버릴 정도로 고뇌해본 적이 있는가?

'희망', 이것을 얻은 자는 필히 행복하다. 마치 햇빛과 같이 따스하고 열정적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에 살고 있는 나이기에, '희망' 이라 불리어지는 감정은 느껴본지 오래다. 그늘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햇빛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리.

다음으로 '죽음', 나도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하는 극단의 길. 이것이 존

제함으로써 지금의 인간이 있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통곡하는, 마치 그때그때 변하는 바다 같은 존재.

마음만은 끝없이 바다로 뛰어들지만, 왜 몸은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는 거지? 저번 주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래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제물을 받기만 하는 신 따위는 질색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어쩔 수 없는 심정인가 보다.

그래서 난 지금도 교회로 가고 있는 건지….

“아,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할머니?”

이 교회에서도 말괄량이 여 목사라고 정편이 나오는 선영이다. 활발한 게 꼭 우리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조금 서글프기도 하다.

“마침 예배도 끝났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고 와요, 네?”

들어서자마자 피부어지는 수다 공격에 잠깐 당황했다가 이내 미소를 띠며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좀체 넌, 왜 목사가 된 거니? 너 같은 말괄량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신기하구나.”

“아, 그거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 교회에 버려져서 말이죠. 교회에서 크다 보니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시길래, 얼떨결에 보니 목사가 돼 있더라구요, 후훗.”

작은 미소를 담아 보내는 메시지에 조금 웃음이 나오면서도 슬펐다. 우리 딸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좋으련만, 하면서….

“에? 저저 봐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 되죠?” 어느 유치원 벽면에 아기자기하게 붙어 있는 가운데, 1+1=1 이라는 식이 쓰여 있었다.

“잘못 쓴 거겠지. 빨리 가자꾸나. 배가 요동을 치는구나.”

딸을 그리다 보니 별별 현상이 다 생겼다.

항상 식당에 오면 시키는 게 평양 물냉면 이라니….

“아, 그런데 넌 왜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는 거니?”

“그냥…, 일종의 자격증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엄

칭 멋진 일이고, '목사님'이란 직책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다는 게 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눈물도 엄청 많겠지만, 그걸 통해 이미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갈 거니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 교회라는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에.

오늘 선영이와 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본다. 아픈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선영이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부러웠다.

믿는다는 게 멋진 일이라니, 그럼 내가 딸이 돌아오길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 건 멋진 일이란 말인가? 부질없는 소리.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나?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과정인가?

아니, 이건 이해보단 납득에 가깝지만, 그런데..., 왜 다른 과정은 나와 일치하는 거지?

1+1=1.

이 식이 금방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난 이 식을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난 이 식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픔과 눈물이 쏟아지지만, 이로 인해 배운 것은 ... 안타까움, 그리움, 갈가리 찢겨진 마음과, 희망!

하루하루 1+1=1이 성립되어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가로 '희망'을 얻었다.

드, 드디어 나도 '그늘'에서 벗어나고, '바다'에 뛰어 들지 않아도 되는 건가?

분명,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난 꼭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흘린 눈물을 보상받기 위해,
우리 딸을 돌려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한, 순수한 '믿음'을 하기 위해...



하나의꿈

●● “여기는 도라산역입니다. 평양으로 가실 분은 지금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잠에서 깨버렸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그게 꿈이었다니. 순간 너무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이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려 엉엉 울었다. 그 소리에 누나가 놀라서 달려왔다.

“하나야, 왜 그래? 무서운 꿈이라도 꿨니?”

“누나, 나 집에 갈래.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여기는 너무 답답해.”

“울지 마. 하나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엄마가 들으시면 슬퍼하실 거야.”

하나는 그 말에 울음을 툭 그쳤다. 어젯밤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엄마가 몰래 눈물 흘리시던 게 기억나서였다. 내 또래 아이들이 북한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퀴즈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도 슬픈 내용은 아니었다. 물론 북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올 뻔도 했지만 하나는 엄마가 저 때문에 우실까봐 꼭 참았었다. 하나는 엄마가 우는게 싫었다.

“누나, 어제 엄마가 왜 우셨을까? 나처럼 친구들 생각나서 그러셨을까?”

“응. 아마 그러셨을 거야. 하나야, 통일이 뭔지 아니?”

“알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통일이 되면 마음대로 북에 살 수 있다고 했어. 빨리 통일이라는 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건 쉬운 게 아니야.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몰라서 답답했어.”

“그렇지? 하나가 살았던 북하고 여기 남한은 다른 점이 많아. 언어도 차이 나고 사는 방식도 다르지.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미국과 소련같은 다른 나라들로 인해 분단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한 하겠지만 그 나라들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북한과 남한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근데 누나는 남한에 계속 살았잖아. 그런데 왜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처럼 북한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여기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기 전에는 통일이 굳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지.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았지만 말이야. 하나야, 나도 너처럼 통일이 하루빨리 꼭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거야. 서로 이념이 달라서 충돌도 많이 생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테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더 못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겠지. 하지만 그건 다 통일이 되고 난 후의 문제야. 통일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꼭 되어야 하는 거거든.”

“통일이 되면 헤어졌던 친구들,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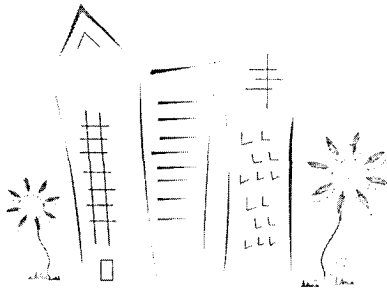
“맞아. 너처럼 헤어진 사람들이 있는 이산가족들이 많지. 그분들만 생각 하더라도 통일은 되어야 해.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그뿐만은 아니야. 남한과 북한은 일년에도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낭비하고 있어.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큰 이익일거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한층 더 높아지는건 말할 것도 없겠지. 통일은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건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우린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 알아가기 위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

야 하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 남한에서 비료, 식량같은 걸 지원하기도 하고 영화나 예술, 패션쇼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북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거야. 국민 모두가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가 꿈꾸는 일이 더 빨리 올지도 모르지.”

하나는 생각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대신 내 또래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북한에 대해 알려주어야겠다고. 하나는 다시 누워 꿈을 꾸다. 철조망이 사라진 그곳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북한친구들과 남한친구들과 함께 노는 꿈을, 머지않아 올 통일의 꿈을.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철조망

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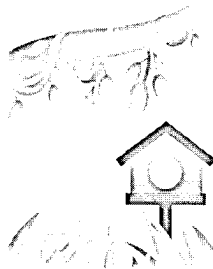
총성이 울린다. 짙은 혈향이 배인 가라앉은 어둠 속,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총성과 비명성, 고통에 찬 신음소리 뿐이다. 짙은 피바 린내에 후각마저 마비된 피난민들은 서로 살고자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도망만 칠뿐이다. 이미 총에 맞아 죽은 어미의 젖을 먹는 아기, 폭탄에 맞아 형체도 알기 어려운 새카맣게 탄 일그러진 시체, 총에 맞아 창자가 밑으로 흘러나온 피범벅이 된 사람, 도망가는 피난민들의 발길에 깔려 죽은 이의 시체는 그야말로 지옥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피난민의 인파에 휩쓸려 헤어진 이들은 울면서도 헤어진 이와 점점 멀어질 뿐이다. 1950년, 6·25 전쟁의 한 장면이다.

그리고 이 일 이후 우리의 자랑스런 한반도의 허리에 기다란 선이 가차 없이 그어졌다. 철조망이 허리에 걸린 지도 벌써 50여 년이다. 하나였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절된 채로 50여 년간 얼굴조차 못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조망이 치워지기를 빌며 기다리는 동안 저 가자지만,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이들은 병에 목숨을 내거주고 스러진다. 6·25, 38선 철조망... 이 단어들에 우리의 마음을 가차없이 밟고 지나가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결국 우리 모두 애초에 하나였던 것을. 낱낱이 파헤쳐진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치부는 이제 결코 가려지지 못한다. 한 형제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나라, 지구상 유일

의 분단국가라는 낙인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히 찍혀있으니까.

언제나 되어야 잘리었던 허리가 다시 붙을 수 있을까? 기다리기만 해서
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현명해야 할 것이다. 가슴 속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유일한
치료제라고는, 오로지 '통일' 뿐이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미 남은 길
은 하나다. 뒤의 길은 지워진지 오래요, 이미 남은 하나의 길로 들어섰기
에. 결코 물려주어서는 안될 뼈아픈 유산 철조망을 부서뜨리는 길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점차 희망의 길이 눈 앞에 보인다. 요
즘은 허락 받아야 갈 수 있지만 금강산에 가볼 수도 있고 TV에서도 가끔
북한의 모습을 심심찮게 엿볼수 있다. 강해져야 한다! 마음으로 이어져 있
다면 알 것이다. 강해져야만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을 비로소 이
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들의 손으로! 6·25란 비극적인 역사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죽은 고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선물이
되지 않을런지. 결코 물려주어서는 안될 소름끼치는 유산, 철조망. 하루 빠
리 허물고 훗날 이 비극적인 역사를 담담하게 갈라진 영혼의 반쪽, 북한 사
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한다. 부디 통일이 이
루어지기를...



반세기 허리병신

●● TV에서 자주하는 통일프로그램을 보면
난 항상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 민족이 저런 일을 겪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신다. 난 항상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왔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분단에 관한 슬픔..., 기근..., 6·25전쟁..., 이 모든 것을 할아버지는 겪으
셨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항상 분단에 관한 이야기는 할아버지께 가서 물었
다. 할아버지께서는 친절히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면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크면 말해주마.”

라고 하셨다.

예전에 할아버지와 난 TV에서 통일 프로그램을 보았다. 프로그램을 보
시던 할아버진 말씀하셨다.

“휴우, 이놈의 허리 병은 언제나 낫누.”

할아버지 말씀에 나는 물었다.

“어, 할아버지 허리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날 보시더니 꺾꺾하며 웃으셨다. 그리곤 곧바로 슬픈 표정으
로 바뀌셨다.

“내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프다는 뜻이란다.”

나는 의아해 했다.

“너 허리 아픈적 있니?”

“네, 아주 가끔요.”

“아프디?”

“네, 아주 많아요.”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계속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넌 잠시 동안 허리가 아팠는데도 그렇게 아팠잖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이나 허리가 끊겨 있잖니?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허리병신이 었단다.”

그제야 난 ‘허리 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 ‘이러다 영영 뛰지 못하는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닐까?’ 등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셨다.

시간이 지나 다시 위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미워하는 데 바빠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난 세대가 겪었던 아픔을 모르는 세대가 생겼다. 위 이야기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말이다. 그에 따라 분단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마찰을 빚게 되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민족이 이미 이분된 상태에서 또 한번 나뉘지게 될 상태에 놓인 것이다.

많은 시간이 더욱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우리는 이해해야한다. 서로가 서로를 선세대와 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만이 통일이라는 더욱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셨을 것이다. 그런 만큼 선세대 분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아픔을 가지고 있으시다. 우리도 그분들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난 반세기 동안 아파왔던 허리 병을 ‘고질병’, ‘불

치병' 이 아닌 '민족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했던 과정' 이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꿈

●● 비행기가 도착했다. 비행기 출구 문이 서서히 열리자 질푼거리는 발걸음을 힘겹게 내딛으며 내려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 노인을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진 중년 남자가 환영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노인과 남자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잠시 뒤,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았고, 비행장에 모여 있던 관중과 기자들은 박수를 쳤다.

6·15 남북선언의 시작이었다. 이 선언으로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환호했고, 또한 벌써부터 한민족의 통일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선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이러한 조그만 노력들을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연구하고 사회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다.

첫째,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현재 북한과 남한의 군비지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곳이다. 길거리에는 소위 '꽃제비'들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구걸을 하고 있고, 대형사고가 터져도 환자를 구출할 의료시설도 미미한 수준이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제선진국이라고 떠들지만, 실상 사회의 냉대를 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에 콧방귀나 췌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 양국 정부가 군비로 쓰이는 많은 돈을 사회복지나 통일비용으로 쓰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편다면 남과 북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상태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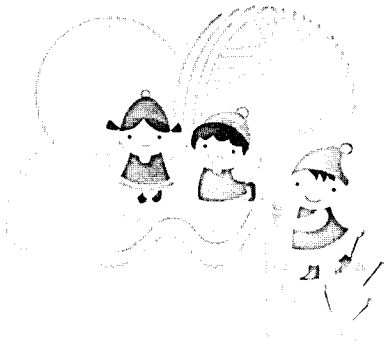
둘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명 6·25전쟁이 흐른 지 50년이 넘게 흘렀다. 당연히 세월의 차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오해만큼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은 미국이 하는 말은 무조건 따르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다면, 잘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기만 살았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통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문화와 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토도 동강난 상태이고, 한 민족이지만 살아온 방식 자체가 다른 남한과 북한이 쉽사리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영토적 의미의 통일을 뛰어넘는 문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민족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처음 시작은 합동예술제나 스포츠 행사 같은 조그마한 노력에 불과하겠지만, 그 노력들의 끝은 정신적인 통합으로 나아가 갈 발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셋째, 통일이 이루어진 미래의 한반도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통일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 미래의 한반도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공간이다. 그 속에서 국민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다투는 끊임없는 또 하나의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이 완성된 공간 속에서 살아갈 국민들을 위해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이 확립되어 있다면 다툼을 취소화하고 화합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이라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투자가는 남한과 북한이다. 이 사업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부디 남한과 북한의 공동 프로젝트

트인 '통일' 이 하루 빨리 완성되기를 기원해본다. 이 기원에 관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통일은 결코 '꿈' 이 아닌 '현실' 이다.



광주광역시

- 한민족 한마음 / 127
- 아직 못다한 이야기 / 129
- 실향, 그 통일의 통증 / 132
- 통일을 기다리며 / 134
- 손 닿을 곳의 통일 / 136
- 진정한 '대한민국' / 138
- “나는 통일의
작은 물방울이 될테야” / 141
- 할머니의 바람 / 143
- 할머니의 이야기 / 145



한민족

한마음

●● 내 동생은 축구광 팬이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와 쿠웨이트가 경기를 한다고 동생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축구에는 월드컵 이후로 별관심이 없었던 나도 동생의 축구 사랑에 늦은 시각에 하는 축구경기를 함께 보기로 하였다.

잠이 왔지만, 동생의 힘찬 응원에 나도 같이 얼른 우리나라가 골을 넣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주 골을 넣으려고 했지만 아쉽게 비켜가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주영 선수가 첫 골을 넣었다. 잠이 와서 눈이 감기려던 중에 첫 골에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멋진 골로 전반전에만 2골을 넣었다.

전반전이 끝나고 쿠웨이트 사람들이 돌과 물통들을 마구 던졌다. 쿠웨이트가 전반전에만 2골이나 뺏겼으니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후반전에만도 2골을 또 터트려 4:0으로 통쾌한 승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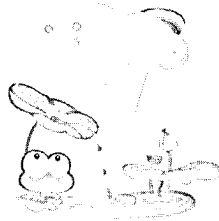
잠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경기를 지켜본 보람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어제 좀 더 이른 시간에 북한과 일본이 경기를 했다는 것을 뉴스로 알 수 있었다. 잠깐 경기모습이 뉴스를 통해 나왔는데 북한이 2:0으로 패했다고 한다. 순간 내 기분은 묘하게 좋지가 않았다.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엄연한 한 민족인데, 그렇게 졌다고 하니 왠지 떨떠름했다. 만약에 우리

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됐더라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일본도 이기고, 쿠웨이트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북한도 일본과의 경기에서 질 때 쿠웨이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쉽고 짜증이 났겠지? 북한사람들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이겼단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나처럼 만약 통일이 됐다면 이랬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며칠전, 신문에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조건 없이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전에 내가 그런 기사를 봤더라면 아마 나는 우리나라에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북한까지 돕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축구경기만 해도 북한이 지는 것을 보고 슬픔는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것이 한 민족이 가져야 하는 자세일 것이고 이리다 보면 통일도 점점 가까워 질 거라 믿는다.

나도 북한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실천하는 폐휴지도 냈고, 학용품도 낸 적이 있다. 그땐 별생각 없이 있던 내 학용품들이 지금도 북한 친구들이 잘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뿌듯하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함께 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한민족 파이팅!



아직 못다한 이야기

●● 중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고, 좀 더 늘어난 공부량에 어릴 적에는 그렇게 자주 보던 하늘조차 볼 기회를 잃었다. 늘 일직선으로만 세상을 봐 오고, 달려오다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 6월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깨끗한 물에 푸른 물감을 섞어 만든 듯 티 하나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자니 어디서 많이 본 하늘의 모습이 겹쳐졌다. 어디서 봤을까?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니 내 머릿속 한가득 떠오르는 금강산의 모습이 빙그레 웃게 되었다. 그게 6학년 여름방학이었다. 금강산에 갈 것이라는 아빠의 말씀에 통일 전까지는 갈 수 없을 줄 알았던 금강산 관광의 기쁨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며칠간 방방 떠 있을 정도였다.

드디어 가던 날, 눈처럼 하얗고 커다란 배에 몸을 싣고 금강산이 있는 북한으로 향했다. 지금은 육로가 생겨서 단시간에 금강산에 갈 수 있지만 그때는 4시간이나 걸려 바다를 통해 빙 돌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의 보드라운 흙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질감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땅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내 발을 감싸는 걸을 느꼈다. 늦은 밤 호텔의 발코니에서 불어온 친근한 바람까지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둘째 날, 금강산 등산을 하게 되었다. 만물상과 구룡폭포 중 구룡폭포를 택한 우리 가족은 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

연이 이루어낸 완벽한 예술이었다. 곳곳에서 숨쉬는 나무들과 바위들과 쏟아지는 물줄기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한 민족에게도 그들의 절경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래, 그렇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고 하나로 뭉쳐주지만 우리 인간들이야 말로 형과 아우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의 가슴에, 이산가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모진 휴전선을 그어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금강산 구룡폭포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환경안내원 언니는 지금도 내 기억에 남는다. 좁고 비탈진 길을 지나다 넘어지려고 하던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며 “조심 하시지요.” 말해 주던 그 언니.

조그마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먼저 “남조선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말을 건네주고, 금강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기에 대해 소개해 주던 그 언니.

철없던 초등학생의 질문에 하얀 치아를 내보이며 하나하나 미소와 함께 대답해 주던 그 짧은 만남과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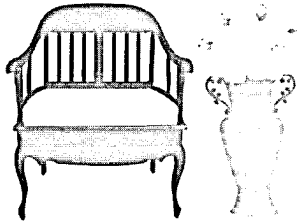
그 시간만큼은 사상과 문화가 달라도 같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에 무언의 통합을 느낄 수 있었다. 일행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만 했던 그 대화에서 아쉬워하며 손을 흔드는 내게,

“우리 날래 통일되어 못 다한 이야기, 마저 하는 기야요.”라고 말해주며 화사하게 웃던 그 언니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무뎠던 그 여름, 금강산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고 푸르른 녹음보다도 더 진한 민족애를 느꼈던 그때.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북한의 무용수와 남한의 기수가 함께 출연하는 CF가 제작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걸음씩이라도 다가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십여 년 전, 총과 칼로 쌓았던 벽. 이제 그 벽을 훈훈한 사랑과 이해로 무너뜨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던 그 철조망이

철거되고 허리 잘린 호랑이가 다시 그 용맹함을 떨칠 때, 금강산에서 만났던 그 언니와 서로 웃으며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향, 그 통일의 통증

고향, 생각만 해도 푸근한 나무 그늘 쉽터.

‘고향’ 하면 나는 설날과 추석의 대이동이 생각난다. 그때만 되면 차들로 도로를 에우고 민족 대이동이라느니 귀성길 차량들 덕에 교통사고가 잦아느니 하는 뉴스가 각각 방송국마다 나온다.

우리가 있기까지 근원이 되고 세상살이 지칠 적마다 위로가 되는 고향.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향을 찾으며 즐거워하는 사이 건조한 눈 가득 축축한 물기를 담고 고개를 돌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있는 듯하다.

실향민, 고향을 잃은 사람들.

언젠가 실향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깡마른 할머니 한 분의 깊게 패인 이마의 골이었다. 민족이 분단된 지 반세기도 훌쩍 간지 오래다.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의 이마 위 골짜기는 슬픔을 담고, 애환을 담고 마지막으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담았다.

“할머니, 만약 꼭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무얼 하고 싶으세요?” 하는 리포터의 질문, 할머니는 여기서 자식들 거뒀어 이만치 잘 키워냈는데 뭐 바라는데 있겠냐며 고개를 돌리셨지만 눈물 맺힌 그 눈에서 나는 보았다. 죽기 전에 밟아 볼 수나 있을까? 하는 땅을 향한 애달픔을 나는 보았던 적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쪽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들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래선 안 된다. 끊임없이 휴전선 너머 있을 자신들의 고향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실 그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더 명을 지워야 하는 걸까? 우리는 그분들이 겪으신 슬픔 덕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젠 우리가 그분들의 슬픔을 대신 흠뻑 흘려 드릴 때가 아닐까?

통일, 우리 민족의 심해져만 가는 충치

얼마 전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 통증이 별로 없어서 심한 줄도 모르다 치과에 가서야 겨우 알았다. 어금니가 많이 썩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보신다고 이를 건드리실 때마다 육신거리던 그 통증. 치료는 잘 되었지만 난 충치가 나에게 주었던 그 육신거림을 잊을 수가 없다.

문득 우리 민족에게도 충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조망 하나 때문에 보고 있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쪽의 땅. 남북한 합동공연이니 하는 것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걸론 이제 부족하다. 실향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다.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른다. 통일이 되면 죽어야지 그전엔 못 간다고 하시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그분들은 우리의 통증이다. 그 통증을 외면하고 싶겠지만 외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왜 모르는가? 무시하기보다 돈을 내고서라도 치료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건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 나는 그분들이 최소 마지막만큼은 그들 고향의 따뜻한 품에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만한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시민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통증은 없었음 하는 바람으로...

통일을 기다리며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거실에 있던 나는 재빨리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말하였다.

“여보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아, 할머니다. 외할머니!”

전화를 거신 분은 바로 외할머니였다. 내가 인사를 묻기 전에 할머니께서 급하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푸른아, 할머니가 드디어 금강산에 가게 되었단다. 이제 곧 이북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라고 하시며 너무나도 어린아이 마냥 좋아하셨다. 며칠 후 할머니께서는 관광버스를 타고 육로를 통해 금강산 여행을 하러 가셨다. 나는 할머니께서 금강산 여행을 하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나에게 북한사람들의 모습과 생활환경 등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할머니께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4일 후 할머니께서 금강산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할머니 맥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금강산 여행 재미 있으셨어요?”

나의 물음에 할머니께서는 얼굴색이 변하시더니 휴! 하고 한숨을 지으시며 나에게

“푸른아, 금강산 여행도 재미있었지만 북한사람들의 모습에 할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팠단다. 같은 땅덩어리에 있으면서도 생활모습은 우리와 어찌

나 다르던지..., 북한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비쩍 말라 못 먹고 굶은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시며 눈에 눈물을 가득 채우시더니 이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셨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분단되어 서로의 가슴에 멍을 새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줍은 듯한 얼굴로 북한의 명소와 관광지를 상냥한 말투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던 북한 안내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욱더 분단의 현실이 밍기만 하다.

난 우리의 아픔을 매꾸어 주지 못하고 상처만 남긴 6·25전쟁에 대한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충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던 북한군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6·25전쟁이 원망스럽다”고 말씀하셨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산가족이다. 2000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전국적으로 방영해 주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긴 찾았지만 못 찾은 가족들의 슬픔과 간절함은 더욱 깊어갔다. 그런 아픔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통일일 필요하다.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평화통일’ 말이다.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와 기쁨을 바라고 통일을 꿈꾸기 위해선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남북이 서로 간에 존중을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통일의 약이 지어질 것이다.



손닿을 곳의 통일

●● 통일, 한반도의 영원한 숙제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다. 파릇한 유치원 아이들부터 하얀 머리의 노인들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소원이다. 한반도의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50년, 지금의 남과 북은 짧은 세월 동안에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

작년 가을쯤엔가, 우리 학년은 한라산과 통일전망대, 정동진을 여행하는 2박 3일의 수학여행을 갔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3일째 우리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산길을 거쳐 통일전망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통일전망대를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을 한 후, 좀 더 높은 곳에서 북한을 볼 수 있도록 기나긴 계단을 올랐다. 한 발짝, 한 발짝, 망원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감동에 휩싸였다. 그때, 나는 그 기분이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의 피와 몸속 깊숙이 박혀있는 어쩔 수 없는 애국심이었던 것을 알았다. 학생들은 너도나도 500원짜리 동전을 구해다가 망원경으로 가깝지만 먼 북한을 보려고 애썼다. 금강산은 100m 달리기 몇 번이면 금새 다다를 것 같이 가까웠고, 그 너머의 북한을 상상해 보니 통일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허탈했다. 망원경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본 모습은 금방이라도 북한의 동무들과 손을 잡고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이 가까운 거리였다.

아이들이 모두 버스로 돌아갈 체비를 했다. 나와 내 친구는 제일 늦게까지 전망대에 남아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속 나의

모습은 세계 불고 있었던 바람 때문인지 더욱 슬펐다. 전망대를 나왔다. 올라갈 땐 몰랐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모두 다 같은 옷, 같은 표정으로 총을 메고 있는 남북의 군인들, 무섭게까지 보이는 그들에게도 통일의 따뜻한 마음은 있을 것이다. 죄를 지어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게도, 남북의 대통령들에게도 통일의 간절한 마음은 있을 것이다. 50년의 세월이 정보혁명으로 천지가 개벽했다. 그만큼 북한과 우리는 말투와 모습, 사상까지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북한의 노력도 남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금새 바뀌기에는 쉽지 않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다. 꿈을 이루는 데에는 속도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일 전망대의 높고 긴 계단을 차근차근 오르듯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 내가 서있게 될 자리가 통일 전망대가 아닌 북녘 땅이기를 온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한다.



진정한 ‘대한민국’

●● 내가 바라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마음속 깊이 염원하고 있는 공통의 소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옛날처럼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과 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어디서부터 잘못된 역사였기에 ‘분단’이란 두 글자가 우리네 마음을 이렇게 쓰리게 만드는지 어째서 북녘 땅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게 만들었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늘 빠지지 않는 것, 6·25! 어느 나라에게나 갈등과 대립은 있었겠지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겠지요. 우리나라의 어제를 잘 살펴보면 북과 관련된 일이나 사람들은 무조건 비하하고 남보다 더 처절하게 미워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문화가 익숙치 않아 적응이 덜 되었을 뿐인데, 아직 어린 아이여서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지 못했을 뿐인데,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분단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라 보일 것 하나 없는 누가 보기에도 한 가족 같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남았습니다. 우린 자랐으니까, 자라고 있으니까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던 때의 오점을 지우고자 하나를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아직도 38선이란 건 현재로 남아있고, 단 하나의 ‘KOREA’가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어야 세계에서는 “아~”하고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려면, 진정한 우리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과 몸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조금 쑥스러워서 다가서기가 힘들 뿐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건 그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저 눈으로만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경제·문화적 교류도 점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표현했기에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냄비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몇 시간 만에 동이 나버린 일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자하는 민족의 염원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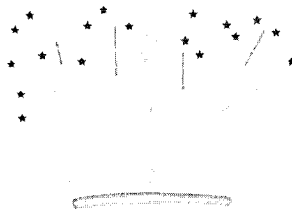
교류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은 땅에서 자라난 음식을 먹고 같이 자라왔지만 다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교류를 하고 서로를 더 만나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6·15남북공동선언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그저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협력과 민간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들도 상당부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없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의지를 확실히 나타낸 점입니다. 조금 내딛기도 하고 조금 물러서기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결실을 거둔 우리입니다.

독일, 예멘, 베트남, 모두 통일을 경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무력적 통일방식을 보여주기도 했고, 통일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선조들이 세자를 교육시킬 때에 역사교육을 중요시한 이유가 선왕들의 정치에 잘잘못을 가려 완성된 정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통일을 경험했던 나라들을 보고 발전된 통일을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었다면 지금 분단 또한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고,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우린 시작했고, 지금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남기다 보면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팠던 과거를 지니고 있기에 '북한'이란 말을 들으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뛰어올라 봅시다. 낮더라도 늦더라도 뛰어올라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름을 보아도 문화를 보아도 다른 면보단 비슷한 부분, 같은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한 가족입니다. 늘 갈망하고 또 갈망하던 것이기에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름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통일 작은 물방울이 되어야”

●● “내 방에 절대로 들어오지 마!” “누나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엄마가 사다 놓으신 아이스크림을 먹지마라고 신신당부 했는데, 학교에 갔다 온 사이에 동생이 먹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졌다.

엄마께서 소리 지르셨다.

“그래, 다시는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도 말고 38선 그어라”

순간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38선, 휴전선, 참 어이없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어른들은 어떤 생각으로 56여 년이나 휴전선을 가지고 사는 걸까? 금강산가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단군의 핏줄을 물려받은 같은 민족 내 나라에 가는 건데..., 그건 마치 우리 집에서 이방 저방 옮길 때마다 방문 열고 신분증 내밀어 허락 받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런 모습이다. 금강산엔 거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강산에 가시고 계신다. 아마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고향이 그리워서 금강산에 가서라도 그런 마음을 털어내려고 하신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거실로 나가보니 동생이 도와달란 소리도 못하고 숙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괜히 안쓰러워 보여 “누나가 도와줄까?” ‘관둬’ 하려다가 꺾 참는 동생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고마워, 누나.”

우리 집의 38선은 이 작은 한 마디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째, 월드컵에서도 단일팀으로 나가게 되면 4강은 물론 결승전까지도 문제가 아닐 것이다. 둘째, 서로 헤어져 보고 싶어 하는 이산가족이 사라질 테니 이산가족의 아픔이 끝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활기찬 나라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이 합쳐지면 우리나라는 기술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두 나라의 군대가 합쳐지니 우리는 군사 강대국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도 없어질 테고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통일은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학교에서 북한 어린이 학용품 모아주기, 북한어린이 교과서 종이 모으기, 성금 모이기 같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를 알아듣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에서 사용중인 다른 말들을 익혀 두어서 같은 민족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겠다.

지금의 금강산 관광도 통일이 되기 위한 천 리 길 중의 한 걸음의 시작이다. 한 걸음이 평양, 백두산 관광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북한에 자주 방문하다 보면 닫혔던 북한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 큰 강물이 되도록 힘을 합해야겠다. 통일은 틀림없이 우리의 작은 물방울이 이루어 낼 것이다.

통일은 어른들이 풀지 못한 숙제이지만 우리들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할머니의 바람

●● 오늘도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아주 멋있고 남자다운 분이었던다.’, ‘힘이 아주 장사셨지.’ 등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본 색이 바래 많이 구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만 할아버지를 뵈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북에 계신다.

55년 전, 전쟁이 발발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피난길에 오르셨다. 원래 고향은 강원도 쪽이신데, 전쟁이 일어나자, 남쪽으로 피난을 가시다보니, 부산에 계시다가 광주로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중 할아버지께서 자원입대 하셔서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셨다. 전투 중에 국군이 패해 할아버지께서는 포로로 잡히셔서 북으로 가게 되셨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전사통지서를 받아 무척이나 슬퍼하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일부 관련기관에서 할아버지의 생사가 할머니께 전해졌다. 할아버지께서는 함경도에 살아계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 반세기 동안이나 볼 수 없었던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레임에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잘 이루시지 못하셨다. 올해 연세가 76세나 되시는 할머니께서 건강에 무리가 오지는 않을까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현재 남과 북과는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반세기 동안이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금강산 관광도 개방되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예 생사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버거운데 피를 나눈 한 가족이 그것도 눈앞에 있는데도 반세기 동안이나 한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 할수가 없다. 조금이나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간절히 바란다. 원래 우리는 하나의 국가였으며, 하나의 역사아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다. 그런데 한번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분단이 되어 버렸다는 게 허무할 뿐이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남과 북 국민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원할 때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이게 누구여, 우리 연아 아니여!”

“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여, 우리 손녀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잠도 잘 못 잤당께?”

“저두요! 엄마가 일주일 전에 할머니 댁에 가자고해서 어제는 아주아주 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어이고, 우리 손녀가 제일이여.”

“할머니도 최고!”

“할미가 옥수수 삶아 냐다. 어여 들어가자. 이제 날씨가 쪼까씩 추와진 게..., 그런디 어째 에미가 안죽도...”

“어머니, 저 왔어요.”

“오, 그래. 먼 길 오니라 수고 혀다. 추울 것인디 언능 들어오니라.”

“어머니, 이거 오는 길에 조금...”

“뭘 이런 걸 번거롭게 사오고 그랬냐... 연아나 더 먹일 일이제.”

“아유, 어머니도. 연아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잘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평소애 잘해드리지 못해 늘 죄송하기만 한데요 뭘.”

어머니는 쭈글쭈글 말라있는 할머니의 손에 비닐봉지를 꼭 쥐어드렸다.

“어머니, 추운데 이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오니, 할머니가 손수 삶으셨을 옥수수냄새와 할머니만의 포

근함이 짙은 풀내음이 되어 감쌌다.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꼬르르륵 꾸룩꾸룩’ “연아 배고픈가보구나.”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내 배가 밥 달라는 소리에 어머니와 할머니는 가만히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밥해 올릴게요.”

“아니여 아니여, 나가 해야제.”

몸을 일으키시는 할머니를 어머니는 두손 저어 말렸고, 할머니는 미안스러워 하셨다.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방안이 조용해져 어색해진 틈에 할머니를 졸랐다.

“이야기? 그러…, 응, 그러. 나무이야기를 해 주든 되겠구먼.”

“우와! 어서 해주세요.”

“얼마 전에 말이여, 찌어그 당산알제? 거그에 뿌리 깊은 나무가 있었제. 너도 알제? 거그서 설에 삼촌이랑 아부지랑 배드민턴도 치고.”

“아, 저기 뒤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언덕이요?”

“그러. 이, 거그서 그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어. 아주 오랫동안. 그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쉬어가기도 했어. 나무는 예전부터 다툼을 혀도 악의가 거의 없는 이곳 사람들을 믿고 지켜줬구먼.”
“와~”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긴걸 알게 되었제. 사람들은 나무에게 말했어. 인자는 나라가 둘로 동강 나브렀다고.”

“네? 땅이 어떻게 반으로 갈라져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 생각하시는 듯했다.

“땅은 갈라지지 않았구먼. 멀어지지도 않았제, 다만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 땅덩어리에 깊은 상처를 내버린 거구먼. 그 나무가 괴로워 말

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나무의 뿌리를 깊게 파서 북쪽에 몰래 옮겨 심었구먼. 나무는 북쪽 사람들은 지금쯤 반성하고 괴로워서 그리워할 것이라 생각했어.” “그래서요? 나무는 행복해졌어요?”

“엠텐, 은석아. 그리 많은 것을 대변에 물으면 워낙 혀란말어.”

“에헤헤. 얼른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나를 보며 잔잔하게 웃으셨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북한사람들을 만난 나무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모두 말 걸어 보았구먼. 근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첩자 취급하고, 남한에서 온 더러운 나무라고 하면서 결국엔 뿌리를 파내어 남한에 던져 버렸제…”

“그…, 그럴수가…”

“나무는 남쪽으로 버려지고 나서 영판 살 의욕이 없어보였구먼. 결국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제.”

“세상에! 말도 안돼.” “연아야, 슬픈 이야기제?”

“네…,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남북분단이라는 것을 들어봤제?”

“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분단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여. 남 일같이 느껴질지도 모르는 것이제.”

“할머니”

‘철컹’

“연아야, 밥 다 됐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냐. 연아야 밥 묵자.” “네…”

식사를 하는 내내 목에 생선가시라도 박힌 듯했다. 많이 배가 고팠는데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버려진 나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사이 좋게 어울리던 그들이, 어찌서 땅에 철조망으로 땅을 가르고 서로를 헐뜯게 되었을까? 그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무의 마음으로, 나무가 느꼈을 그 기분으로 내 몸은 어느새 당산나무 위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아름답드리나무가 되어 있었다.

대전광역시

- 복숭아 / 151
- 분꽃 / 153
-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156
- 평양성을 향하여 / 159
-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상처 6·25전쟁 / 162
- 어머님 진상서 / 165
- 세계를 향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 168
- 저 먼 하늘에는 / 171
- 평화통일, 우리 민족의 과제 / 174

복숭아

●● “응…, 그래, 그래.”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한숨까지 쉬어 심각한 통화를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이 하도 심각해서 무슨 큰일이 났나 궁금했다.

“엄마, 왜?” “응, 수화이모가 빨리오래,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다나봐.”

장대가 땅에 꽂히는 것처럼 굵은 비가 땅바닥을 내리치는데, 이 비에 연무대에 간다니 그 이유가 참 궁금했다.

엄마는 차에 오르시자 그제야 말문을 여셨다. “연진아, 수화이모 아버지가 복이 고향인건 알지?” “응, 알지. 그래서 지난번에 금강산도 가서서 볼펜도 사다 주셨잖아.” “그래, 그런데 복에 두고온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는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엄마는 목이 메이는 것처럼 우는 목소리로 눈물을 닦으셨다. 나도 그랬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양 근처의 시골마을이었다. 할아버지에게는 4살난 아들과 2살난 딸 그리고 아내가 있었다. 그 4살난 아들이 유난히 복숭아를 좋아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끝나자 살기가 어려워져 남한에 내려가 사정을 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름이었던 떠나기 하루전날 할아버지는, 큼지막한 복숭아 3개를 사서 아들에게 손수 닦아 주셨다. 하지만 딱딱했던지 아들은 잘 깨물지를 못했다. 할아버지는 한 입을 크게 베어 아들에게 주며 “상철아, 아버지 침이 묻어 더 달다.” 하셨다. 아들은 복숭아를 먹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다 할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었고 그게 아들과 아버

지의 마지막 만남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며칠 만에 다시 볼 줄 알았던 아들을 삼팔선이 막는 바람에 대신 못 보게 되었고 남쪽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40년 전 연무대 돌산을 사서 남쪽의 아내와 밤낮없이 일구어 과수원을 만드셨다. 그곳에 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복숭아를 심었던 것이다. 복숭아를 따면 제일 크고 맛있는 것들을 골라 마루에 놓고 아무도 못만지게 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이르니, “난 이제 죽는다. 이까짓 복숭아 다 내다 버리라.” “아버지, 그 아들만 자식인가요? 나도 자식이잖아요.”라며 고함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그릇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 슬펐다. 엄마와 일전에 호주 갔을 때 4주만 헤어져 있어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장장 50여 년이라니, 그 아픔이 느껴진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산가족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는커녕 그 그리움만큼 선명해진다.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은 더욱 간절해졌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특하면 마음대로 휴전협정을 어기고 도발을 한다. 식량에, 비료에, 생필품에, 심지어 소똥까지 몰아다 주었는데도 핵무기로 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하자. 겁쟁이라서가 아니다. 자신 있는 너그러움이다. 한 그루의 복숭아나무가 잎을 튀우고 열매가 익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도 그럴 것이다.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만드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 모두 노력하면 통일이라는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당에 버려진 할아버지의 마음도 다시 담아 드릴 수 있을 거다.



분꽃

●●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른 아침 6시 외할머니께서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밭에서 나물을 뜯으시며 구슬프게 부르시는 노랫소리가 내 귀에 차갑고 축축한 아침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나물을 뜯으시는 외할머니의 손은 햇빛으로 검게 타고 힘든 세월의 증거이기라도 한 듯이 주름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7살이었던 나는 작은 걸음으로 외할머니 옆에 다가가 쫓그리고 앉았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녀는 노래를 중단하고 나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이고, 뭣 하러 나왔어. 더 자지. 얼른 들어가. 추워.”

“할머니 나물 뜯는 거 볼래.”

외할머니는 나의 애교에 살짝 눈웃음을 치고는 내게 그녀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입혀 주셨다.

“할머니, 근데 아까 부르던 노래는 무슨 노래야? 되게 구슬프다.”

“응, 이 노래…, 6·25 노래라는 거야.”

“할머니는 6·25때 살아있었어?”

“그러엄. 이 할머니가 그때 동생들을 다 잃었지….”

외할머니는 밭의 가장자리에 세워진 울타리 앞의 분꽃 봉우리들을 반짝이는 눈동자로 바라보셨다. 나는 그때 그녀의 눈이 단지 막 떠오르기 시작한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그것이 흐르지 않는 눈물이

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쓰디 쓴 그 기억을.

인정이고 뭐고 다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갔다. 어린 나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말이라고 어린 동생들을 다독여 가며 부모님의 뒤를 뒹뒹하게 따랐다. 모두 커다란 보따리 하나씩 이고 남으로 남으로, 계속 남으로 내려갔다. 막내도 힘겹게 종종 걸음으로 쫓아왔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놓지 말거라, 꼭 이 애미 뒤에 붙어 있거라.' 라는 등의 충고를 끊임없이 하셨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걷는 고통의 나날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 국민이 다 나온 것처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들 이 거대한 행진을 '피난' 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3일을 걸었을 때 막내가 병이 났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적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 지체하기는커녕 더 빨리 걸어야 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막내는 어린 천사가 되어 어두침침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차가운 막내의 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속이 터질 듯 답답했다. 북한놈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릴 뻑뻑 질러가며 울부짖었다. 그렇게 맘 놓고 울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두 눈에 눈물을 가둔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끌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개념이 없었다. 걷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막내가 하늘로 올라 간지 3일 만에 나에겐 한 차례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동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와 아버지는 작은 동네로 들어섰다. 몇 차례 피난민이 지나간 터라 동네 사람들은 대문을 잠가 두고 있었다. 인정도 다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하기에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식량을 피난민들에게 퍼줄 수 없었다. 겨우겨우 빵 두 개를 구해 기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던 찰나, 고막을 터트릴 정도의 굉음이 들렸다. 그 소리에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나와 아버지는 몇 초 후에 공포에 사로잡힌 채 가족들을 향해 뛰었다.

너무 멀다. 달려도 달려도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었나? 가쁜 숨을 들이키며 나와 아버지의 땀박질이 멈췄다. 피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엎어져 있는 가족들. 그날 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버렸다. 적들이 죽었다. 내 소중한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 상처와 함께 내 가슴속에는 분노도 자리 잡았다.

긴 이야기를 끝내신 외할머니는 공허한 눈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 보셨다.
“할머니야, 울지 마아.”

외할머니는 울지 않으셨다. 하지만 내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막내동생은 분꽃을 좋아했었다. 언니와 다투었을 때 막내는 항상 분꽃을 꺾어 건네며 용서를 빌었다. 어느 날 막내는 천사 같은 미소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 우리 이 꽃을 화해의 꽃이라고 하자. 두 사람이 싸우면 어느 한 쪽이 용서를 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화해란 성립하지 못해. 언니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를 비는 게 무서울 거야.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면 안 돼. 어우러져 살아야 행복한 동물이야. 내 용서를 받아줘서 기뻐, 언니.”

‘그래. 분꽃이 이제 그만 그들을 용서하라는 구나. 용서를 비느라고 봉오리를 활짝 피지 못하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겠지. 밋다고 계속 미워할 수는 없잖니? 더군다나 같은 핏줄끼리 날카로운 칼날을 서로에게 들이밀었으니 이것보다 더한 죄가 있을까? 우린 이제 그만 이어져야 돼. 모두가 아팠으니까 약을 발라 치료를 해야지.’

분꽃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어졌다.
그날 오후, 울타리의 분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요즘은 누가 보아도 북한과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갈수록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핵을 만드는 무서운 나라,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렇듯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결국 북한을 한 민족, 한 핏줄인 사람들이 아닌 통일을 목표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골치 아픈 나라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로 북한을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여러 교류를 통해 가까워지고 있는 남북한의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다.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고, 위성연결을 통한 북한과의 합동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의류업체가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남북의 협력과 교류는 더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먼저 하나가 된 우리는 통일을 향한 계단을 한 발짝 더 오르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남북연합'의 단계는 꽤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중 '통일국가'의 바로 전 과정이니 만큼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니 우리 모두가 시간을 들여 많은 일들을 노력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미 50년 이상을 하나이지만 돌로 살아온 우리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충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통일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적대감이 아닌 동포애로, 비난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야말로 아직은 상상조차 우리라고 느껴지지 않는 군대의 통합이나 통일헌법의 준비 등이 가능해지니, 우리는 순간순간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국가들을 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베트남의 경우 무력통일,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강제통합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통일 후 몇 십 년이 지났을 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90여만 명의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탈출한 것을 보면 우리의 통일방법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동독의 서독 편입으로 통일한 독일은 동독인들의 요구에 의한 흡수통일이었기 때문에 서독의 기본 이념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발전하는 독일이 될 수 있었다. 대조적인 이 두 나라의 통일 방법과 그 결과를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최고의 통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큰 대회나 시합이 있을 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응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오히려 남북한을 원수관계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분단이었는데 그 상태를 너무 지속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 더 친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계속 놀라게 해주고 싶을 뿐이다. 세계를 여러

차례 놀라게 한 한국인, 하루 빨리 전 세계를 뒤흔들게 할 우리의 진정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평양성을 향하여

- 선생님께 -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푸르름의 향기가 한반도를 감싸는 싱그러운 여름이 왔어요. 파아란 여름하늘 아래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씁니다.

전 이제 6학년이 되었어요. 6학년이 되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저는 5세기경 대단한 전성기도 누렸고 그 후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후손들이 계속하여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고 고구려가 그때 당시 아주 막강했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저는 가족과 함께 국립중앙 박물관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보고 가슴이 벅찼어요. 거대한 바윗돌에 광개토대왕님의 훌륭한 업적들을 가득 새겨놓은 그 섬세하면서도 고구려의 기상이 넘치는 선조들의 발상에 저는 울컥할 만큼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더욱 고구려의 많은 유물들이 있는 평양과 고구려의 전성기 때 사용한 궁궐인 평양성을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고구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양에 갈 수 있다면 고구려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평화학교에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남과 북에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곳저곳을 뒤져보고 있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에게 북한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전 재빨리 클릭을 했지요. 비록 그 체험은 금강산 체험이었지만 그래도 전 고구려땅에 조금이나마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였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나 소년 소녀가장 또는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아이들에게만 돌아오는 기회였어요.

전 너무나 아쉬웠죠. 통일이 된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정말 아쉬운 일이었죠. 옛 우리의 선조들께서 열심히 지키신 한반도를 반박에 체험할 수 없다니...

사회책에 나온 50여년 전 한반도의 지도를 살펴보면 하나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한반도 허리부분에 길다란 선이 그어졌지요. 지도에서는 한뼘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갈 수마저 없는 것일까요?

한반도 지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지구본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오는데 왜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5시간이면 차로 갈 수 있다는 평양을 못 가는 걸까요? 이렇게 가까운 곳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에요.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전 당장 짐을 싸들고 평양성에 가서 고구려를 체험할 것이예요. 6·25라는 그 가슴 아픈 전쟁 때문에 반만년이나 함께 했던 민족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라지다니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통일하게 된다면 북한 아이들은 신라와 백제의 역사탐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에 놀랄 것이예요. 또한 남한 아이들은 제가 그토록 원하는 고구려의 역사 탐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진으로만 봐오던 한편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슬픔도 없어질 것이고, 한민족이 다시 합쳐졌다는 감격스러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수학여행을 경주 대신 평양으로 떠나고, 설악산보다는 백두산 내지 금강산으로 가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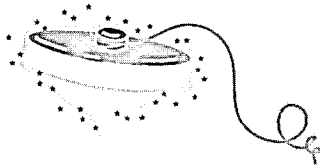
그때가 되면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한 민족이 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겠
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고구려 역사탐험을 하러 평양에 가볼 수 있을
까요?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날이 오면 함께 손을 잡고 경의선 열차를 타고 북한에 가요. 가서, 우리
가 모르던 훌륭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재를 북한 동포들과 함께 직접 느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슴속까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백두산 천
지에 올라가 벅찬 통일의 기쁨을 메아리로 울려보아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 봄이 올림 -



잊을 수 없는 우리민족의 상처 6·25전쟁

●●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약 55년…, 오래된 세월을 지나서 이제는 잊혀질 만도 한데, 아직 전쟁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이산가족들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이란 곳인데, 지금 웅진은 38선 이북지역이어서 갈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이 다 모일 때면 항상 사진을 꺼내놓고 어렸을 적 기억을 되짚으시며 이야기를 해 주셨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이란대. 날씨가 맑을 때면, 동네 동무들과 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 또 백령도도 저 멀리 보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백령도밖에 갈 수가 없어. 백령도 바로 옆, 내 고향이 훤히 보이는데 갈 수가 없대니…”

그렇게 항상 말끝을 흐리시는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하지만, 정작 가장 슬퍼할 분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겠는가? 특히 할아버지께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전쟁 당시의 참혹함과 피난생활은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오싹할 만큼 무섭다. 할아버지 가족은 세 척의 배에 나누어 피난을 오셨다고 했다. 큰 배를 구할 수도 없었지만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가던 배에 폭탄이 떨어져 할아버지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명과 총소리,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들…, 그때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며칠씩 밤을 지새우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다고 하셨다.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울면 들리게 될 것을 염려해 아이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기도 하고 낮에는 숲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피난을 하기도 하셨단다.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 가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 장소가 가족들과 마지막이 될 것이란 생각도 못한 채 할아버지와 중조할머니는 그렇게 남한으로 피난을 와야 했다고 한다.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린 할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고자 아직도 살아 계실지 모르는 할아버지의 일가친척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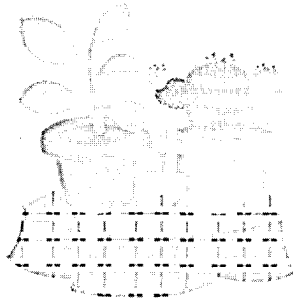
방송국에 신청서를 내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북출신 사람들 모임에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보다도 더 크고 슬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할아버지 순서는 당기가 힘들었다. 17살에 군에 입대하셨던 할아버지는 스무살이 넘어도 제대를 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셨단다. 왜 싸워야 하는지, 전엔 가까운 이웃사촌이던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냥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이 살기 위해 총을 겨누셨다고 한다.

전쟁의 충격으로 귀도 어두워지시고 손가락 마디를 몇 개씩 잃으셨으며 다리에는 아직도 심한 흉터가 남아있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이산가족들의 상봉 모습을 보시는 할아버지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았다. 언제나 씩씩하게만 보이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무척이나 부러워하시는 모습에 할아버지에게도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게 된다.

가끔씩 우리 할아버지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시는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뵈고 나면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또,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게 여겨진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잠시의 휴전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50여 년을 훌쩍 넘기고 있을 뿐이다. 6·25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픔

이다.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열정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산의 아픔과 온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그분들께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님전상서

어머니!

몸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지러는지 전쟁 때 다쳤던 허리
 께가 시큰시큰 해져 와서 혹 어머니께서도 이리 아프신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둘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
 니, 웬지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아들을 낳았을
 적 제 곁에 어머니께서 계시지 못한 기억이 한스러워서 일겁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제가 헤어지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이 하늘아래 믿을 것은 오직 우리 둘뿐이라 하시며 절대 어미의 손을 놓
 지 말라고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생각을 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 후회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때 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말았을까 하는..., 만약 그때 어머니의 곁에 꼭 붙어 헤
 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머니와 저는 한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열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울고 또 울며 거리를 헤메었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음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던 그때, 저를 살아가게 한 것은 다
 시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뵈지 3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남북이산가족상봉' 때 어머니를 다시 뵈고 이제 소원을 모두 이루었구나 생각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어머니를 뵈었던 그때,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 모두 솟구쳐 올라와 그 옛날 철없던 열 살짜리 꼬마가 된 양 어머니께 안겨 영영 울기만 했었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큰 대포소리를 듣고 청각을 잃으셨다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만 흘릴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도 그날의 어머니와 제가 담긴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뵈고 싶은 마음에 또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려 오지만, 저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희망을 잃지 말라 하셨으니, 저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제는 어린 시절 우리 옆집에 살았던 영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억나시죠? 말이 너무 많다며 종종 핀잔을 주시곤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영희는 말이 없는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희는 요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전쟁 때의 총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 그 공포심에 괴로워하는 걸 보다 못한 자식들이 정신병원에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정신병원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자식들이 야속하다 말하는 영희에게서 그 옛날 격정 없이 웃기만 했던 행복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희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점점 우리들의 아픔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데, 통일된 나라에서 아무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혹 그것을 잊으면 어찌나 걱정도 되었지요...

어머니, 밤이 깊어만 갑니다.
잠이 들기 전, 내일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세계를 향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 “애들아, 나 북한 군인 아저씨들 만나러
판문점에 간다.”

“정말? 와, 지원아, 나 북한 군인 아저씨들 싸인 줌 받아 주라. 제발!”

55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난 작년 6월 25일 새벽 4시 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판문점으로 향했다. 무서운 6·25 전쟁이 일어난 시간
에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하니 두려웠다.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으스스한 생각에 내 짝 슬기 언니
손을 꼭 잡고 잠을 자려고 노력했다.

판문점으로 가는 길, 버스 창가에는 깨끗하고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나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다.

드디어 판문점에 도착!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판문점의 북한 군인들은 더운 여름에 긴 팔 옷에다
가 긴 바지를 입고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땀을 뻘
뻘 흘리는 모습이 무척 불쌍해 보였다. 반대로 남한 군인 아저씨들은 시원
한 반팔 옷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발을 맞추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
는데 북한 군인 아저씨들과 참 대조적이었다. 순간 나는 남한 군인 아저씨
들에게도 시원한 반팔 옷들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

“애들아, 북한 군인 아저씨들한테 싸인 받으러 가자!”

“안돼!”

북한 군인 아저씨들에게 말도 걸고 친구들이 부탁한 싸인도 받고 싶었지만 절대로 북한 군인 아저씨에게 말도 걸면 안되고 손가락질도 하면 안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모두들 꼭 참고 우리는 말 없이 걸어갔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어렸을 적 나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은 땅이 서로 갈라져 있어서 통일이 불가능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렸을 적 내 생각과 달리 분단은 땅이 갈라져서가 아니었다. 판문점에는 하얀 막대기로 남북을 갈라 놓았는데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 '남북을 갈라놓은 하얀 막대기를 치우고 판문점에는 통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수궁이 가지 않았다.

다행히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통일은 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될 것 같다. 이산가족 만남도 자주 있고 배가 아닌 버스를 타고 금강산 관광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제 통일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까?

다음 날, 우리는 바쁘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갔다. 우리를 안내 해주실 독립기념관의 선생님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도 잘 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되새기며 독립기념관 밑에 있는 통일의 종을 힘껏 쳤다. 통일의 종에는 통일을 바라는 듯 남북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거대한 용도 그려져 있었다.

“하나! 둘! 셋!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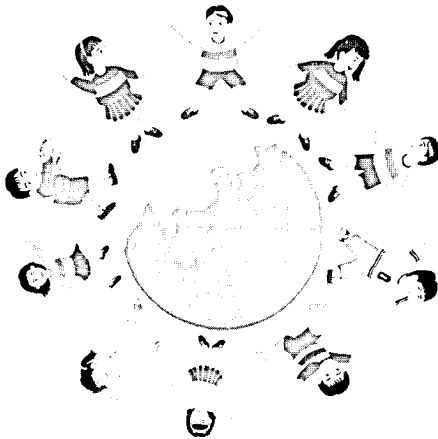
종소리는 멀리 울려 퍼졌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마음이 종소리와 함께 하늘로 울려 퍼져 나갔다.

독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서로 갈라졌었는데 서로서로 협동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독일처럼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버스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통일을 위해 기도를 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나의 기도처럼 남·북한 사람들 모두 한마음으로 통일을 이뤄 북한 아이들과 통일의 종을 함께 치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를 향해 자랑스럽게 웃을 수 있는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통일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세계를 향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먼하늘에는

●● “엄마. 저 아저씨는 왜 항상 저수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글쎄, 그 속마음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기다린다고..., 그냥 동네 사람들 얘기야.”

“왜 헤어졌는데요?”

“6·25전쟁 때 아저씨가 전투에 참전하고 돌아오니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빈집만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저씨네 가족들은 모두 총살을 당했거든. 아저씨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날부터 저렇게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지.”

난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아저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말씀으론 가족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바보 아저씨라 놀려대곤 한다.

아저씨는 말도 하지 않고 머리는 풀어 헤친 채 온종일 돌아다니기도 한다.

어떤 때는 토끼풀을 잔뜩 따다가 꽃방망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지만, 그 선물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바보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불쌍한 아저씨였다.

나도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무서웠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그 아저씨가 불쌍해 마음이 아팠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두 북한군에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고는 그 충격으로 정신마저 잃게 되었다고 한다. 한쪽 팔을 잃고도 살아서 고향에만 가면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투했을 텐데... 고향에 와 보니 이미 부모 형제들은 처참하게 잃고 난 뒤였으니, 나 같아도 기절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들이대고 싸워야 했을까?

그 아저씨의 눈을 보며 6·25전쟁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불쌍한 아저씨...

그런데 요즘은 아저씨가 며칠째 저수지 앞에 보이질 않는다.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 여쭙봤더니 요즘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신다고 한다. 혹시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인가? 얼굴에 미소까지 띠면서 본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북쪽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특히, 텔레비전에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다는 그 뉴스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며 빛난다는 것이다.

동네의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아휴, 불쌍한 것 같으니라구... , 어린 나이에 전쟁의 상처만으로도 부족해 이렇게 평생을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이거 원 딱해서 눈뜨고는 못 보겠어. 이놈아! 정신을 차려야 저승에 가서 부모 얼굴이라도 알아보지, 찌찌찌...”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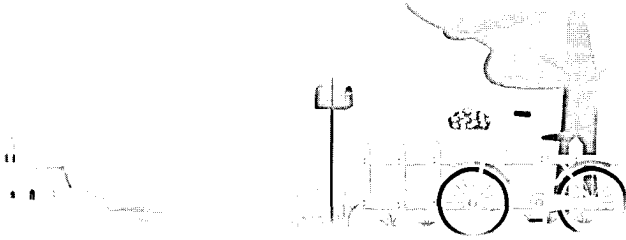
며칠 계속되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끝나고 나니깐 아저씨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먼 하늘 속에는 엄마, 아버지, 형, 누나의 얼굴이 있을까? 아니면 아저씨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모습들이 숨어있는 걸까?

이번 6·15 남북 정상 회담이 성공되어,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와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된다면, 아저씨의 가슴에는 희망의 불꽃이 훨훨 타오를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아저씨의 그리움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아저씨! 예전처럼 꽃방망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전 아저씨의 딸이 되어 드릴게요.”





평화통일

우리민족의 과제

●● 얼마 전, 우리들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많은 애국지사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또 얼마 후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결코 잊혀 지지 않을 6월 25일도 어김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잊혀 지지 않을 이날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즉 6·25전쟁을 기리는 날이다.

우리 민족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분단된 남북은 반세기 이상 단절된 채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게다가 상호간의 교류도 거의 막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결국 어떠한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해 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간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간의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서로의 대치상황으로 남북한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게다가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상당히 많은 수의 이산가족들은 가족간의 생이별을 당함으로써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들은 불필요한 민족적 노력의 낭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상당수 이상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

지 않으며 통일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이들을 오직 현재만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물론 현재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고 있고 통일을 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인 이질감에 의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될 큰 이익을 버리고 현재의 이익만을 위하여 계속 분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통일을 이룸으로써 분단으로 인해 개개인이 겪게 되었던 고통과 불행을 해소할 수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서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은 물론이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까? 6·25 전쟁 때처럼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한다. 평화적 통일이란 무력충돌로 인한 인명파괴와 재산피해 없이 평화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통일이 우리 남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통일 형식이라고 믿는다. 같은 민족인 우리끼리 서로 무력충돌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방법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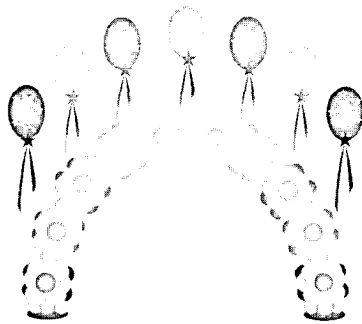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러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의 동족이자 형제이고 같은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뼈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조국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요즘 통일이 된 이후의 통일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상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룩한 통일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글짓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울산광역시

- 외할아버지의 소원 / 179
- 내 마음속의 작은 소망 / 181
- 하나되어 피워내는 꽃 / 184
- 다시 모일 한가족 / 187
- 통일을 위한 기도 / 189
- 아우야 거기도
대한민국이란다. / 192
- 얼씨안아야 할 사람들 / 195
- 통일이 되면 / 197
- 마음을 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 / 200



외할아버지의 소원

●●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전쟁 휴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 22세 되셨을 무렵,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돌도 안된 큰 이모를 두고 마을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진해에 있는 해군 훈련소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1950년 10월쯤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 고향마을에서 소집영장을 받은 사람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겁이 나서 숨어 버렸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다니, 그에 비해 우리 외할아버지의 나라사랑이 자랑스롭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포병대대로 배치되어 10일간의 힘든 훈련을 받고 609통신병으로 전쟁터에 배치되셨답니다. 전쟁터에선 먹을 것이 귀해 건빵조금과 미처 추수를 못한 밭에서 툭툭 붙은 콩을 삶아먹고, 생쌀을 씹어 먹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따뜻한 외할머니의 밥한 공기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전쟁터에선 씻지 못하는 데다가 갈아 입을 옷마저 없어 병사들 몸엔 언제나 이가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당시 포병대대장님이셨던 고길훈 중장님이 미군부대에서 디디티가루라는 이 잡는 약을 구해 주셨다고 합니다.

임진강 건너 구강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새벽 무렵 초소 근무중 포탄이 날아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다행히 외할아버지께서는 맞진 않

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인원이 여유가 없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통신학교에서 유선교육을 받고, 임진강 관측소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시다가 1956년에 해군해병 전역증을 받고 제대를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5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고 흐르도록 전쟁터에서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건 아마 그때 그곳에서, 눈 앞에서 죽어 간 전우들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작년에 보았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동안 자비심이 사라지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곳. 그런 곳에 외할아버지가 계셨다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져 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해병4기로 지금도 그때 같이 있었던 전우들과 해병 전우회에 가입하셔서 가끔 전우분들을 만나십니다. 외할아버지 방에 들어섰을 때 가장 제가 눈 여겨 보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내린 참전용사증과 메달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청각장애가 심해지셔서 제가 고�함을 질러도 잘 못 알아 들으시지만 무서운 전쟁터에선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술한 전쟁들을 겪으며 커 왔습니다. 이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전쟁을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금이 그어져버린 이산가족들의 마음속에 다시 예쁜 꽃이 활짝 피도록, 휴전선이 빨리 허물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 외할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큰 상처를 안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외할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십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같이 월드컵에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기차타고 금강산까지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서 저랑 같이 통일을 꼭 보세요.

내 마음속의 작은 소망

●● '요즈음에도 금강산에 관광 유람선이 운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래전에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으로 관광을 즐기는 광고를 자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 인상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금강산의 사계' 라는 특집 방송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펼쳐지는 금강산의 경치는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나라에 저런 비경이 있었던가! 하고 감탄을 연발하며 '중학생이 되면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유쾌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다.

한 민족의 핏줄인 우리나라가 서로 경계하며 지내온 세월이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어 버렸다. 이산의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만큼 분단된 세월의 아픔은 크기만 하다. 교과서에 실린 북한 말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서구화 되어가는 언어와는 달리 순수한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말과 글은 오히려 친근감이 느껴진다. 통일되면 남쪽이 손해일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우스개 소리는 그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들인가! 아직 우린 하나이고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50년이 넘는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남북한에 헤어져있던 가족들의 이산가족 상봉은 방방곡곡을 슬픔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나 역시도 매스컴을 통하여 이산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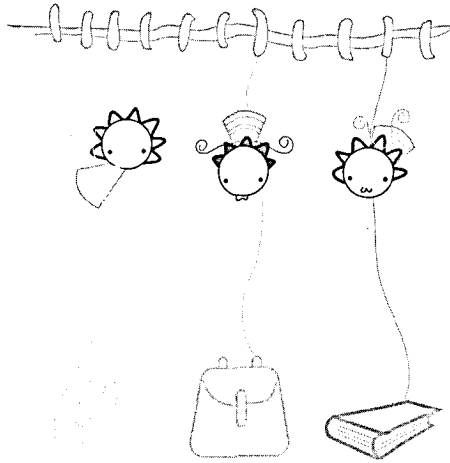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어린 심정으로 핏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 그렇다. 이것이 어찌 이산가족들만의 문제가겠는가! 바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간의 만남을 단절시킨 분단의 상처도 혈육의 정만은 끊지 못했다. 그야말로 극본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분단의 아픔이 꽃같이 아름답던 그들을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들의 모습에선 거짓 없는 감격스러움이 묻어나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서 우리 민족이 여전히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저 우리 생각으로 말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는 것은 허공에 고함만 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통일은 우리의 찌든 삶을 더욱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통일을 하기 위한 긴 세월 동안의 틈을 줄이고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의 북한을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을 고집하는 동안에 평생에 그리던 가족들과 친지들을 가슴에만 품은 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이산가족들이 오늘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만으로는 그들의 상처가 결코 치료되지 못할 것이다. 몇 년 전 방학 때 가족들과 함께 휴전선 동쪽 끝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 전망대에 올랐다.

북녘을 바라보며 이렇게 육안에 보일만큼 가까운데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에 서글픈 맘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천만인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 세대가 거두어야 한다. 이 아픔의 상처를 이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겪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언젠가 우리가 서로 손잡는 날, 그래서 이 작은 땅에 드디어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저 하늘에 자유롭게 비행하는 새들의 무리처럼 우리들의 가슴에도 희망과 평화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하

나되어

피워내는 꽃

●● “6월의 하늘을 본 적 있는가? 6월의 하늘은 민족의 붉은 피요, 뭉게구름은 민족의 한과 응어리이다. 6월에 내리는 비는 민족의 눈물ियो, 6월에 부는 바람은 민족의 한숨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에서 우연히 본 글이다. 이 글을 보고 나는 웬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6월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전쟁의 아픔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이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모르는 철없는 내 눈에 6월의 하늘은 푸르기만 했다. 그래서 더 슬퍼졌다. 동족상잔이라는 아픈 역사와 지금도 진행형인 분단의 현실이라는 아픔, 그것을 피부로 경험한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누구나 통일을 외쳐대지만 가슴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온 통일은 그저 말로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말로 쉽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않으셨지만, 80평생 가슴속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늘 자리 잡고 있었는 듯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깊게 새겨진 마음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해마다 6월이면 그 아픔이 거센 파도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 같다고 하셨다. 북녘 땅에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얼굴조차 희미해져가는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 보고픔, 애달픔, 그리고 미안함..., 할아버지에게서 6월이

잔인하고 원망스러운 이유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했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경제적 풍요로움만 보고 할아버지는 성공한 삶을 사셨다고 너무 쉽게 판단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 한 권을 보며 조금은 알 것 같다. 북에 홀로 두고 온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큰 눈물이자 마음에 맺혀 떨어지지 않는 응어리였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더 많은 눈물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것 같다. 온 가족이 모여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때도 할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 “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50년이 걸려 왔습니다”라는 앵커의 말에 할아버지 눈에는 커다란 한이 서린 듯 한 작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러면서 조용히 박수를 치셨다. “오늘은 너와 내가 50년 만에 같은 것을 바라봤겠구나. 오늘 내가 본 북녘 땅 어딘가에서 네가 숨쉬고, 발 디디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던단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는 날을 기도한다. 오늘의 일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기를 기도한다. 비록 그 끈이 가늘고 연약할지라도…” 이날의 할아버지 일기와 그 슬픈 박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 힘든 기다림 끝에 조심스레 다가온 혈육의 만남, 이산가족의 상봉이 할아버지에게는 TV속 남의 일만이 아니셨나보다. 그 사연 하나하나에 가슴 아파 하셨고, 그분들의 눈물은 곧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이 되어 두 뺨을 적시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지만,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수백 번, 수천 번 너를 만나야 했던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구나. 건강하거라. 오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 두 손 마주 잡을 날을 희망한다면 꼭 건강하거라.” 그날의 할아버지 일기와 슬픈 눈물은 잊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그토록 원망스러워 하던 6월 하늘 아래, 세

상과 길고 긴 이별을 하셨다. 어려운 결정으로 힘들게 신청한 금강산 관광을 며칠 앞두고 그렇게 슬픈 이별을 하셨다. 북녘 땅을 밟는다는 설레임의 물결이 아직 할아버지 마음에 출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안타까워졌다. 평생 누이 동생을 북녘 땅에 버려두지 못한 채 마음 속에 품고 등에 업으며 살았을 우리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만의 슬픔이고 아픔이겠는가? 반으로 찢겨진 우리 영토의 아픔이 내 상처가 되고 이산가족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며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가 나의 부끄러움이 될 때, 우리는 전정으로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 흔히들 일본을 떠올리지만, 이상하게 북한이 떠오르는 6월이다. 어찌면 그럴지도 모른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저 반대편 나라 미국보다도 멀게 느껴지고 일제시대라는 아픈 역사로 마주하는 일본보다도 그 마음의 장벽이 높은 듯하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서로를 마주하는 철조망이 우리가 피워낸 하나의 꽃으로 만발하고,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서 선하나가 지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이 오면, 아픈 기억 때문에 6월의 맑은 하늘을 붉은 피의 물결로밖에 볼 수 없으셨던 우리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질 수 있겠지.

이제 내가 품고 있던 할아버지의 그 슬픈 일기장 한 권을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려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약속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로 꽃을 피워내는 날, 그 소중한 꽃을 꼭 할아버지께 선물하겠다고...

다시 모일 한가족

●● 해마다 돌아오는 6월 25일.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눈물 짓고 계실 외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손자, 손녀 모일 자리가 마련되면 흥미롭게 시작되는 전쟁 이야기, 하지만 그 마지막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눈물 글썽임이 있다.

외할아버지는 전투 중에 다리에 총탄을 맞으셨다. 몇 차례의 수술 끝에 걸으실 수 있게 되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리를 절단했다고 하셨다. 국가 유공자가 되셨지만, 곁에서 사라져간 친구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하신다.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이 희미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하시며 장소와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들려주신다.

몇 달 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다.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장면은 무섭고 끔찍했다.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전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그 영화 속 장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다.

형제이면서 싸워야만 하는 그 상황.

그러나 곧 보듬어 안는 형제애처럼 쉽게 남북이 하나가 될 수도 있으련만...

신문이나 TV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모습, 북한에 식량 보내기 등을 보면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도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세계 어디

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지금, 이토록 가까운 거리이건만 마음의 거리는 왜 이리도 먼 것인지!

죽기 전에 통일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달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솔직히 외할아버지 마음만큼 통일에 관해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들은 단순히 통일을 바라고만 있지, 옛일을 교훈 삼아 노력해보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보니 통일이 되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던 외할아버지 세대, 6·25의 기억을 전해 줄 사람들은 점점 우리들 곁에서 멀어져 간다.

그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안겨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은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몸 받쳐 싸운 고마움에 대한 우리들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는가?

책 한 권을 다 읽고 덮어버리듯 그렇게 쉽게 그 분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해마다 돌아오는 6월 25일이지만 외할아버지의 머리 속엔 아직도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날일 뿐이다.

한 가족이 보듬어 안고 소리내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외할아버지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통일을위한기도

●●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지구의 전 세계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에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통일이 되었다. 이제 이 지구에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 중 대한민국밖에 없다. 분단의 현실과 동시에 아픈 기억들은 너무나도 많다.

6·25전쟁이라는 더 없이 잔인한 사건은 먼 옛날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과 함께 하나의 민족이었던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머리에 총기를 겨누어야 했던 크나 큰 아픔을 주었다. 또한 이 전쟁과 함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같은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이산가족도 등장하였다.

이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채 남과 북은 2000년대를 맞이하였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있으며 가끔씩 뉴스를 보면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긴장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문화는 많이 달라졌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별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꼭 우리들만이 이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외세에 의해 통치되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워 그 외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

히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세계가 한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
목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일은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매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날 때마다 내년에는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도록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땅의 아래에 붙어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 한반도에 선을 그
어놓은 것을 일제시대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피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큰 단결력을 가졌다. 2002년
월드컵에서 모든 국민들이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했던 일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는 민족애가 풍부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같이 응원한다면 정말 더 좋았을
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은 서로가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통일을 못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우리들
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총
을 겨누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어야 할 것 같다.

가끔씩 내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현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더욱 성장했
을 때 북한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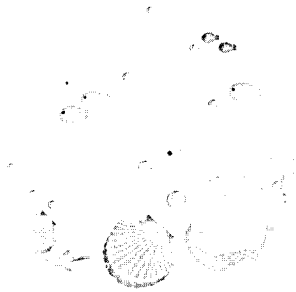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현실이 남한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하면 남한만을 이야기하고 북한사람은 북한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왜 평화를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 나라처럼 남과 북, 또는 동과 서로 나누어진 나라에서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와서 우리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날이, 우리나라를, 남과 북, 모든 한반도를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한다.

통일이 꿈에만 그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젠 서로의 부정적이던 모습을 고치며 남과 북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우야,

거기도 대한민국이란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밤새 혼자 주절거리던 텔레비전에서도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텔레비전은 화면 가득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아낸다. 무궁화 꽃이 만발하고 백두산의 신비로운 모습이 텔레비전 속을 가득 채우고 나면 웬지 모를 씩씩함이 남아 맴돈다.

인간이 만든 기계라는, 그 무지한 고철 덩어리도 내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득 품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조국의 고운 흙을 마음껏 밟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현실 앞에 나는 비통한 마음을 곤잘 씹어 삼킬 수밖에 없다.

신문은 오늘도 시끄럽다. 우리의 북녘에 핵이 있다는 얘기로 온 세계가 달래고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해대느라 시끄럽다. 남과 북이 제 갈 길을 찾아간다면 등을 돌린 지 어언 50년! 그 동안의 갈등과 번민 속에 싹튼 햇빛 정책이니 뭐니 하는 화해의 손길이 핵이라는 무기로 돌아와 가슴 한 곳이 뻥하고 구멍이 난 듯함에 고개를 떨군다. 하나 되기 위해 검은 천막을 걸어 내고 햇빛을 비추었던 것은 우리뿐이었던가? 말뿐이었던 화해의 모습은 바람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간다.

피로 물들인 지난 아픔 속에 반으로 배어진 우리의 지난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오늘도 한반도라는 호랑이는 시름시름 앓아눕는다. 밖에서 들어온 손님이 멋대로 칠해놓은 사상의 푸른 물감과 붉은 물감의 아름다움에 눈과 마

음을 빼앗겨 시기와 미움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갈고 호랑이를 잔인하게 괴롭혀왔다. 아파 쓰러진 호랑이의 눈물을 등 뒤로 하고.

호랑이는 많이 아팠다. 그리고 아프다. 설움과 한이 온통 한데 뒤섞여 오늘날도 눈물을 토해낸다. 시기와 질투라는 철조망 사이로 내 피붙이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이들의 시린 눈물이 오늘날도 그 차가운 철조망을 넘지 못하고 호랑이의 상처 위에 떨어진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한 마리 나비는 팔랑팔랑 복녘의 꽃향기를 찾아 넘어가는데, 우리는 왜 가족의 향기를 찾아 갈 수가 없는 지, 그 고운 나비에 우리의 마음만 실어 보낸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먼저 손을 내미는 법, 화해하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둥근 사회 안에서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법은 참으로 간단하다. 어릴 적 코짙짙이 시절로 돌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아픔과 슬픔으로 걸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집안의 한 형제의 상처도 아물어 가지 않을까? 겉으로만 보이는 무슨 정책이니 무슨 회담이니 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 됨을 바라는 마음에 물어봐야 한다.

먼저 웃을 수 있는가?

먼저 손을 잡아 줄 수 있는가?

동물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애정과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형제끼리 세월 속을 걸어오다 다툼이라는 고개를 넘을 때가 있다. 가다 넘어져도 이 고개를 뛰어넘어야 남은 세월의 길을 갈 수 있다.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 형제의 상처를 서로 다독이고 부축하여 함께 일어나야만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여덟 살 난 어린 동생은 오늘날도 제 머리만한 지구분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곳저곳을 짚어보며 자기가 아는 나라의 이름을 말하느라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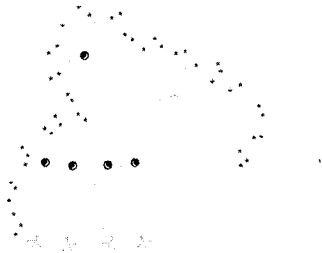
“누나야, 여기…, 여기가 북한이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 위에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진 나라를 가리키며 방긋 웃어 보이는 그 어린 녀석은 아직 모를 것이다. 그곳은 북한이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품고 뿌리를 내린 곳이라고... 그런데 마음 속 깊이 담아두었던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해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고운 햇빛이 한반도 위로 쏟아진다. 그 햇빛마냥, 그동안 허물어지지 않았던 장벽을 뛰어 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쏟아져, 허리가 잘려버린 호랑이가 아니라, 옛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곧게 커갈 수 있는 호랑이의 모습 위로 쏟아져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내 동생이 다시 지구본을 볼 때, 씩씩함 대신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을 떠올려 본다. 내일도 떠오를 태양 위로 사랑과 화해라는 단어가 비춰질 쫘이면 말할 수 있을까?

“아우야, 거기도 대한민국이란다.”



얼싸안아야 할 실랑들

●● 나는 세 살 때 아빠의 일로 인해 싱가포르에 가서 일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워낙 특별한 경험이라 몇 가지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관광버스로 시내관광을 하던 중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북한사람들을 만났다. 그 표정 없는 얼굴과 쏘아보는 눈빛만으로도 한눈에 그들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말할 건 것은 북한사람들이었다. 관광 중이던 남한의 어른들은 저승사자라도 만난 듯 두려운 표정으로 눈치들을 살폈다. 어린 나였지만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저절로 주눅이 들었다.

“한국에서 왔어요.”

“아! 남조선?”

짙막한 대꾸에 가늘게 떨면서 울산에서 왔다고 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애기가! 참으로 곱습네다.”

일행 중 한 아저씨가 내 머리를 만지려고 하자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내 얼굴을 돌렸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나를 뻔히 들여다보시더니 다른 말은 없이 창 밖만 바라보았다. 그 아저씨의 등을 보면서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때까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나는 그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습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는 당당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부딪쳐서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다. 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남북으로 갈라져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경계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북한사람들이라면 마치 뿔이라도 솟은 도깨비처럼 생각하던 때였거든.”

엄마는 그날의 이야기를 묻은 나에게 서글픈 미소를 지으셨다.

“북한과는 아직 전쟁중이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면서도, 피부와 눈동자의 색깔까지 다른 서양인들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은 휴전선이 있기 때문이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싱가폴서 만난 북한 사람들, 남의 나라에서 말까지 먼저 붙이는 것으로 보아 통일만 되었다면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아저씨일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놓은 휴전선에 대한 인식이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름조차 묻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심에 찬 눈길만 보내고 헤어졌다는 것이 아픈 기억으로 살아난다.

이제는 길고 긴 휴식중인 전쟁의 신이 땅속에 영원히 묻히길 빌어본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일도 없어지고, 북한사람들과 말도 못하고 만나면 무서워서 서로를 경계하는 슬픔도 사라져야한다.

낮선 나라에서 닮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 통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남한사람들끼리 반가워하는 것처럼 북한사람도 그저 한국사람으로 반가이 얼싸안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독도수비대가 되는 날, 초록으로 물결치는 한반도기를 펼럭이면서 이제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도 함께 중지부를 찍을 날을 기대해본다.



통일이 되면

●● 6·25전쟁은 민족의 비극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3년 동안 싸우다 죽어갔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비판을 했다. 친하게 지내야 할 이웃 간을 원수로 만들었던 전쟁이었다. 3년의 전쟁 기간 사용된 총탄과 무기들은 엄청난 양이었다. 누구네 자식은 폭격을 맞아 시신을 찾지도 못했고, 누구네 어머니는 실성을 하 게도 하였던 전쟁이었다.

전쟁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심한 상처를 남겨 놓았다. 770여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남북한의 관계는 물론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원수 지간으로 수십 년을 지내게 되었다. 민족보다는 사상과 이념이 50여 년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도 6·25전쟁에서 비롯되었다. 남북한은 휴전 협정에 의해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항상 휴전선을 양쪽에 두고 긴장하며 대결해 왔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갈등을 가져다주었다. 전쟁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증오감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왔다.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기보다는 오직 경쟁상대로만 여겨 왔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은 너무도 서로를 믿지 않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남북한 모두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같이 죽자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러한 불신의 모든 원인은 남북한의 분단과 전쟁에서 파생된 냉전 구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이기보다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신뢰와 상호 이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민족을 갈라놓은 냉전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을 거울삼아 우리도 통일을 진정으로 생각할 때가 왔다. 통일된 미래를 생각해보자. 통일이 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변할 것이다. 국민들은 남과 북 구석구석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구수한 사투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과 백두산에도 오를 것이며,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평양으로 출장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우리나라의 위상 속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통일된 새 나라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일할 것이다. 국방력을 위해 들어갔던 많은 비용이 통일 이후 산업 생산 활동 등, 다른 활동에 쓰여 질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한데 어우러져 상품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남북한의 도로망과 철도는 물론 컴퓨터 통신망도 확대 연결할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 우려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이런 것들은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력해야 한다. 분단되어 있던 독일 민족도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통일은 현실에서 작은 것부터 일구어 가야 한다. 이제 남북한은 스포츠,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등에서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가졌

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통일은 단순히 나라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 통일에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더욱 많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통일 정책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존재할 수 없다. 남북한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통일 방식은 그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결실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무력 통일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동시에 민족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을 동반자로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극단적인 냉전논리가 통일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경의선 복원 등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지속시키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 남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 환경을 정확히 인식해야 함은 물론,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남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없이 우리나라 북한의 의견만을 주장한다면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통일 이후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 서울로, 평양으로, 부산으로, 남포로 몰려갈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일 이전부터 해나가,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꿈을 꾸야 한다. 그것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비하여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스스로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통일의 길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

●● 가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북한의 이야기
가 나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꼭 통일을 해야만 하나?”라고.
꼭 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투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의 불필요성에 대해 열거하기 시작한다. 사상이 너무 다른
점, 통일을 한 후에 악화될 경제력 등...,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
각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떨까?

남과 북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사상도 다르지만 말투도 너무 다
르고 억양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도 서로 다른 글
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너무 다른 남한과 북
한도 시조는 똑같이 단군왕검이다. 또 외세로 인해 분단하기 전에는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역사를 써온, 피를 나눈 한 민족이다. 동생과 형이 제3자
로 인해 다투어서 극한 상황에 치달았다면, 그때도 위의 사람들은 “꼭 화해
를 해야만 하나?”라고 물을 것인가?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지 벌써 몇 십 년이 넘었다. 그동안 교
류는 해 왔던 남과 북이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교류가 아
니었다. 물질적인 대가로 대화를 한다든가, 세계의 눈을 고려하여 물자 지
원을 한다든가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의도적인 목적이 담긴 교류였다. 그
랬기에 남과 북은 몇 번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과 마음은 멀어졌으
면, 멀어졌지 더 가까워지진 못했다. 한반도는 언제까지 분단의 아픔을 지

닌 땅으로 남아야만 하는가? 목적이 담기지 않은, 서로의 진심이 담긴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일까?

남과 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화와 교류, 그리고 그것을 통한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째,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사상의 차이로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골육상쟁의 아픔은 서로에 대해 나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다.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 사람들을 일컫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 단어는 남한 사람이 한동안 빨간색을 혐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 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결국에는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의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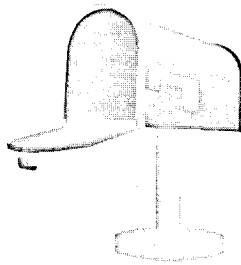
둘째,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사상의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은 같은 민족,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이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통일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남과 북은 현재 휴전 상태이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게다가 한 민족끼리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남과 북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넓게는 세계 화합,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불가피하며, 꼭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며칠 전 한 방송사에서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알아맞추기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방송은 실제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방송된 북한 쪽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짜깁기하고, 합성하여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불과했다. 한 민족임에도 방송 프로

그럼 하나조차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다. 실제로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남과 북은 서로 마음을 열어야만 한다. 선입견을 버리고,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면 남과 북은 한 걸음 더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 그 길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새가 되어 날고 싶은 할아버지 / 205
- 한나라의 하루 / 208
- 간나새끼 / 212
- 또다른 우리 / 215
-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 217
- 금강산을 다녀와서 / 220
- 연경이의 숙제 / 224
-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선 / 227
- 어느 여름날의 기억 / 230

경기도

새가 되어 날고싶은 할아버지

●● 열 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던 남북일 어린이는 이제 6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할아버지는 북한 땅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통일 전망대에 올라 하루종일 철조망 너머 고향땅을 바라보셨다. 철조망 바로 건너에 있는 고향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울 것이다. 한 무리의 철새 때가 철조망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 새 눈물이 맺혔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 그래, 그런 날이 꼭 올거야.”

우리 민족이 통일 되는 날 할아버지는 그 소원을 이룰 것이다. 잘 살고 통일된 나라, 평화가 가득한 나라,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할아버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통일일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세계의 모든 분단국가들이 통일이 되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언제 통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틈에서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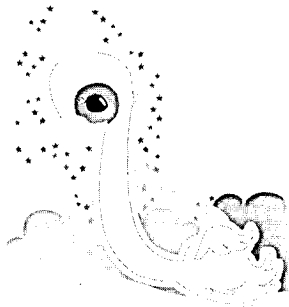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인구가 칠천만으로 늘어나며 남한의 자

본과 기술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과 합쳐져서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뛰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21세기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동족끼리 벌인 잔인한 전쟁으로 인해 깊은 미움과 불신이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은 한 핏줄을 나누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미움과 불신부터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미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다. 그 원칙은 폭력이나 전쟁을 통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전쟁이나 폭력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남북은 더 깊은 미움과 불신으로 언젠가는 다시 갈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남북 모두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는 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 없는 남북 어느 한쪽의 갑작스런 통일은 잘못하면 둘 다 망하게 되기 쉽다. 독일은 갑작스런 통일로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통일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쌍들이다. 우리가 통일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 시작은 북한 동포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느낌표'에서 방송하고 있는 남북한 어린이들의 문제 알아맞추기는 북한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북한 동포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 동포를 바로 알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동포를 대할 때 믿음과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격차나 달라진 문화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통일의 날이 멀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갈 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철조망을 넘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후손에게는 분단이란 단어가 과거에만 사용되던 것으로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나라의 하루

●● 2040년 통일이 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 선조들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통일. 만약 지금 남과 북으로 다시 갈라진다면, 아..., 우리 국민들은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다. 내 이름은 한나라.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지어 놓으신 이름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 TV에서는 '통일 전 한국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 호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언어가 약간씩 다른 두 나라의 말을 통합하기 위해 서로의 학교에 남한어, 북한어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남한 말을 잘하는 북한 출신의 학생에게는 남한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 북한 말을 잘하는 남한 출신의 학생에게는 북한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누어주고 있다. 나도 출연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살면서 가족 형제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행도 맘대로 할 수 없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호텔방에서 부둥켜안고 울고 음식을 서로 먹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정말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통일된 후에 태어나서 남북한을 맘대로 여행하고 금강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한라산 백록담에서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학생인지 모른다.

“다음 정류장은 통일중학교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버스에서 내려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나의 친구 무궁화가 걸어가고 있다. 나는 큰소리로 궁화를 불렀다. “무궁화! 기다려~” 궁화는 활짝 웃으며 나를 기다려 준다. 궁화가 갑자기 생각난 듯 “너 숙제했니?” 무슨 소리인가 해서 궁화를 바라보니 궁화가 “쫄쫄, 21C 초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 세계상황 조사하기! 너 정말 모르고 있었니? 큰일 났구나.” “헉. 어쩐지 뭐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어떡하지?” 나는 불안해하며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면서 숙제를 잘한 학생에게는 보너스로 백두산 호랑이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난 백두산 호랑이를 꼭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께 실시간 사진을 보여주기로 약속 했는데 큰 일 났구나 싶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잘 걷지 못하니까 내가 꼭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수업 시간, 나를 지적하면 어쩌나 잔뜩 긴장하며 있는데 다정한 선생님께서는 “김태극! 대한민국의 통일 전 국제정세와 한국의 상황을 발표해 보세요.” ‘휴우 살았다’ 김태극을 바라보니, 김태극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통일 전 남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발표한다. 2002 월드컵 때보다도 더 큰 태극기가 펄럭이고 사람들은 모두 흰색의 옷을 입고서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동영상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발표를 한다. 선생님께서는 “자, 이번엔 이반도가 해볼까?” 그러자 이반도 역시 큰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21C초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 세계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이권다툼이 있었다고 발표한다.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또다시 한민족의 힘에 대해서 놀랐고,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여러 선진국 등 모든 나라가 통일을 표면적으로는 기뻐했지만, 내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반도학생?”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거죠. 즉, 그들에게 또 하나의 경쟁자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는 거

죠.” 반도의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게 통일 후부터 인 것 같다. 발표 시간에 내가 발표를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지만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가슴이 벅찼다.

오늘의 급식메뉴는 평양냉면, 왕만두, 전주비빔밥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메뉴였다. 후식은 제주 한라봉으로 만든 주스하고 개성인삼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이다. 나는 평양냉면과 한라봉으로 만든 주스를 선택했다. “흐음, 내가 학교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라며 궁화가 신나게 떠들었다. 우리는 급식시간이 너무 즐겁다. 우리학교 조리사들은 절반은 남한 출신의 요리사이고, 나머지는 북한 출신의 요리사들이다.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더 솜씨가 좋은 것 같다. 반찬을 남기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살짝 들어 보니, ‘통일 전의 남한 학교에서 평양냉면 먹기가 아주 힘들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려니 해도 조금 이해가 안된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좋은 통일된 세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로 분단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드디어 종례시간이다. 평양 사투리를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여행 안내장을 나누어 주신다. 꿈에 그리던 졸업여행을 학급 학생들의 만장일치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걸어서 완주하자고 하였다. 먼저 우리들은 백두산에 올라간 뒤에 백두산 천지에서 생수병에 물을 떠서 금강산을 거쳐 편문점 민족 박물관을 견학하고 서울 경복궁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오오! 전 국토를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다니 참 감동적인 졸업 여행이다.”라고 김태국이 중얼거렸다. “자! 자! 흥분하지 말고 전국토를 횡단하기 위한 준비물을 잘 챙겨서 내일 오도록!”

이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 세계의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골프 천재들이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다가 세계 여

러 나라들에게 따돌림받고 경제적으로 신용에 문제가 있는 나라라며 새로운 IMF상황에 시달리는 일본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나라, 태권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운동으로 결정해서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넘치는 나라, 백두산 천지물과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노인들의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는 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통일을 이룬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너무도 고맙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넘치는 파워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리아 넘버원”을 외친다. IMF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기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는 오늘 당장부터 본문에 충실하여 숙제부터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 거라고 굳게 약속하며 집앞 초인종을 울린다.

“나라야! 한나라 학교 안가니!” ‘어? 이진 엄마 목소리인데? 난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조금 더 큰 목소리가 들린다. “한나라! 지각한다 너!”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몇 시인줄 아니? 8시 30분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꿈이었단 말인가?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에서 궁화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궁화는 “그래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궁화를 보고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다. 무궁화의 할아버지는 북한에 둔 가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통일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룩해서 내가 꿈속에서 맛보았던 궁지와 자부심을 실제로 느끼고 싶다. 통일된 세상을 우리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서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고 싶다.

간나새끼

●● 지난 어버이날, 싱그럽기만한 파란 하늘 빛은 우리를 자꾸만 밖으로 유혹하였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함께한 후 자유로를 타고 임진강으로 드라이브 코스를 잡았다. 화창한 5월에 자유로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임진강변의 풍광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함께 산과 숲이 어우러져 굽이마다 새로운 그림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통일전망대를 뒤로하고 임진강 하류 성동리 들녘을 지날 무렵 항상 분위기 조성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차를 길가에 세우시고는 할머니께 한 말씀하신다. “장모님 저쪽 건너죠? 넘어오신 곳 이?” 물끄러미 강 건너 한곳을 응시하던 할머니는 지긋이 눈을 감으신다. 불과 4~5백 미터 건너편에 북한 병사가 지키는 듯한 초소가 보이고 그 산 너머 저쪽엔 고향생각만 하시면 눈물지시는 우리 외할머니 고향 개성이 있다. 6·25전쟁 전만 해도 남한 땅이었다는 개성.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오시던 외할머니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는 곳. 저기가 거긴데.

우리 외할머니는 실향민이고 이산가족이시다. 50여 년 전 17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아버지, 업어서 키웠다는 어린 동생을 곧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뒤로 하고 오빠 두 분과 같이 임진강을 넘어오셨다. 저 너머 성동리 끝자락의 쫄쫄 언 임진강을 할머니는 무엇을 위하여 한밤중 그 숨막힐 듯 무서운 임진강을 넘어오셨을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상황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쩡쩡 울리는 임진강 얼음의 파열음

을 들으며 건너오는 대열의 긴장과 흥분은 숨을 죽이다 못해 칭얼대는 어린 애기의 입을 막은 젊은 엄마가 남쪽 강변으로 넘어오고서야 아기가 숨진 것을 알고는 울지도 못하고 같이 실신해 쓰러진 모습도 있었다고 하셨다. 한 동안 상념에 잠겨 계시던 할머니는 “사람 목숨 참 질기지요? 그 술한 죽음 속에서도 살고 있으니.” 하시며 눈시울을 적신다.

이산가족의 아픔. 우리 사회에서의 실향민과 이산의 아픔은 이제 세월 속에 묻혀 잊혀져가지만 개인적으로 잊혀질 수도 잊을 수도 없다. 고향 땅, 이제 돌아가셨을 부모님 묘소에 술 한 잔 올리는 것이 원이 되어 버린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의 아픔은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나도 대신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아픔에 눈시울을 적시며 “그만 가지.” 하시느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날씨가 좋네요. 분위기 바꿀까요?” 하시며 임진각으로 향했다.

어버이날 가족 나들이 장으로 바뀌어 상흔이 판치는 임진각 광장을 뒤로 하고 자유의 다리에 들어서니 ‘여기까지 오기를 50년’이라는 동판이 시선을 끌었다. 관리인이 들려주는 개방된 다리길이가 고작 83m. 83m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시원한 강바람보다는 정면의 가로막힌 철조망과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분노를 적어놓은 리본과 피켓의 글귀, 또 북녘 형제에게 보내주고픈 애절한 마음을 담은 운동화나 작은 아기 신발 등, 또 북녘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망배단에서의 결혼 사진에, 또 영혼 결혼사진 등은 이산가족이기에 내 부모 형제에게 꼭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우리 민족 특유의 ‘혈연의 정’ 이리라. 50년 한을 담은 우리 분단의 철조망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과 무엇이 다를까? 또 북녘을 바라보며 이산의 슬픔을 되씹는 실향민들의 사진, 그 속에서 나는 아! 하면서 아는 분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80이 넘으셔서 항상 지팡이에 의지하시던 분이 임진각 망배단 바닥에 지팡이를 던져둔 채 털썩 주저앉아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모습이였다. 바로 내 이웃에 사시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사시다 가족과 헤어진 채 이남으로

넘어와 이곳에서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나 묘지 관리인으로 여생을 보내 시다 얼마 전 돌아가신 분이다. 항상 술만 드시면 “간나 새끼들아, 이 간나 새끼들아!” 하고 외치시어 우리는 간나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간나 새끼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그 간나 새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으리라. 과거를 풀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 조금씩은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나 금강산이 뚫리고 개성이 뚫린다지만 그래도 정작 급한 이산가족에 대해선 남북 모두가 간나 새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상병 시인이 노래한 ‘귀천’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공감이 가고 매우 아름다운 시이지만 이산가족인의 할아버지에게도 소풍을 할만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 아마도 지겹고 힘든 한 맺힌 소풍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분은 항상 이 세상 모두가 간나 새끼였으니까. 무언지 모를 무거운 마음으로 귀천과 간나 새끼를 대비시키며 바라보는 강 건너 저 쪽으로 한 마리 물새의 날갯짓이 마냥 여유롭다. 잔잔히 흐르는 임진강 강물 위로 물새가 남북을 넘나들 듯, 바람이 양쪽 강변의 갈대를 희롱하듯, 이념과 갈등의 폭을 조금씩이라도 좁히며 서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다음 우리가 임진강에 세우는 노래비에는 한때는 그런 간나 새끼도 있었지만 역시 임진강은 아름다운 소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새기고 싶다.

또 다른 우리

●● 땡동!땡동! 10시가 넘는 시간에 우리집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딱 한분 계신다. 난 책상에 앉아 책을 보다가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고 거친 손으로 나와 동생들을 거뜰히 안아 주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시는 이 세상 제일의 멋진, 사랑하는 나의 아빠였다.

우리집은 다른 친구들의 집과 다른 풍경이 몇가지 있다. 엄마의 옷만큼이나, 아빠의 옷만큼이나 걸려있는 푸른 색의 똑같은 군복이 있다. 저녁이되면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하루를 보낸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울 때 우리집은 엄마는 우리들이 어질러 놓은 집 청소하시고, 동생들은 뛰어다니며 싸우고..., 그리고 울고..., 이런 모습에 가끔 불시에 들어오시는 아빠께 들켜야 단도 여러번 맞는다. 나라를 지키시는 아빠는 동두천 부대에 계시고 전에 함께 살던 군인 아파트에서 생활하신다. 3주만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빠는 우리에게겐 호랑이였다.

오랜만에 함께한 한자리에 우리가족은 TV를 보았다. 마침 남북한의 아이들이 만날 수는 없어도 TV를 통해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터뷰할 때나, 문제의 답을 쓸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었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장군, 대대장, 포대, 박격포 등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았다. 아빠 말씀이 "북한 아이들의 저 단어는 전쟁용어들인데..."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다. 같은 또래의 모습이지만 생각이나

말투도 우리와 너무도 달랐다.

우리 가족은 아빠가 휴가를 내실 때마다 여행을 자주 간다. 지난 가을 4시간에 걸친 긴긴 고속도로 여행끝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늘에서 보면 하얀 말이 누워있는 듯 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의 백마고지였다. 6·25전쟁 당시 하루에도 백마고지의 주인이 26번이나 바뀔 정도의 치열한 전쟁으로 푸른 산이 1m정도 깎여 낮아질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도 풀 한포기 없는 백마고지 너머의 하늘을 보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우리의 순국선열들께 감사의 마음을 날려 보냈다.

발길을 돌려 도착한 곳은 38선 넘어 하얀 성냥갑처럼 생긴 건물들이 몇 개 있고 그 마을 언덕쯤에서 시작된 “조선으로 오라”라는 선전문구가 있는 곳이었다. 밤에는 진깃불도 들어오고 낮엔 똑같은 빨래가 널린다고 헌병 조교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다. 마을 뒤편에 동쪽 바닷가 쪽으로 꿈에라도 가 보고 싶다는 금강산의 끝자락 “낙타봉”이 있고, 낙타봉의 맑은 물들은 흘러 흘러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본 북한 땅에 있는 나무들, 산들..., 바다와 맑은 공기까지 모두 똑같은데 가고 싶고,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 안타까울 뿐이다. 가깝지만 너무 먼 또 다른 우리를 이해하기는 내가 아직 어린가 보다.

어른들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려진 선 하나에 돌이 되어버린 우리는 분명 하나다. 언제든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북한의 문화재나 여러 여행지를 둘러 보고 공부하려 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 6월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은 6·25 전쟁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게 된다. 6·25 전쟁에 대해 많이 듣고 배우지만 6·25 전쟁을 직접 겪지 못한 나로서는 크게 실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나에게 부모님과 함께 보게된 영화 한편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얼마 전쯤이었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다. 영화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며칠 동안 기다렸던 영화였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25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로, 극중 주인공이 피난길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겪는 아픔과 그 시절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한 형제의 진한 우애 속에 그려낸 영화였다. 전쟁의 참혹상, 사상과 폭력 앞에 무릎 꿇는 인간들의 무기력함, 이성과 상식보다 폭력이 앞서는 전쟁터, 자신이 살기 위해 선량한 상대방의 어린 군인들을 죽여야 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형제애 등을 잘 나타낸 이 영화는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6·25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관람하고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한번도 이런 광경을 본적이 없던 나는 신기하기도 했다. 영화가 끝이 나고 캄캄했던 극장 안에 조명이 켜졌을 때 사람들의 눈가에는 흐릿한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어른들은 옛 기억을 생각하며, 젊은 사람들은 비참한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만큼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픔인가 보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몇 십 년 전에 헤어져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 전쟁 때문에 몸을 다치고 마음까지 다친 사람들...,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쟁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몇 십 년 동안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금강산여행 등 남북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 전 룡천 소학교 참사에 대한 조건 없는 구호물자와 성금을 지원하는 등 수많은 노력과, 남북한 한민족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지어 얼마 전에는 패션쇼를 여는 등의 경제교류 또한 활발히 추진 중이라 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일에 근접할 수 있으려면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관심도 없는데 딴 거나 봐야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통일을 왜 하나? 우리끼리 잘살면 되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다. 나 또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전쟁의 아픔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야했던 남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반성하고 질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난 우선 청소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며, 분단된 지가 오래되어 알수 없게 되어버린 북한 사투리도 배워보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아이들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

고, 왜 우리가 그토록 통일에 절실한 것인지,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분단이라는 큰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지워버릴 때인 것 같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역이다, 청소년들의 조그만 관심이 통일의 벽을 허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해 보자. 다같이 노력할 때 통일이라는 당당한 이름이 우리 앞에 설 것이다. 당당한 한국, 통일한국을 위하여! 다함께 전진하자!



금강산을 다녀와서

●● 해리포터의 마법세계쯤으로 알고 있던 북한.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랬다. 말로만 많이 들었지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다.

몇 년 전쯤 뉴스에서 금강산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을 때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학교에서 금강산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을 때 설레이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결국 금강산에 가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도 먼발치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금강산을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북한여행은 다른 어느 해외여행보다 더욱더 값지고 유익한 여행이다. 북한이라는 곳은 가기가 어려운 만큼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다. 또한 헤어진 우리 민족을 만나는 감동적인 여행인 것이다.

북한에 막 들어가려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땅에 출입국 신고서를 쓰고 들어가야 한다니 웬 말인가? 남북분단 당시 김구, 김규식 선생들께서 느끼셨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통일이 되었으면 싶지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올 뿐이었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북한 군인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금방 나온 것 같아 정말 신기했다. 버스에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북한군인이어서찌께 난 살짝 웃어줬는데 아저씨의 표정

은 미동도 없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차가운 분위기에 좀 긴장되기도 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옆집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다음날,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금강산에 드디어 도착했다. 금강산에 대한 느낌은 뭐랄까. 외국의 산들은 대부분 웅장하고 거대하며 사람을 압도하는 장엄함도 있고, 또 그 멋진 풍경이란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금강산은 특별했다. 부모님처럼 친근하고, 전형적인 한국의 미가 느껴졌다. 자신의 마음을 모두 보여주는 친구 같았다. 도시의 짜든 공해 속에서 생활해온 내게 이 신선함은 성모마리아의 자애로움으로 또는 부다의 구원으로 내 피부에 와 닿았다.

금강산여행을 통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그 깨끗한 자연환경도 있지만 거기서 만난 북한 안내원 언니들과의 추억이다. 정말 애교가 많았다. “단묵이 맛있어야~ 왜 단묵을 안사니~” 또는 “힘들지?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가라야~” 이러면 정말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정도로 웃는 모습도 예쁘고 참 친절했다. 처음에 ‘단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끼리 ‘단묵이 뭐지?’ 하고 있자 북한언니가 쨈리의 북한말이라고 가르쳐 줘서 많이 놀랐다. 북한에는 이렇게 예쁘고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데 남한에는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통일이 되면 북한말을 많이 받아들여서 썼으면 좋겠다.

구룡연의 구룡폭포에서 만난 언니는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어 봐서 기억에 제일 남는다. 길게 땅은 머리를 옆으로 늘어뜨리고 보라색 코트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 볼에는 작은 보조개가 있는 언니였다. 여러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룡폭포의 높이는 74m라고 알려주며 금강산까지 와서 구룡폭포의 높이도 모르고 가서야 어찌 금강산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언니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계속 주위를 맴도는 나에게 언니는 먼저 “학생동무 예쁘게 생겼네~” 하며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그리고 몇 마디 주고받다가 갑자기 “북한아이들도 우리같이 생

졌나요?”라는 나의 엉뚱한 질문에 “그럼 빨이라도 났을까봐?”라며 재치 있게 받아주는 언니덕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궁금한게 하나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을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아이들도 통일을 바라나요?” 그러자 언니가 “물론 북한아이들도 모두 간절히 통일을 원합네다. 그럼 남한아이들도 그렇습니까?”라고 해서 나는 그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나와 같은 북한아이들도 통일을 바라다니, 나만의 소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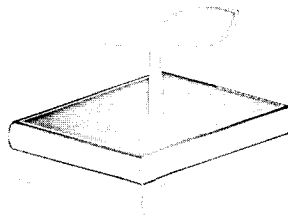
그렇게 그 언니와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금강산을 내려왔다. 금강산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찌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던지.

다음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란봉 교예단 공연이었다.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웠던 그런 공연만이 아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특히 장대를 이용한 공연이 끝나면서 멋지게 빨간 천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 전도와 함께 써있던 “하나”라는 한 마디.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흐르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수도 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공연이 끝나고 마치는 인사를 하던 언니의 말 때문에 또 한번의 눈물이 내 눈앞을 가렸다. “동포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슬픈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난 이 순간 깨달았다. 사실 금강산 여행을 오기 전에는 ‘통일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했었다. 무조건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을 하는 건 꼭 옳은 게 아니고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그 순간 난 느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조금은 다른 색채의 사랑이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통일의 마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냉철하게 따지는 이해타산적인 통일이 아닌, 진정 가슴으로 하는 통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통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나도 통일과 관련해서 생기게 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성공단 개발노력으로 인해 우리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통일로 한걸음 다가갔구나 하고 생각했다. 물론 이 사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금강산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과 같은 한민족은 하나라는 믿음은 귀중한 통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하나의 씨앗은 마침내 통일이라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연경이의 숙제

●● 오늘 연경이는 조금은 걱정스런 맘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토의시간에 사회를 봐야 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제가 '통일' 이어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것도 걱정이었으나, 북한에서 온 염일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기 그지없기도 합니다.

마침내, 토의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경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사회자인 연경이가 얘기하자, 아이들은 모두 손을 듭니다.

“자, 조용, 조용! 손민지 친구 발표해 주세요”

“저는 통일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명이여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두 명이냐 되나요? 그러므로 통일은 되면 안됩니다.”

민지가 발표하자 교실은 시끄러워집니다.

“조용! 한연지 친구 발표해 주세요.”

“저는 민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땅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어, 맞아!”

“또 다른 친구?”

그런데 전교에서 내성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북한친구 염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염일이가 손을 들자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북한친구 염일이를 쳐다봅니다.

“이염일 친구, 발표해 주세요.”

“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에는 통일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남한에 와보니 북한 사람들이 생각한 남한이 아니고, 정말 낮에는 차바다, 밤에는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염일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말을 이어갑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무리와 통일이 되면 안된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 모두 진실을 왜곡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발전하는 나라로, 북한은 남한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장점을 발견해 차근차근 통일의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염일이가 의견을 끝내자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칩니다. 염일이는 멧쩍은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회자 연경이, 발표한 민지, 연지, 염일이, 그리고 6학년 1반 모두 수고했어요. 마지막 염일이의 의견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민지야 북한은 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좋은 점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통일에 대해 토의를 해보았죠? 다들 오늘 토의한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오는 것을 숙제로 하겠어요.”

“이상으로 6월 3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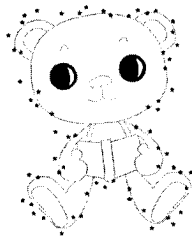
토의가 끝나고 아이들은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두들 염일이의 말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형, 누나와 헤어져 소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을 상상하며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생각없이 생활하던 지난 생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경이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친구들의 발표와 염일이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동안 염일이가 조용하게 지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처음 전학왔을 때,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물려갔을 때 움츠려 들었던 행동, 말투가 생각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와

“이런 것 있어? 북한에?”

하고 묻던 친구들의 표정에 불쌍하다는 말투까지 섞여 있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연경이는 다짐합니다. 통일에 대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일이야 어른들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연경이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경이네 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잘 마무리가 될 듯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연경이의 발걸음도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북한에서 흘러 온 듯한 구름 한 덩어리가 연경이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 선생님께서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써오라고 하셨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글재주도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뉴스나 영화에서 본 전쟁 이야기는 웬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게임기에 나오는 전투 장면이 연상될 뿐이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글짓기 주제를 보시더니

“아! 어김없이 6·25기념행사를 하는구나.”

하시며 관심을 보이셨다.

“엄마도 했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학생이면 피해갈 수 없는 기념행사지, 더구나 엄마는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자란 세대거든.”

나는 눈이 번뜩 뜨이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요? 어떻게요? 왜요?”

나는 궁금해서 급하게 물어보았다.

평소에 외가 쪽 식구가 없어서 예전에, 사촌누나 결혼식 피로연 때,

“엄마 고아지요?”

하고 말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 감히 외가 쪽 식구에 대해 묻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침 그 의문을 풀어주시기로 생각하셨나 보다.

외할아버지는 이북에서 한약방 집 아들이셨다고 했다. 그 쪽에서 결혼도 하시고,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셨다가 전쟁 후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었다.

그 당시 지식인과 부유층 사람들은 모두 자아비판을 하며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가족들은 한 밤중 월남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외할아버지의 형님이 공포심 때문에 마시게 된 술이 화근이 되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홀로 남하하신 외할아버지는 남쪽에서 외할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족들을 찾게 되었다. 그때엔 이미 외삼촌과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난 뒤였다. 외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만든 가족은 큰집, 그리고 남한에서 만든 가족은 작은집으로 정하시고, 양쪽 집안에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똑같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셨지만, 그 누구도 외할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자주 못 오시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할머니의 불평 속에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하셨다고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직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삼촌과 어머니에게 큰집 식구들은 외할아버지의 산소조차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디에 묻히셨는지 모른다고 하시며 울먹이셨다. 만약 어머니가 어렸을 때 통일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찢어진 가족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해하고 용서했을까? 아니면 미워하고 원망했을까? 다행히도 우리 세대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안심된다.

통일이 되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막연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막상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더 큰 고통을 맛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학생이 된 나는 통일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달라진 북한말과 생활 등에 대해서도 알아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좋아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군사비가 절감되어 막대한 예산이 절약되고 국토도 넓어져 여

행할 곳도 많아질 것이다. 더구나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에 있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더 큰 협력자가 생기게 되어 일본과 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들을 몰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선 눈들이 서로 녹아 뿔뿔 뭉치듯 서로의 욕심과 독선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녹아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도 할머니들의 화해와 용서로 할아버지 산소에 꼭 가시게 되길 바라본다.





어느

여름날의 기억

●● 가끔 TV나 신문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항상 그분이 떠오른다. 북쪽에 있는 가족을 그리며 눈물짓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 속에서 그분의 한스러운 인생이 떠오른다. 내가 그분을 처음 뵈게 된 건 4년 전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였다.

우리 외할머니 댁은 군산의 작은 농촌마을이다. 방학이나 주말을 맞아 자주 찾아뵈곤 했다.

어느 찌는 듯한 더운 여름, 나는 마당에서 사촌들과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구슬뜨게 우는 듯, 회한이 담긴 노랫가락 같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나에게 강한 기억을 남겼다. 나는 마침, 빨래를 널러 나오신 할머니께 여쭙어 봤다.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후욱 하며 깊이 내쉬었다. “뒷집 할머니가 한이 많아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 언급도 없었다. 조금 지나자 그 소리도 잠잠해졌고, 나는 사촌들과의 놀이에 빠져 곧 잊고 말았다.

다음날 나는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뒷집 할머니께 지난번에 빌렸던 호미를 갖다 드리러 갔다. 어제 불현듯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과 구슬피 울던 음성이 떠올라 괜시리 무서워지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 도 하였다. 나는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뒷집으로 향했다. “계세요?” 낮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뉘요?” “할아버지께서 이거 갖다드리

라고....” 나는 쑥스럽게 호미를 마루에 올려놓았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작고 아담한 키에 정감 가는 쪼글쪼글한 주름들. 여느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었다.

“뎛지? 이것 좀 마셔라” 할머니는 내게 시원한 수정과를 주셨다. 나도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었으므로 거절하지 않고 마루에 앉았다. “할머니, 어제 왜 우신 거예요?” “그건 말이다...,”

뒷집 할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내가 너만할 때 말이다...,”

뒷집 할머니가 내 나이만 할 적에 한 동포가 총칼을 겨누던 비극적인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짐을 싸매고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고 뒷집 할머니 역시도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과 함께 아무 것도 모른 채 바삐 길을 재촉했다고 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의 연속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할머니 식구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폭격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뒷집 할머니도 그 난리 속에서 그만 가족들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설마 그게 가족들과의 마지막이었을 줄은 할머니도 몰랐다고 했다. 폭격 후 주위가 잠잠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자 가족들은 온데간데없고 홀연히 이 넓고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아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보다 더 무서운 가족들과 헤어졌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어느 집의 식모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컸다고 한다. 아직도 어린 여동생의 작은 얼굴이, 헤어지던 순간까지 잡았던 어머니 손의 촉감이 지금도 생생하다던, 할머니는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사를 말하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역시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다고 했다. 여동생 ‘순이’를 찾기 위해서 이산가족상봉을 주관하는 행사에도 여러 번 참가해서 늙은 몸으로 애타게 동생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족들과 헤어진 아픔과 슬픔이 목까지 차

오를 때면 홀로 산에 올라 그렇게 슬픈 곡조를 읊으며 자신을 달래곤 한다며 쓸쓸하게 말했다.

“아가, 너는 아마 모를 게다. 혈육의 진한 정을 말이다. 제 아무리 높고 깊은 휴전선이 그어져있어도 그 혈육의 정은 못 끊을 게야.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TV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더라. 통일 은 아마 불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아가,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다. 뭔들 못하겠느냐. 누가 시작한 전쟁이었던, 무엇을 위한 거였던 이제 그런 건 다 지난 이야기다. 고저, 이산가족으로 사랑하는 이들 못 만나고 이렇게 살아 가고 있는 것이 어디 나 뿐이겠느냐?”

할머니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셨다. 나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보니 할머니의 슬픔이 나의 가슴에 깊이 배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만큼은 있었다. 북한과 남한은 짧지 않은 기간을 떨어져 지내서 문화도, 경제도, 모든 것이 함께 하려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아픔, 한 민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지니고 있는 고통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다. 결국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들을 끝내 만나지 못한 채로….



- 모래성 / 235
- 눈물 젖은 두만강 / 237
- 오래된 꿈 / 240
- 내 동포야! / 242
- “우리 다시 만납시다!” / 244
- 나는 못난이 / 246
- 두 손 꼭 잡고 달려보자 / 249
- 소년, 그리고 마음의 통일 / 252
- 외할아버지를 추모하며 / 255

강원도

모래성

●● 토요일 휴업일을 맞아 우리 가족은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갔었다.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는데 아직 해수욕철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뜸했다.

바다 주변은 온통 철조망으로 띠를 두르고 있었다.

“아빠, 왜 보기싫게 철조망을 쳐놓았어요?”

나는 군인이신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북한에서 간첩이 바다를 통해 침투할까봐 그런거야.”

아빠는 즉시 대답해 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닷물이 출렁이는 해변가로 뛰어갔다. 아빠도 동생도 엄마도 나를 따랐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동생과 나는 파도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갔다. 앞으로 따라갔다, 하면서 놀았고 엄마와 아빠는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셨다.

“우리 모래성 쌓을까?”

아빠가 모래밭에 털썩 앉으며 말씀하셨다.

“좋아, 시합해요.”

그래서 엄마와 내가 한 편이 되고 아빠와 동생이 한 편이 되었다.

시합은 파도가 들어오기 전에 성을 쌓아서 파도가 쓸고 간 다음에 더 많은 흔적이 남는 편이 이기기로 했다.

파도는 순식간에 모래성을 무너뜨렸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으므로 결국 무승부가 되었다.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모래성은 힘이 없었다.

“우리의 단결도 마찬가지로야.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힘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단다.”

군인이라서 남다르게 통일 의지가 강하신 아빠가 모래성 시험을 하자고 제의한 의도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작은 일 같고도 토닥거리며 힘을 모으지 않았던 일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통일은 아주 힘들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고쳐야 된다.”

장교인 아빠는 사병에게 교육을 시키듯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려고 하셨다.

“그런거 쯤은 우리도 알아요. 아빠!”

나는 빠기며 말했다.

“알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지.”

엄마가 핀잔을 주셨다.

그렇다. 이젠 나도 내가 할 일은 엄마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알았어요. 엄마, 내 방에 이부자리는 내가 깔게요.”

하고 멋지게 머리를 긁적였다.

“물론 그래야지.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힘은 모래성이 아니고 단단한 돌성이 될거야.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어 하늘로 어퍼컷을 먹이며 말씀하셨다. 우리도 아빠를 따라 히딩크 흉내를 내며 4강 신화의 멋진 포즈를 취했다.

바다가 더 푸르게 넘실대며 파도를 쳤다.

우리는 손을 나팔처럼 모아 입에 대고 북쪽을 향해

“통일아, 기다려라!” 하고 소리쳤다.

우리들의 마음도 바다처럼 시원해졌다.

눈물젖은 두만강

●●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배앗사아고옹~'

이른 여름 피약벌이 살 쓰리게 내리쬐는 오늘도 고모께서는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연신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운전 중이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진지하게 한 소절 한 소절 하시는 고모의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하필 그 노래를 애가 탈 정도로 부르시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지난해, 나는 통일을 주제로 글을 써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인공이신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더욱 더 좋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고 할아버지께 효도한다 생각하며 기쁘게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글의 끝맺음을 장식하곤 했던, 언제나 나의 바람이었던 통일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바랐었는데 그런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이 계신 곳으로, 그리운 고향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할아버지 생각으로 눈물만 흘리던 그 순간에, 왜 그런 때가 떠올랐는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이 할아버지 안 죽는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괜한 복한 탓도 해보고 나라 탓도 해보며 더욱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보았던 나였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차례 오고갔

던 교류, 스포츠 활동으로 두 나라 아닌 두 나라를 보면서 통일이 바로 코앞인 줄 알았던 내 모습이 어리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을 그때,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장면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성의 한 전망대에서 육로를 통해 줄지어 북한을 오고 가던 트럭들의 행렬. 정작 통일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서 가슴에 벅차 오름을 느끼지 못한 내 마음에 질책과 꾸지람을 해보면서도 두 나라가 내가 절망을 느낄 만큼의 부정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한없이 기쁘던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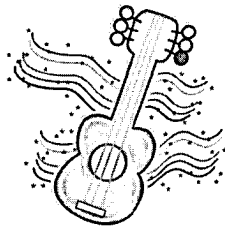
말도 안 되는 전쟁. 한반도의 설움의 울음을 터뜨려 버린 육이오 전쟁,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났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가면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했어야만 했는지, 피고름 짜가며 일군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어야 했는지. 육이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에게 그저 한민족의 허리를 두 동강 낸 국가의 원수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마음에 담을 쌓고 있던 저를 끌어내려 주신 할아버지의 한마디. “저 산 너머에는 우리 형제가 있단다.” 매일 같이 놀러오던 칠부지 손녀를 품에 안고 평화의 땀을 바라보시며 항상 잊지 않고 해주시던 말씀이 지금 커가는 나에게 더 이상의 설명과, 이해를 할 필요 없을 정도의 굳은 통일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글도 늦게 배우시고, 몇 십 년 다닌 교회의 찬송도 단 한 곡조차 외우시지 못하던 할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외워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제목 그대로 주름진 두 눈가에 눈물울, 세월의 그리움을 한가득 짓고 계시며 고향을 그리시던 할아버지의 대한 기억이 나에겐 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소수의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국민들의 가슴은 안타까움의 눈물과 그리움의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없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며 슬픈 감정이 더해져 옵니다. 얼마만큼 닦아 냈어야 했는지 헤아

릴 수 없는 눈물과, 고귀한 생명들이 한줌의 흙으로 반백 년이란 시간 속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되는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이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는 소망을 간절히 해봅니다.

“홀리간 그 옛날의 내 님을 신고~” 고모를 이어 내가 한 소절을 부르자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머쓱했지만 곧 다같이 부르기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면서, 다가오는 통일을 그리면서 온 가족이 통일의 염원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햇살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뻗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래된 꿈

●● 우리는 국가(國歌)도 다릅니다. 우리는 국화(國花)도 다릅니다. 우리는 국명(國名)도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지구에 생존하는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50년 전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던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고 아내와 자식들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강산이 다섯 번 변할 수 있다는 그 길고 긴 세월동안 우리는 보고싶은 가족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MBC에서 방영되는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들이 깊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표'의 코너 중 남북 알아 맞추기 경연대회는 내가 통일된 대한민국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하나의 촬영장소에 남북의 선생님,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북측 선생님께서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을 '일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잠깐씩 놀라곤 하지만 비슷한 표정을 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하나씩 침착히 풀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역시 같은 조상의 피를 나눈 형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배우는 것이 다르고 수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북측 학생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남측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나는 웃음 짓게 됩니다.

2000년 8월 15일 평양 남북 이산가족 상봉 60억 세계 인구가 모두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싶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꿈에서만 그려보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긴 흘렀나 봅니다. 소년이었던 아들은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변해 버린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 계시지. 조금만 조금만 더.’ 한 아저씨의 울음 섞인 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아니 세계를 울렸습니다. 눈물 흘린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휴전선 없는 지도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이 아닌 북측에서 보는 백두산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북측 친구와 평양시내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나는 함흥에 있는 냉면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개성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 역시 우리의 오래된 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통일. 그 멀고도 길었던 꿈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와있습니다. 올림픽 입장도 함께 했고, 얼마 전엔 패션쇼도 함께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둘이라는 아픔보다는 하나라는 기쁨이 어서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슬프지 않은, 아무도 외롭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텐데 말입니다.

다친 호랑이의 허리를 이제 그만 고쳐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동포야!

●● 며칠 전, 내 방 한쪽을 크게 자리잡고 있는 세계지도를 보았다. 중국의 큰 땅을 보다가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다.

“에이..., 우리나라 땅은 뭐가 이렇게 작은 거야? 게다가 또 갈라져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몇 달 전 뉴스에서 나온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 동생을 잊어버렸던 시간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외숙모를 만나러 가기 위해 동생을 외갓집에 맡기고 갔다. 가려고 하는데 외할머니의 전화가 왔다.

“윤선아! 성현이가 없어졌다.”

다급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귀를 맴돌았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생을 찾으러 온 삼척시내를 뒤흔들며 사랑하는 내 동생을 찾아다녔다. 내 동생은 발달 쪽으로 장애가 있어 혹시나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가족은 찾아 나섰다. 경찰차까지 동원하여 내 귀하고 소중한 동생을 찾으러 다녔건만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4시간이 흘러 삼척 의료원 부근에서 내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이 집으로 걸려왔다.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내 동생이 확실했다.

그 생각을 하다보니 눈물이 났다.

그렇게 장장 6시간을 잊어버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 가족들...

갑자기 이산가족들이 생각났다. 행복하게 지내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으

로 아들과 형제의 그 손을 놓쳐서..., 어언 50년 동안 후회와 눈물로 지금도 눈물로써 가슴깊이 새겨져 있는 자신의 형제를 생각하며 울고 있을 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산가족들..., 6시간이지만 내 동생이 참 보고 싶고 눈물이 났는데,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리움과 눈물로 늙어버린 우리의 동포들은 이젠 찾을 힘도 없어서 사진으로만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자식 형제들의 마지막 모습만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뼈저리게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을 우리의 동포들...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통일이란 단어뿐이었다. 지금 통일을 하더라도 우린 불편한 것이 많을 것이다. 50년 동안 달라진 언어와 생활풍습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50년 전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행복하게 살던 때를 기억하며 우린 어서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통일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말로만 통일! 통일!이라 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부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신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전쟁으로 놓쳐버린 자신의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 우리의 동포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통일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룩해 내는 것이다. 불편할 지라도 서로 한 민족이라는 믿음으로 통일하여 다시 전처럼 하나로 힘을 합쳐 역사를 왜곡하는 일분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자. 38선. 악마 같은 38선을 치우고 우리 서로 한 민족이 되자.

먼 훗날 다시 세계지도를 보았을 때 하나가 되어 잘 살고 선진국으로 변해있는 우리나라를 기대하며 난 다시 크게 외친다.

“우리 동포여! 내 사랑하는 동포여!”

“우리다시 만남시대!”

●● 북한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뛰어댔다. TV에서만 보던, 사회책에 간간이 나오던 북한 땅을 내 발로 딛었다니. 버스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막상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이제야 내가 북한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한 듯 내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북한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인가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해준 이야기인데, 북한사람들은 우리 남한사람을 보면 무조건 처형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 돈을 끌어 모아 전쟁에 쓸 무기를 장만하고 있는 것이며, 언젠든 전쟁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그 친구는 말했다. 순간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때였고, 그저 '통일 포스터 그리기' 라고 하면 남과 북이 합쳐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6·25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갈라져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리기만 했던 나였다.

나는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북한'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충부터 생각이 나고, 가끔 학교에서 뒷산으로 붙은문서를 주우러 가던 일은 더욱 내게서 북한이란 단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시켜 버렸다. 부끄럽게도 내가 통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에 들어온 이후였다.

그리고 이제 막 중 3이 된 나는 지금 북한 땅을 거닐고 있다. 금강산 숙소

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온천욕도 즐기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재미 있게 놀다가도, 버스를 타고 올 때 보았던 초라한 마을을 생각하니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념을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금강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직후, 우리는 밥을 먹고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 물론 너무나 화려하고 신기한 묘기를 보게 되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답답했다. 사회자의 말을 하나도 알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느껴야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 특유의 억양, 독특한 발음, 마이크로 인한 울림까지 겹치니 도통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공연을 관람하던 남한 사람들은 모두 '지금 뭐라고 말한 건지 들었어?'라며 옆 사람과 서로 의아한 표정을 지어댔다.

이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된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통역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민족의 슬픔이 어디 이 뿐이랴? 이산가족의 아픔과 민족의 정신적 불균형! 잘려진 허리의 통증은 대대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한 민족의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남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고, 남과 북의 연결고리이며,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울타리이다. 이제 누구도 우리의 울타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히 동여매어 튼실한 대한민국!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모란봉 교예단' 공연 사회자의 말이 아직도 귀에 울린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납시다!"

나는 못난이

●● 나는 못난이다. 얼굴이 못나서 못난이가 아니라 마음이 못나서 못난이인 것이다. 얼마나 못났냐 하면 난 우리 민족의 최대 목표인 통일을 원치 않았다. 그 후 치러질 경제난과 사회혼란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나만 생각하여 통일을 반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못남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나의 분신인 내 혈육, 내 가족도 그곳 북한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물론 내 혈육의 배고픔만 생각하는 나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본래 한 민족이 아니던가. 따라서 내 혈육을 넓히고 넓히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되는 것이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어찌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게 된 것일까?

우리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던 못난 나는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었다. 그냥 남한은 미국 편, 북한은 소련 편으로 나뉘어 영토전쟁이나 한 줄 알았다. 하지만 깊숙이 그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나뉘어야 할 수밖에 없던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북한을 점령해 나가자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점령을 막고자 38선의 분할 점령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이 동의, 한반도는 38선을 기점으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신탁통치까지 받게 되었다. 즉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그 후 민족 전쟁 6·

25가 일어나고 38선을 두고 밀고 당기다 국제적 여론에 휴전을 하고 분단이 현재까지 고착되었다.

몇 년 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알 수 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부등켜 안고 울며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중 어디에 민족분단의 능동성을 볼 수 있는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의 설움. 결국 자신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다.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통일. 하지만 어린 우리 세대 즉 청소년 중엔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나조차도 그러했으니 말이다. 보통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될 건 통일비용과 맞먹는 분단비용이 존재한단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제일 먼저 북한하면 떠오르는 무궁한 자원, 현재 북한에는 유용 광물이 많다. 대부분 전략 광물들인데 예로 흑연은, 철, 아연, 석탄 등의 매장량이 아주 풍부하다. 이 지하자원들을 개발만 해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대륙으로의 진출에 유리하다.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서 반도국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통일이 되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륙횡단철도 개발이 완성되면 부산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방향 유럽 혹은 노르웨이 쪽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경제적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에 막대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인구 8000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단일 시장을 가지게 된다.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억 단일 시장과 유사한 상황이 되어 경제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내수시장만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돼 경제 발전에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면 좋은 점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해 타산적인 이득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인 '우리'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

유가 아니라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얼마 전 학교수업 중 흘러가며 들은 사실이 있다. 세계강대국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방해하고 있다고..., 언젠가 지나 그들의 놀이감이 되어 한가죽인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못한 나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나 같은 못난이들이 너무 많은가 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못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분단의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가 보다. 다들 그 못남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지의 민족, 저력있는 대한민국의 힘으로 말이다. 못났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딱지를 떼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련다.



두손꼭잡고 달려보자.

●● “대한민국, 짜잔짜잔”

지난 2002년, 세계인이 하나되는 축제인 월드컵! 그 월드컵의 개최국가로서 당당하게 우뚝 섰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직도 감동의 한순간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단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북녘 땅의 내 친구야! 다가갈 수는 없지만 너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연필을 든단다. 어느덧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추위도 지나가고 봄의 계절이 다가왔단다.

안녕? 나는 홍천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월운분교에 다니는 조진희라고 해. 우리학교는 시골의 작은 분교이지만 사랑과 꿈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란다. 요즘 나는 6학년인 최고 학년이 되어 초등학교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지난 2002년, 나는 3학년이었지. 그때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월드컵 개최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반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했다면 더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단다. 1년 후인 2006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자꾸나.

북녘의 내 소중한 친구야!

요즘 우리는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우고 있단다. 사회 시간에 우리의 역

사를 배우면서 나는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이며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해서 중국 대륙의 일부까지 포함한 아주 큰 나라였다. 우리의 조상은 이처럼 하나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가슴에 두고 서로가 하나가 아닌 반으로 갈라져 살아가고 있다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하기까지 하단다. 지금도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짓고 있을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달래 주었으면 좋겠다.

친구야! 우리 언제쯤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배우며 같이 뛰어 놀 수 있을까? 언제쯤 이산가족의 아픔을 씻고 한없이 함박 웃음을 터뜨릴 수 있을까? 빨리 통일이 되어 이 글을 읽는 너와 내가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날이 왔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단다.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서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참 많을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나간다면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을거야. 형제간에 방금 싸우고 돌아서면 금방 잊고 친해지듯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과거를 잊고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간다면 분명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단다. 너희 북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배급제를 없애고 개인에게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또, 새로운 기술들과 IT 산업현장을 돌아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며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너희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배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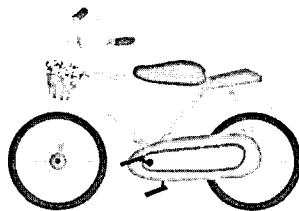
고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런 변화야말로 우리가 통일의 문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겠지?

나중에 통일이 되는 날 우리 함께 멋진 탑을 만들자! 나의 꿈은 멋진 조각가가 되는 거란다. 나의 특기는 축구이지만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은 조각가가 되는거야. 왜냐구? 통일이 되는 날 남과 북의 염원을 담아 멋진 탑을 만들고 싶어. 내 손으로 직접 말이야. 친구야! 너도 같이 도와줄거지? 우린 친구니까….

창 밖의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렴. 파아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은 참 좋겠다. 하늘엔 휴전선도 철조망도 없으니까. 저 하늘의 자유로운 새들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서로 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라고 우리 기도하자. 너와 내가 두 손 꼭 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이만 줄일께.

통일이 되면 우리 두 손 꼭 잡고 하늘 끝까지 달려보자.

두 손 꼭 잡고….



소년, 그리고 마음의 통일

●● 소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얼핏 들어보면 마치 만화 영화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하지만 소년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재일교포이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이다. 아마 인터넷 신문을 즐겨보는 이들은 어디서 들어본 낯익은 이름일 것이다.

지난번 최흥만 선수 경기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잡히며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일본문화를 접하면서 재일교포 가수가 활동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냥 이름만 들어오다가 그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대단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은데 소년은 자신이 재일교포라고 말하면 가수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핏줄이 한국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밝혔다. 일본 오락프로에 나와서 한국을 알리기도 했고, 조금은 지난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인 일본에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까지 대략 17일 정도 마라톤을 완주하였는데 자신의 진짜 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눈물겨운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내가 얼핏 듣고 그녀에 대해 느낀 생각들이다.

내가 놀랐던 것은 그녀의 뜨거운 한국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명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그녀의 이름이 자주 오르게 되면서 그녀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소년의 본명은 성선임이라고 했다. 재

일교포 3세이며 일본 사람들이 선임을 발음하지 못해 고치고 고쳐서 소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름에서부터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선임이 일본 오락프로에서 38선을 세트로 만들어 놓는 것을 직접 촬영하는데 38선을 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그 세트장은 나에게도 익숙한 공동 경비 구역 JSA에서 나왔던 배우 송강호와 이병헌이 마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선임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어찌지 못하고 끝끝내 돌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만다. 그것을 보던 나도 마음이 아파왔다. 선임은 우리 분단의 슬픔을 분명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보인 것이 틀림없다고 난 생각했다. 세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임은 카메라 앞에서 울었다. 게시물 꼬리말에도 모든 사람들이 선임의 그런 한국 사랑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비록 세트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고 싶어하는 그 선을 넘었을 때 과연 선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는 그 화면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났다. 말로만 통일이 되어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알보고, 이기적이게도 우리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면서 안 좋게만 본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해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선임에 대해 올려진 게시물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일본에서 살다 왔으며 일본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등, 선임이 북한 혼혈이라고 꼬리말을 단 것을 발견했다. 역시나 그 꼬리말 아래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글들이 많이 달렸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너무 불쾌했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 불리는 것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북한 혼혈이 웬 말인가? 정말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했다. 재일교포 3세인 선임보다 더 먼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지난 5월에 열렸던 교내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은 남북한을 소재로 하여

입장을 하여 입장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와 갈라진 한반도를 합치고,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이 파란색 한반도 깃발을 흔들며 입장을 하였는데 1등을 하였다. 그날 우리 모두의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져서 기뻐했고, 그렇게 입장을 하면서 나도 아이들이 아직은 통일이 라는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될 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과 북의 마음만이라도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마음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을 앞당겨 주리라 기대해 본다.





외할아버지를 추모하며

●● 외가댁 식구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화장한 재가 곳곳에 뿌려졌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잡초들 사이로 이곳저곳에 외할아버지의 유골이 훑날린다. 5년을 치매로 고생하신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난 그동안 뭘 했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전화로 그분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향하는 길에서도 그저 막연한 슬픔이 맴돌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외할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떤 '상징' 이상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외할아버지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다. 가족들에게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홀몸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은 평범한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은 남으로 내려오지 못했고 남쪽에 계시던 외할아버지는 혈육이라고는 춘천에 계시던 삼촌 뿐,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곧 끝나겠지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쪽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세월이 흘러 재혼도 하셔서 지금의 가정을 꾸리셨으며, 정년퇴임하신 후에는 양봉과 밭을 가꾸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외할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통

일에 대한 사무치는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외할아버지와는 달리는 통일에 대해 단순히 ‘통일이 되면 좋구, 안되면 말고…’ 식의 무관심한 태도, 북한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의 부재, 분단과 우리나라 전쟁 상황에 대한 어떠한 판단과 생각없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그러나 그런 외할아버지의 존재는 분단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한 개인으로서 윤리적인 요구와 제안을 하고 계셨다. 내 안에 존재하던 외할아버지 또한 변했다. 과거의 내가 불렀던 단순한 호칭 ‘외할아버지’는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떠돌고 계신다. 반드시 죽어야만 ‘죽음’은 아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단절, 그 사실에서 개인이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대한 억압, 이것은 이산가족들에게 죽음보다 더 외로우며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현재의 삶을 더 절박하게 만드는 슬픔 감정임이 분명하기에….

세월의 흐름 때문일까? 역사의 고통 때문일까? 치매는 아주 천천히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외할아버지의 병은 부축 없이 걷지 못하는 정도에서 가족들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지셨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혈육에 대한 정은 더 커지신 것일까? 가끔씩 외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환영에 시달리셨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께서 북쪽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계속 되뇌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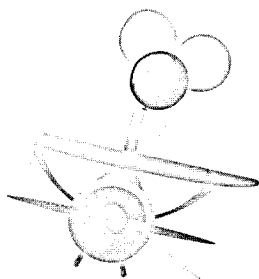
분명, 외할아버지가 겪은 20세기는 지나갔다. 그리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세기도 지나갔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2차 대전 때 수용소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자신은 의무를 성실히 했고,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자, 늙은 유대인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외할아버지의 죽음은 ‘왜 우리는 이렇게 통일에 대해 짐과 압박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지금 상황을 탓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혹 누군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지원과 협력, 6자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국가'의 차원의 문제이다.

누군가 물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게라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불가능한 통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통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부 예측된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또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20세기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이뤄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치유해야 하는 상처이지 국가나 남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의 뼈가 훨훨 날아갔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지만.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외할아버진 고향의 흙냄새를 잊진 않으셨을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영원히 가셨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그분의 의지만은 내 꿈과 이상 속에서 새로이 요동칠 것이다.



총칭북도

- 우리 모두 하나되어 / 261
- 군화 속에 묻힌
꿈을 위하여 / 264
- 그날이 오면 / 266
- 서울→개성→사리원행열차 / 270
- 허리 잘리지 않은
호랑이를 그리며 / 272
- 통일의 합성 / 275
- 이름 모를 나의 친구에게 / 277
- 당연하기에 완성을 염원한다. / 280
- 통일을 하지 말자고? / 283

우리모두 하나되어

‘아~싸, 오늘 토요일이다. 게임도 하고 TV도 볼 수 있다.’

나는 토요일이 제일 좋다. 친구랑 일주일간 지냈던 이야기도 나누며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또 TV도 맘껏 볼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언니가 시험이라 내가 좋아하는 느낌표도 못 봤다. 요즘 남·북한 어린이 퀴즈대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느긋한 마음으로 TV앞에 모였다. 어? 그런데 퀴즈 대회는 끝났나보다. 오늘은 그동안 출연했던 우리나라 어린이들만 출연했다. 참 재미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북한 학생들, 똑같은 흰색 윗도리에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고, 잘 웃지도 않고, 표정도 모두 다 똑같아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남한 어린이보다 북한 어린이가 더 잘 맞췄다.

나는 마음속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웬지 북한 어린이가 지면 방송 끝나고 굉장히 혼날 것 같았다. 그래서 불쌍했다. 아빠께서는 진짜 퀴즈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방송을 우리가 가져와 마치 퀴즈 대결을 하는 것처럼 합성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난 믿기지 않았다. 꼭 진짜 같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친구들을 볼 수 없다. 그 대신 남한의 마지막 종착역인 도라산역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아휴~. 도라산역에서 평양까지 205km밖에 걸리지 않고, 서울에서 대구보다 더 가깝다는데… 난 언제 백두산에도 가보고, 금강산에도 가보지?’

지금도 갈 순 있지만 우리 엄마는 금방 통일되면 힘들이지 않고 걸어서도 갈 수 있다고 하신다. 하지만 말처럼 통일이 뭐 그리 쉬운가? 지금도 북한이 핵을 만든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 탈북자가 처형됐다 등 북한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한 것 같다. 난 엄마께 여쭙 보았다.

“엄마, 통일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처럼 살면 안돼요? 통일이 되어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면데요.”

엄마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민진아, 네 말도 옳아.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민진아, 네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 우리는 이산가족이 없어서 그 아픔을 잘 모르는 거야.” 하시며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떠올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부둥켜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철조망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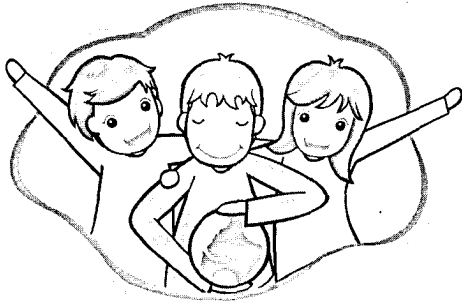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서로 노력하면 금방 익숙해 질 것 같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소리를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남·북한 어린이가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개갱~ 하고, 나자빠질 것 같은데... 독도에 가서 남·북한 어린이팀 대 일본 어린이팀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끼리 힘겨루기를 하는 거지?’

내가 아직 어려 궁금한 점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통일은 다른 나라에서 대신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서독이 동독과 민주주의로 통일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

다. 우리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어른들은 자기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알보지 못하도록 강대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진짜로 좋겠다.



군화 속에 묻힌 꿈을 위하여

●● 현충일이다. 토요일부터 이어진 연휴를 즐기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붐빈다는 뉴스와 함께 새벽부터 국립공원묘지에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다.

나는 늘 그랬듯이 태극기를 달고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깐 목념을 했다. 사실 마음속에서 우려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왠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학교에서 귀 아프게 6·25 전쟁에 대해서 들었고, '기억 속의 들꽃' 이나 '장마' 와 같은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었을 아픔을 어렵פות이 짐작은 하지만 내게는 지나간 역사였다. 그래서 현충일에 방영되는 특집방송 안내를 보아도 덩덤하고, 모아둔 상품권을 가지고 가족들과 영화나 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르셨다. 그 특집 방송을 같이 보자고 하시는 거였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TV에서는 어떤 군인들이 산골짜기를 파헤쳐 유골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나왔다. 진흙 속에서 빼만 남은 유골에는 군화가 그대로 신겨져 있었다. 뼈에 힐링하게 신겨져 있는 군화? 나는 왠지 모를 슬픔이 조금씩 조금씩 가슴 안으로 차올랐다. 어떤 할아버지가 증언을 했는데 6·25 치열한 전투가 지난 뒤 개들이 군인들의 시체를 물고 다녀 임시로 군인들의 사체를 모아 매장 했다고 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군화도 벗지 못하고 철모도 그대로 쓴 채 이름 모를 골짜기에 50년 동안이나 묻혀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해를 발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유해의 신원을 밝혀 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단추 하나, 주변에 남아있는 유품 하나라도 놓칠 새라 그들은 진지했다. 유품 중에는 작은 삼각자도 있었고, 운 좋게 군번줄이나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발굴한 유해들을 화장하여 모시는 날, 반백이 된 할아버지가 유해를 안고 통곡을 했다. 5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눈물이 끊임없이 주름을 타고 흘러 내렸다. 노인 같은 아들이 아들 같은 30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어 한이 없다면 그 노인의 모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가 군화도 벗지 못한 채 땅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흘렀다.

이제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직도 군화를 벗지 못한 채 남한과 북한의 깊은 산골짜기에 누워계실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그분들의 고향은 남한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다. 그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분들의 꿈은 군화와 함께 땅속에 묻혀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 조국은 나누어 졌고, 이산가족의 슬픔은 오늘 같은 특집 방송에서 연례행사로 다루어질 뿐이다. 그 목숨의 대가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현충일을 황금연휴로 즐기고 있다니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졌다.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군화도 벗겨드리고, 밝은 햇살 속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한과 북한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의 패션쇼를 열기도 하고 경제면에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6·15 기념행사에 대규모 방문단이 북한으로 떠났다.

5년 전의 약속대로 꼭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전쟁으로 인해 한이 되어 남아 있는 아픔들을 치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노래는 안병헌 선생님께서 작곡, 안석주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한 관계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부른 이후, 남북이 함께 있는 곳에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민족의 애창곡'이나 '통일노래'로 통하고 있는 이 노래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 남·북한 국민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있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점점 이 노래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인지도 모른다. 북한과 남한은 반세기가 넘게 왕래가 없어 그런지 어찌 같은 핏줄처럼 느껴

지지 않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에서 시한폭탄 같은 국가 취급받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통일이 되면 나라 경제가 휘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연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민족, 한 뿌리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 땅이 넓어지고 군사력이 올라가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 민족의 융합, 통일이 단순히 이런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길게 볼 때, 어느 방면에서든지 통일은 이점이 더 많다.

북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고,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로 더욱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쟁 날 위험성이 없어지니, 외국 자본가들의 투자도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병력은 예비군까지 약 200만명이다.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통일을 한다면 그 국방비를 절감하여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면적은 22만 평방미터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주변 강대국들의 내정간섭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겠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 불신하는 경우는 정말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슬프고 힘든 일에는 세월이 약이라지만, 과연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와 떨어져서 훌훌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이나 대립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통일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며 지금 부족한 우리가 더 좋고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혼자' 이기에...

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부터 북한을 남한이 흡수통일하면 편할텐데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떠할까? 그리고 북한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반세기 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른 문화와 사상 그 생각의 틀이 깨어져 버린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결코 좋은 감정은 갖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지워지고 있을 통일과 '저쪽'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그냥 퍼즐 맞추어 나가듯 천천히 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50여 년 전 그 전쟁 속에서도,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화중지변인양 평화는 대답이 없다. 전쟁이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몰살이다. 하지만 이제 그 소용돌이 위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길 빌어본다. 또 그 위에서 통일이란 나무도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말이다.

서로가 남이 아닌 우리임을 기억하고 피로 맺어진 가족이고 친족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식대로 물들이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그 옛날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을 세울 때부터 우리는 하나였듯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그 오랜 반만년의 역사 앞에서 우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이 아닌 '한반도' 였던 것처럼.

반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반만년 앞에서 반세기는 아주 조금의 시간일 뿐,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하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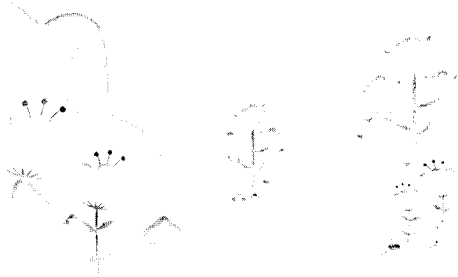
시작이다!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둘 다 저 멀리 전쟁의 바다 건너 평화라는 나라에 도착하기 위한 힘찬 비상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들겠지만 우리는 틀림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 이니까!



서울→개성→ 사리원행 열차

“여러분 도라산 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개성으로 가는 기차역이 아닌가요?”

도덕시간에 선생님께선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다. 친구들은 모르겠다는 듯이 멀뚱멀뚱 눈만 꿈벅 거렸다. 내가 도라산 역이 북한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작은 할아버지 덕분이다.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부터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시고 다른 나라와도 연결하는 철도공사 일을 하고 계신다. 원래 고향이 원산이신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1·4후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건너오셨다. 북에는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내셨다. 두 분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안 드시고 당신들의 몸을 오히려 고단하게 하여 고향의 식구들을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셨다고 한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옷장 안에서는 그동안 고이고이 써 놓으셨던 편지들이 한 묶음이나 나왔다. 그 편지들은 북한의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한 할아버지의 한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듯 했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옷장 속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편지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계신 식구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아버지께서 간직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른 고향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 내 친구들이 있는 북한을 가려면 다른 외국 가는 것보다 절차가 더 까

다롭고 복잡하다. 많이 늙으신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고향 근처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 뿌듯하다고 하시며 힘들지만 그곳 일을 자청하셨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세월이 지나면 고향말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이북 사투리를 잊지 않으려고 가끔은 아빠와 작은 아빠들한테까지 고향 사투리를 가르쳐 주신다.

서로가 이산가족이 되어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어느덧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것 같다. 다만 그 후손들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헤어진 가족들을 잊지 못해 슬프게 살다 가셨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와의 독도 언쟁에서 북한도 우리처럼 일본을 마구 비난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과 한민족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가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히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다.

작은 할아버지께서 지금도 북에서 열심히 놓고 계시는 철로를 따라 언젠가는 서울→개성→사리원행 열차를 타고서 평생을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빠양!”

힘차게 기적 소리를 울리며 남한과 북한사람들을 신고서 사리원까지 달리게 되는 첫 날,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던 고향으로 갈 것이다. 가서 장롱 속에 오래도록 보관되어 있던 편지도 보여드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친척들도 만나고 싶다.

허리 잘리지 않은 호랑이를 그리며

●● 6월의 입구에 막 들어선 어느 날이었다. 6교시 국사시간, 무거운 눈꺼풀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던 내게 선생님의 목소리는 서서히 자장가가 되어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사정은 비슷했는지,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 잠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곧 있으면 6월 15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6월의 기념일이라..., 얼른 떠오르는 것은 현충일과 6·25였다. 하지만 15일에도 기념할 일이 있었던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모두들 어리둥절해져 눈치만 살피자,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약간은 실망하신 듯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나는 5년 전 오늘, 학교 TV로 생중계되는 두 정상 포옹을 지켜보며 친구들과 함께 질렀던 가슴 벅찬 환호성을 기억해냈다.

떠올리고 나자,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한 감동에 5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인데 왜 선생님의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는지 의아해졌다. 비극과 아픔을 가진 날인 현충일이나 6.25는 금방 생각났는데, 왜 정작 평화와 화합의 날인 6·15는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를 결의했다는 엄청난 역

사를 이뤘음에도, 특히 근래에 통일이 가까워짐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변화보다 긴장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아주 어렸을 때, 내게 북한은 '무서운 곳' 으로만 느껴졌다. 자라면서 북한은 한 민족임을 배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슴으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무서운 곳' 에서 대통령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방위원장과 형제처럼 손을 꼭 잡는 모습은 내게 북한을 한 거래, 한 동포의 나라로 느끼게 해주었다.

갈 수 없는 곳인 줄만 알았던 북한 땅에 대통령이 밭을 딛고 선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통일도 머지않았다는 기대로 부풀었다. 마주잡은 두 정상 손이 당장이라도 마음속 얼음을 녹이고 철조망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철조망은 여전히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막고 서서 서로 총을 겨누는 형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 마치 허리를 잘린 호랑이처럼 한반도는 숨죽여 신음하고 있다. 그런 한반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으로 마련된 주사기 속에 화해의 약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요즘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북핵이다. 지난 2월 북한의 공식 핵보유 선언 이후,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평화적 해결을 논의하자는 6자회담에 1년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남북 사이에 서늘한 바람이 아직은 멀찍이서, 하지만 불안하게 불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았다. 물론 그동안에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 협력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대북 지원 비료의 수송을 위해 북한의 배가 울산항에 입항하기도 하였고, 13일부터는 평양에서 민족통일 대축전이 시작되는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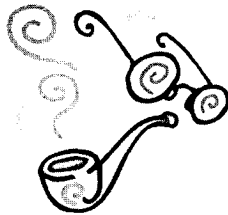
그러나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남북통일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한 첫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북문제에 그저 비난만을 하거나 혹은 별 관심이 없다. 국사 선생님의 질문을 받기 전, 6자회담이 무엇인지에조차 관심이 없었던 나의 모습처럼...

남북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또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보다도, 적극적인 대외활동보다도, '남북통일'이란 정부나 국회 또는 몇몇 시민단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마음가짐이 우선일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통일을 이룬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 6월 15일부터는 국사 선생님의 질문에 모두다 큰소리로 '남북공동선언, 평화와 화합의 날'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작은 실천들로 주사기에 화해라는 이름의 약을 조금씩 채워나갈 때, 우리 아들딸에게 보여줄 지도에는 <허리 잘리지 않은 호랑이>가 그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통일의 함성

●● 2000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역사적인 그날의 감동 이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다. 바로 오늘 남북에서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신문과 TV에서는 실시간으로 떠들썩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나도 자연히 흐뭇한 감사에 젖게 된다.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기대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유일한 곳, 북한. 하지만 그 어디보다도 가깝고 낯설지 않은 곳이다. 이념사상 따위는 쫓겨두고 내가 보는 아니 우리가 보는 북한은 절대로 남이 아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인 것이다. 꼭 다시 만나야 할 한민족이다.

하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의문만이 남는다. 이렇게 간절한 우리의 소망과 염원이 남북공동선언이란 역사적 사건 이후 5년이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는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돌발적 행동으로 국제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평화를 위협한다. 걸핏하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핵위협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듯 남북화해분위기가 무르익으려 할 때마다 북한은 어긋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표면으로 드러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만을 쫓아 아무것도 들으려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의 투정에 찢찢하며 어르고 달래고 오직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감상에 젖어 북한을 바로보지 못하고 있다. 내 동포, 내 민족이라는 큰 감

상에 젖어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핵 제조 관련 사실을 뻔뻔스럽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북한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남·북, 온 민족 앞에서 맹세한 평화통일의 약속을 북한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그 용도와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한반도 핵무장은 서로에게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혹자는 이것이 혹시나 통일전선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북한을 알고 이성적인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소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뜨거운 감동을 잊지 않았다. 북한의 월드컵 성적에 마치 나의 일같이 응원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한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적의 4강 신화에 모두가 기뻐 춤추며 이곳에 북한이 함께 했다면 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결코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을 맞이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에게 이념과 사상이라는 넘기 힘든 높은 벽이 남아있는 것이다.

6·15선언 5주년, 오늘은 분명 우리에게, 민족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오늘이 비록 통일의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고비를 넘긴 것이다.

서두르지도 성급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이지만은 말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깰 이성적이고도 강인한 끈기로 기다리며 노력하자.

좀더 이성적인 안목과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질 때 어찌면 2006년 독일에서 남북이 함께 모여 응원하며 단일팀으로 축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름모를

나의 친구에게

●● 이름 모를, 나의 친구야! 난 너희사는 곳 아래에서 통일을 원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성실이라고 해. 통일의 씨앗이 꽃으로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필을 들었어.

나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하지만 언어와 생활모습 등만 조금 다를 뿐인 초등학생이야. 같은 민족임에도, 우리들과 다른 너희의 모습을 접할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단의 슬픔, 너희는 느껴 봤니?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회'라는 과목을 배워 경제, 역사 등을 배우는데 지도를 배운 어느 날이었어.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 내 눈에 들어온 건..., 한반도의 언어, 문화 등을 두 조각으로 나눈 허리에 그어진 금이었어. 옆에 '38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을 쳐다보아도 꾀꾀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넌 왜 거기 있는 거니?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잖아."라고 편지를 주었지만 메아리가 될 뿐이었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어.

"나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싸움을 한 너네가 잘못이야!" 순간 가슴이 뜨끔해서 지도책을 덮어 버렸지 뭐야. 솔직히 같은 민족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운 우리가 잘못이잖아.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서 싸웠다'는 소리가 영영 들리지 않도록 통일의 문이 빨리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

텔레비전에서 그 말을 볼 때마다 나오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너희가 사는 북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도 수많은 이산가족들 중의 하나였구나.

단 한 장의 사진 없이,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평안북도 철산에 가서 할아버지 가족들을 뵙겠다는 아빠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몰라.

2002 월드컵 때, ‘꿈은☆이루어진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응원하던 붉은 악마를 넌 보았니? 독일과 겨루던 날이 무슨 날이었는데 아니? 바로 6월25일, 6·25 사변일이었어.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하는 건가? 우리처럼 나뉘어져 있었지만 장벽을 허물고 통일한 독일과 6월25일에 축구경기를 하다니 참 신기한 일이지? ‘꿈은☆이루어진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보며 생각했었지.

‘독일은 꿈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언제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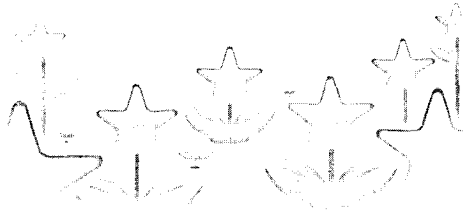
언젠가는 만나게 될 나의 친구야! 혹시 우리 숙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숙담을 알고 있지? 두 개가 모이면 하나보다 낫다는 뜻의 숙담이야. 이 숙담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따로 일 때보다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야. 그래서 통일이나 6·25 관련 행사를 많이 해. 통일 가족신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였어. 가족신문의 이름은 ‘한반도의 비둘기!’ 어때? 근사하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며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너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어.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어.

가끔씩 자동차가 부럽다는 생각을 해. 어디든지 썩썩 달려갈 수 있잖아. 하지만 요즘은 새가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해. 날개로 훨훨 날아서 산도 넘고, 38선도 넘어 너희들에게 갈 수 있잖아.

내 마음이 담긴 이 편지가 민들레 홀씨가 되어 너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이 편지를 직접 전해주는 그날을 위해 외쳐보자! '꿈은 이루어진다고...'



당연하기에 완성을 영원한다.

●● 6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나뭇잎의 숨결이 한층 푸르러지는 요즘,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6월 25일, 붉은 피의 향연이 온 나라안을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를 던져준 역사의 발단의 날이 되고야 말았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던져준 상처에 무방비했던 우리는 잠식되어 버렸고, 결국에는 여지껏 온기조차 느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에 상처의 크기는 너무나 커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의 연속의 결과는 세월을 따라 남한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물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차이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단 하나, 걸잡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는 차이 속에도 깨끗하게 변하지 않고 지켜온 하나가 되지는 '통일'의 영원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단일민족'이라는 표현과 함께 수많은 침략의 위협과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깨끗하게 버틴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라고 보통 많이 말한다. 그렇다. 모두 다 맞는 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민족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뿐인 민족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항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것을,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도 나라를 지켜온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한낱 부질없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빚어내어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형제를 피로 물들게 하여 완전히 다른 두 나라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을, 아직도 과거를 탓하고 그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우리가 하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음을, 과거를 원망한다 하여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바로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통일이란 그저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기꺼이 완성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물자지원은 물론 기술, 생활 등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그들의 문화를 엿보며 남북한의 관계를 많이 진전시켜가고 있으며 억울하게 한순간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게 된 이산가족의 상봉 등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남한과 북한이 아닌 한나라의 같은 국민, 가족,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통일의 절실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에 관한 생각을 해도 모자를 때,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남북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즉각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핵 포기 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될 우리의 또 다른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하나하나 모두 북한의 지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통일은 정말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우여곡절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가슴 아파하는 사건들이 을 많이 겪었다. 나는 그래서 남북한의 단절만큼은 꼭 막아 후손들에게 큰 상처 하나를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할머니께서 간절하다면 하늘이 그것을 알고 이루어 주신다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통일에 관한 노력과 간절한 마음은 물론 서로에 대한 양보와 이해로 거듭 태어난다면 흉물스럽게 서로를 막았던 철조망은 예쁜 꽃과 푸른

빛의 나무가 무성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사라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아픔을 잊고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웃으며 말할 날이 오길 바라며 '통일'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나는 통일을 염원해 본다.



통일을 하지말자고?

●●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아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박봉우의 시 '휴전선'의 한 대목이다. 이 시가 씌어진 지 50여 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통일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통일을 간절히 바라던 저 시인과 우리의 할머니들은 지하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요즘 교실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반 이상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번쩍 들어올린다. 선생님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하는 친구들은 말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잘 살던 서독까지 휘청거리게 한 것을 보아라,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한 베트남을 보아라, 50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 내달린 남북의 벽을 보아라, 내 코가 석자인데 통일해봐야 우리만 손해다... 이렇게 자기주장을 말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 아예 통일은 관심 밖이라는 듯 고개를 돌리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동생과 싸우고 방 한 칸을 갈라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평생 갈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형제의 싸움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화해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화해할 일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화해하고 뭉치는 것이 두 형제 모두에게 행복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친구들의 말대로 통일의 과정이나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록 그 문제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노력 속에서 더 큰 힘을 키우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남북이 뭉치다면 무엇인들 두려울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자고 했던 말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뭉친다는 것은 통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한강의 기적,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려 보자. 반쪽만이 뭉쳐서도 수많은 기적을 일구었다. 남북한이 완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뽑어낼 힘은 상상초월이리라.

남북통일의 주역은 지금이 청소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절반이 통일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관심조차 없는 10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줄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무엇인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기 보다는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서야 한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이 모 TV프로그램의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대회’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북한을 좀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공동 패션쇼 소식이나 남북 합작 공연 등도 청소년들이 북한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해주고 있다. 아직은 이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면 청소년들도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전쟁의 아픔도 모르고 이산가족의 슬픔도 모른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족했다. 다시 겪어서는 안 될 민족의 비극이지만 우리가 50년 동안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한 몫 못하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5연패를 당한 북한 축구팀을 응원하며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은 우리의 마음속에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낼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월드컵에 남북 단일

팀으로 나가 4강, 아니 우승의 신화를 만들어주기를,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통일 한국의 힘이 솟구치기를,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마음껏 누비고 다닐 자유를 갖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충청남도

- 박음질하듯이 / 289
- 메이드 인 개성 / 292
- 미완성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 296
- 냄비의 기도 / 299
- 가나다라마바사
다시 처음부터 / 302
- 천상의 비눗방울을 위하여! / 305
- 통일 줄넘기 / 308
- 그리운 북녘 땅 밟아 볼
그날을 기다리며 / 311
- 형제, 자매의 땅 한반도 / 313

박음질하듯이

“짜아악! 찌지직!”

순간 몸이 굳어 버렸다. 잠시의 침묵 후에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친구들 웃음의 원인이 내 찢어진 바지임을 알고는 너무나 창피하여 웃고 있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다른 바지로 갈아 입은 후, 찢어진 바지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또 집어던졌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던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다.

“왜 멀쩡한 바지를 그리 괴롭히니?”

“이 바지가 저를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단 말이예요!”

속상한 나의 마음도 모른 채 미소를 짓고 계신 할머니께 서운함마저 느껴졌다.

“이 바지가 어떻게 창피 주던?”

“지멋대로 찢어졌어요. 할머니! 바지 사주시려면 튼튼한 걸로 사주시죠! 친구들 앞에서 창피 당한 것 할머니 탓도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 당한 것을 바지 탓으로 돌리던 나는 그 바지를 사주신 할머니에게마저 분풀이를 하고 말았다.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바늘과 실을 꺼내어 찢어진 바지를 꿰매기 시작하셨다.

“할머니 그냥 버려요! 뭘 꿰매요!”

울그락 불그락 하는 나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머금

고 바느질에 열중하셨다.

“이 바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바지잖니? 그리고 이렇게 꿰매면 되는데 버리긴 왜 버릴 생각을 하누?”

아이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은 창피했지만, 사다 주는 옷만 입다 내가 직접 고른 첫번째 바지이기에 애착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잘하시기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시는데, 오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느질을 하셨다. 가만히 살펴보니 여느 때와 달리 할머니의 바늘이 앞으로 한 뼘 간 후 다시 앞으로 한 뼘 가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바늘이 옮겨진 후 바로 전 바늘땀에 바늘이 옮겨지고 있었다.

“우리 사는 것도 이 바느질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쪽, 북쪽도 이리 바느질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 평생을 걸려서라도 바느질하겠는 것을…”

할머니께서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시고 혼잣말을 하셨다.

친구들과 한참 축구시합 중이었던 것을 생각하니, 바지가 찢어져 당한 창피함보다는 승부욕이 앞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 바지를 입고 축구를 할 때, 이긴 적이 많았기에 할머니 손에서 바지를 뺏어 들고 내 나름대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듬성듬성 바느질을 마친 후, 다시 그 바지를 입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꿰맨 실이 뜯어지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와 바지를 살펴보니 내가 꿰맨 곳만 뜯어져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어느새 내 옆에 오셔서 뜯어진 바지를 바라보고 계셨다.

“할미가 꿰맬 때 너무 늦다며 네가 꿰매더니…, 어떠냐?”

잠시 전 행동에 씩스러움을 느낀 나는 바늘과 실을 들고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 없이 할머니께서 하시던 박음질 방법으로 꿰매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 뼘 후에 다시 뒤로 한 뼘 가는 박음질은 쉽지 않았다. 여느 바느질 방법보다 시간과 실도 많이 걸렸다. 바느질을 하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

각났다.

“우리 사는 것도 바느질과 같다면…, 남쪽과 북쪽도 이렇게 바느질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찢어진 바지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찢어진 바지와 남북한을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노력과 정성을 들여 다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찢어진 바지를 박음질 방법으로 한 땀, 한 땀 꿰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도 많이 들지만, 다른 바느질 방법보다 더 튼튼하게 꿰매지는 것과 같이 남북한의 통일도 박음질처럼 마음이 급하더라도 좀 더 인내하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하에 이루어져야겠다. 통일이 하루빨리 되어 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일 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겠다. 준비 없는 통일은 급한 마음에 덩성덩성 한 바느질과 같아 비용이 적게 들고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뜯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할머니께서 서두르지 않고 한 땀 한 땀 뜨신 박음질로 찢어진 내 바지가 튼튼하게 꿰매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면서 통일을 한다면, 통일 후 가장 튼튼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 바늘땀을 마무리 짓고, 박음질로 튼튼해진 바지를 올려 보였다.

“할머니! 또 뭐 꿰맬 것 없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제가 박음질로 튼튼하게 꿰매 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바늘에 실을 다시 꿰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언제보다 환한 미소를 짓어 주셨다.

메이드인개성

“음...”

지난 여름 방학,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나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에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우물우물 거리고 있었다. 캠핑의 첫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때였다. 여러 친구들의 소개를 들은 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한국에서 온 김각영이라고 해...” 낯선 친구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떨리지만 자신감을 갖고 소개를 시작했다.

소개를 간단히 마치자, 친구들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미국에서 온 한 명의 친구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아이의 말로는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미래가 보장된 탄탄한 직장까지 다니던 삼촌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 가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 아이의 가족들은 무슨 이유에서 결단을 내리고 한국으로 향했는지 삼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을 떠올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상태로 남아 있어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이 먼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에 직접 살고 있는 나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왜 빨리 독일과 같이 통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며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통일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실천들이 필요

한지 생각해보지 않고 막연히 '우리는 한민족이므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생각만 해왔던 나였기에 미국인 친구의 구체적인 질문에 찢찢맬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이라는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고 있는 내가,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 선뜻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니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나 자신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보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로서의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바쁜 일상에 묻혀 캐나다에서의 다짐이 잊혀질 때쯤인 어느 주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던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 사회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사자고추는 남한 말로 무엇일까요?”

난생 처음 들어본 신기한 이 단어의 답도 궁금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남·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서 퀴즈대회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묘한 매력에 끌려 끝까지 보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자고추'는 남한에서 피망이라고 불리는 한 채소의 종류라는 것이었다. 외래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그런 말들에 익숙한 우리에게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북한의 언어에서 50년이 훌쩍 지난 세월의 장벽 또한 느낄 수 있었지만 우리 말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남·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사자고추'와 같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언어들 알게 되는 기쁨과 함께 모르는 단어들을 자주 찾아보게 되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어느새 높아만 갔다.

그러던 중,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14일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하다.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의해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개최됨”이라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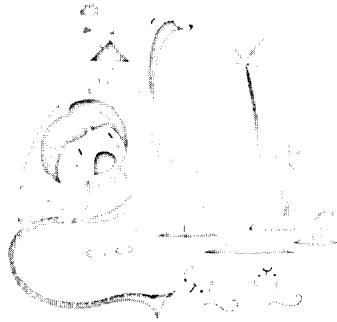
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기회를 잘 이끌어 2000년 6월에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통일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먼저 남북정상이 개최되는 동안에 일어났던 '북한 잠수정의 동해 바다 출현의문, 38선 주위에 남아 있는 미문의 발자국, 우리 한반도의 상처를 더 깊게 했던 북한이 뚫어 놓은 무수한 땅굴사건' 등의 진실을 밝혀 서로에 대한 낮은 신뢰와 통일의 의미를 잃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계를 벗어나 북한과 동물을 나누고, 처음 접해 보는 동물 사육법을 교환하는 '남북한 동물 맞교환 프로젝트'와 '알아맞히기 남북 어린이 경진대회' 같은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여러 매체에서 주도한다면 내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정서가 비슷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북한을 알아가면서 거부반응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요즘 대형마트 속옷 진열장에서 '메이드 인 개성'이 찍혀 있는 속옷들을 볼 수 있다. 요즘은 개성의 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여 북한이 만들어 낸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북한의 모습이 벌써 우리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만든 물품들이 큰 할인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지금처럼 서서히 지속적으로 팔린다면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되지는 않을까?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대한 태도와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껏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부정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맞히기 남북 어린이 경진대회'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문제 풀고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지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고 북한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살아있는 것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오래 전부터 염원해 온 통일에 대한 희망은, 사실 속옷에 찍혀 있는 '메이드 인

개성'이라는 북한 상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이 우리의 통일도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미완성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지극히 투명, 청순하다는 것, 아름다운 선율이 풍부하게 쓰였다는 것, 화성과 음색의 용법이 참신하다는 점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은 미완성이므로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과 억측이 나돌고 있으며 그러한 억측은 영화가 되어 나올 만큼 대중적인 곡으로 되어 버렸다. 이 교향곡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훌륭한 뿐만 아니라 낭만파 음악의 하나의 큰 금자탑인 것이다.

슈베르트가 마저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을 때 슈베르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무리 후세의 사람들이 미완성 교향곡의 훌륭함을 입에 닳도록 찬사를 보낸다 하여도 슈베르트 자신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미완성으로 끝난 자신의 음악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이 남아 편치 않은 마음을 저 하늘 위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생각 해볼까한다. 먼저 지도를 보자. 그림 상으로는 이어져있는 국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국심 또는 민족의 자긍심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분단국가이다. 휴전선이라는 굵은 철조망 사이로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우리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몇몇 나라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단지 완성되지 않은 것에 잘했다고, 그만해도 되겠다고

몇 마디 던져주는 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미완성인 국토를 완성하고 국제정세에 맞추어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이루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언뜻 보면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와 정말 다른 점이 많다. 체제, 말, 여가 그리고 이념.

하지만 생각해보자. 분명 그들과 지금의 우리는 단지 '다른' 모습일 뿐이다. 휴전선을 손금 갈라진 양 쪽 찢어놓은 미군, 그리고 구 소련군의 횡포는, 이미 그 당시 기억은 여름더위 쓰러지듯 쓰러진 옛일처럼 느끼고 있다. 어쨌거나 나는 후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새로운 세대에 와서 그들과 나는 분명 다르다고,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고 말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상처까지 같이 쓰러뜨릴 순 없는 나는 후손이다.

한때 인기 물이를 했었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전쟁, 그것도 한 핏줄로 이어진 한 민족간의 전쟁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고 대표적인 예로 이산가족들의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게 보였다. 그 영화가 해외로 수출이 될 때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영화의 흥행 보다는 그런 점이 더욱 궁금했었다. 대부분이 그냥 형제간의 비극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하지 분단의 아픔이나, 사상의 차이로 일어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리라 본다. 그때 기사들을 보면 외국에서 흥행이 성공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말들만 오갔지 그들이 영화감상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가끔 TV를 켜보면 색깔론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있다.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면 흔히들 진보의 개념은 통념적 민족주의를 뒤엎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칭하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런 식의 정치적 비판은 국민들에게 무관심만을 선사하는, 마치 그들만의 여가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주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아니다. 애당초 출발부터가 유토피아라는 이상세계를 구체화해 이데올로기로 진일보 시킨 게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이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실행된 적이 없는 이론으로 '맞네', '틀리네' 구구절절 따지는 모습은 정말 저들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인 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솔직히 말해 웃음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분명 다른 어떤 곡과 대등하게 또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곡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곡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곡이 완성되었더라면, 지금 나의 귀에 그 완성된 곡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 즐거움은 미완성곡과 같을 수 있지만 더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통일도 이와 같다. 미완성의 국가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완성 되었을 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눈에 띄게 보일 것이며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동아시아의 관문, 반도국,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고부가가치 기술력·경제력, 그리고 아직까지 부모님 생사의 소식조차 모르고 계시는 우리의 이산가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씩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뻗어져 나가야만 한다. 처음부터 한 몸이었지만 떨어져 버린 우리는, 반세기란 긴 세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완성됨은 기쁨을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몸이며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아니, 통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나와 우리의 민족이 서로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런 꿈만 같은 세상을 생각해 보자.

냄비의기도

●● “똑딱 똑딱.”

2003년 북한 개성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남한의 도움으로 짓기 시작한 ‘개성공단’이라는 곳입니다. 개성 공단은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요.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제 이름은 남순이라고 해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뒤 얼마 전 남한으로 오게 된 냄비랍니다. 제가 어떻게 북한에서 이곳 남한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곳까지 오면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성공단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던 그날도 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광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광부들이 들어와서는 저와 제 친구들을 싣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죠. 친구들과 저는 뜨거운 불에 녹았다가 찬물에 굳혀지기를 반복하여 냄비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깨끗한 종이로 된 옷도 입었지요. 친구들과 저는 북한의 어느 상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될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작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저씨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북한의 어느 상점이 아니라 우리의 헤어진 형제의 나라, 남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커다란 컨테이너에 실려 길고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먼 길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남한의 수도

인 서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린 남한의 유명 백화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들은 백화점에 전시되었고 우리가 전시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리를 만지고 구경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처음 생산된 냄비가 남한의 백화점에 전시되었다고 뉴스에도 나왔고요.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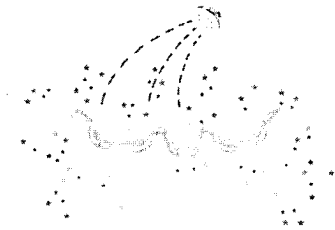
며칠이 지나고 저는 어떤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가 터졌을 때 피난길에 오르셨다가 지금까지 남쪽에 살고 계신 실향민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사신 것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매일 같이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는 저를 매일 깨끗이 해주시는 할머니께 너무 고마워서 북한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 드렸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해맑은 아이처럼 미소를 짓는 모습이 아마도 할머니께서 북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야기의 끝에서 항상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전 항상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제겐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원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더 이상 눈물지으실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드리는 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통일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와 처음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통일이란 것이 그냥 남한과 북한의 대통령끼리 화해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휴전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철조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힘들

었나 봅니다. 제게 팔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휴전선을 끊어버릴 텐데, 전 팔도 없고 힘도 약해서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팔도 있는데 왜 휴전선을 못 부수는 건지... 어서 빨리 저와 할머니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 몫쓸 휴전선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오늘도 기도를 한답니다. 남쪽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건너왔지만 저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넌비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눈을 뜨면 모든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의 구분 없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가나다라마바사

다시 처음부터

‘2010년 핸드폰 신제품 출시!’

“핸드폰? 이게 뭐야?”

“이건 핸드폰이라고 걸어 다니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기계야, 이거는 컴퓨터데 북한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다르지? 그리고 이젠...”

“우와~, 남과 북이 이렇게 많이 다른지 몰랐어. 너무 자유분방하고 길을 걸으면 온통 재미있는 것들 투성이야!”

“이제 합쳐진 우리들의 한반도에선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둘이 같이 서있을 수 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잖아. 그 값진 시간들을 허비한 만큼 우리 더 살기 좋고 더 맛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합쳐지게 된다면 서로 불신해 곧 어긋날 것만 같았어. 하지만 다래야! 나, 너를 닮았을 남한이라는 잃어버렸던 반쪽과 좋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은 힘든 점이 많을 거야. 암흑이었던 밤엔 현란한 불빛들이 움직이고 지루했던 머리 속은 즐거운 세상으로 바뀌는 그 과정들이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이별로 같은 민족의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현실에 가끔 무너지기도 할 거야. 하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너를 도울게.”

순회와 만남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산가족이

라고 불렀었다.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상상 속 가족들이 내 눈 앞에 살아와 있다는 것, 솔직히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를 그리워했으리라 믿기에 우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까워 질 수 있었다. 통일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사…”

“순희야, 뭐하고 있어? 너 한글 몰라?”

“아니, 알고는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닌 남북이 합쳐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 모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힘들어도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결 더 쉬워질 것 같아.”

바쁜 시계의 초침에 따라 움직이는 건 남북 사람들의 의식. 철저히 막혀진 상상의 끝에서까지도 모든 것을 없애버려 한 가지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북한 사람들과 그와는 너무나도 반대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남한 사람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모두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 남과 북이 합쳐졌다는 새로운 일이 맡겨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한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에게 다가오기 힘든 그 공백의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선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와야 한다는 걸….

순희가 언젠가 내게 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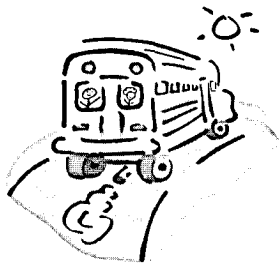
‘북한이라는 나라는 내게 너무 힘들었던 길이었어. 계속 북한이라는 길에만 있었다면 난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지도 몰라. 다행히 통일이란 길을 만나 나 지금 너무 지나치다 싶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 물론 통일이란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았었지만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다. 통일을 하기까지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북한으로 보내진 음식과 옷들. 비뚤어져 있는 북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르고 달래고 손잡고 위해주고,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성과는 통일. 꼭 단 한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닌 옛날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 통일은 세상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루어 낸 성과물인 셈이다.

통일로 인해 바뀌어져야 하고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들. 차별 없는 세상에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 또한 힘든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 만큼 그 값진 노력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서 방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실천된다면 지금 통일을 한 이 시점에 있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한산했던 거리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바빠진 사람들의 발소리들이 하나 된 한반도에 즐겁게 울려 퍼진다. 그리고 하나 된 대한민국 위에 놓여진 숙제 속에 우리들의 생각들도 바뀌고 있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천상의 빗방울을 위하여!

●● “호오~ 호오~” 조심스럽게 비눗방울을 불며 좀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 조바심 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어린 시절. 내 어렸을 적 친구들과 “누가 누가 더 크게 비눗방울을 부는지 시합할까?” 하며 안간힘을 쓰며 재미있게 놀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때 성급하게 입김을 세게 하거나, 급하게 만들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비눗방울’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비눗방울 하나하나는 단지 우리의 재미를 위한 도구였을까?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비눗방울은 우리의 꿈을 싣고 하늘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었을까? 그래, 그 비눗방울은 우리의 통일을 그려준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이루려고 한다면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듯이 ‘통일’ 또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충족시키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TV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북한의 소식, 북한의 모습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항상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치는 말들도 있었으나,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 중계..., 그것은 나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펄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 비눗방울의 조심스러움처럼...

백발노인이 된 형제가 서로 “○○야!” 하고 짧게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왜 내 마음의 메아리가 되어 계속 맴돌았던 것일까? 이상하게도 그 부름이 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꼭 내가 돌아봐서 대답해줘야 할 것 같은 과도처럼 밀려오는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이렇게 내 마음이 요

동치는데..., 헤어진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메아리일까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다.

“○○야!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이 외침은 우리 조상들이 50년의 시간 동안 품어온 간절하면서 애뜻하고, 또한 괴로운 말일 것이다. 어쩔 이 말은 너무나도 애절하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우리 동족에게는 항상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눈물로써 한을 표출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인데...

통일은 좁게는 이산가족, 넓게는 세계 각국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야망에 차서 인간의 윤리를 망각하며 권력, 금욕, 명예욕 등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통일'이라는 지상 최대의 행복인 비눗방울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 칭찬 받고, 기분이 좋아 더욱 열심히 하려붙는 그 자세, 그 마음처럼 통일은, 통일의 내일에 걸어야 할 우리 국민의 희망의 말이다.

우리는 IT산업에 있어서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산업화 정보화에 있어 많이 뒤떨어지는 편이다. 인터넷, 컴퓨터가 가정의 보편화된 소유물인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소유한 가정을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고 들었다. 음식 또한 남한은 피자, 햄버거 등 다양각색의 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러한 음식들을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상상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식생활'에서조차 차이가 느껴지는데 50년이라는 공허한 마음의 장벽은 어찌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는 통일을 이루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북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을 상대로 경계하는데 드는 국방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통일이 가져오는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변화는 개혁적이라고들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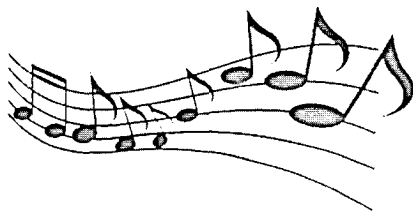
분명, 우리 사회는 지금과 달리 복지사회, 민주사회로서의 면모를 두루 갖출 것이며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변화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하나 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판으로 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선물을 받을 때 커다란 꽃 바구니에 많은 꽃송이가 어우러져 그 화려함으로 감동을 주듯이 우리도 서로 어우러져 서로를 빛낼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단지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얽혀 겉으로만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은 꿈을 향해 조심스레 한발 한발을 디디는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녘을 향해 달리는 철마, 금강산과 백두산의 등산길에 닿을 그날을 위해 꿈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야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지상의 비눗방울이 천상의 비눗방울이 될 그날까지!'



통일줄넘기

●● 친구들이 모두 다 운동장으로 나가버린 체육시간, 나는 창문을 열고 3층 교실 한쪽에 서서 줄넘기 연습에 한창인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창문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카시아의 고운 향기가 섞여 있다. 나는 이 바람을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창가로 갔다. 오늘도 우리 반 아이들은 단체줄넘기 20번에 도전하고 있다. 단체 줄넘기는 정말 힘들다. 며칠 전 나도 줄넘기 연습을 하다가 발을 빼어 멤버에서 제외되었지만 마음은 지금도 친구들과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통일 줄넘기 연습도 시작되었다. SBS와 월드컵에서 공동주최하는 북한 어린이 돕기 사랑의 빵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10원, 20원 차비를 하고 남은 돈을 모으고 100원, 200원 학용품값을 아껴 저금통을 채우면서 뭔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던 차에 통일줄넘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명이 한 팀이 되어 단체 줄넘기를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성공하면 200원 분량의 교과서 용지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에서는 줄넘기 급수제를 하고 있어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단체 줄넘기는 개인 줄넘기와는 달리 어려운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줄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게 줄을 잘 넘겨야 했고 여러 사람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에게 방해 되지 않게 줄을 넘어야 했는데..., 쉽지 않았다.

처음 연습을 할 때는 무지 많이 싸웠다. 줄을 돌리는 친구가 자기는 정확하게 돌리는데 뛰는 사람이 자꾸 걸린다며 화를 내고, 뛰는 친구들은 자기 들은 정확하게 뛰는데 줄 돌리는 속도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줄에 걸린다고 싸웠다. 어떤 날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리를 넓게 차지하는 바람에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리가 좁아서 줄에 걸렸다면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또 싸웠고, 또 어떤 날을 황사가 심해서 연습을 못했고, 비가 와서 연습을 쉬기도 했다. 또 하루는 오래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연습을 못했다. 정말이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인가는 서로 화가 나서 다른 수업시간에도 말도 안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우리들의 싸움을 눈치채신 선생님께서

“애들아, 힘들지? 20명도 통일이 안되는데 6천만의 통일이 쉽겠니? 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거란다. 항상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다쳐서 새로운 친구와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야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노력해야지? 포기하면 안되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서로를 멍쩍게 바라보았다. 사실 그랬다. 줄을 좀 천천히 돌린다 싶으면 우리가 천천히 뛰면 되는 것을 괜히 친구를 원망했고, 앞에 있는 친구가 자리를 넓게 차지했다 싶으면 좋은 말로 “앞으로 조금만 더 가 줘”라고 했으면 됐을 일을 괜히 싸움을 걸고 돌아서서 욕하고 화를 냈던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바꾸자 줄넘기 연습은 가속도가 붙었다. 20명이 한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20번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로써 풀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통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줄넘기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줄넘기를 성공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들의 통일 줄넘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통일 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55억이 사는 지구라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에 220개국 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Korea라는 나라만이 분단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북녘땅 밟아볼 그날을 기다리며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 오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통일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지내왔지만 나는 통일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우리가 못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일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헤어진지 50년 만에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뭉클함을 느끼던 순간, 통일이란 우리 한민족의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 그 후 며칠 전 나는 TV를 통해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가슴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덕분이었다.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은 비록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이 한 스튜디오 안에서 경연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발달된 통신으로 마치 한 장소에 있는 듯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말과 생활모습 등을 우리나라의 것들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매우 좋은 것 같았다.

특히나 경연 중간 중간에 어여쁜 북한 소녀의 또랑또랑하고 맑은 목소리는 정말 일품이었다. 그리고 몇회 전에는 한 어린이의 할머니께서 나와 “내 원래 고향이 이북땅이에요, 나는 비록 갈 수 없지만, 내 손녀가 이북땅을 밟아 좋은 구경하고 온다니 저까지 기쁘기가 그지 없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와 엄마도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또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금강산의 절경에 빠져보기 위해 꼭 한 번 북한의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유명한 음식들에 대해 소개되었던 옥류관의 매콤시원한 냉면도 꼭 먹어 보고 싶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과 북은 다르면서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음식에 있어서도 계란찜 등과 같이 남한의 음식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음식도 많이 있었고, 진행자의 말에 얼굴이 빨래지며 북한의 말투로 대답하던 아름다웠던 북한언니들의 모습과, 촬영팀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은 남한의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신기하였던 것은 북한에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한 남한의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북한말투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남한에서는 10년을 가까이 살았고, 북한에서는 겨우 며칠을 생활했을 뿐인데 매우 자연스럽게 북한의 말투로 말을 하고 너무나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점이 의아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남과 북은 원래 같은 말을 쓰던 민족이었으므로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가장 친숙하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을 통해 남과 북이 한 발짝쯤은 가까워진 듯하여 웬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통일이 바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처럼 남과 북의 일상의 모습들을 교류하며 서로가 다르지 아니함을 조금씩 알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때 언젠가는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할머니분도 이북땅을 밟아 보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나는 굳게 믿는다. 이런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그리운 북녘땅을 밟아볼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형제, 자매의 땅한반도

●●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우리 영화 중에 <쉬리>, <공동경비구역JSA>, <태극기 휘날리며> 등이 있는데 이 세 영화의 공통주제는 무엇일까?

세 영화 모두 우리 민족 분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또 흥행에도 성공을 했는데 아마도 분단이란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 사람들이 이들 영화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 것 같다.

이들 영화 중 몇 달 전에 6·25의 아픔을 그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비디오로 볼 기회가 있었다. 6·25당시의 상황과 전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삶을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봤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선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선 정말 펑펑 울었다.

6·25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관념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상념에 젖어 보았다. 어느 날 전쟁이 나서 준비도 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는걸 봐야만 한다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이유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제 저주를 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50년 전 우리 민족이 겪었고, 분단의 아픔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몇 년 전에도 TV에서 대대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 신문이나 잡지에도 여러 차례 보도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 나 역시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보았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7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거나 상봉을 하고 있었다. 서로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큰절을 하는 등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전쟁으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아픔 속에서 살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며칠뿐이었다. 몇 십 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고작 며칠이 전부라니..., 그들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부둥켜안으면서 울고, 내키지 않는 발길을 돌려 버스를 탄 사람과 밖에서 배웅하는 사람 모두 잠은 손을 놓을 줄 모르고 다시 만나기만을 간절히 원하던 그들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았지만 보는 사람이 모두 슬피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들의 모습에선 정말 간절함과 슬픔이 배어 있어보였다. 무엇이 아무 죄도 없는 이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종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는 같은 한반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더욱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란 사실이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단지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계속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생 동안 분단의 아픔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만 같다. 이것이 우리들 서로에게 더욱 깊은 상처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살아가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일런지….

남북관계가 형식적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루어져서 통일의 길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볼때 지금 남과 북의 모습은 친한 친구끼리 싸우고나서 화해하고 싶지만 그냥 어색하게 서로의 주위만 맴도는 그래서 더욱 화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물론 50년이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 서로의 가치관이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점도 많다고 이해 못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만 해도 이산가족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그들의 행복, 아니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형식적인, 껍데기만의 통일이 아닌 서로를 위한, 서로에 의한 통일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는 통일의 모습이 아닐까?

요즘 <MBC 느낌표>란 프로그램을 보면 남북어린이들이 퀴즈를 푸는 코너를 볼 수 있다. 나도 그 프로그램의 코너를 즐겨보는데,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퀴즈를 푸는 모습을 합성해 마치 한 공간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남북의 문화 차이를 쉽고 재미있게 나타내서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같고 벽도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코너라고 생각한다. 정말 통일이 되어서 이들이 함께 같은 곳에서 퀴즈실력을 겨루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코너에 참여했던 한 어린이가 꼭 평양을 가서 그곳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꼭 그날이 와서 그 어린이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남과 북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는 모습, 남에서 북으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미래를 그려보곤한다. 한반도의 슬픈 역사는 훌훌 털어버리고 그 슬픔 이전에 행복하고 평온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 조상님들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룬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대화와 적극적인 교류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서로 통일에 적극적이고 참여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 단지 눈에 보이는 벽만 허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도 함께 허물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솔직히 한 민족끼리 네 땅, 내 땅 갈라서면서 남처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들 모두는 이런 부끄러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내 주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통일을 해봤자 우리가 손해볼 것이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힘들 것' 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통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기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찌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인지도 모른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라고 한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나약하게 안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한민족인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뭐가 불가능하던 말인가? 틀에 박힌 생각을 과감히 바꾸어버리고 더 멀고 더 넓게 보는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통일은 그리 먼 일이 아니다. 통일은 어차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계속 분단의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떠맡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서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라는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터전 한반도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덕실 춤추고 한강물이 뒤

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오기를...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 우리 남북의 형제, 자매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는 것은 나누어 가지면서 잃어버린 형제애를 되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라북도

- 호국원의 비석을 닦으며 / 321
-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북녘의 친구에게 / 324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를 보고 / 327
-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 330
- 북한이 아닌 북측이라면 / 333
- 통일에 대한 소망 / 337
- 증조할머니가 기다리는 것 / 340
- 외할머니의 슬픔 / 343
-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질문 / 347

호국원의 비석을 닦으며

●● 우리 학교 가까운 곳에는 호국원이 있다.

이곳에는 6·25 때 북한 공산군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들과 경찰들, 그리고 월남 전선에서 베트남들과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 수가 무려 1500기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20000기 정도를 안치시킬 수 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아주 큰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현충일이 돌아오면 이곳 호국원을 방문하고 참배를 드리며 이곳에 있는 비석을 닦아준다. 그동안 먼지가 끼고 새똥도 묻어있는 비석을 걸레를 들고 가서 깨끗하게 닦아 준다.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 이상 80여명이 학년별로 나누어서 비석을 닦는데 한 사람이 보통 스무개 정도를 닦아야 한다. 6학년은 가장 멀고 높은 곳에 있는 비석을 닦는데 한 사람이 서른 개 정도를 닦아야 한다.

현충일 무렵이면 날씨가 매우 덥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른다. 물이 있는 수도장에 가서 걸레를 빨아다가 비석을 닦노라면 온몸이 땀에 젖는다. 그래도 우리들은 참고 열심히 비석을 닦는다. 선생님께서도 함께 비석을 닦으시며 우리는 비석을 닦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기에 묻히신 분들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들은 비석을 닦으면서 비석에 써있는 글들을 읽어 본다. 비석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삼촌 또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다.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장소도 모두가 다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비석을 닦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삼촌 또래였던 이 아저씨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죽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 갔는가? 그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부모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우리 삼촌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두고두고 가슴이 아플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두 하늘이 무너지도록 슬픈일이다. 정말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죽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모두가 다를 테지만 공통적인 것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싸웠고 그들은 죽어갔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되어 지금보다 훨씬 강대국이 되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비석을 닦으면서 겪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하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비석을 닦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호국원에 묻혀 있는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안하고 죄스럽다.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통일을 시킨다고 이분들처럼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금년에도 현충일이 되면 호국원에 가서 비석을 닦을 것

이다. 금년에는 더 정성스럽게 비석을 닦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여 죽은 뒤에 호국원에 묻혔으면 좋겠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을 위하여 나도 목숨을 바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후배들이 나의 비석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선배님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고 자랑스럽게 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꼭 통일의 역군이 될 것이다.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북녘의 친구에게

●● 봄 향기로 4월의 날씨는 하얀 이팝나무 꽃, 붉은 철쭉꽃, 들길마다 노란 민들레 등등 아름다운 꽃들로 마음껏 자태를 뽐어내고 있구나. 거리엔 형형색색 꽃잎과 나무들이 우리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단다. 얼굴도 모르고 만나 보지도 못한 북한 동무들에게 이곳 남한은 봄맛이로 설레는 맘 가득하다고 먼저 봄소식을 전하고 싶구나.

북한의 아름다운 금강산에도 아름드리 나무며 화려한 봄꽃들이 만발하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금강산에 다녀오셨어. 공기가 맑고 신비로운 꿈을 간직한 금강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단다. 정말 엄마, 아빠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란다. 평양식 냉면 음식들이 입에 맞으셨다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좋아보이셨는지 몰라. 나도 할아버지를 닮아 냉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후르륵 먹는 냉면 생각을 하니 입안에 군침이 도는구나.

친구야, 난 백제의 왕궁터 익산에 위치한 이리중학교 2학년 장성모란다. 피부는 검은 편이고 매력 있는 눈매와 입술을 가지고 있지. 머리는 짧고 키와 체격은 보통이며 웃음이 해픈 평범한 아이란다. 제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컴퓨터 게임이고 장래희망은 프로그래머,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 피자, 치킨이며 과일은 딸기를 좋아한단다. 성격은 쾌활하고 밝고 씩씩한 편이다. 내 편지를 받는 친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곳 북한 생활 모습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만 알 수 있는데 언제쯤이면 맘

놓고 아무 때나 서로 오가며 함께 생활할 수 있을런지 애타게 그날을 그려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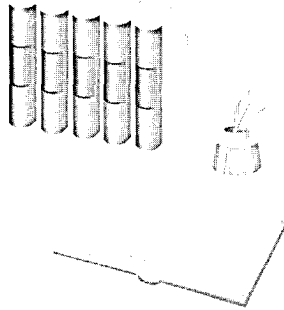
친구야, 너희 학교생활은 즐겁고 재미있니? 우리들은 학교공부를 마치고 또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좀 힘들단다.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겠지? 친구야, 보고 싶다. 한없이! 우리들 또래끼리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다. 과연 꿈일까 아니면 생시일까 서로 꼬집어 보며 기뻐할 날이 오도록 함께 기원하자.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힘든 일이지만 너희 세상과 우리들 세상을 하나로 뭉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한반도 깃발처럼 푸른색 바탕의 자유와 평화이겠지?

친구야, 우리 동무야! 지난 해 용천역 열차폭발 사고로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니? 우리 남녘의 모든 친구들도 안타깝고 가슴 아팠단다. 여기 친구들과 과 함께 조그만 힘이라도 되도록 팔 걷어 부치고 나섰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익산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결혼도 하시기 전인 1977년에 너희와 비슷한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때 상황이 참으로 끔찍했다며 지금도 그때 일을 물으면 몸서리를 치시곤 한단다. 다행히 전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백제의 후손들이 사는 문화 유산의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북한 용천역 소식을 접했을 때 어느 곳보다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았단다. 그리고 최근에 접한 뉴스인데 우리 익산시와 용천군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직 성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힘이 되자며 시장님이 제안했다 하니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리중학교와 용천중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어 칠석날 견우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오작교의 까막까치처럼 통일의 불씨가 되면 어떨까 꿈꾸어 본다. 월드컵 4강 신화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기대해 보면 어떨겠니?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어른들도 나시고 우리들도 같은 맘으로 자주 만나서, 우리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서 자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몸과 맘으로 부딪히며 서로 가까워진다면 정말 좋겠구나. 봄날 아지랑이처럼 통일의 기운이 이렇게 온 땅 구석구석에서 넘실거리면 참으로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되지 않겠니?

친구야, 요즘 시끄러운 북쪽 뉴스가 자주 텔레비전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후손답게 통일의 의지를 잊지 않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도 더 빨리 우리 품으로 안긴다는 소망을 결코 잊지 말기를 당부하며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며 이만 줄인다.

용천중학교 교환 학생이 되고픈 성모 동무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 “착각하지마! 내가 언제 형보고 나 빼달라고 했어?”

우리 반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자아이가 ‘원빈’의 흉내를 냈다. 그러나 우리는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옆에 앉은 내 친구가 “야, 너 우격다짐 흉내내지!” 하며 그 아이에게 쏘아붙였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원빈’과 목소리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재미있는 유머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을 떠오르게 했다.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화제가 되었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이다. 처음에는 그 영화에 나온 ‘장동건, 원빈’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었는데, 나올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몽클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눈물이 자꾸 나서 눈이 빨갛게 부어 올랐다. 행여 친척언니가 보고 놀릴까봐 눈물자국을 열심히 지웠는데..., 밝은 곳에 나가보니 언니 눈도 나랑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언니는 나보다 더 눈이 빨개져서 꼭 토끼를 보는 것 같았다.

언니는 극장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그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읽고 왔었다고 한다. 두 형제를 소재로 한 것은 남과 북이 6·25전쟁을 치르면서 원수처럼 인식되었지만 결국 한 핏줄, 한 겨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사상’이라는 허울뿐인 것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감독의 의도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사상’이라는 무기가 두 나라를 나누어 버렸고 결국 두 형

제가 만날 수 없었듯이 남과 북도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는 사실..., 우리 나라의 해방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고, 6·25가 언제 났는지 무관심했다. 도덕시간이나 사회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열변을 토하실 때도 그저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시험 보려면 외워야겠다.’ 라는 생각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깐, 시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렸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공동경비구역 JSA’ 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다. 그러다가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나와서 잊혀지려는 통일 의식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기간 동안 가장 노력했던 것도 바로 통일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외국 열강의 힘에 의한 통일” 보다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과 힘에 의한 통일”을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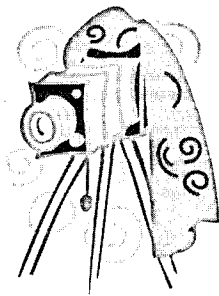
1학년 때 사회시간에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쿠데타에 의한 갑작스러운 통일을 이룬 나라들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을 배웠다. 결국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에 의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남·북의 교류를 마련해야 하며 ‘적십자, 유진벨재단’ 같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통한 이질감 해소이며,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 때처럼 남북의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한반도 기를 흔들며 함께 응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 라는 의식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38선이라는 바다보다 큰 장애 때문에 언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생활국어 시간에 배웠다. 우리의 말을 하나로 합쳐가려는 노력은 문화교류를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은 'JSA',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들의 통일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단기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세대는 6·25 전쟁을 겪지 않은, 한 동포끼리 죽이고 죽임 당한 기억이 없는, 붉은 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의 색깔로 인식하는 우리들 세대가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한반도에 남·북이 공통된 언어로 공통된 애국가를 부르면서 공통된 국기를 흔들며 공통된 국화를 심을 날이 기다려졌다.



하나는 그날을 꿈꾸며

●● ‘두근두근, 콩닥콩닥.’

여기는 비무장지대. 남한의 군사경계선을 넘어와 이제 막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버스 안을 검사한다고 했다. 안내하시는 선생님께서부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북한 군인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애써 두려움을 없애려고 농담을 하였지만, 바보 같은 내 심장은 옆 친구에게 들릴 만큼 크게 뛰고 있었다.

‘언제쯤 올라오실까?’

80개의 눈은 일제히 밖을 향해 있었다. 드디어 낯선 군복 차림의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밖에는 굵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 하나 들지 않고 빗속을 당당히 걸어오시는 모습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날 잡아가면 어떡해?’

이윽고, 차 안으로 들어 온 북한 군인 아저씨. 그리고 서서히 내 쪽으로 향해 오는 발걸음. 발걸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져 갔지만 갑자기 가까이에서 북한 군인 아저씨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군인 아저씨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도 모르게 씩 웃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무표정했던 군인 아저씨가 어색하게 웃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웃음 하나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경계는 없어지고 금강산 관광이 참으로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우리가 묵었던 금강산 호텔은 이산가족 상봉 장소였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어떤 사진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껴안은 채 울고 계시고, 또 어떤 사진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계시며, 다른 사진에는 정겹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들을 보며 가슴 한 쪽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우리 가족 중에는 남북으로 떨어진 가족이 없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아픔과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진들을 보며,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떨어진 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튿날에는 금강산의 자랑인 구룡연 폭포와 만물상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왜 그렇게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는지..., 금강산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물상에 올라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남한의 자연환경도 이렇게 잘 보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내려왔다. 기념품 가게에 둘러 작은 조개껍데기 하나를 샀다. 겨우 그거 하나를 샀는데도 “고맙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던 가게 점원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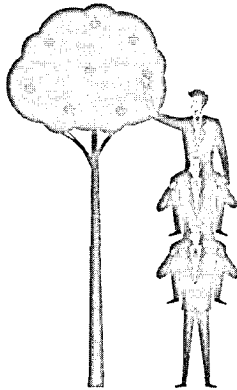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같은 땅,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드나들 때처럼 수속을 밟아야 했던 것이었다. 철차를 하나 하나 밟아 갈 때마다 마치 북한이 외국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책도 읽고 북한 언어도 찾아보았다. 그러는 사이 안타깝게도 룡천역 열차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학교에서는 북한 돕기 모금운동을 벌였고 나도 비록 적은 돈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성금을 했다.

금강산을 다녀온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

라져 있다. 하지만 통일은 분명 될 것이다. 비록 아직도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통일은 꼭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서로 돕고 남북한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날,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하나가 되어야 더 잘 살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분명 우리는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아,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날이 얼른 와서 언제든지 금강산을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이 아닌 북측이라면

●● 네모난 창에 한 쪽의 그림 마냥 조심스레 담아진 봄의 절경을 보며 어느새 입가에서 비집어져 나온 한숨 소리에 나도 놀라고 말았다. 만물의 생동감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웬 한숨인지. 마냥 설레고 즐겁기만 하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그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른 아침 살짝 살짝 훑날리는 눈을 맞으며 길가의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교육청으로 간 우리는 금강산 여행을 간다는 그 설렘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TV를 통해서만 보았던 아름다운 일만 이천 봉을 자랑하는 금강산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그려 보았다. 금강산이 진짜로 일! 만! 이! 천! 봉인지 세어봐야지. 기대되는 금강산의 모습들과 함께 마음속 한켠에 자리잡은 북한 사람들의 모습도 슬그머니 떠올랐다.

온 종일을 달려 이제 도착했나 싶었더니, 무슨 절차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기만 한지 그 까다로운 절차를 끝마치고 우리는 타고 간 버스를 33인승 북측 버스로 갈아 탄 뒤에야 북측 CIQ에 도착할 수 있었다.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들여, 그 까다로운 절차들을 간신히 통과한 후에 도착한 그곳에서 난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설레이는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얼굴 한 가득 기대감과 미소를 담은 채로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 컷가에 울려 퍼지는 반갑다는 그 노랫소리는 우리에게 가슴 깊은 감동을 선사할만했다. 하지만 컷가에 울려 퍼지던 그 노

랫소리와는 달리 떨리는 마음으로 CIQ를 통과해 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 경무관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 역시 그 경무관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에 씹쓸한 맛이 느껴졌다.

둘째 날에 우리는 장엄하고 힘있는 산악들이 자리하여 금강산의 억세고 강인한 남성미를 보여준다는 외금강엘 갔다. 솔직히 척 보기에도 뚱뚱한 몸매를 소유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보행을 맞추는 게 여간 힘이 든 게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여덟 개의 다리를 지나면 목적지가 나온다는 친구의 말에 다리만을 찾아서 개골산의 경치에 감탄할 새도 없이 구룡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웬지 모르게 포기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어쩔 나금강산을 등산하면서부터 한반도 통일의 어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뼈 마른 앙상한 나뭇가지와 곳곳에 박혀 산을 이루는 바위들에는 빨간 글씨로 북측 삼대 장군이라 불리우는 분들을 칭송하는 글귀들이 자리했다.

설봉산의 모습을 기대한 나왔기에 개골산의 모습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각각의 바위에 담긴 전설들은 나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곳곳에 북한 안내 선생님들과 기념품을 파는 북한 분들을 보니 왼쪽 가슴 한 편에선 아릿한 고통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느껴졌다. 동생들에게도 기분이 맞지 않으면 심심부리고 때로는 엄마에게까지도 대들던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에 기뻐하고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에 가슴 아파하다니 우스웠다. 한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순간순간 드는 그 친근함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게 내 기분을 야릇하게 했다. 그렇게 등산은 끝이 나고 북한 음식으로 허기진 배에 보잘 것 없는 포만감을 선물해준 나는 평양 모란봉 교예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신기에 가까운 묘기들을 보여준 그들은 공연이 절정에 다다르자 빨간 천을 우리 눈앞에 내보였다. 우리의 눈에 비친 그 빨간 천에는 한반도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라는 글씨도 함께 했다. 순간 관람석엔 환호와 큰 박수소리가 자리했고 내 눈엔

까닭 모를 눈물이 맺혔다. 감정기복이 심한 것도 장애라는데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그들은 아직도 북한이라는 땅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선사한 것이 틀림없었다. 모란봉 교예단 분들이 선사한 그 감동을 마음에 담은 채로 우리는 커다란 바위와 맑은 물을 사랑하는 해금강에 갔다. 맑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그 물이 남측에도 흐른다는 생각을 하자 그 물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날에 가진 잠시 동안의 자유시간에 버스를 타고 기념품을 파는 온정각에 내려가던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어서 통일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 한 가득 웃음을 담고 말을 건네는 내게 그 북한 사람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북한이 아니라우”.

“네?”

“왜 북한이야? 북한이 아니라 북측이겠지.”

“북한이나 북측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거 여거 이 학생 뭘 모르는 구마이, 북한은 한 나라이고 북측은 한반도의 북쪽, 그러니까 남측의 북쪽이란 얘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북측은 남측이랑 같다는 얘긴가요?”

“뭘 얼추 그런 얘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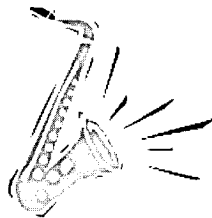
그 분이 약간 언짢은 기색과 함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하고 울려움을 느꼈다.

2박 3일간의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통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나는 통일에 대해 막연히 철조망만 하나 거뒀대면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고 또 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어 독일은 요즘 경제난에 시달린다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동독 사람들이 다시 분단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내게 통일이 그다지 반갑기만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통일.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민족의 염원이자 가장 힘든 숙제가 될 이 두 글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이들로 부터 느낀 원인 모를 나의 친근감에 답을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통일은 그저 허물어져 가는 철조망을 거두어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야 어찌 없겠는가? 하지만 50년의 장벽은 우리에게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한 끼 식사조차도 입맛이 맞지 않는 그런 이질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솔직히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낸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 베어든 그 이질성을 지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전날의 나처럼 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다른 점을 찾아서 하나 될 수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서로의 닮은 점을 찾아가며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북한이 아닌 북측이라는, 남한이 아닌 남측이라는 생각만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은 머지않아 다가오리라 확신이 든다.

북한이 아닌 북측. 오늘도 약간은 생소한 이 한 마디를 되뇌어 본다. 새삼 떠오르는 하나 된 우리 민족의 모습에 미소지으며...





통일에 대한소망

●● 팝콘처럼 힘차게 터지는 봄꽃의 아름다움에 취할 시간도 주지 않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로 한일 간은 그 어느 때보다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봄은 왔으며, 참다운 봄이 오지 않은 한반도의 하늘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짙은 잿빛을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덩달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울하다.

우울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도 형클어진 실타래처럼 자꾸만 우리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분단된 남북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유일의 힘없는 분단국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한계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고모가 계시는 미국 애틀란타를 방문하여 한 달간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애틀란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델타 항공을 탔었는데 마침 미국 대학생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4시간의 긴 비행시간이 무료해질 무렵 영어 회화 실력도 늘릴 겸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그 미국 대학생 형은 여행을 좋아해서 아시아 몇 개국을 여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미국인보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 여행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유인즉 한국은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란단다. 나는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위험한 나라는 아니며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열정적으로 소개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어정쩡한 미소만 지어보였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아직도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이 위험한 나라였던 것이다. 짧은 영어실력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조국을 떠난 뒤에야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실감났다. 미국의 거대한 힘과 약간은 오만스럽게 느껴지는 미국인의 모습을 보며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과 자꾸만 비교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물론 통일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스포츠를 통한 단일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던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또한 남북 도로 개통으로 개성공단에 우리 측 기업이 들어가 남북 합작 제품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하기도 했고, 그 광경을 본 나 역시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난다. 성 급한 사람은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날은 과연 가까이 온 것일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반공을 무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수구보수 세력이 차츰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무조건 반대하며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의식을 바꾸고 포용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언어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남북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들어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바로 알기 TV프로그램 일부를 올린다는지, 공영 방송을 통해 북한의 문화와 언

어에 대해 소개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방송중인 프로그램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 테이프 입수해 화면을 컴퓨터로 합성하여 마치 남북 학생들이 실제로 퀴즈대회를 벌이는 것처럼 진행, 북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다. 비록 실제 현실은 아니지만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학자는 혈통만 같다고 한 민족은 아니라고 했다. 문화와 사상이 같아야 한 민족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언어의 통일은 정말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협력하여 경제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쟁재발 방지와 민족 역량의 낭비를 막아 남북의 공동 번영을 실현함과 더불어 세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선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항하여 극복했다. 지금의 분단 상황도 틀림없이 슬기롭게 극복하여 통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날이 오면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인 독도 문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여행하고 싶지 않다던 그 미국 대학생 형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통일의 날은 더디게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강물이 수없는 난관을 이겨내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다.

증조할머니가 기다리는 것

●● 지난 4월 5일 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증조할머니를 모시고 율치 마을 뒷산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산소에 갔다. 햇살도 따사롭고 피어있는 진달래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난 증조할머니의 마음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구불구불 산길을 지나 아담하게 정돈하여 놓은 증조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난 증조할머니가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란 느낌이 들었다. 증조할아버지의 묘 앞에 선 증조할머니는 뭔가 깊은 추억에 잠겨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 분위기가 하도 무겁고 엄숙하여 평소 재롱을 있는 대로 부리는 나였지만 감히 한마디의 말도 붙일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피곤해서 방으로 가서 누우신 증조할머니를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향했다. 사실 증조할머니는 연세가 무척이나 많으시다. 96세의 나이지만 아직 기력이 있으셔서 거동은 웬만큼 하시는 편이다. 오늘따라 축 처져 보이는 증조할머니의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계신 듯했다.

“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오늘따라 이상해요.”

“왜, 어디 아프시니?”

“그게 아니고 아까 산소에서 너무나 슬퍼 보이셨어요.”

“다운아, 증조할아버지의 산소에 다녀왔지? 사실 그 안에 증조할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단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묘는 가묘로 써놓은 것이란다.”

“가묘가 뭐예요?”

“말하자면 가짜 묘란다. 너희 증조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전쟁에 참전 하셨어. 어린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를 남겨둔 채 말이다. 그 후에 전쟁의 상황은 급박해지고 증조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없어서 피난을 하셨다는구나. 이곳 남원에 아는 친척분이 있어서 남으로 내려오시긴 했지만 그 후에 부산까지 쫓기고, 얼마지나지 않아 휴전선이 생겼고, 증조할머니는 고향 땅이 있는 북한으로 갈 수 없어서 다시 친척분을 따라 이곳 남원에서 계시면서 할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증조할머니 마음속에는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하루라도 편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할아버지는 가묘를 해서라도 증조할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하신거지. 하지만 증조할머니 마음속에 증조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 아니겠니?”

난 산소에서 증조할머니가 왜 그렇게 슬퍼보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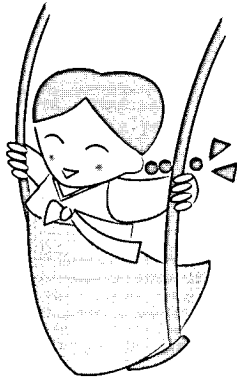
요즘은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기사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런 때마다 증조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하셨을까?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금강산은 일찍부터 갈 수 있었고 평양 거리에 대한 소개도 텔레비전을 통해 가끔 접할 수 있고 어린이들 프로에도 남북한 어린이들이 퀴즈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통일이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지 않은가?

증조할머니는 뭔가를 늘 기다리는 모습이다. 증조할머니가 기다리는 것은 증조할아버지이다. 하지만 증조할머니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

까?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오늘따라 뒤돌아 누워계신 증조할머니의 어깨가 더 아위어 보였다. 그 긴 세월의 끈을 아직도 붙잡고 계신 증조할머니는 분명 통일과 함께 걸어오실 증조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증조할머니가 눈 감기 전에 통일이 와서 증조할머니의 긴 한숨이 함박 웃음으로 바뀌길 기도해 본다.





외할머니의 슬픔

●● 해마다 이산가족에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난 외할머니의 눈물이 떠오른다.

언젠가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다. 할머니의 방에는 TV가 켜져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의 가족들이 상봉을 마치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눈은 빨갭게 충혈 되어 있었다. “엄마, 저런 것은 왜 보고 그래.” 엄마는 속상하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껐다. “튼튼 나왔어. 예구, 얼마나 맘들이 안 좋을까? 생사를 몰랐을 때도 그렇고, 저리 만나도 또 생이별이니... 어찌면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을디. 그래도 생사는 알아서 눈은 편히 감겼지.” 엄마의 큰 목소리에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들킨 어린아이마냥 외할머니는 걸레로 방을 이리저리 문지르면서 아직 채 마르지 못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그런 외할머니가 안쓰러운듯 엄마는 “저 시간되면 다시 한번 순천에 내려가 봐요. 그러다보면 무슨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잖아.” “그때 내가 언니 손만 안 놓았어도, 아니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됐는데, 내가 하도 우니까 옆에 있던 외할아버지(길러주신)가 나를 데리고 가셨지” 다시 감정이 북받치는 듯 외할머니는 몇 번인가 내가 들어본 이야기를 또 꺼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외할머니는 아직도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던 언니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셨지만 엄마와 삼촌은 그것도 거의 맞지 않는 기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과 고향 지명들에

여러 차례 들러 찾아보았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할머니가 피난길에 가족을 잃은 것이 정확히 몇 살 때 일인지도 기억할 수 없고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희미한 기억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할머니가 가족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외할머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외할머니는 때론 자기를 데려다 길러준 아버지를 원망할 때도 있었다. “자기를 데려 오지만 않았어도 가족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물론 외할머니의 억지 섞인 원망인줄 우리 가족은 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의 마음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내뱉으실까 생각하면 우리 가족 모두는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이런 가족 간의 일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서인지 나도 전쟁이란 것이 주는 아픔이 결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나 뉴스가 나올 때면 습관적으로 채널을 돌려 버린다. 처음에 외할머니에게 엄마가 그러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기도 했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보는 프로 돌리거나 꺼버리면 싫지? 근데 왜 할머니 보시는 것 꺼버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엄마는 잠시 나를 보시더니 “할머니 우는 것이 보기 싫어 그래.” 짧게 한마디만 하시고는 나를 외면해 버리셨다.

할머니의 슬픔은 할머니 한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슬픔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굳이 외면해 버려도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니까. 저녁 뉴스 시간에도 여기저기에서 이산가족의 이별소식을 앞 다투어 보여주고 있었다. 떠나가는 차를 쫓아 가며 우는 사람들, 몸이 차 밖으로까지 나오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처음에는 만남이 가장 큰 소원이었겠지만 이젠 또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안고 떠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족이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지는 않으시다. 피난길에 순천에

서 언니의 손을 놓치시고 혼자 떨어져 미아가 된 할머니를 지금의 증조의할 아버지가 데려다 딸로 삼으신 것이다. 지금의 외할머니의 성은 데려다 길러 주신 분의 성을 따랐지만 외할머니는 자신의 성을 기억하고 계셨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자신의 추억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 자꾸자꾸 되뇌이시는 외할머니도, 남과 북으로 갈라선 이들도 결국은 똑같은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눈물과 혈육을 남과 북에 두고 떠나는 사람들의 눈물을 통해 새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참 많이 세상도 변했고 시간도 참 많이 흘러갔는데도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너무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장모님 또 오늘 밤은 잠을 못 이루시겠네.” “그러게요. 아까도 눈이 별정계 부우셨드라구요. 언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그 근방을 더듬어 봐야겠어요. 돌아가실 때 원이라도 없으시게...” “그래야지...”

그 후로도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의 기억을 의존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셨지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고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주소나 이름들이 분명하지 않아 동사무소나 면에 의뢰해 도움도 받기도 쉽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가셨지만 돌아올 때 할머니는 더욱 말쑥이 없으시고 돌아오신 다음에는 며칠씩 두문불출하시든지 아님 앓아누우시든지 하셨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의 마음의 병이 심해질 때쯤이면 여전히 할머니의 기억을 좇아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신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신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얼굴에도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의 생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신다.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북한을 친근하게 느끼지만 외할머니의 기억 속에 북한은 늘 ‘빨치산’을 떠올리신다. 무섭고 두려운 기억 때문인지 북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무작정 싫어하신다.

통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텔레비전에 비친 독일의 베를린 장막 하나 무너뜨리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나는 통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벽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거나 또는 올림픽 때 같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 우리 가족에게 있는 아픔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외할머니의 기억에서 자신의 성을 빼앗을 수 없듯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만 걷어 내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가슴에 멎들어 있는 슬픔까지도 걷어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통일이 되어서 우리 외할머니의 얼굴에도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엄마도 더 이상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고생을 하지 않을 테고 우리 가족도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릴 필요가 없어질테니까. 우리 모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진정 기대해본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질문

●● 어제 아침, 중간고사를 보는 날인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한 손엔 책가방을, 다른 한 손엔 빵 하나를 들고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그 날 볼 시험 과목을 점검하는 나의 이맛살은 점점 찌뿌려져가고 있었다.

‘에이, 왜 하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머리에 안 들어가서 짜증 나는데, 진짜’

이런 불만들이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요점정리 종이를 잠시 접은 채 조용히 라디오를 경청했다. 라디오방송은 외무부 고위 간부와의 인터뷰였다.

진행 아나운서가 그 간부에게 “이런 질문이 매우 힘든 질문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사실상 열려있긴 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지금 떨어져 있는 사이라고 해도 같은 민족 사이에서 대화와 교류가 열려있는지 단혀 있는지를 묻다니…, 설마 한 민족이 대화와 교류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겠냐는 말이다. 하지만 날 더 어이없게 한 건, 그 간부의 대답이었다.

“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어이없고도 슬픈 대답이었으며, 나뿐만이 아닌 그 라디오를 듣

고 있던 버스 안의 출근길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숨결이 있는 민족이 대화와 교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사이가 되어버린 지금이라나...

정말 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언젠가 되었던지 간에 통일은 되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었고 다만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서로 만날 수 없이 서로 같은 하늘을 보며 그리워해야만 했는지 막연한 의문을 가지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왔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신문 사설이나 책, 선생님들을 통해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쟁을 하도록 방임했으며, 전쟁 끝내기의 명목으로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신탁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가 이용당하고 있으며 그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또 한번의 6·25 전쟁을 치른 뒤처럼 그저 모래바람만 날릴 정도의 초토화된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쯤이면 우리, 더 이상 스스로 딛고 일어설 힘조차 잃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그들의 전쟁논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논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우리의 군사력은 아시아 최강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의식하고 일본과 같은 나라를 앞세워 우리의 현실을 적절히 이용해 나가면서 우리를 무력화시켜 가고 있

다. 미국은 뒤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최근의 행동을 오히려 묵인해주고 부추겨서 자신들의 한국의 간섭정책에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독도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또 다른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이다. 한 민족의 정체성은 그 민족의 자부심과 미래 지향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굳혀 나갈 때 세계 속의 우리 자리도 확고히 굳혀 지는 것이다. 하지만 분단된 민족상태로는 정체성 찾기란 불가능 하며, 우리는 현재 50여 년 동안 이런 분단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통일은커녕 우리가 한피 섞인 민족인 것조차 망각하고 살아갈 세대가 올지도 모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속의 우리나라는 꿈조차 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민족이기 전에 이웃이고, 이웃이기 전에 친구이며, 친구이기 전에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떨어져서 살수가 없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끈은 어떤 무기나 무력으로도 끊어선 안되고 끊을 수 없다.

지금 국가대 국가가 총과 칼을 겨누며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그 뒤의 우리 이산가족들은 50 여 년 간의 한 맺힌 이별에 아파하며 피 눈물을 떨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도 이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줄 수 없으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통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에 사무치게 새겨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열거한 이유들보다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고도 다양하다. 이런 많고도 다양한 이유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먼저 정부에서 적극 일어나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감동적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5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그때보다 더 진전된 남북관계는 전혀 없어 보이는 현재를 되짚어 본다. 도대체 5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나라는 뭘 하면서 통일을 외치고 있었던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하자고, 목은 터져라 외치면서 정작 받은 한 발씩 물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는 더 이상 뒤에 숨은 채 얼굴만 내놓고 외치는 통일이 아니라 당당히 나와 발로 뛰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현재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직 우리와는 다른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아왔다.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슴과 가슴,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하나의 뜨거운 민족성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모두 실현이 된다면, 더 이상 바쁜 시험 날 아침 등굣길에 그런 슬프고도 어이없는 인터뷰를 듣지 않아도 되며, 언젠가는 “북한친구들아! 우리 같이 손잡고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라는 꿈 많은 어린이들의 바람 어린 약속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Let's go!!”



- 호랑이의 허리가 아파요. / 353
- 나의 반쪽, 나의 사랑 북한 / 356
- 통일에 앞서 우리가 할 일 / 361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364
-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어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 367
- 한라에서 백두까지
- 우리는 하나 / 370
- 가고 싶은 금강산 / 373
- 그 가을의 백양사 / 376
- 새벽을 기다리며 / 379

3월 24일

초랑이의 허리가아파요.

●● 나는 요즈음 느낌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신동엽 아저씨가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의 어린이들이 모여 앉아서 퀴즈를 푸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세종대왕님께서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 온 민족이 똑같은 언어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텐데, 6·25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50년이 넘게 생활하다 보니, 사용하는 말이 많이 달라져 남한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북한에서 내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지 못했다.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점은 본받을 만했지만 '동지'나 '사상'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북한 친구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를 않았다. 모두가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통일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였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친구들도 우리처럼 밝게 웃음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작은 땅 우리나라는 예부터 외국으로부터 침입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훌륭한 분들이 많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앞세워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중국까지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3·1만세 운동을 벌인 유관순.

하지만 6·25전쟁이 터졌고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서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

같은 말을 쓰면서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는 북한은 완전히 외국의 낯선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남·북이 하나로 합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을 때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 때도 우리나라는 더욱 강하고 훌륭한 나라였을 것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힘센 나라들을 제치고 4위를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었다. 요즈음 텔레비전에서는 황우석 박사님께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에 한 걸음 다가서 또 한번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청심환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다.우리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작년에 학교에서 ‘칭찬합시다’ 청소년으로 뽑혀 금강산에 다녀온 우리 언니는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백두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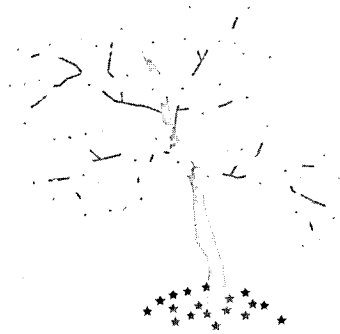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곳은 현장학습을 가곤 한다. 하지만 북한만은 가보지 못했다. 우리교장은 남해안이라 겨울에도 항상 따뜻한 편이고 눈도 자주 오지 않는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린 추운 겨울에 작년에 사두고 한번도 입지 못한 분홍색 털북숭이 방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금강산으로 현장학습을 꼭 가고 싶다. 썰매도 타고 어마어마하게 큰 눈사람을 만들어서 놀아보고 북한의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싶다.

우리나라 지도는 호랑이가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호랑이는 50여 년 동안 허리가 아프다. 철조망 허리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철조망 허리띠를 떼어 내고 소독해주고 붕대로 감싸서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는 나라들에게 ‘어~흥’ 하고 우렁차게 고함도 질러보고 힘차고 건강하게 온 세계의 땅

을 뛰어다니며 대왕의 늪룩한 모습을 보여 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호랑이의 허리가 아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치료해 주세요.”



나의반쪽, 나의사랑북한

●●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을 뒤로한 채 나의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교무실로 부르셨다. 가방을 챙기고 교무실로 가는 동안,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다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환한 웃음과 함께 선생님께서는 금강산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며 가고 싶지 않은지 물으셨다. 순간, 나는 내가 환청을 들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다. 몇 번이나 물어보고, 자주 치시던 장난이 아님을 알고 나는 바로 꼭 가고 싶다는 나의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설레서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마치 누가 때려도 더 때리라며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이 말이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1월 17일에 함께 가는 후배와 함께 완도 여중을 찾아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 사항을 듣고 돌아왔다. 집에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다가 준비물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멀미약까지 철저히 준비한 나는 의기양양하게 1월 31일 새벽 집결지로 갔다.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계속 버스를 달려 통일 안보 교육관에 도착했다. 거기서 조장님이 한 분씩 타셔서 핸드폰을 수거하고, 사전 방북 교육을 받았다. 교육 중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호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북한에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복잡한 절차를 밟고서야 비무장지대를 지나갈 수 있었다. 뉴스에서 보았

던 장면이기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무장한 한국군을 지나 역시 무장한 채 차가운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스쳐가며 보았다.

‘아, 이게 바로 분단이라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워 눈물을 눈에 한 가득 담게 됐다. 한참을 조장의 설명과 함께 달리던 모든 버스가 일제히 멈춰 섰다. 그 버스들 사이로 북한 군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봤던 행진 자세와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행진이니까 일부러 연습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두 명의 군인이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버스의 인원을 체크했다. 그 모습이 무서워 보여 고개를 숙이려다가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참았다. 군인의 눈이 한번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정말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한 민족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는 분단 현실이 이상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서 도무지 적응이 될 것 같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모두가 불행할 거야!’ 라는 오해도 하게 되었다.

다시 이어진 조장의 설명은 밖에 보이는 철도로 남한과 북한을 잇고 있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 철도 위를 통일기차가 힘차게 달리며 그것을 타고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었다. 부모님도 못 가보셨는데 내가 먼저 오게 되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우리의 숙소에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북한에서 처음 먹어보는 식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층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사진 등과 북측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서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산 가족 분들의 눈에 서린 그리움과 만나서 느끼는 행복함, 그 동안에 걱정으로 고생했을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연세가 지극하셔서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자리잡으신 그분들이 체면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분들의 얼굴을 소중히 어루만지고, 뜨겁게 보기만 해도 가슴 저린 포옹을 나누며 오열하는 모습이란… 정말 슬프고,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왜 통일이 필요한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울컥하는 눈물과 함께 조금이나마 느껴졌다. 격해진 감정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잠시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했다.

숙소로 돌아와 같은 방에 배정된 여러 선배들과 후배, 친구들과 다같이 온천을 갔다. 넓고 시설도 쾌적하고, 여러 건강을 위한 것 등도 많고, 특히 물이 정말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장난치는 사이에 서로 친해져갔다. 차멀미를 심하게 하는 나는 무척이나 버스에서 고생했고, 피곤했다. 그런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친해진 일행들과 아늑한 숙소에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러다가 어느새 북한에서의 첫날 밤은 저물어갔다.

아침 일찍 다같이 일어나 입맛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아침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무장하기 시작했다. 두꺼운 옷과, 모자, 목도리, 장갑 등 최대한 추위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금강산 구룡연 코스를 올랐다. 일만 이천 봉이나 되는 웅장하고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금강산은 아름다운 만큼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의 보호 또한 철저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려도 몰래 용변을 해결하다가 걸려도 많은 벌금을 물었다. 곳곳에 중요하거나 유명한 장소에서는 북측 해설원의 자세하고 친절할 설명이 포근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대부분이 여자 분이셨는데, 목소리도 곱고 아름다웠다. 어제까지 해서 만나본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이었던 탓에 그날 만난 분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여러 질문도 하고, 장난도 치는 것을 보니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꼭 우리 한국인 같고,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도 산은 산인지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다. 빙판 길도 있어서 엉덩방아도 여러 번 찡고, 푹푹 발목 위까지 빠지며 매우 좁은 산길도 있어서 정말 저 아래로 미끄러져서 구를 뺀 한 위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죽을 거 같이 무서운 산길도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일행들과 단체 사진도 찍고 눈싸움도 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듣고 더욱 조심하며 내려왔다. 그런데 나를 비롯한 일행들이 정말 궁금하게

여긴 게 있었는데, 그건 등반하는 중간 중간에 큰 바위가 나오면 거기에는 예외 없이 항상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숙 여사를 찬미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지였다.

‘여기 북한 사람들은 돌에 새기는 걸 좋아하나’ 라는 나름대로의 상상도 하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는데, 북한에 오기 전이나 막 와서 들었던 말인데,

“여기서 통치자는 신이나 다름없어, 한국과 틀려, 여기는 외국이야, 외국!”

이 말을 다시 회상하니, 이해가 되는 듯했다. 신이나 다름없이 위대하게 여기니까 돌에까지 새기는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됐지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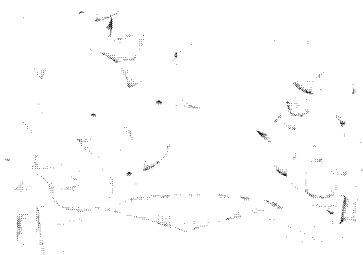
문화 회관에 도착한 우리는 그 유명한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흥미를 가졌던 그 공연을 북한에 직접 와서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즐거웠다. 공연을 관람하는 내내 정말 감탄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대단한 공연이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연습한 그들의 솜씨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90분 동안이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듯한 착각도 들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통일 교육도 받고 온천도 가고,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아쉬움과 슬픔 속에 우리 일행은 기념이 될 만한 곳에서는 모두 단체 사진을 찍고, 여러 웃긴 포즈를 취해서 서로를 웃겼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숙소에서 한국의 두 배하는 가격으로 사온 과자들과 음료수를 먹으며 이별을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북한에서의 대단한 마지막 밤도 저물었다.

마지막 아침 식사도 역시나 즐겁게 마치고 삼일포와 해금강에 가서 마지막 막을 장식했다. 돌아오면서 기념이 될 술도 사고 버스에 올랐다. 막 북한에 들어와서 했던 인원점검을 그 군인 두 분이 여전히 같은 걸음과 표정으로 인원을 확인하고 가셨다. 그런데 처음처럼 무섭지 않았다. 북한에서 지내고, 이제 남한으로, 집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살짝 눈인사

도 했으니까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 지대를..., 북한을..., 금강산을 뒤로 한 채 이대로 떠나오는데 왜 그렇게도 섭섭했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의 건물들, 금강산의 말로 표현하기 벅찬 아름다움, 북한 해설원들의 특이하면서도 정겨운 말투, 온천의 환상적인 물과 시설, 완벽하게 느껴졌던 음식들, 무표정한 모습까지 정들어 버린 군인 아저씨들...

나의 핏줄, 나의 민족, 우리의 반쪽을 뒤로 남기고 오는 것이 정말 슬펐다. 한 민족끼리 철조망으로 막고 총으로 무장해서 지키고, 서로 외국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복잡한 그곳은..., 우리의 안타까운 핏줄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깨달았다. 북한은 외국이 아닌 나의 민족이자 잠시 갈라진 나의 조국이라는 것과, 통일은 서로에게 진실한 대화와 마음으로 이해하며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하는 모든 단군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말이다. 이런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해 주고, 금강산과 북한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풀어준 이 금강산 체험학습이 정말 고맙고, 값진 경험이 되었다.



통일에 앞서 우리가 할 일

●● “할아버지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왜 우리랑 말과 글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북한이란 나라의 정체성도 모르고 가까운 이웃 나라로만 취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 머리를 감돈다.

벌써 우리나라가 분단 된지 언 50년이 지났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미 북한과 남한은 언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화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우리 민족의 갈등과 비극이 시작되었다. 우리 한민족은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으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체험하게 된다. 3년 동안 전쟁의 결과로 남은 건 피로 물든 대지와 강 뿐이었다. 서로 자기 사상이 맞다는 견해차이 때문에 얻은 결과 치고는 너무 가혹하고 처참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다른 노선을 걸으며 발전해 갔으며 남한은 자유경제를 채택해 경제발전이 힘써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 반면에 북한은 계획경제의 한계성 때문에 개개인이 먹을 식량도 없어 굶어죽는 사람이 빈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이나 의식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점은 갈수록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 말고도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통일을 위해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그 일이다. 이미 남북간의 통일문제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로 대두됐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핵문제를 견제하는 등 북한을 여러 측면으로 압박하고 견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 2위의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하는 군사 대국 일본이다. 강한 군사력으로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강력한 러시아'를 외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3국이 개입할 경우 러시아도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가면서 경제·군사적 양면에서 국력을 신장시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 중이다. 특히 냉전시대 이후 미·소 균형이 무너지고 난 이후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중국을 '가상적국'으로까지 보기도 하며 이에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맞서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그 목표에 있어 많은 부분을 미국과 공유한다. 중국 역시 미국과 같이 남북한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바란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는데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될 경우

수백만의 난민이 식량과 은신처를 찾아 중국으로 모여들게 되면 중국은 고도의 불안정한 사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측에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꾸준히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통일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적절히 이용하는 일은 통일을 한걸음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주변국들과 외교적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식어버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깊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깊이 볼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지금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일이 생길까? 현재 남북은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발전보다는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본격적인 통일외교에 앞서 이런 점을 더 신경 써야 한다. 어려운 정치적 교류가 우선이 아닌 문화적 교류가 앞선다면 남북 간의 차이는 좁혀 질 것이고,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 계획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실을 탄탄히 다진 후에 통일외교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실을 다진 후에는 적극적인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분단될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 갈라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만큼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폐종이를 모았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폐종이를 모았습니다. 그 종이들이 책과 공책과 연습장이 되어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통일, 자주,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들은 쉽게 또는 자주 접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가슴에 와 닿거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폐종이를 모으면서 저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여쭙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별다른 깊은 감정은 없으신 듯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여수에 살지 않으시니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주 들던 노래에서 통일은 왜 그토록 절실한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만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여러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고 특히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리워만 할 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들입니다. 무엇이 그 분들을 헤어져 살아가게 했는지, 왜 저

토록 눈물겨운 상봉을 하며 가슴 아파하는지,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제 가슴까지 아프게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같은 민족끼리 줄을 그어 놓고 너는 북쪽, 난 남쪽 하며 그 줄을 넘어 서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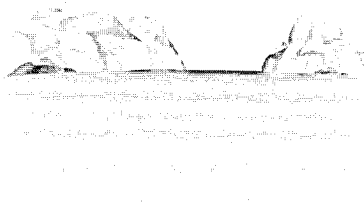
오래 전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합쳐져 서로 사이 좋게 왕래하며 잘 산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6·25 전쟁을 겪진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비록 지도에 선하나 그어 놓고 휴전선이니 비무장지대니 하며 서로 가까이 가지는 못해도 피를 나눈 한 민족입니다. 옛 이야기 속의 '의좋은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우애가 깊은 형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애있게 살아가야 할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서로의 벼단을 날랐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헤어져 있어 변해버린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북한말을 들을 때면 그 재미있는 말투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친구들과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구수하고 재미있는 여수 사투리도 가르쳐주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북한말로 얘기를 나눠보고도 싶습니다. 교환 학생이 되어 북한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 토의도 하고 싶습니다.

손에 손잡고 백두산으로 수련회도 가고, 한라산 철쭉도 보러가고 남해 바다 오동도 동백꽃이 얼마나 멋진지, 여수의 자랑스런 진남문화도 같이 공부해보면서 말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며 멋진 민족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이겨낼 만큼의 멋진 미래를 말입니다.

6월을 앞에 두고 저는 비무장지대의 아픔을 먹고 자란 키 큰 풀들을 베어
내고 총은 새 길 옆으로, 예쁜 나리꽃을 심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평양까지의 그 길에 꽃이 피면 친구들과 웃으며 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어서 서로에게 고통일 뿐일지라도

●● 얼마 전 우리나라 가수 이효리 씨와 북한 최고의 무용수인 조명애 씨가 같이 CF를 찍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나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CF를 찍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명애 씨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았다. 그러다 '스타 토론방'이라고 하는 스타에 관해 토론하는 사이트가 있어 한번 클릭해 보았다.

"조명애 씨 정말 싫다. 북한 핵 때문에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우리나라가 띄어 주는 것 같아 싫다. 북한이란 나라 정말 맘에 안 든다. 도대체 팬클럽은 왜 생긴 거지?"

라는 글이 있었고 그 밑에는 여러 댓글이 붙어 있었다.

"북한 수준이 정말 그렇지, 절대 통일이 안 되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 아무리 반세기 넘게 떨어져 있었다지만..."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으로는 조명애 씨가 별로 예쁜 얼굴이 아니어서인지 이러한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물론 맞는 말인 것들도 있었지만 왠지 씁쓸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문득 이런 글들을 읽고 나서 언젠가 통일에 관해서 토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통일에 찬성 쪽이었던 나는 나서는 걸 무척 좋아하는 성격으로 그 토론에 무척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때 통일에 반대하는 쪽은 이런 주장을 했다.

“북한은 우리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는 엄청난 경제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 최빈민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 강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대열에 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엄청난 경제 차를 극복할 수 없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나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분명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독일의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동서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현재 벤츠 같은 세계적 명품 자동차도 독일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발달된 기술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국제시장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누기 위해 쓰였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 발전, 국민 생활 복지 등 다른 곳에 쓰면 더욱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북한말 중에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고 사상 면에서도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김정일만 섬기는 독재 정권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통일이 되면 경제 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당연히 찬성 쪽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왔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고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떨어져 있었다지만 몇 천 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야 할 한민족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과 남한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통일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거리를 좁히고 민족 간의 동질성을 되찾아 다시 우리는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나아가야 합니다.

허리가 부러진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 될 수 없듯이 둘로 나누어진 한반도는 자신의 본 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한반도, 단일민족이라는 정통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토론 후 찬성 쪽이 우세한 끝에 통일에 관한 토론은 막을 내렸다.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 노력하여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 때.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 때. 벗이여, 어서 오게나. 이제 밤은 너무도 깊었는데.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에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맞추느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 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위의 내용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난 믿는다.

우리가 지금은 통일이 되어 서로 고통뿐일지라도.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할 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입맞추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안락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둠 건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손을 잡고 웃으며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난 믿는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하나

●● 거대한 우주 공간 안에 초록별이라 불리우는 작디작은 지구, 그 안에서도 아시아라는 대륙 속에 묻혀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마하게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슬프도록 아름다운 반도 국가인 우리의 한국, 그 작은 나라는 또다시 둘로 갈라져 분단이라는 뼈아픈 상처와 역사를 안고 있다.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를 나눈 한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온 것이다. 20세기 세계 역사상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6·25라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6월이 오면 더더욱 가슴 저리는 아픔에 휩싸이고 만다.

신록이 무르익는 유월은 울타리마다 붉게 타오르는 넝쿨장미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 아름다운 날에 푸른 산과 들을 피로 물들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아픈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창살마다 가득 차오르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면 온 산과 강을 피로 물들여 놓았던 그날들이 정말 있었던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유월은 아름답다. 결코 슬픔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중학교 때, 과외를 받으러 다니던 때였다. 수업중에 갑자기 아랫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큰 바윗덩어리를 담은 듯한 한의 응어리가 맺힌, 할머니의 통곡소리였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이

상한 생각과 함께 시끄럽게만 느껴져 기분이 좋지 않고 수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몇 번 듣다 보니 그 소리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뭘지는 모르지만 한이 맺힌 듯한 통곡과 오열이 합쳐진 절규였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가슴마저 피눈물을 흐르게 할만치 강인한 슬픔을 안고 내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께 아랫집 할머니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그래서 알게 된 할머니의 사연은 나를 한동안 멍함 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 울음소리를 시끄럽게 여겼던 나를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할머니께서는 어렸을 적 6·25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피난을 오다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오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움에 사무친 세월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흐르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큰 그리움과 더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가족들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그리워 미칠 것만 같은 안타까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한 번씩 땅을 치며 통곡을 하셨던 것이었다. 그 누가 할머니의 삶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누가 있어 그 할머니의 그리움을 대신 채워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그 할머니의 비어버린 공간을 채워 줄 수는 없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처절하게 황폐해져 버린 할머니의 영혼을 살찌워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우리의 작은 땅덩이 안에 그 할머니 같은 가슴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슬픔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전국 곳곳에서 이산의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는 아직 '통일이 되어야한다' 라는 헛구호만 외치고 있다. 말뿐인 노력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은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만 더해줄 뿐이다.

가끔씩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여러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생긴 모습과 말은 같은데 뭔가 모를 이질감이 서로의 사이에 장벽을 쌓아버린

다. 낯설은 이방인과 같은 느낌으로 거리감을 만들어버린다. 그 속에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북 이야기만 나오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남한이 손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 대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통일 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해 보면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통일을 할 수 없다. 원래 대한민국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은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는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만남이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두 손 마주잡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가슴 저려오는 그 벅찬 기쁨의 노래를 함께 외쳐야 한다.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흐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축복해야 한다.



가고 싶은 금강산

●● 북한의 배가 우리나라를 찾아 왔습니다.

거름 끼가 없는 북한 땅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료를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싣고 가려고 북한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통일이 될 날도 멀지 않았나 보구나.”

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비료가 되어 북한 땅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강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금강산을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갈 수 없지요.

우리나라의 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노래하는데 왜 갈 수 없는 산일까요?

지도를 보면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머나먼 다른 나라를 가는 것보다 금강산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웃집처럼 드나들고 살면서, 우리나라 금강산은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도 우리말 한글을 쓰니까 어려운 영어

를 몰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땅 금강산을 마음대로 갈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은 외국에 가는 것처럼 여행비자를 받으면 갈 수 있으니 다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통일이 되어 우리 동네 산에 오르듯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고 싶구나!”

우리 할아버지의 소원이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작년 여름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폭탄을 싣고 가는 기차가 폭발하여 용천초등학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도 부족하고 돕는 손길이 없어 쓸어져가는 친구들을 보고 나는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친구들을 도우려 우리나라의 기술자와 포크레인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껏 박수를 쳤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변하여 오늘도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니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오직 전쟁준비만 힘쓰기에 먹을 식량도 부족하고 곡식을 키울 비료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보낸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내는 비료가 북한 땅에 뿌려져 곡식이 잘 자라서 북한 땅이 푸른 들판으로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공산당의 마음 발에도 사랑의 비료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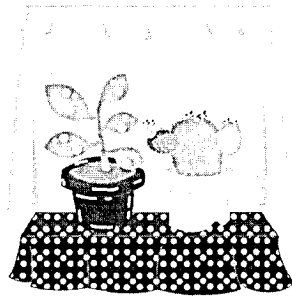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맛있는 자장면이 나오면 밥을 두 그릇을 먹는답니다. 그러나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다 버리지요. 나는 버섯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버섯이 나오면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친구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더 많이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이런 북한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음식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서 통일을 이루어 배고파 우는 북한 친구들에게도 웃음꽃이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의 친구들과 손을 잡고 금강산에 올라가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맑은 물 굽이쳐 폭포 이루는 금강산을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가을의 백양사

● ● 여행이 언제나 사람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행이 사람에게 큰 경험을 쌓게 하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나에게 백양사 여행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해 가을의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백양사에 단풍구경을 갔었다. 원래는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모처럼 만의 휴일이라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들 늦잠을 자서 이른 점심을 먹은 다음에야 가까스로 출발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에서 백양사 가는 길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다.

백양사의 단풍이야 원래부터 유명한 것이지만, 막상 가서 보니 그 아름다움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장관이었다. 그러나 백양사 여행이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단풍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약 단풍구경만 했었다면 나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추억만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한 아저씨를 만났다.

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저씨는 서커스단의 피에로처럼 희극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에는 머리 뒤편까지 연결된 넓은 이마가 있었고,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가는 초승달 형태의 눈과 딸기코와 두툼한 입술은 전체적으로 웃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었다. 게다가 유창한 서울 말씨로 설 새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댔기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그 얼굴 너머

에 감춰진 아픔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마신 반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부러워서였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저씨는 자신이 탈북동포로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귀순을 했다고 다시 자기의 소개를 했다. 물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귀순한 북한동포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만나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순동포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이 아저씨가 지금 농담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내가 그 아저씨의 말을 믿게 된 것은 아저씨의 말투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자리가 편안해지자 아저씨는 비로소 자기에게 익숙한 말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연변이나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많지만, 그 아저씨는 확실히 북한 출신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 말을 구사하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이다. 그 아저씨도 그랬던 모양이다. 귀순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경제 개념이 없는 북한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사느라 겪은 불편들, 특히 어색한 말씨나 아무도 없는 연고 때문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저씨의 탈북할 때의 의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저씨의 빠진 손톱이 새까맣게 지울 수 없는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북에 남겨진 가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응어리를 잊기 위해서라도 아저씨는 열심히 누가 들어도 모를 정도로 능숙하게 우리말을 익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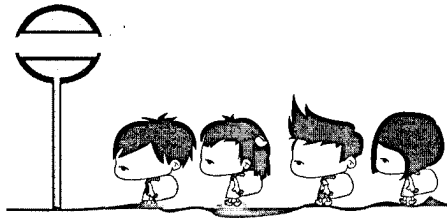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도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물론 난 전쟁의 상처나 아픔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어쩔 영화 속에 남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안 됐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정도라면 느꼈을 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경험했다면,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금강산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

리면서 버스 차창 너머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제 조금은 알 듯하다. 또한 같은 민족이면서도 어쩐지 어색한 탈북자들의 어려움과 상처들이 가슴 저 한구석에서부터 밀려오는 공감으로 씨늘해진다.

지금까지 입으로만, 표어로만 통일, 통일 했던 것이 참 부끄럽게 생각된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문득 올림픽 남북공동입장과 남북공동응원이 생각난다. 개성공단에 우리 공장이 생기고, 평양에서 가수 윤도현 오빠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예감이다. 홍이 아저씨의 새까만 손톱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알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공감이 민족인가 보다.



새벽을 기다리며

●● 사방이 온통 적막을 깔아 놓은 듯 검은 안개로 지옥하다. 간혹 가다 그 안개를 뚫고 나타나는 불빛이 있지만 결국은 사라져 다시 사방은 적막해지며 말없는 미물들조차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다. 순간 작지만 선명한 불빛이 어둠을 뚫으며 다가온다. 모든 생물이 조심스레 그 빛을 주시한다. 그러나 그 불빛은 서서히 애처롭게 타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의 슬픔과 애환이 한데 섞여 서글픈 고통과 절망만이 자리 잡은 커다란 들판이다. 한 맺힌 절규와 울음만이 들리고 눈물만이 고여 있고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꽃망울조차 터뜨리지 못한 꽃 봉우리까지 제 모습을 찾아보기조차 힘든 서러운 풍경이다.

멀지 않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모자가 손을 흔든다. 얼굴 가득 그리고 커다란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고 마치 오랜 이별을 얘기하는 듯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가엔 시간이 가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그때 잠시 잠잠해졌던 광음이 울려 퍼져 대지는 다시 혼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꽃나무의 초라한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광활한 하늘 아래로 드리워진 짙은 안개. 그 안개는 세상의 산천초목을 온통 가리고 서로 공격하던 사람들까지 떨어뜨려 놓는다. 또한 꽃나무의 모

습조차 어둡게 가려 버린다. 아마도 그 안개는 사람들의 미움, 오해, 불신감이 불러낸 결과물일 것이다. 미움, 오해, 불신감이란 마음속에 생겨나기는 쉽지만 한번 생겨난 감정을 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마치 흰옷에 구정물이 튀기면 얼룩이 지거나 다시는 입을 수 없는 흰 옷이 되듯 말이다. 하지만 얼룩을 지우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마지막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지를 움푹 파이게 할 정도의 세찬 소나기가 하염없이 내린다. 그리고 그 소나기가 끝나지 않고 지속 될수록 빗방울은 점점 굵어져 싱그럽던 잎사귀의 속살까지 간간히 해집어 놓는다. 하늘의 먹구름은 어느 정도 걷혀가는 것 같으나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는 걷혀가는 먹구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아마도 먹구름이 말끔히 사라져야 굵은 빗방울을 보지 않아도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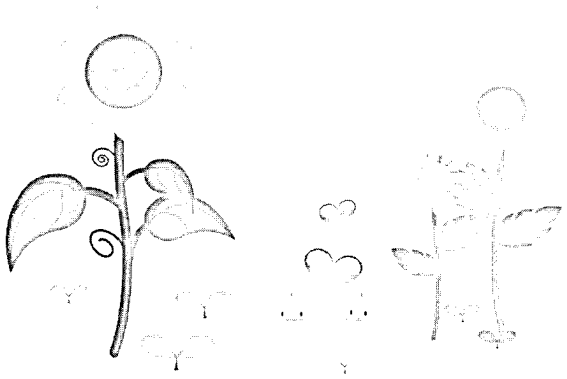
검은 안개가 조금씩 열어져 사라졌던 길을 조금씩 그려지게 한다. 강가를 사이에 두고 헤어졌던 모자는 먼 길을 되돌아가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다. 하지만 질던 안개가 잠시 열어졌을 뿐 강물은 줄어들지 않았고 나룻배 또한 두 사람을 싣기에 단단하지도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안개가 조금은 열어졌다는 것과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래 전 너무나 허망하게 잃어버렸던 그 빛, 다시 그것을 되찾는다면 두 번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두 손 가득 움켜쥐어야 할 것이다.

양상한 가지만 남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나무가 다시금 새싹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나무를 따라가듯 시들어 버렸던 산천의 초목들도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굵은 빗방울은 여전히 멎지 않지만 걷히고 있는 하늘의 먹구름을 보면 비가 그칠 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예견할 수 있다.

미처 말끔히 걷히지 않은 안개를 향해 타오르는 촛불을 밝힌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빛은 얼마 후 크게 모여 세상을 비출 것이고 남아있는 안개 또한 말끔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은 빛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모든 이가 찬란한 새벽을 맞이
하는 그날이 오게끔 할 것이다.



- 전적기념관에서 얻은 교훈 / 385
- 칠조망 옆 민들레를 꿈꾸며 / 388
- 금강산 비빔밥 / 393
- 호국원에서 생겨난 통일을 위한 나의 다짐 / 396
- 할머니의 비밀상자 / 399
- 통일 열차 / 404
- 새끼손가락 걸며 꼭꼭 약속해! / 408
- 랭면과 왕만두 / 412
- 민족통일의 당위성 / 415

경상북도



전적기념관에서 얻은 교훈

“미림아, 얼른 준비해야지.”

“네, 다 준비 되었어요.”

“물루라라 호호.”

“그렇게 좋아?”

“그럼요 현장학습 매일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간다고 했지?”

“다부동 전적기념관 가요.”

현장학습 날 아침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시는 어머니와 준비해 둔 과자, 음료수를 챙기던 나는 오늘의 현장학습이 무척 기대되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놀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전적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 하셨다.

“네, 어제 잠깐 조사했는데 6·25전쟁을 기념하는 곳이래요. 박물관 같은 곳일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미림아, 잘 갔다 오고, 잘 배우고 오너라.”

“네.”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니께서 무엇을 배우고 오라고 하는지는 잘 몰랐다.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과 전적기념관에 도착했다. “얼른 전시관을 둘러본

후 어디에서 놀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적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는

“먼저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곳으로 모이세요.” 하셨다.

“네.”

우리는 얼른 돌아보고 입구에 다시 모였다.

“무엇을 보고 왔나요?”

“총, 칼, 대포…”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다.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남으로 피난을 떠나 이곳 다부동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기념관 안에 걸린 사진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다. 이곳 다부동에서 우리 국군이 패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군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국군은 목숨을 걸고 다부동 전투에 임했으며 그로 인해 사상자나 부상자가 다른 어떤 전투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 어떤 지역의 전투보다 치열했고 그 결과 남으로 남으로만 밀리던 우리국군이 북으로 진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곳도 바로 이 다부동이라고 하셨다. 다시 전시관을 돌면서 벽에 걸린 사진과 그림도 유심히 보고 전시되어 있는 물건도 자세히 보았다.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그때 사용했던 총과 칼들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볼품없는 총으로만 보였었는데···, 저렇게 열악한 무기로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니 현장학습 와서 먹고 놀 생각만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에 나오던 전쟁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그냥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다. 전쟁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전적기념관을 와서 돌아보고 당시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그림과 설명을 다시 읽어 보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넓지 않은 기념관이었지만 우리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시 전시된 자료를 돌아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다 돌아본 후 밖으로 나와 조용히 앉아 음료수를 마셨다. 준비해 온 놀이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놀이를 할 수는 없었다. 선생님과 둘러 앉아 서로 느낌을 이야기 했다. 모두 나처럼 처음에는 그냥 구경을 했던 것 같았다.

5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우리는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휴전 상태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정말 너무 모르고 지냈던 것 같다. 뉴스에 나오는 이산가족 이야기나 북한의 핵 문제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통일을 말로만 이야기 한다고 될 것은 아니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어요.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잊지 말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북한을 바로 알고 도와야 해요.”

“통일은 꼭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해요. 우리도 무엇이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현장학습을 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해도 잘 되고 생각도 잘 되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평화통일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담아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장소를 이동하여 친구들과 보물찾기도 하고 게임도 한 후 돌아왔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어떠한 싸움도 잃어가지 않았다. 모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잘 배우고 왔어?” 어머니는 다 아신다는 듯 물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처럼 우리나라도 평화 통일이 얼른 되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길 바라본다.



‘철조망옆 작은 민들레를 꿈꾸며...’

●● “엄마, 오늘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끼리 통일에 관한 토론을 했어, 그런데 난 통일에 반대야.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사회와 문화가 많이 달라 북쪽사람들과 많은 다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들어 본 적 있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뉴스로 접한 적이 있거든. 난 북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알아서 돈을 벌고 사용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국경아, 그래도 우린 한민족 한 핏줄이었는데 이렇게 분단이 되어 버리고 나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겨 눈물 흘리는 사람을 TV에서 보았잖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지 생각 안 해봤구나, 또 국경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혹시 통일이 되어서 서로 돕고 잘 산다면 또 생각이 바뀌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도 난 반대야.”

엄마와의 언쟁을 벌이고 난 후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아래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어? 여기가 어디지?”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파란 들판에 한들한들 불어오는 바람. 시원한 풀내음이 나를 취하게 한다. 하지만 내 앞엔 그 풍경을 보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철조망이 탁하고 버티고 서 있다.

“근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큰 철조망이 있잖.”

내가 철조망을 향해 짜증을 부리고 있을 때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얘.”

“어, 무슨 소리지?”

철조망 앞에 있는 노란 민들레가 초록 팔을 움직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국경 민들레야, 만나서 반가워 난 북쪽에 사는 민들레라고 해.”

“무슨 말이야? 난 민들레가 아니라 사람인걸.”

“아니야, 네 모습을 봐봐.”

초록색의 쪽 뺨은 잎과 바람에 따라 하늘하늘 거리며 노란 꽃을 흔들리고 있었다.

“어? 내가 정말 꽃이 된 거야?”

“그럼, 국경 민들레 넌 어디서 왔니?”

“난, 남한에서 왔어.”

“응? 남한에서 왔다고? 이야 우리 동포구나.”

“동포?”

“그럼, 동포지. 동포란 뜻은 한 핏줄을 나눈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란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북쪽 민들레야, 여기 이렇게 큰 철조망 때문에 네가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걸 뭐야?”

“응, 이걸 우리 둘 사이를 가려 놓는 38선이라고 하는 거야.”

“38선? 나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데.”

“그래? 38선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게 패인 검은 한숨이라고 표현할까? 이 철조망 하나로 우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고 서로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단다. 38선에서 난 매일 많은 남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전쟁으로 잃은 동생, 친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한없이 남쪽을 바라보며 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면 내 가슴이 이상하게 시리고 아프더라고, 저기에 꼭 한 달에 한번씩은 들리는 할아버지께서 오셨네.”

“그래? 저 할아버지신가?”

“응, 맞아. 항상 검은 정장을 입고 이곳에 잘 오시거든. 아마 지금 10년은 더 된 것 같아.”

나와 얘기를 하고 있던 북쪽 민들레가 손을 까닥 움직이더니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아직도 북한에서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죽어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이 원망스런 철조망 거두고 어머니와 한없이 부둥켜안고 한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겠지요. 어머니..., 후후후.”

할아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듯 했다.

그러더니 북쪽 민들레가 한들한들 몸을 움직여 할아버지에게 속삭여 준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린 꼭 통일이 될 거예요.”

그리곤 북쪽 민들레가 왼쪽을 가르치면서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듣자고 한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에미야, 언제쯤이면 이 철조망이 부서질까. 내가 그때 수형이를 꼭 잡고 있어야 했어. 후후후..., 우리 수형이를 꼭 만나고 싶은데, 잘 있겠지? 수형이는 아프지 않겠지?”

갑자기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왔다.

‘난 왜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면서도 통일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데..., 왜 난 제대로 몰랐을까?’

“국경 민들레야, 난 다 알아, 너 통일을 반대했다는 거 남쪽 바람이 전해 주던데. 히히, 그럼 통일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조금은 바뀌었니?”

“응,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철조망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를 말아야. 난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정말 쉽게 접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갈라져 너와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보니 내가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저렇게 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그래, 바로 그거야. 국경 민들레 참 똑똑하구나, 이제부터는 우린 서로 남쪽과 북쪽 친구네, 그렇지? 그리고 국경 민들레야 나 잊지마.”

“국경아! 일어나 봐.”

“응? 엄마 왜?”

“저기 오늘 TV에서 재방송으로 하는 통일에 관련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볼래?”

“응? 진짜야 엄마? 나 볼래.”

“웬일이야? 너 통일에 반대한다고 엄마랑 논쟁 벌일 뎨 언제고.”

“하여간 엄마가 모르는 이야기를 북쪽 민들레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

“북쪽 민들레?”

“응, 엄마 모를 거야. 내 북쪽 친구 말이야.”

“엄마! 그런데 우리 통일이 되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어쩌면 금강산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한반도의 허리에 걸린 철조망 대신 붉은 철쭉이 수놓게 되겠지?”

엄마는 나의 말에 짧은 웃음을 지으시고는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아마, 그렇겠지. 국경아, 하지만 통일은 나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가슴과 가슴이 이어진 하나 라는 거 알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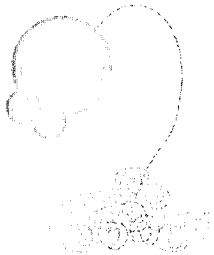
“그럼요.”

어느새 창 밖으로는 짙은 어둠을 밝히는 불들이 촘촘히 빛나고 있었고, 나는 다시금 창턱에 기대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북쪽 민들레가 가르쳐 준 통일은 아마도 우리들 가슴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북쪽 민들레가 알려준 말을 되새기며 먼 북녘땅 하늘 끝 자락에서도 나와 같이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씩씩한 미소를 지어 보았다.

지금은 통일을 위한 글짓기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민족의 공통된 꿈을 이루어 통일을 맞은 후에는 <통일의 기쁨>이라는 글짓기를 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애써준 북쪽 민들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모두가 가슴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하나됨을 영원하며 민들레 홀씨가 되어 저 북녘땅을 맘껏 훨훨 날아 한 톨의 통일의 밑알이 되고 싶다.



금강산 비빔밥

●● 고등학생이 되면 해외여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대학가기 전 '마지막 가족여행'이라는 큰 의미를 두고 한참 고민 끝에 금강산 육로 관광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16시간을 소요하여 났으나 육로로는 10여 분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말 가까웠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면서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한 것이 있었다. 남과 북을 잇는 동해북부선이 공사중단 상태에서 녹슨 채 있어 나를 안타깝게 하였다. 그리고 안내 언니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찾을 수 있었다. 3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표지판이 금방 바람에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베를린 장벽 마냥 쉽게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두더지 발길에도 차일 것 같은 분계선이 나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였다.

고성항 북한측 입국 심사장에서 바라본 고요한 바다와 금강산은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온정각 도착 후 곧바로 설봉산을 오르기 위해 아이젠을 하고 우리 가족은 힘들게 4시간 코스인 구룡연 코스를 선택하였다. 구룡폭포, 비봉폭포, 연주담, 옥류담 등이 하얀 솜이불을 덮고 우리 가족을 반겼다. 중간 중간 따뜻한 차와 간식거리를 팔고 있는 북한의 언니들, 추위에 언 두발이 더욱 예쁘게 보였다. 역시 남남북녀였다.

우리 가족은 이번 여행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북측 음식을 먹기로 했다.

북한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는 구룡연 오르는 길목에 있는 목란관에서서의 비빔밥이었다. 도루묵 튀김, 녹두전, 도라지무침, 고사리무침 등이 나오는 점심은 배고픔이 맛을 더 돋우어 주었겠지만 정말 맛있는 점심이었다. 이미 우리 남측 사람들은 양보다 질, 즉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듯 조미료를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음식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동생이 담백하고 아주 맛있다고 하여 우리는 저녁도 북한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였다.

목란관의 비빔밥에서 북한의 생활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비빔밥이라면 알록달록 대여섯 가지의 나물과 노오란 달걀 하나 구워 올리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도라지, 고사리, 무생채가 모두인 비빔밥은 색깔에서는 구미가 당겨지지 않았다. 겨울에도 수박, 참외가 나오는 남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체철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겨울에 시금치를 찾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 듯하였다.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일류 식당에서 초록색깔 나물은 찾을 수 없으니 말이다.

형형색색으로 장식하여 맛깔스럽게 다가온 일본음식은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불품없이 찾아온 금강산 비빔밥은 우리의 입맛을 정복하였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란 것도, 우리 가족 중 월남한 분이 있어 북한 음식을 만들어 준 적도 없는 시점에서 처음 먹는 북한 음식에 입맛이 통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한민족, 한겨레임이 틀림없었다.

저녁 숙소는 고성항에 정박중인 선상호텔이었다. 선상 창가로 바라다 보이는 설봉산 위에 걸린 둥그런 달과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은 평화 그 자체였지만 군사 시설관계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다는 현실에서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북녘 땅 첫 밤을 맞이하였다.

다음날 삼일포 관광 중에 불러주는 북한 안내원 언니의 “반갑습니다” 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금방이라도 통일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노래 부르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다.

소를 보내고 쌀을 보내고...,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이해되지 않던 나는

금강산 가족여행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다. 아니 변화였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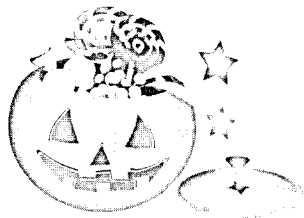
하나를 둘로 나누어 다른 체제 속에서 철저하게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 존재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다시 반세기가 흘러버리는 날엔 비빔밥의 맛도 변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핵문제 등으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은 있지만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관광명소도 활성화될 때 북한에서도 맛갈스런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본다.

“좋은 날이 오면 그때 함께 사진을 찍죠 뭐”

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던 삼일포에서 만난 북한 안내 아저씨 말씀이 떠오른다.

‘좋은 날 빨리 앞당겨졌으면...’



호국원에서 생겨난 통일을 위한 나의 다짐

●● 지난 해 여름, 아버지께서는 영천에도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고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가 있다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함께 가보라고 하셨다. 6월 6일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국립묘지 참배 모습이 나와서 전부터 국립묘지에 가보고 싶었다.

“어머니, 영천 호국원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호국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는 어머니께 궁금한 점들을 여쭙어 보았다.

“음, 호국원에 가면 호국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의 묘를 볼 수 있어. 그리고 현충관에서 여러 가지를 관람할 수 있고, 현충탑에서 참배도 할 수 있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나는 부푼 가슴을 안고 가족들을 따라 나섰다.

영천 호국원에 들어서니 커다란 영천 대첩비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현충탑, 충렬관, 현충관, 영천 대첩비 등 여러 가지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들과 박물관이 있었는데, 영천 대첩비는 무척 크고 멋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나와 나는 6·25전쟁에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를 정성들여 하나하나 닦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묘비에 새겨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분은 일등병으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

시다가 장렬히 전사한 분이구나. 또 이분은 육군 장교로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시다가 전사하였구나.”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돌아가신 분들의 비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여행길에 올라 즐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졌다. 묘비 하나하나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나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정성들여 묘비를 닦아 나아갔다. 날씨가 더워서 이마와 뺨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나는 손수건으로 땀방울을 닦으며 묘비를 닦고 또 닦으면서 나라를 지킨 고마운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현충관 안에서는 여러 가지 6·25전쟁에 관한 전시물들을 보았다. 전시물 중에는 6·25전쟁 당시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인들의 유품들도 눈에 띄었고, 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후퇴한 전선, 낙동강 방어선, 우리 국군이 다시 되찾은 전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 그 당시의 전투 모습과 전쟁의 잔인함과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6·25전쟁과 같은 잔인한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 옆의 전시관에는 6·25때 찍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줄지어 가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았다.

그 중에서 가족을 잃고 길거리에서 우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였는데 정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무척 무서웠을 것이다. 그곳을 보고 나니 그때의 참혹했던 모습이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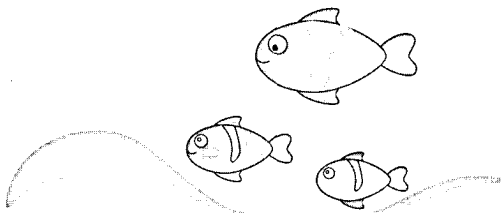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정말로 모두 피난민이에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내가 다시 여쭙어 보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천만 이산가족이 있는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피난을 가다가 남과 북으로 각각 헤어졌고, 그 뒤에 휴전선이 가로 막혀 50여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단다.”

나는 왜 우리나라에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현충관을 나와 우리 가족은 현충탑으로 가서 참배를 하였다. 참배를 하는 동안 여기 영천 호국원에 고이 잠드신 아저씨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았다. 나는 영천 호국원을 다녀온 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신 그 분들처럼, 초등학생으로서 튼튼한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여 영천 호국원에 고이 잠드신 아저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할머니의 비밀상자

●● 매미가 댘댘 우는 화창한 어느 날, 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다.

할머니, 그분은 나와 핏줄이 통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그분의 인자한 미소가 좋아 할머니로 따랐고 할머니도 나를 손주처럼 대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할머니 댁에 왔다.

“애야, 수박 좀 먹으련?”

맛 좋기로 유명한 할머니의 수박이기에,

“네~”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안방에 들어가 평소에 봐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평소에 모든 걸 보여주시던 할머니도,

“할머니, 저 상자 뭐예요?” 라고 물으면,

“으응? 할미의 비밀상자란다. 그렇게만 알아두련?”

라고 얼버무렸다.

그런 상자를 호기심 넘치는 내가 가만히 둘러 보았다. 조심조심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금가락지라도 기대했던 내 눈동자에 비친 것은 말라버린 약간의 진흙들, 한 남자의 빛이 바랜 사진, 오래된 듯한 지폐들, 할머니의 둘째 아들의 사진이었다.

‘에이, 이게 뭐야. 난 또 뭐라고.’

그때였다. 안방문 밖에 불쑥 할머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지용아~ 지용아~ 어디 있니? 수박 썰어 놔다!”

나는 후다닥 보고 있던 상자를 치웠다. 장롱의 문을 닫으려던 찰나, 방문이 드르륵 열렸다.

“아니! 애가…”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저, 저기…”

둘러댈 말을 찾다 이내 체념하였다. 잘못을 했을망정 구차한 변명을 하긴 싫었다.

“할머니! 저는 저 상자 안의 비밀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가장 무서운 눈빛을 나에게 쏘아 보내고 있었다.

“이 할미가 비밀상자로만 알아 달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할머니의 호통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나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풀린 듯했다.

“휴… 네 성격을 잘 아는 내가 애초에 비밀을 만든 게 잘못이구나.”

할머니는 한차례 더 한숨을 내쉬었다.

“자, 마루로 수박 먹으러 가자꾸나.”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죄인인양 조용히 수박을 먹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비밀상자를 들고 나오셨다. 할머니는 뭔가를 결심한 듯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린 네가 심한 충격을 받을까봐 숨겼는데 이젠 소용이 없구나…”

할머니는 상자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꺼냈다.

“단지 지주라는 이유로 재산과 아버지를 공산당에게 잃고 얼마 남지 않은 양식에 막내라도 남녘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라는 어머니와 언니, 오빠

들을 뒤로하고 난 고향 땅과 이별했지. 이 진흙은 그때 내가 가져온 북녘 고향땅 흙이란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고향의 향기를 잊지 말자고 고이고이 보관해 왔는데 벌써 이렇게 말라버렸구나….”

할머니는 젖은 눈시울을 추스르고 색이 바랜 사진을 꺼내 들었다.

“내 바깥양반이란다. 북녘에서 홀로 내려온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근본조차 모르는 여자에게 아들을 줄 수 없다는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 까지 해주었지. 그 때는 참 행복했지. 고을에 하나 있는 친석꾼 집안의 안방마님에다, 장남에 이어 둘째까지 가졌었으니 말야. 마을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에게 찾아 왔단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을의 기둥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졌단다. 마을사람들은 라디오로 들려오는 거짓 승전보에 속아 인민군이 코앞까지 온 줄 몰랐지.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인민군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자진하여 마을 대표로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재산도 인민군들에게 주었지. 그게 화근이었어, 화근…”

할머니는 떠오르기 싫은 기억을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드신지, 잠시 하늘을 바라다보았다.

“남편 덕분에 마을은 무사했지. 그러던 어느 날 인민군이 몰러가고 국군이 올라왔단다. 국군은 눈엣가시 같은 공산당에 자진하여 가입한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사복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할머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말을 잊지 못하였다. 잠시 후, “전쟁이 끝나고 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단다. 특히 첫째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 동생의 학비를 보태주었던단다. 첫째는 내가 고생을 덜 하길 바랬지. 첫째는 너무 착했어. 너무…”

할머니는 더 이상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어느 날 첫째는 HID라는 곳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을 들었지. 그 후, 반년동안 첫째를 보지 못했단다. 집으로 보내오는 돈들의 출처를 보고

어렴풋이 HID라는 곳에 있겠구나 했지. 반년 후, 첫째는 북으로 간다며 찾아왔지. 나는 눈빛을 보고 이미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대신 첫째에게 돌아올 때는 첫째가 좋아했던 수박을 많이 준비해 놓는다고 약속했지. 그 후, 첫째의 소식은 듣지 못했단다... 이 지폐들은 첫째가 HID에서 훈련수당으로 받아 보내준 돈들이지. 나는 자식과 생이별하게 만든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 대신 사진 하나 있지 않은 첫째의 흔적으로 남겨 두었지...”

이제 할머니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졌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언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그러고는 눈물을 닦고 추스린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하나 남은 막내를 악착같이 키웠어.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자 나는 막내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랬지. 하지만 빨갱이 집안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막내는 공무원시험 자격조차 얻지 못했지. 잠시 방황하던 막내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중국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을 했지. 하나 남은 자식과 또 이별하기 싫었던 나는 극구 말렸단다. 그러나 막내는 떠난다는 쪽지를 남기고 중국으로 가서...”

“할머니, 이제 됐어요.”

나는 할머니의 말을 끊었다. 할머니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그 뒤의 일은 잘 알았다. 할머니의 둘째 아들은 중국에서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공안에 잡혀 교수형에 처해졌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었다.

“저 새들을 보렴. 저기 저 새들은 북녘 땅에도 갈 수 있고 동쪽을 죽이지도 않겠지. 인간이 새보다 못 하다니 한심하구나... 이 지겨운 삶이 끝나고 다시 태어난다면, 더 이상 이별하지 않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구나... 나에겐 돈이나 사상 따윈 아무래도 좋아, 그냥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을 뿐이라구...”

나는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빌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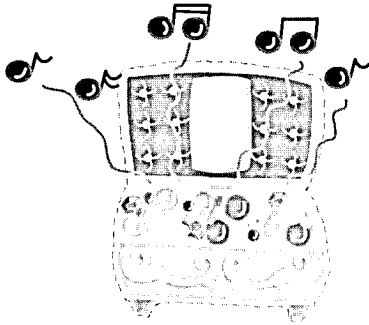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눈물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는 분단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자였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눈물은
우리민족의 눈물ियो,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

매미들도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지 더욱 크게 울어댔다.

상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의 보
물들을 보관해 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보물상자”였다.





통일열차

●● “자네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가 있어서 좋겠구려.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이만한 손주가 있을 텐데?” 옆 집 할머니는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집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한 할머니 댁을 찾아뵙게 되었다. 할머니 댁에는 이미 다른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였다. 오랜만에 온 손녀딸이니 만큼 들어서 오순도순 재미있는 말 많이 하라고 한사코 자리를 뜨시겠다는 옆 집 할머니를 붙잡고, 과자를 먹다가 내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우리 할머니께 달아드리니, 기어코 감정이 북받쳐 오르신 것이다.

“내한테도 아들 놈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놈이 일이 있다며 잠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해 놓고서 지금까지 안 오네. 무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서 내 손을 쓰다듬으시는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은반지는 그 빛깔만큼이나 할머니의 한이 서러있었다. 나는 서러워졌다. 우리 할머니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왜 너도 알겠다면, 그 경의선인가 뭔가 하는 철도가 북한이랑 남한이랑 잇는다제. 내 살아생전에 그 열차 타고서 내 아들 놈 보러 가고 싶데. 꿈에 서라도 보고 싶데.” 옆집 할머니의 서러운 읊조림에 우리도 서러워졌다. 그 날 밤 우리 할머니와 나와 옆집 할머니는 함께 지새웠다. 그리고 경의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붙어 있는 '반도국'으로서 동북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중심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는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뻗을 수 있으며, 동·서·남으로는 해양으로 뻗을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동북 아시아 주요 항로상에 위치하여 동북 아시아 각 나라로 화물을 수송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북한 지역을 통과하여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 횡단 철도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중계지 역할은 물론 1차 상품의 가공수출 중계지로서도 적지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번영의 중심지인 동북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한반도가 갖는 경제 지리적 강점을 국가 이익 확대에 활용하는 대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북한과 통일을 한다는 것이 웬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고 내키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의선을 잇는 것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이 이것만이 아니다. 남북간의 상호 교류 확대로 인하여 서로 간의 적개심을 점차 줄여가 민족성을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방비가 절감되며(아직도 남북한을 합쳐, 약 170만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국방비는 적어도 1/3이 줄어든다고 한다.) 문화재 답사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시라도 급한 서로의 언어문화 차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경의선을 잇는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서로를 헐뜯고, 불신하며 살아왔다. 마치 처음부터 땅덩어리가 둘로 나뉘어 서로가 아무 상관이 없는 남

남인 듯이 말이다. 하지만 내 곁에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옆집 할머니를 보았을 때, 헤어짐의 빈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의 가족애가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던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큰 일이기에 거창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여 쉽사리 일에 손을 대지도 못할뿐더러, 실행하였어도 생각한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힘을 절약할 수 있고,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통일로 가는 작은 것이란 무엇일까? 꼭 정의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식량 원조를 보낸다고 하면 '북한은 분명히 우리가 보낸 식량을 팔아서 무기를 살 거야! 그럴 바에는 아예 원조를 해주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나조차도 그때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차가운 마음으로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선행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알 것이다. 억 만금을 갖다 주더라도 얼음보다 차가운 마음이라면 결코 남북한의 결합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 또래의 북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침엔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갈까? 학교에선 즐겁게 친구들과 뛰어 놀 수 있을까? 북한은 춥지 않을까? 조금만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보다 따스하게 느껴질 것이다. 더 이상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웬지 가슴이 훈훈해졌다.

옆집 할머니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차가운 물이 가슴 밑바닥부터 천천히 나를 움아매려는 듯이 차오르는 끔찍한 느낌에 몸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기분을 좋게 하는 따뜻한 물이 내 몸을 훈훈히 만든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 나이 18살에 맞는 어버이날은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게만 감사하는 날이 아닌 내 조국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었다. 나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조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민족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나를 슬픔으로 몰고 가게 했던 옆집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날 꿈에서는 우리 할머니와 옆집 할머니와 내가 경의선 철도를 따라 북한으로 가는 꿈을 꾸었다. 경의선을 따라 가는 열차 밖의 풍경엔 '반갑습네다'를 부르는 북한의 꽃봉오리 소년단이 큰 붉은 꽃을 꺾고서 내게 인사를 하고, 옆집 할머니의 아들뻘 되는 어느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있었다. 참 꿈같은 꿈이었다. 이 꿈은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곧 현실이 될 거야. 꿈속에서도 나는 내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우리 온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그날은 기분 좋게 참 깊이도 잠이 들었다.



새끼손가락 걸며 꼭꼭약속해!

보고 싶은 친구야, 안녕?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한 민족, 한 핏줄을 나눈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아름다운 창 밖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느새 좋아지는 걸 느낀단다. 그렇지만 6월은 6·25라는 아픈 기억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6월을 아픔과 기쁨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어.

분단이라는 현실이 너와 직접 대화 나눌 기회를 앗아가고 휴전선이란 기나긴 철조망이 너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막겠지? 그럴지라도 나의 이 마음을 너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얼마 전 우리 학원의 한 학생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아왔어.

우리 학원생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주제가 통일에 관한 것이었어.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는데 아버지를 미쳐 남으로 모셔오지 못한 게 한이라는 아들의 이야기였지.

그게 바로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픔이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통일이 어서 되어 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단다.

친구야! 지난 월드컵 때를 기억하니? 우리나라가 16강을 넘어 4강에 들어갔잖니?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뻐했는데 너도 응원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아쉽게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지는 못했지만 너와 나,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응원해서 그 외침을 대표 선수들이 듣

고 한 골, 두 골씩 넣은 것이 아닐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너와 내가 손을 맞잡고 우리 대한민
국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할 날이... 우리 기도하자꾸나.

친구야! 이산 가족 상봉이 있던 날 그날을 기억하니? 얼굴 가득 세월의
흔적인 주름살이 있어도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한없이 웃고 계시던 할
아버지, 먼 친척이라도 찾은 게 너무 감사하다며 영영 우시던 할머니...

아마 그분들의 눈물과 웃음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께서 지으시는 미소
보다 맑고 밝은 운명의 강 물줄기 보다 더 깨끗한 것일 거야. 가까운 이웃
중에도 북에 어머니를 두고 오셔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너무나 마음 아파
하시느 모습을 본단다.

그걸 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더 잘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누가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겠니?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어서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잠시만 너희들과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픈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오죽할까?”

하시며 눈가가 축축해지신단다. 나 또한 그 아저씨께 더 잘해드려야지 하
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단다.

나는 지금 마음속에 그려본다. 너랑 만나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나라
에서 유행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떠오른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지금은 소망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질 거야. 우린 둘 다 너무나 그리워
하잖니? 만나서 너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겠는 걸? 처음엔 북한 말과 남한
의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어색할 것
같아. 전에 TV를 통해 북한의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공연하는 걸 보았는데
반세기 가 넘게 서로 교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투, 억양,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 첩엔 재미있고 우습게도 느껴졌단다. 우리 친구들끼
리 모여서 노래를 흥내내는 게 유행이 된 적도 있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난 믿어. 우린 한민족이고 한 핏줄이기 때문에 금새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통일이 되면 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어. 나는 너에게 내가 살고 있는 포항을 소개해 주고 싶단다. 너도 네가 살고 있는 북한의 아름다운 곳을 많이 소개해 줘야 돼? 특히 말로만 듣던 금강산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야. 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된다.

친구야!

이제 곧 6월 25일이 다가온다. 여기저기 신문이고 방송이고 또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지? 우리 학교에서도 포스터 그리기라든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거야. 전에는 그냥 상을 타기 위해 잘 그리려고, 잘 쓸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정말 통일이 되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할 거야. 내 소망을 담아 예쁘게 해 볼래.

친구야!

남북한이 서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작은 것부터 서로 하나씩 나아가도록 노력하자.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이해해 보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쌓였던 좋지 않은 마음이 풀어져서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뚫은 것처럼 우리도 휴전선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반드시 꼭 없앨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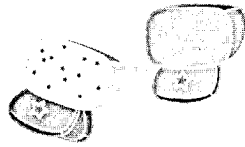
보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구야!

우리 새끼손가락 걸며 꼭 꼭 약속하자. 1000일 동안 평화 통일이 되길 바라는 기도를 하자.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알록달록 고운 무지개 다리를 놓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 구경할 그때가 어서 오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자꾸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너에게 선물로 보내며 마칠까

해. 내 고운 목소리가 매아리를 타고 너의 귓가에, 너의 마음에 닿길 바랄께.
언제나 건강하고 우리 약속 잊지 마. 안녕!

2005년 6월 1일
영원한 너의 친구 수민이가



랭면과 왕만두

●●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함경북도 단천군이 고향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로 피난 오셨다고 한다. 나는 설날 같은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북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먹기도 했다.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왕만두와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랭면은 북한의 대표음식이다. 할머니께서는 왕만두를 좋아하셨고, 할아버지는 랭면을 좋아하셨다. 명절 때면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북한식 왕만두는 우리나라 만두와 다르게 매우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한 그릇에 두개만 넣어도 그릇이 꽉 찰 정도로 크고, 고기와 야채를 버무려 빛은 만두 속은 그 맛이 최고였다. 랭면을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가 생각나면 랭면을 사 드시러 가시곤 했단다.

내가 일곱 살 때인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자주 가신다는 랭면집에서 랭면을 사주신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랭면 맛은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북한의 공산당들이 싫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하셨다. 남쪽으로 넘어 오신지 50여 년이 지났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북한말을 섞어 쓰셨다.

이것은 북한에서 오래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남쪽으로 내려오신 이후 무척 고

생을 하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먹을 쌀이 없어 굶기도 했고 겨울에 찬 방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 오시면서도 두고 온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 통일을 기다리셨다고 한다.

나는 가족과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외로워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50여 년이 넘게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사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신문을 보실 때 북한에 관한 기사가 있으면 다른 어느 기사보다도 더 자세히, 유심히 읽으셨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북한 소식이 나오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를 않으셨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여 큰아버지와 큰고모께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프로그램에 몇 차례나 신청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도 없이 끝내 소식은 오지 않았고 가족상봉은 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모습을 방송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시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내가 일곱 살 때 할아버지는 50여 년을 기다리던 통일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올해 얼마 전인 5월 20일, 푸르도록 시린 5월 하늘만큼이나 많은 그리움을 안은 채 할머니마저 할아버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 간에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교류 같은 평화로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 분위기다. 어제 신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전쟁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끼쳤다. 전쟁이 일어나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또 이산가족들이 생겨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다,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가슴 한 구석 눈물 자루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한 핏줄 한겨레이면서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아픔도 서러운 일인데 또 전쟁으로 그 아픔을 두 번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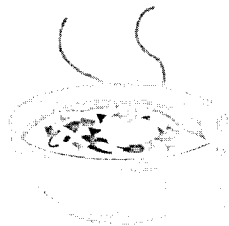
비록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이지만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친척, 가족을 그리워하시며 통일을 염원하고 계실 것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라도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을 상봉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 하셨던 북한 고향을 가보고 싶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척들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늘 고향을 그리워 하셨다고 얘기도 할 것이다. 모두 모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랭면도 먹고 할머니의 왕만두도 먹어 보고 싶다.

북한 랭면과 왕만두를 생각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하고 먼저 눈물이 나려고 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그리움에 쌓여 슬픔에 잠겨있던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내일은 가족들과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음속에 모시고 말이다.



민족통일의당위성

●●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50년이 넘도록 갈라진 땅과 양분된 이데올로기로 살아오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요 슬픔이 되었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서로에 대한 비료지원사업, 식량구호사업, 수해복구사업 등과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 특히 5년 전,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의 정상인 평양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은 갈라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통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현재의 이익만 보고 우리 민족의 먼 미래와 대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주장과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을 하나씩 생각해보자.

먼저 그들은 통일이 된다면 오랫동안 지속된 분단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념대립과 내부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염려가 아닐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민족이란 단어가 가슴 깊이 새겨져있어 필요로 할 때

면 언제든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한 예로 국제 경기에서 우리 민족의 태도를 살펴보자. 외국에서 북한의 경기가 있게 되면, 많은 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하고, 또 현지의 교민들은 응원단을 만들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낸다. 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집집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소리로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이런 것은 마치 통일이 된 듯한 뿌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은 하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남북통일 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독일의 상황을 예로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양분의 상태에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하였다. 그 후 독일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한 민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욱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에서도 보았듯이 민족의 합심이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하물며 독일인들이 극복한 일을 민족애가 뜨겁게 용솟는 우리 민족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통일 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의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들은 통일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한의 정치형태를 살펴보면, 남한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북한은 일인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해결책은 존재한다. 그 해결책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정치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남한은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일본같이 총리를 두고 여러 각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치체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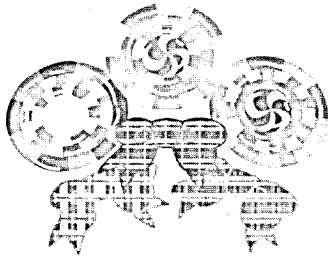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서로 통일에 대한 실천 의지와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잠시 지금도 혈육과 50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생각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주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산가족의 안타까움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자신의 부모, 자식, 형제와 50여 년간 떨어져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설령 짧은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과연 모두 나눌 수 있을까? 그 절실한 안타까움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마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 겨울에 나는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금강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처음 금강산으로 출발할 때는 나는 매우 긴장하고 걱정도 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였다고 해도, 그때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나라', '우리와는 다른 남의 나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처음의 긴장을 다 떨쳐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만난 북한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했고, 우리와 같은 피부와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또 북한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우리 문화를 북한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문화적인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경험한 일이 북한 사회에 대한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일부를 통해서 시작된 물결이 우리나라를 뒤엎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금강산 체험활동은 통일에 대한 나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통일에 대하여 진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설령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통일의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결만 있고, 속은 없는 그러한 통일의식은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가져올 수가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지한 의식을 지닐 때, 우리 청소년들은 21세가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화합의 통일, 자주의 통일, 완전한 우리 민족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남도

- 노래 / 421
- 한걸음 다가선 통일 꿈 / 423
- 육로 / 426
- 통일을 노래하며 / 428
- 꿈에서 현실로 / 430
- 사람과 사람의 길 / 433
- 비둘기의 노래 / 436
- 꿈 / 438
- 통일의 출발점, 육로 / 440

노래

●● 지난 겨울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중국 여행을 갔었다. 중국음식들은 모두 중국고유의 향이 있어서 먹기가 좀 힘들었다. 그러다 중국에서 먹는 마지막 점심이던 날 우린 '옥류관' 이라는 식당에 갔다. '옥류관' 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에다 지은 식당이었는데 식당의 규모가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동포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기대가 되었다. 중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배가 고팠던 우리일행은 정말 기뻐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형같이 예쁘고, 피부가 하얀, 한복을 입은 우리랑 똑같이 생긴 언니 세명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금강산타령', '다시 또만남시다' 라는 노래들을 불렀다.

"동포 여러분, 형제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잘있어라 다시 만나요, 잘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메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들 가슴이 찡하고 어느새 눈가에는 눈물이 그렇그렁 맺혔다. 어머니들도..., 일행들도...

음식들도 모두 우리들이 먹는 김치, 명태조림, 잡채, 식혜 등 모두 우리 입맛에 맞고 너무나 맛있었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만찬이었다. 역시 우리는 같은 입맛을 가진 한 핏줄, 한겨레, 한 민족이었다. 남·북이 두동강으로 나누어 지지만 앓았더라면 가족이 헤어져 50여 년 동안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남의 나라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치 머리에
가시 먼류관을 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아픔이 뺏 속 저리게 스며들었다.

언니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다시 또 만나서 같은 핏줄끼리 얼싸 안으
면서 서로의 약한 것은 채워주고, 좋은 것은 나누면서 통일을 하면 안될까?

몇 년 전 우리보다 소가 먼저 휴전선을 넘어가고, 비료가 실려가고, 쌀가
마니가 실려가고 금강산 뱃길이 열리고 꼭 꼭 잠꿨던 문이 열리듯,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열려서 통일의 그날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 갔으면...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모델이 북한에 가서 패션쇼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공장을 지어 만들어 낸 천으로 만든 옷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만들어 낸 옷을 남한 모델이 입고 패션쇼하는 세상이 왔다는 걸
보며 가슴이 뛰고 즐거웠다. 어린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좋은데 어른들은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된다고 반대하는 걸 보면 고개가 가우뚱
해진다.

그 사람들은 잘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된다고 통일을 하지 않는게 좋
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남한은 부자이고 북한은 환경이 파괴
되지 않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고, 군사비로 쓰는
돈을 경제에 보탠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잘 살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북한동포의 굶주림은 너무너무 슬픈일이다. 가끔 우리나라
가 빨간줄로 허리가 잘려있는 지도를 볼 때면 가슴에 피멍이 들 듯 아픔이
밀려온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
리나라 가수들과 북한에 관중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함께 부르며 눈
물 짓는 모습이 떠오른다. 어른들 말씀에 노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어렵게 만나서 만날 때마다 헤어짐
이 아쉬워 눈물 흘리는 일이 어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춤
과 노래를 즐기던 우리 민족이 슬픔없이 하나된 나라에서 즐겁고 흥이 나는
노래를 목청껏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한 걸음 다가선 통일의 꿈

●● 얼마 전, 내가 다니는 학급에선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당연하기 그지 없는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물론 찬성이 다일거란 생각을 한 채 찬성편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내 예상과는 너무 다른 광경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결과는 우리반 아이들 44명중에서 찬성이 22명이었고, 반대가 22명이었다. 난 한편으론 놀랍고 황당했지만 또 한편으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어이 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무튼 그렇게 토론은 진행되고 반대편이 먼저 의견을 말했다.

반대편의 아이는,

“저는 통일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가난해질 수 있을뿐더러 북한과 우리나라는 사과방식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해봤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고 난 이견 아니다 싶어 그 아이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은 내에 놓기 위해 손을 들고 일어났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렇다. 나는 이때까지 통일은 왜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일은 왜 되는지, 통일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하나도 제대로 아는게 없었던 것이다.

난 웬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기분이 들었고, 그날 학

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그래도 확실치 않아 나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런 끝에 깨달은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일단 첫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핵문제' 또는 '6자회담' 일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쪽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우리 한반도는 끝내 종전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휴전선을 긋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통일 밖에 없다고 본다. 둘째, 선진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을 세 나라나 두고 있다. 일본은 세계 경제력 2위, 군사력 5위로서, 요즘은 우리나라의 독도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나라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인 만만치 않은 나라이며, 중국은 아직까진 개발단계이지만 앞으로 20년이나 30년 뒤쯤엔 미국만큼의 세계최강국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주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합치고, 군사력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사왜곡을 당하고, 자기나라의 영토까지 뺏길 상황에 놓이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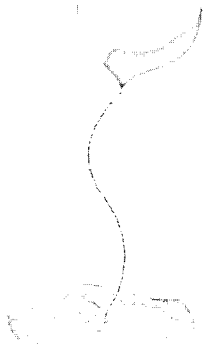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장 당연한 이유이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린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동일민족이면서 통일되지 못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독일도 통일하여 선진국이 되었고, 베트남도 평화적으로 통일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되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산가족이신 할머니가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상봉도 못하신 채 생사조차 모르신다. 이런 이산가족들을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통일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튼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나니 난, 웬지 모를 의무감이 생겼다.

통일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생각끝에 북한문화를 조금씩 알아가고 북한어린이돕기 같은 성금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져 우리모두가 노력한다면 통일은 우리곁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까이 다가서고, 마침내 통일을 하는 그날엔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일궈낸 커다란 열매가 될 것이다.



육로

“학생 얼음골 가려면 어디로 가야해?”

땀으로 젖어버린 교복셔츠 때문에 가방마저 축축해질 만큼 무더운 7,8월 이면 간간히 아릿하게 내 몸을 스쳐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을 벗삼아 위로 받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노라면 가끔씩 낯선 도외지인들에게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길을 묻는 이들을 만날 때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괜시리 붉어진 내 눈은 어느새 얼음골을 향해 있다. 여름철에도 겨울과 같은 칼 바람이 불어 나오는 얼음골에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북한군들을 피하기 위해 마을 분들과 추위에 떨며 건디다 못해 이미 식어버린 서로의 몸을 부둥켜안으며 돌아가셨다. 얼음골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속에 묻혀버린 동족상잔 비극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그저 신기한 호기심 섞인 눈으로 구경하고 돌아갈 뿐이다.

이렇듯 아직도 이 땅에는 50년 전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인한 아픈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꾸준한 교류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 비극의 원흉인 굳게 닫힌 38선 철문은 아직도 통일을 갈망하는 간절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막아서고 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경의선철도 복원공사,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건설 등 수많은 화해와 협력과 교류의 손길이 오고갔고 그 계기로 인해 남북간의 거리감은 사라진 듯 느껴진다. 남북은 지난 50년

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최근 5년간 수많은 노력으로 우리들 스스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고 있다.

이제 금강산 관광에도 육로 길이 열려 불과 20분이면 북한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만나 볼 수 있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머지 않아 그리 되리라 생각한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 민족은 지난 역사의 기록에서 수많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침략받아 왔다. 그런만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우리 땅 우리 겨레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적 성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처음 육로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듯 앞으로는 연결된 남북의 경의선 철도가 러시아 횡단열차 중국횡단철도와 이어져 빠르고 용이한 물류수송과 해외여행 등 남북한 사회에 가져다 줄 변화와 발전은 무궁무진 하리라 생각된다. 육로가 열리고 철도가 놓이면 좀 더 자유로운 왕래로 인해 남북의 균형적인 국토 경제 발전을 꾀한다면 자연스레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이다.

지난 5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룩해온 많은 일들은 결코 단시간에 이룩된 것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 노력 결과의 산물이다.

한발한발 다가서고 한발 양보하며 꾸준히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중심되는 나라 신흥강국의 대열에 오른 나라, 세계 최고의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한 국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육로란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고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레젤이라는 학자는 “비극은 항상 두 번 발생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라는 말을 남겼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지난 50년의 세월은 비극이었으며, 전쟁과 분단의 참혹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과 화해와 교류를 해나가야만이 두 번째 희극과 같은 어리석은 비극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국이 소중하고 고귀하듯이 지금껏 이룩하지 못한 통일의 길이 허물어진 철문 위로 갈라진 내 나라 내 땅에서 피어나길 기원한다.

통일을 노래하며

●● 나는 어린시절을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에서 살았다. 그곳은 가는 곳마다 군부대와 초소가 보인다.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지키고 있는 군인아저씨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통일전망대를 자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보면 북한 초소가 바로 눈앞에서 보이고 임진강 건너는 북한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그렇게 가까이에 북한이 있다는게 너무 놀라웠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강 건너편에 북한친구가 받을 것만 같은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다. 그런데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갈때마다 울고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고향을 가지 못해서 울고 계신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 이후 내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한 민족이 오고가지 못하게 두개로 분단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뿐이라고 한다. 6·25 전쟁이 일어난 후 55년을 가족이 서로 헤어져 사는 셈이다. 너무 오래 헤어져 살아서 이제 서로 말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말을 안해도 우리는 속상한데 한 민족이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이런 비극을 더 이상 격지 않으려면 이산가족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모여 아리랑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전쟁준비를 한다고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가기 싫은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북한 친구들이 더 이상 굶어 죽거나 다른나라로 탈출하다가 철조망에 걸려 잡히는 불쌍한 장면을 뉴스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감히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한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북한을 미워만 하지말고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화합을 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통일은 금방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북한이 못산다고 비웃지만 말고 굶어가는 북한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절약해서 사랑의 저금통을 채울 것이다. 내 작은 결심이 남북통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 통일이란 노래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울려 퍼져 아리랑을 함께 부를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오늘밤엔 “우리의 소원 통일”을 노래하며 통일이 어서 되길 기도하며 자야겠다. 우리 형아가 다녀온 금강산에서 북한 친구들과 아리랑을 부르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꿈도 꾸며...





꿈에서 현실로

●● 우리는 잠을 자면서 많은 꿈을 꾸다. 기쁜 꿈이건 슬픈 꿈이건, 그 꿈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깊고 오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의 꿈'이다. 어언 남북분단 근 60년, 그 분단의 아픔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통일을 염원하며 현실로의 실현을 바라고 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일이다. 너무 오랜 꿈인 탓에 그 꿈을 버리거나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너무 긴 기다림의 시간은, 본래의 생각과 염원을 잊게 한 채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토록 민족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통일이, 이제와서는 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긴 시간은 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제는 이산가족 세대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통일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오랜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좋았던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막연한 꿈만 키워왔기 때문이 아닐까? 통일은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현실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내일 열리는 6·15기념 대축전을 통해 지금의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핵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관계이지만, 이전 보다는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다림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옛 일화들을 살펴보면, 남에게 잘해주며 좋은 관계를 맺는 듯하지만, 뒤에 가서는 배신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꼭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이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서로의 주장만을 관철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 즉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이유도 서로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통일의 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는 통일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어들이며, 그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준비를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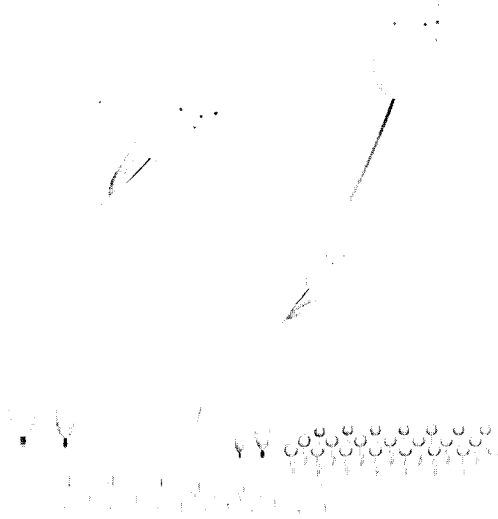
통일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통일 세대는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부족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로는 '통일'이라는 원대한 민족의 꿈의 현실화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성숙한 민족관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해도, 꿈과 현실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한들 현실의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한 이상만으로 통일을 실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해가 되는 통일은 되도록 피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 꿈을 키우면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통일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 해도 그 당사자들의 의거가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모두가 현실을 파악하며 민족의 오랜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을 봐야 할 때다. 모두들 깊고 오랜 꿈에서 벗어나 통일, 그 환희의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자.





사람과사람의길

●● 바야흐로 격동과 혼란의 21세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 20세기 한반도는 그 어느 역사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제국주의의 만발로 기억하기도 싫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눈물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20세기의 역사를 묻어놓고 한 세기와, 또 천년을 우리는 건너왔다. 아직 저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난 얼룩진 역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 그 무슨 말을 해도 중요하고 꼭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통일이다.

아직 통일은 멀고 또 북은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통일은 머리 아프고 돈만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도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이가 소떼를 몰고 북으로 가는 것을 TV에서 보았다. 어린 나이에 왜 저러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바보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몰고 간 소떼가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었다. 그렇게 하나씩 시작된 남북교류는 2000년 6월 15일에 하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재기한 이산가족상봉은 당시 어렸던 나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모든 것이 재기된 것이라 믿는다. 소떼를 몰고 간 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의 대북사업과 남북의 열렬한 지원으로

남의 금강산 관광이 1998년에 시작되었다. 아직 기회가 없어 금강산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지난 겨울에 다녀왔다. 개골산은 눈과 아름다운 경치로 맞아주었고 북에서는 친절로 대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에서도 그렇게 주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고는 했다는 것이다. 먼저 금강을 다녀온 녀석이 부럽기도 했지만, 차를 타고 금방 안 걸린다는 친구의 말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그렇게 지척에 두고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북에 가장 가까이 가본 것이 통일전망대에 가본 것이다. 전망대를 향해 가는 차안에서 설레고 긴장되었다. 통일전망대에 도착해 교육을 받고 위에 올라간 순간 눈 앞에는 금강산과 푸른 동해가 펼쳐졌다. 그다지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감흥은 여전히 남아있다.

도로만 놓이고 철로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가사가 있다. 예전에는 신의주에서 서울행 기차표를 판매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를 달리던 철마는 지금 녹이 쓴 채로 늙어가고 있다. 다시 달릴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남과 북의 철도가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철도를 타고 우리 민족이 교류를 하면 자연스레 가까워지고 생각의 차이도 많이 좁혀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더 할 수 있어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그 어느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21세기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을 아쉽게도 한반도에서 차지했지만 그만큼 발전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야말로 한반도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통일을 위한 방법의 선두에 남북교류가 서야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광, 그리고 공단사업 추진과 합

계 길을 뚫어야 한다. 현재 철도, 도로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보다도 남과 북의 마음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북이 적대시 되고 있지만 속에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등이 좋은 예이다. 남북의 마음의 길을 더 닦고나서 언제라도 몸이 갈 수 있도록 철도, 도로를 닦아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으면 한다.

2006 독일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남은 진출했고 북은 아쉽게 탈락했지만 북에 보낸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이들이 또 누가 있을까? 비록 아직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의 길로 통해있다. 마음과 몸의 길을 깨끗하게 닦아 다시 만났으면 한다. 육로를 통한 관광이 아닌 육로를 통한 고향길이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비둘기의 노래

●● 내가 1학년 때인가, 북한 평양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공연 마지막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때, 방송으로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우리 가족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고 다함께 노래를 불렀었다.

나도 노래를 부르며 어서 통일이 되어 남과북,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첫째 소원은 통일, 둘째의 소원은 민족의 자주통일, 셋째 소원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하셨다.

나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들이 사회공부를 할 때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 한국까지 배울 수 있어야겠다고 느꼈다.

지금 우리의 제일 시급한 통일 관련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이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아픈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달이 6월달인 것 같다.

얼마 전, 진해 해양공원을 가족과 함께 간 적이 있다.

제법 오랜만에 타는 배는 재미있었지만 너무나 짧은 거리에 실망을 하면서 도착한 곳은 해양공원이었다. 해전사 체험관에는 퇴역 군함인 강원함이

있었는데 그 배를 관람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6개월간 6·25전쟁을 겪은 강원함을 자세히 보면서 가슴아픈 역사와 6·25전쟁을 간접적이거나 체험하게 되어 무척 의미있는 가족 나들이였다.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만나 끌어안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곤 하는 가슴아픈 장면을 보게 된다.

가족이 만나 같이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산가족들은 왜 반세기나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지 정말 안타깝다. 해양공원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아픈 역사이고, 현실적인 문제인 이산가족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통일이라고 하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번 학교에서 내가 전교어린이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주 생활계획이 '북한을 바로 알자' 였는데 아이들이 반응없는 얼굴로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발걸음은 조금만 더 서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데에서 부터 시작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작년에 배웠던 5학년 음악책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노래 대신 '우리의 소원은 함께 만드는 세계제일의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없어지지 않을까?

꿈

●● 나에게는 꼭 이뤄졌으면 하는 꿈이 있다. 그 꿈은 바로 남북통일이다.

바람이나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굳이 희망차고 설레이는 꿈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친구의 작은 아버지이신, 나에게는 할아버지뻘이 되는 한분 때문이다. 이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6·25전쟁 때 형님과 함께 경남 진주로 월남하셨다. 남한에세 생활하는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을 많이 그리워하셨다. 자신의 고향인 북한을 동경하는 할아버지의 행동은 결국 남한에서는 온전히 살 수 없게 되는 굴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기관이나 경찰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할아버지는 형수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밀항을 하셨다. 일본으로 건너가신 후에는 '재일본조선인연합회'라는 친북한계 재일본 한국인 단체에 가입하여 화가로 활동하시며 남한의 가족들과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상류층 생활을 하셨다.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광주 비엔날레에도 할아버지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남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후 남한에 있는 할아버지의 형님 집으로 한 일본인 기자가 찾아왔다. 일본 조총련 출신의 북한화가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활동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연락이 끊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일본인 기자 얘기로는 북한에 가서는 남한의 생활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로에서 많이 방황을 하신 것 같다.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의심받아 밀항을 하였고,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을 의심받아 숙청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처음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많이 놀라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상으로 인해 남한에서도 안주를 못하고 북한에서도 안주를 못하신 할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것이 바로 분단국가의 아픔이 아닐까 한다. 하나의 통일국가라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할아버지의 예술성을 국제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이것이 내 꿈이 남북통일이 된 이유이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해져 경제력이 한층 더 신장되어 동북아 시대의 주역을 뛰어넘어 세계의 지도국가로 자리 매김함은 물론이고 할아버지와 같은 사상이나 이념으로 인한 피해자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할아버지의 뛰어난 작품은 우리 예술계에 큰 업적으로 길이길이 빛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한다. 또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없을 것이다.

어서 빨리 나의 꿈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나는 열심히 배워야겠다.

통일의 출발점, 육로

●●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낮선 방에서 잠을 청한 우리 가족은 비 때문인지 불편한 잠자리 때문인지 계속 이불만 뒤척였다.

내리는 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8월의 더위는 하늘을 찌르고, 잠을 청하기 위해 억지로 이불을 덮고 있던 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민박집 처마 끝에서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잠자리가 불편하지? 이 근처에 여관을 못찾아서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솔직히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을만 해요. 좀 더운 것만 빼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다른 친구들은 해운대며 경포대처럼 바닷가로 피서를 가는데 이런 곳으로 왔으니 말이다.”

“금강산이 어때서요. 다른 애들은 오히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예요.”

“그래도 계곡에서 오래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는 것도 아니라서 네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아버지께서는 끝이 다 된 담배의 불을 끄고 새 담배에 불을 붙이셨다.

“네 어머니도 마지못해 따라오긴 했지만, 한달 생활비 몽땅 털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일 땐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구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 10원에 벌벌거리며 옷 한 벌 재대로 못 사입는데 말야.”

비내리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한숨 소리는 눈을 통

해 내 몸으로 전해졌다.

“세기야, 이제 그만 들어가 자자. 한달 생활비 들여 온 여행, 잠 때문에 망치면 네 어머니 아마 내 밥상도 안차려 주려고 할거야.”

담뱃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어깨가 물에 젖은 빨래처럼 늘어져 있었다.

북으로 넘어가는 차에 올랐다. 겨우 금강산까지 가는데 출국 심사를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50년의 세월이 가지는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치 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광경을 옮겨다 놓은 듯한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짐부터 풀었다. 아직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큰 드라이 아이스 장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았다. 솔직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화를 내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전체가 느낀다는 경제 불황 속에서 콩나물 한 움큼 더 담으려고 시장 아주머니와 다투가며 한달을 살아가는 어머니께 셋이 합쳐 50만원이 넘는 여행을 제안한 아버지를 나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2박 3일 일정으로 시작된 여행은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어졌다. 처음 학교 친구들에게 피서를 금강산으로 간다고 하자 모두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보았다. 적어도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피서란 튜브를 허리에 차고 물가로 놀러가는 물놀이를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아버지께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 등산을 간다는 말에 조금 화가 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넓게 펼쳐진 나무들의 푸르름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은 하늘 넘어로 날아가 버린 뒤였다. 그 경치들과 계곡, 뛰노는 동물들을 보며 왜 여름의 금강산을 봉래산이라고 하는지가 알아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박혔다. 적어도 이때까지 다녀온 여행들 모두를 다 합친 것보다는 더 즐거웠다.

내일이면 돌아가게 되는 마지막 날 저녁, 이틀간의 힘들었던 산행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여행을 처음부터 반대한 어머니도 길으로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만족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머지 않아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할 분위기였다. 그때, 아버지께서 숙소의 배란대로

어머니와 나를 오라셨다.

“내가 사실은 가족들에게 못한 말이 있어 이렇게 불렀어.”

아버지의 말보다는 배란다 창문 앞에 차려진 북어포와 술잔을 보고 놀랐다.

“실은 며칠 전에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 세기 큰 아버지가 북에 살아 계시다는 서신이었지. 그런데 만날 수는 없다는 거야. 이산가족들은 나이순으로 만남을 가질 기회를 주는데 내 나이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대.”

어머니와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버지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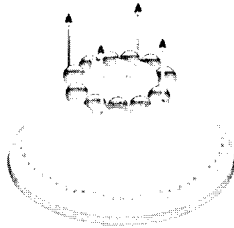
아버지는 대구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사셨고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셔서 다른 친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서울이 고향인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내려오다 아버지의 형을 이모 가족에게 잠시 맡긴 사이에 1·4후퇴로 헤어지셨다고 하셨다. 당시 껌먹이었던 아버지는 그 후 형의 존재를 모르고 사셨다고, 할머니 또한 아버지께 상처가 될까하여 말씀을 아끼셨다고 한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어머니도 아무런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아버지를 꼭 안으셨다. 두 분 사이에 맞닿은 살결이 말 한마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뜻을 담고 있었다. 그 후,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등지셨다는 이모 할머니 내외께 절을 하셨다. 계속 말은 않으셨지만 그 공간에 있었던 그 누구도 말 없이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바퀴 밑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2000년 대통령이 지나갔던 길, 용천역 폭발사고 구호품이 지나던 길, 남북회담이 있으면 고위급 인사들이 지나던 길이다. 전쟁의 상처와 전혀 다른 이 길, 헤어져 살아온 50년의 세월이 이 길을 통해 열리고 있다. 분명 이 길 하나가 통일을 만들 모든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길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은 확신한다. 통일의 그날을 지금은 미지수로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길의 꿈에서 다짐했다. 통일의 종착점이 다가온 날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이 길의 모래한줌 퍼다가 내가 사

는 집 주춧돌 밑에 종착점이 되는 곳의 모래와 함께 묻겠다고 말이다.

6·15 남북공동성명 5주년, 분단 50주년이 되는 올해, 내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 / 447
- 하나되어 21세기
으뜸 국가로... / 450
- 손을 잡다 / 453
- 금강산을 다녀와서 / 456
- 모두가 하나되어 / 458
- 아름다운 씨앗 / 461
- 대문앞에서의 깨달음 / 464
- 역사는 흐른다. / 467
- 시선의 끝 / 470

제주도



‘더 크하나가 되기 위해서’

●● 비가 오다가 그친 일요일 오후에 나는
엄마와 함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다. 빨래를 다 널고 베란다 큰 유리문
을 열어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했다. 오늘따라 남쪽에 떡 버티고 서
있는 한라산이 더 가까이 와 있었다.

“지연아, 동생 준호가 좀 더 크면 우리 가족끼리 언제 저 한라산에 올라
볼까? 백록담의 물도 보고 말야.”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어디 한라산 뿐이겠니? 금강산이라도 갈 수 있지.”

언제 오셨는지 아빠께서도 베란다에 들어와 계셨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 말이에요?”

“그럼, 준호가 좀 더 자라야겠지?”

“아빠, 난 싫어요. 금강산 여행가면 감시를 당한대요.”

동생 수연이는 반 친구에게 들었다며 금강산 여행가는 것을 싫어했다.

금강산이라는 말에 4학년, 9월 쯤에 열렸던 통일축전이 생각났다. 우리
가족은 나들이 삼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예까지 구경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북한 동포들을 보았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것만 빼고
는 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구별이 안 되었다. 남과북이 함께 모여서
체육경기도 펼치고 예술공연도 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서커스 공연은
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정말 잊지 못할 나들이였다.

“지연아, 지연아!”

생각에 깊이 빠져있었나보다. 언제 거실로 들어가셨는지 엄마께서는 여러 번 나를 부르고 계셨다. 나는 대답대신 거실로 들어왔다.

마른 걸레로 피아노 위에 먼지를 제거하시던 엄마께서는 그 위에 있는 지구본을 말끔히 닦으라며 내게 걸레를 넘기셨다. 나는 지구본을 거실바닥에 내려놓고 닦기 시작했다.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닦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동생이 앞에 와 앉아 있었다.

“준호야, 이것이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말야.”

나는 동생에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호랑이가 서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조그맣잖아.”

동생이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작아 보였나 보다.

‘이런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알면 더 작다고 하겠지?’

우리나라가 남과북으로 나뉘어진지 벌써 60년이 되어가고 있다. 나만 한 어린아이였을 때 헤어졌던 식구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내가 이산가족이었다면 60년 동안이나 만날 수 없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토록 보고 싶은데도 만날 수 없는 걸까? 60년 전 전쟁의 후유증이 참 길기도하다. 어서 통일이 되어 헤어졌던 가족들이 자유롭게 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군 할아버지의 한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함께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라진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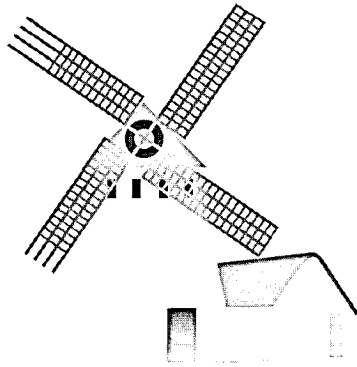
제주도에서는 북한에 감귤을 여러 차례 지원해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주도민들 수백명을 북한으로 초청해주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동생 준호가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알기 전에 통일이 되어 가족과

함께 금강산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 동생 수연이도 가려고 할 텐데….

집 안의 이곳저곳 청소를 마치고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그리고 유리문을 닫으며 다시 한라산을 보았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과 함께 한라산과 금강산을 올라가서 그곳의 그 웅장한 모습을 웃으면서 직접 꼭 만나보고 싶다.



하나되어

리세기 으뜸 국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는 2000년에 처음 열렸던 제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사람들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눈물로써 부르던 노래이다. 50년만에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났음에도 또 다시 헤어져야만 했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통일'의 벽은 너무도 컸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마다 남북 통일에 관한 글짓기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아마도 통일이 멀게만 느껴져서 겠지... 통일..., 글자 그대로 한데 뭉쳐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쉽고도 어려운 일을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두 손이 모아져야 비로소 '짝' 하는 박수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 손으로 박수를 치는 것과 같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같은 문화를 이루고 살아온 한민족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겨루고 있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단군시대부터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며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 35년간의 일본의 탄압에도 불

구하고 한데 뭉쳐 나라를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 했던 우리, 이제는 그 하나 된 모습으로 찾게될 통일된 국기를 꿈꾸 보려한다. 서로 떨어져 지낸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 지역을 다른 나라의 땅으로,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한민족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은 남과 북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던 뜻 깊은 세계적 축제였는데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한반도 국기를 들고 입장 하고, 남한이 경기가 있을 때나 북한이 경기가 있을 때 서로를 한마음으로 응원함으로써 한반도에 그어진 휴전선은 빨간선에 불과할 뿐 우리들의 하나같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서로 총을 겨누며 싸웠지만 결국 하나임을 깨닫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우리 모두는 통일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감정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지속된 협력과 교류를 실천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얻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독일의 일은 서로 간의 협력과 교류가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가를 통해 협조를 얻어내야 하며, 경제 협력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둘째, 남북의 국방비를 줄이고 남과 북의 기술과 자원을 합쳐 경제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셋째,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높여 줄 것이다.

나는 가끔 책상 앞에 앉아 하나된 나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해본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불리며 계절에 따라 옷을 달리 바꿔입는 빼어난 자연경관의 금강산으로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는 모습, 평양 모란봉에 서서 북한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여 노래하는 모습, 옥류관에서 점심으로 냉면을 먹는 모습... 생각만해도 가슴 설레고 즐거운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언제쯤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북한은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같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한반도에 선을 긋고 남과 북으로 구분지어 적으로 살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노라며 서로가 다짐하며 다시 예전의 하나된 모습을 꿈꾸고 있다. 남북이 서로 겨루고 있는 분단 상황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21세기에 세계 속의 으뜸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남과 북은 이제 서로에게 꼭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나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남과 북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또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하고 소망한다.

“북에 있는 친구들아, 이 땅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 서로 얼싸 안고 흥겹게 춤을 춰보자구나.”



손을잡다.

●● 동생과 싸웠다. 싸움이라기에도 아주 부끄러울만큼 사소하기까지 한, 그냥 조금 생각이 어긋난 일일 뿐이었는데, 싸움의 씨앗이 되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엔 서로의 잘못에 대한 말과 사소한 불만을 토로할 뿐이었는데, 하나 하나 따지고 반박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험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격해진 싸움은 물건을 내던지기에 이르렀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분명치 않은 싸움은 그렇게 계속 커졌고, 큰 소리를 쾅하고 낸 후에야 조금 잠잠해졌다.

다투던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얼굴에 잔뜩 인상을 쓴 채로 그저 입만 꼭 다물고 있을 뿐, 둘 중 어느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 생각없이 켜 놓은 TV, 싸우느라 뭐가 방송되는 지도 몰랐는데 아마 특집방송인 모양이었다. 큰 회장, 아나운서의 한껏 격양된 목소리, 회장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감동의 상봉 현장이라는 자막, 아! 몇 번째 남북회담이 성립되었다는 말을 얼핏 듣기는 했었지.

하얗게 머리가 새신 할아버지 한 분이 크게 울고 계셨다. 맞은 편에 계시는 분은 걷지도 못하실만큼 기력이 쇠하신 할아버지 한 분, 이제는 늙어버리셨다며 애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두 분은 형제라고 하셨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두 분은 왜 그리 행복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는지….

수십 년 만의 만남. 그 긴 시간은 감정을 뛰어넘고 미움을 뛰어넘어 기쁨

과 안타까움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너무 오래 헤어져있었다. 너무 오래 그 손을 잡지 못했다. 못난 일, 잘한 일은 수십년의 세월에 이미 흩어져버렸다. 만나고 싶고 만났기에 기쁨 뿐이었다.

회장에 찬 눈물과 기쁨으로 내 볼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지금 동생은 뭐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삼 궁금해졌다. 아직은 심통이 나있는지 뼈죽, 입이 나와있다.

먹고 있던 빵을 듬뿍 잘라서 내밀었다. 깜짝 놀란 모양이다. 내가 뭘 먼저 주거나 내밀거나 한 것은 처음일테니까.

다시 눈을 돌린 화면 속에서는 지난번 6월15일 남북 정상 회담의 감동적인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과 북의 대표자 두 사람이 양 손을 꼭 붙잡고 웃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흐뭇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대립하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마주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웃음, 기쁨의 환호성, 화면 가득하고, 넘칠만큼 충만한 기쁨….

“미안해.”

쑥, 손 하나가 내밀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생 녀석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뭔가 쑥스러워 하는 듯한 모습에 훗, 하고 웃음이 나왔다. 남아있던 앙금까지 웃음에 함께 흘러버리고는 내밀어진 손을 꼭 붙잡았다. 그래도 형제니까, 형제니까! 험한 말을 내뱉고 던지고 싸워도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고, 조금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고 등을 돌리려고 하게 될 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자꾸 일방적으로 보이고, 늦은 것 처럼 보이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

그것이 나와 내 동생의 이야기이고, 꼭 합쳐지고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이야기라고 나는 믿는다. 조금씩, 조금씩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의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쁨의 그날도 아마 곧 올테니까 말이다.

TV 속의 남북의 모습은 우리 형제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싸우고 다투어도 손을 꼭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라는 것이...



금강산을 다녀와서...

●● 우리학교는 올해 3월달에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을 다녀왔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 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어렵게 가게 되었다. 가기전 설레임과 북한에 대한 궁금증과 부푼 기대감을 안고 금강산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생각한 것과 달리 정말 북한이라는 느낌이 안들었다.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는 절차는 어려웠다. 남측 CIQ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북한 CIQ에서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다. 한 민족인데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힘들게 간 북한..., 우리는 작은 숙소에서 묵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신발과 옷을 가져오셨다. 우리는 이게 뭘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북한어린이들이 신는 신발과 입는 옷이라고 하셨다. 북한어린이들은 신발이 다 찢기고 낡아야 버린다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작아서 발이 아프다 싶으면 거의 다 버리는 편이다. 사실 나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옷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북한어린이에게 절약정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다음날 금강산으로 갔다.

북한 가기 전 북한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은 정말 북한 사람은 사납게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하였다.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생각과는 달리 정말 상냥하시고 여자 분들은 정말 예쁘게 생기셨다. 목소리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 거랑 똑같다. 정말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돌을 보면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이라고 써져있다. 북

한에서는 김일성 장군이나 김정일 장군에 “장군”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면 잡혀간다고 하였다. 그 만큼 북한은 정말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인거 같다.

우리가 북한에서의 2박 3일을 보내고 북측 CIQ를 났을 때 원래 그곳에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다. 그곳은 기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친구가 장난으로 그곳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2장씩이나 찍었다가 카메라까지 뺏길 뻔했는데, 선생님께서 부탁을 해서 벌금만 냈다. 다시 한번의 안타까움이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 무섭기도 했다. 한 나라에서 2개의 기지가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다른 말도 있다.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말도 다르다, 목소리와 얼굴도 약간 다르다.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무력통일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통일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인 것이다.

“북한 아저씨들! 핵 같은 무서운 거 만들지 마시고 이젠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하나되어

●● 통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듯 5월의 햇살이 뽀뽀 일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는 것 같다.

따뜻한 5월이 한창인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내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남한의 어린이와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문제를 맞추면서 정답게 웃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는 훈훈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권위있는 잡지에 남북한을 더욱 좋은 계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실려서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기도 했다.

남북한이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처럼 나에게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재미와 기쁨을 느꼈던 시간이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7월, 우연히 참석하게 된 통일캠프에서 나는 남북한에 대한 끈직한 나눔의 정을 가질 수 있었다.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탈북한 청소년들과의 만남이었다.

처음 캠프가 시작되어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웬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한 조에 편성된 10명 가운데에 3~4명 정도가 탈북청소년들이었지만 나는 탈북청소년들보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다.

처음 접해보는 북쪽사람들이라 나는 탈북청소년들과의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에서 우리팀이 승리하면서부터 차가운 얼음같은 내 마음은 어느새 녹아 있었다.

탈북청소년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나는 북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다.

쉬는 시간에 탈북청소년들이 말해주는 북한의 문화와 생활모습 등 우리와 약간씩 차이가 나는 문화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빈부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마르게 되었고, 너무 음식이 부족한 탓에 탈북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동안에 몇몇 탈북청소년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설명하는 도중에 북한말도 섞여 있어 분단의 아픔을 잘 나타내었다.

캠핑이 무르익어 갈 때쯤에 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은 오늘 이 캠프에 참가하게 된 것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온 새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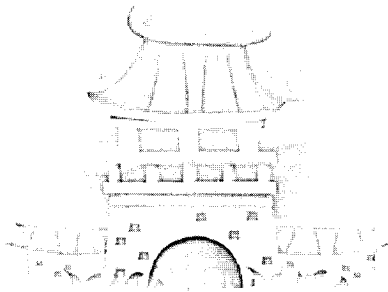
자유를 찾아 날아들어온 새들의 마음처럼 탈북청소년들도 얼마나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을까? 자유를 찾은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캠핑을 하는 동안에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는 한 오빠의 모습, 남북한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모듬활동을 하는 모습... 이들 모습 모두를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이며 한핏줄로 이루어진 형제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캠프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2박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으며 내가 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다.



아름다운 씨앗

‘남·북 차관급 회담 결렬.’

며칠 전 신문 1면에 큼지막하게 나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접하는 주제이지만, 사실 ‘남북’ 관련 이야기는 그리 깊게 관심을 갖지는 못하는, 그저 ‘가깝고도 먼’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답답했다. 한두번도 아니고, 안그래도 정체전선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재개된 이번 회담마저 예정시간을 30시간이나 넘겼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게도 의견차이란다. 의견차이가 몇 번이나 되는지. 어찌면 자꾸만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내 눈에서 이 문제가 멀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조금 덧붙이자면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덕분에 통일문제를 더 유심있게 생각해 봤다. 냄비근성일지도 모르나, 그래도 분명히 우리 세대에 물려질 가능성이 높은 이 문제를 미미하나마 자각한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실 연일 빠지지 않는 화제가 이것이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아 보인다.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겨우 결렬이니 동결이니 해가며 답으로 장식을 하다니...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만 기사를 내보낸다면 태도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입이며 몸인 정부와 언론이 우리를 대표해서 잘 해주었으면 한다.

몇년 전에 북한의 이슈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까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아마 늦은 밤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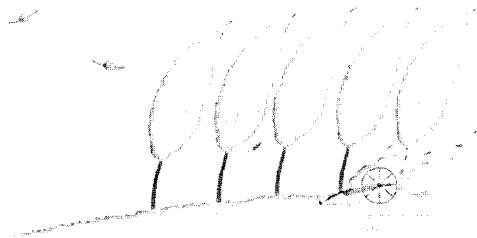
밀렸거나 사라진 것 같다. 아마 시청률이 제 몫을 했을거다. 적어도 지금은 나라도 나라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 세태가 안타깝다.

문득 끊어진 전선이 다시 이어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했다. 예전에 얼핏 들은 바로는 통일을 하면 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심지어는 목욕탕도 무료가 된다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다.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이해관계가 세대가 아닌 것이 참 아쉽다. 평상시에 나는 책을 읽든 대화를 하든 그 상황에 몰입해서 그들의 입장이 돼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상황만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이야기 정도로 밖에 다가갈 수 없다. 만약 그분들과 똑같은 입장이거나 적어도 반 이상은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민족이 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생각해낼수 있을 텐데. 그래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속의 그 순수한 바람만큼은 모든 이들의 것일 것이다.

매번 대선이나 총선을 할 때, 눈부신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다. 듣기만 해도 내일 당장 통일이라는 것을 이루어 낼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리이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마무리가 돼야 할 사안인데 말이다. 그렇게 매번 들고 나오는데 질리지도 않을까? 정말 그럴 사람이 있다면 이제 선거권이 있는 나도 자신있게 밀어 줄테다. 거창한 협상도, 여러 정치인들의 방북행위도 솔직히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없다. 그냥 양 쪽에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기 위한 과정이라지만 사실 그보다 남북을 더 묶어둔 것은 체제와 이념이 아닐까? 그것만 없다면 말 그대로 서로 손 잡는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은 물어두고 그저 한마음이 되는 것만을 바랄 뿐이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니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대신, 한 민족의 통합과 번영이 달린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었으면 한다. 여기에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서로의 이해타산이 걸려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별로

우리들을 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다. 말로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양보와 타협'이 최고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좋은 말이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을 새겨드리고 싶다. 더불어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관심도 필요하겠다. 국민들에겐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벌써부터 우리 모두가 희망과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씨앗'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기다려 진다.



대문앞에서의 깨달음

●●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오는 반복생활을 난 많이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만 열리던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려면 15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활용해 열심히 문을 따고 들어가야만 하였다.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달을 반복해야했다. 그리고 열면 열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문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나아져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태산이었다. 문이 그때따라 다른 때보다 잘 열리지 않아서 킁킁대고 있었을 때 우연히 우리집 앞을 지나가시던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길래 자신의 집앞에서 그렇게 끙끙대니?”

할아버지 말씀에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기, 그게요. 얼마 안되서 잘만 열리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 대문처럼 보이는데...”

난 대문이 잘 열리지 않는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듯 당당히 말하지 못하였다. 스스로를 더 잘 아나보다. 마음 한 구석이 방망이질을 해대었다.

“당연히 네 눈에는 그렇게 멀쩡해보이겠지. 보연아, 대문을 통틀어 모든 것은 사람과 같이 속과 겉이 다르단다. 할아버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할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시며,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땀이 같은 대문고리와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할아버지 덕분에 5분만에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려고 발을 딛는 순간 아차하

고 떠오른 게 있었다. 그래서 열린 대문 밖에서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나 저만치 나아가버리신 할아버지를 따라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을 해야했기에 두 손을 가지런히 입가에 갖다대고 외쳤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께 감사할 일이 또 생겼다. 문득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들을 떠올려보았다.

‘대문을 통틀어 모든 것은 사람과 같이 속과 겉이 다르단다.’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도저히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만치 사라져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만 명안히 바라보지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난 지금 이순간에서야 이웃집 할아버지의 그 말과 그 뜻을 자세히 알 것 같다.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르듯,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겉과 속이 다르다.’

계속 이 내용만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다.

할아버지께서도 나와 같이 통일을 생각하신 것일까?’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모든 방법을 통틀어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일보다 오늘, 모래보다 내일로 빨리 통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 년이 걸리고, 십 년이 걸리고, 백 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위한 믿음, 배려, 사랑, 우정, 친절을 베푼다면 언젠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강산, 아니 백두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 방법만 써도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북한도 겉과 속이 다를 것이다. 겉으로는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속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원하고 설레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물며 손도 두개가 없으면 불편, 불안, 슬퍼하고, 다리도 두개가 없으면 힘이 들고, 팔도 두개가 없으면 많이 힘들 것이다. 그렇듯이 북한도 남한도 서로가 합하지 않으면 영원히 힘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마음 아파할 것이고, 슬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

로가 간절히 원하고, 보고싶어하는 이산가족들도, 같은 한 민족임에도 서로 한번도 얼굴 보고 지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는 만날 수 있고, 볼 수도 있겠지. 정말 그랬겠지?

5살 때, 아빠가 해준 말이 생각난다.

“아빠, 통일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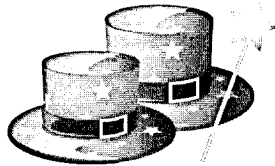
“응. 통일은 저기 멀리있는 높은 백두산있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합쳐서 한 가족, 한 나라가 되는거야.”

“그럼 그런 날이 언제 오는데?”

정말 궁금했던 질문. 기대됐던 대답,

“보연이가 백밤자고 나면...”

10살까지 아빠의 대답만을 믿고 살았는데 이젠 아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난 이미 통일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 사랑의 선으로...



역사는 흐른다.

●● 요즘 인터넷에서는 남한에선 보기 힘든 미인인 조명에 씨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무용수인 조명에 씨가 남한에까지 알려진 계기는 이효리 씨와 함께 CF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부터였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매우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국가적인 교류가 아닌 이런 일상적인 교류가 생겨서 북한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다는게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신기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다. 또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북한과 남한 어린이들이 만나 문제를 푸는 퀴즈대회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북한에서 하는 퀴즈대회를 빌려와 그 문제를 남한 어린이들이 푸는 것인데 문제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시기 조차도 다른 교육적 차이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땅만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두 동강나 버린 것이다.

난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북한과 남한이 평화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통일은 꼭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침체되느니 어찌니 하지만 그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코 앞만 내다 보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통일이 되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이 든다. 투자자의 요건 중 하나는 경제의 안전성인데 이렇게 분단 되어 있는 상황은 투자자들의 선택에 악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월드컵 때보다도 더 큰 국가적 이미지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정된 투자로 인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개발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으로 운송하던 물량이 값이 싸고 안전한 열차로 몰릴 것이다.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광수입도 많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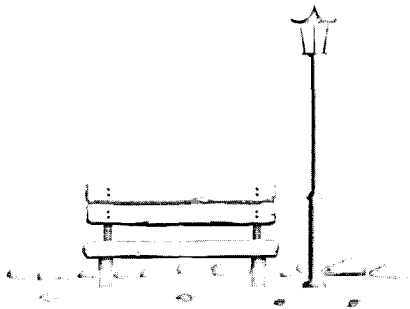
셋째,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 이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이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생떼같은 피붙이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잠 못 이룬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

넷째,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남한에는 평지가 많은 반면에 북한에는 산지가 많다. 그래서 남한에는 식량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은 상태이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텅없이 모자라는 식량문제와 지하자원이 없어 개발하지 못하는 남한의 문제가 서로 해결돼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방력이 크게 강화된다. 북한은 국가 예산에서 막대한 돈을 국방비로 지출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모두 휴전선에 대한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일본도 독도를, 중국도 간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없는 막대한 국방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시급히 추진하지 못하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인 사상적 대립과 국가 경제의 문제, 또한 국가의 대표자와 국기를 정하는 일,

교육과 언어의 차이와 같은 문제점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무서워 한 민족이 언제까지 두 나라로 살 수는 없다. 땅 위에 그어진 38선과 마음의 38선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이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민족이 서로 손에 손잡고 걸어왔던 반만년의 역사를 생각하며 떨어진 손을 다시 굳게 붙잡아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뚫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겪는 이 분단이 훗날에는 하나의 역사로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익숙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우리민족의 소원이자 염원인 통일이 되어 다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훗날 '이런 역사가 있었지...' 하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선의끝

●● 제주도에서 태어나 이날까지 쪽 제주도에서 살아오고 아직 제주도를 다 돌아다녀 보지도 못한 나에게 제주도 이외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나에게 지리상으로도 끝과 끝인 북한에 대한 생각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비단 나뿐만만이 아닐 것이다. 같은 핏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보다 더욱 가기 어렵고 교류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민족임에도 추구하고 있는 사상마저 다른 그곳. 그곳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나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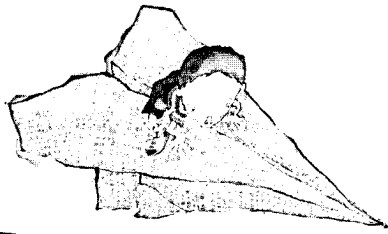
그런 내가 북한을 처음으로 느껴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에서였다. 흐린 날씨로 인해 볼 수 있는 날보다 볼 수 없는 날이 더 많다는 설명을 듣고 바라본 그곳은 내리는 비로 인해 짙은 회색 빛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단지 북한이라는 곳이 있는 쪽을 바라 봤을 뿐인데도 저곳에 나와 똑같은, 그러나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있다 생각하니 우습게도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느껴졌다. 그 땅에 발을 붙인 것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는 그곳이 북한이라고 인지하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 몸 어느 한 귀퉁이가 딱딱해질 만큼의 아련한 그리움... 온통 회색 빛이었던 영상과 그저 안개뿐이었던 기억 뿐, 흐릿하기만 한데 놀랐던 순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험

해 본 적도 없는 내가 일순간이나마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웠을 정도인데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존재하는 이산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지 아마 평생이 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같은 민족임에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네들이 사는 먼 풍경에 그림고 눈시울을 붉혀야 하는 분단이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행해졌던 무력통일, 흡수통일 등은 그들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또한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되느냐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공식 표명 상으로 남한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이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무력통일이지만 타국의 영향이나 국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통일 정책에서부터 엇갈리는 상황은 통일이 더욱 늦추어지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통일 후의 혼란가중과 경제악화와 부실한 북한경제를 남한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은 통일 뒤에 우리를 가장 움찔하게 만드는 문제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란 넘어야할 장벽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북한이 우리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면에서 활발히 교류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가며 통일을 바라 봐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국민 모두 올바른 통일 관을 가지고 화합하여 대책을 세운다면 통일이 되어서도 혼란이 줄 것이며 북한의 경쟁력 역시 부강한 뒤 통일을 이룩한다면 통일이 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토록 어렵게 통일을 이룬 뒤에도 통일된 사상과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인 위상과 경제적 발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이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화합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종내에는 평화적 통일과 함께 국가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내 또래의 주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부정적이거나 관심없어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심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지난 역사를 반성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생각과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진취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미하게 남아버린 옛 기억을 더듬으며 마르지 않을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산가족들에게 하루빨리 따스한 봄볕과도 같은 기쁨의 날이 다가 오기를 바란다.





내 마음속의 작은소망

2005 제10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산문집

초판인쇄일 2005년 9월

초판발행일 2005년 9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 · 인쇄 험프리트

전화 02) 2273-7142
